

전략연구 2011 - 11

고용정책 개선을 위한 지역노동시장 분석 연구

신동호 · 이상호 · 최효미 · 윤미례 외

발 간 사

지역에 기반한 고용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지역의 산업 및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도 전략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8년 고용노동부는 지역고용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들어서는 지역 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맞춰 『지역 일자리공시제』를 도입('10.7.21)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 단위에서의 고용촉진 정책들의 시행으로 인해서 지역의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역노동시장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이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통계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역고용통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지역노동시장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지역 노동시장의 특징 및 차이점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근거를 바탕으로 한(evidence-based) 노동시장분석을 통하여 중요점에 대한 발견(factor finding)과 이를 토대로 고용정책 수립 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고용통계 구축, 둘째, 지역 노동시장권 설정 및 노동수급구조, 그리고 노동-수급간 미스매치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셋째, 지역 고용정책의 과제를 도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들이 충청남도의 고용정책에 바로 적용되기에는 좀 더 세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시군단위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본 연구가 충청남도 고용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노동연구원 이상호 박사, 최효미·윤미례 책임연구원, 그리고 우리 연구원의 지역경제연구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1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박진도

연구요약

본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지역은 행정구역과는 별도의 지역노동시장권이 존재하지만 다수의 지역들은 시군 행정단위가 그 자체로 독립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통합된 형태의 노동시장도 그 범위가 크지는 않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범위는 인구학적 특성 및 고용형태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고 성별·연령·교육수준·숙련·산업특성·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의 공급 및 수요, 노동력의 매칭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각 정책 집단별로 차별화된 지역고용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우선 고학력 청년층의 타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단순·저숙련 일자리의 양적 팽창에 의존하기 보다는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전반적으로 낮고 상대적 근로조건도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의 결혼·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 고령화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요컨대 고학력·청년층·고숙련 노동력을 유인하는 전략과 여성·고령자·저숙련 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충남은 아산·천안을 중심으로 당진·서산으로 연결되는 북부산업 벨트와 연기·공주·논산·계룡·금산으로 이어지는 접경지역에 산업 및 노동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나머지 지역들은 농림어업·고령자·저숙련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서 지역내 불균형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에도 도청소재지 이전, 전략산업 육성, 각종 인프라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노력들이 노동력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유인이 될 수도 있다. 즉, 산업정책이나 인프라 확장만으로는 시군 간 불균형 발전을 완화시킨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광역지자체가 가능한 지역성장의 과실이 낙후지역으로도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패키지를 구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군차원에서는 쇠퇴지역의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소득과 복지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의 모범사례를 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향후 노동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부문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충남도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정책이 필요하다. 충남지역의 인력수요가 타 지역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내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훈련 정책들이 필요하다. 지역의 대학·연구소, 노사단체 등의 주체들이 향후 인력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과 직종의 인력수요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청년층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지역의 대학들, 특히 폴리텍이나 전문대학 등 기능인력의 양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 이들의 욕구와 필요를 잘 잘 반영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배출된 인력들이 원활하게 산업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용지원 서비스의 개선,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력채용 노력과 및 고용조건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고용센터와 같은 고용 서비스 전달기관들의 역할과 기능도 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충남의 경우,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다수의 낙후지역을 소수의 지역고용센터가 관할하고 있어서 고령자·장애인·기혼 여성 등 상대적으로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고용서비스 이용에 더욱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해 고용지원 서비스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가능한바 첫째, 지역고용센터의 출장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역고용센터를 집중화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러한 접근의 근본적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시군 혹은 충남도에서 직접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이를 지역고용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3. 연구범위 및 방법	3
1) 고용관련 통계 DB 구축 범위 및 방법	3
2) 지역 노동시장 분석범위 및 방법	3
4. 연구자료	5
5.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5
제2장 지역고용통계 현황 및 구축	6
1. 고용통계와 지역고용통계	6
1) 지역고용통계의 개념적 정의	6
2) 충남 고용통계 현황	7
2. 충남 지역고용통계 구축	9
1) 구축목적	9
2) 지역고용통계 구축기준	9
3) 충남 고용통계 구축내용	11
제3장 충남 지역노동시장권 분석	17
1. 분석배경	17
2. 분석방법과 자료의 구성	18
1) 핵심개념과 척도	18
2) 지역노동시장권의 도출과정	20
3) 자료의 구성	21
3. 분석 결과	22
1) 전체 노동시장권 분석결과	22
2) 성별, 연령별, 학력별 분석결과	25
3) 고용형태 및 산업별, 직업별 분석결과	26
4) 도시세력권 및 고용센터 관할구역관의 관계	28
4. 소결	30

제4장 충남 지역노동 공급분석	32
1. 분석내용 및 자료	32
2. 충남의 노동공급 구조	33
1) 인구규모 및 수준	33
2) 생산가능인구	38
3) 경제활동인구 추이	42
4) 고용상황 추이	47
5)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64
3. 청년층 및 여성의 노동공급 구조	68
1) 충남의 청년층 노동공급 구조	68
2) 충남의 여성 노동시장 분석	77
4. 소결	87
제5장 충남 지역노동 수요분석	89
1. 분석내용 및 자료	89
2. 충청남도의 경제력 및 노동수요 개요	89
1) 충남의 지역총생산	89
2)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91
3) 취업자 추이	98
4) 취업형태별 고용구조	103
5) 산업별 고용구조	104
6) 직종별 고용구조	106
7) 실업자 추이	108
8) 타지역 통근취업자 및 교육정도·전공계열별 취업자구조	114
3. 산업구조 분석	120
1) 산업구조 변화	120
2) 산업구조 분석결과	121
4. 주요 근로조건 분석	125
1) 고용형태의 구성	125
2)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130
5. 소결	133
제6장 충남 지역노동시장 수요-공급간 미스매치 분석	136
1. 분석내용 및 자료	136

2. 미스매치의 추정 결과	138
1) 충남지역 지역별 미스매치	138
2) 충남지역 직종별 미스매치(시군별)	140
3) 충남지역 임금별 미스매치(시군별)	142
4) 충남지역 학력별 미스매치(시군별)	144
3. 구직자 미스매치 분해	147
1) 시군별 구인배수 추이	147
2) 충남지역 구직자 분해	148
3) 충남지역 시군별 구직자 분해	149
4. 충남 사업체고용동향 조사	154
1) 조사개요	154
2) 분석결과	155
5. 소결	165
제7장 요약 및 정책제언	169
1. 주요 연구결과	169
2. 정책제언	171
3. 연구의 한계 및 과제	172
【참고문헌】	174
<부록 및 부표>	176

표 목 차

<표 II-1> 국가승인 고용통계(총 27종) 현황	6
<표 II-2> 충남 지역고용통계 현황(2010년 6월 현재)	7
<표 II-3> 지역별 고용조사 개요	11
<표 II-4> 시군단위 신규구축 항목	12
<표 II-5>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조사 개요	13
<표 II-6> 시군단위 신규구축 항목	14
<표 II-7>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조사 개요	15
<표 II-8> 시군단위 신규구축 항목	16
<표 III-1> 통근행렬 분석에 사용된 표본(가중치 적용)	22
<표 III-2> 통근행렬 분석결과: 전체 취업자	24
<표 III-3> 통근행렬 분석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26
<표 III-4> 통근행렬 분석결과: 고용형태 · 산업 · 직업별	27
<표 III-5>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센터 관할구역	30
<표 IV-1> 충남시군별 인구규모(주민등록인구기준)	33
<표 IV-2> 충남시군별 성별주민등록인구(시지역)	34
<표 IV-3> 충남시군별 성별주민등록인구(군지역)	35
<표 IV-4> 충남시군별 연령계층별 주민등록인구(시지역)	36
<표 IV-5> 충남시군별 연령계층별 주민등록인구(군지역)	37
<표 IV-6> 충남시군별 생산가능인구	38
<표 IV-7> 충남시군별 성별 생산가능인구(시지역)	39
<표 IV-8> 충남시군별 성별 생산가능인구(군지역)	40
<표 IV-9> 충남시군별 경제활동인구	43
<표 IV-10> 충남시군별 성별 경제활동인구(시지역)	43
<표 IV-11> 충남시군별 성별 경제활동인구(군지역)	44
<표 IV-12> 충남시군별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시지역)	45
<표 IV-13> 충남시군별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군지역)	46
<표 IV-14> 충남시군별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 실업률(시지역)	47
<표 IV-15> 충남시군별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 실업률(군지역)	48
<표 IV-16> 충남시군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시지역)	49

<표 IV-17> 충남시군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군지역)	50
<표 IV-18> 충남시군별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시지역)	51
<표 IV-19> 충남시군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군지역)	52
<표 IV-20> 충남시군별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시지역)	54
<표 IV-21> 충남시군별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군지역)	55
<표 IV-22> 충남시군별 성별 고용률(시지역)	57
<표 IV-23> 충남시군별 성별 고용률(군지역)	58
<표 IV-24> 충남시군별 연령계층별 고용률(시지역)	59
<표 IV-25> 충남시군별 연령계층별 고용률(군지역)	60
<표 IV-26> 충남시군별 교육정도별 고용률(시지역)	62
<표 IV-27> 충남시군별 교육정도별 고용률(군지역)	63
<표 IV-28> 충남 고용동향 총괄	66
<표 IV-29> 2010년 충남시군별 주요고용지표(경제활동인구총괄)	67
<표 IV-30> 전국:충남지역 청년층 인적특성(2010년)	72
<표 IV-31> 충남지역 대학졸업생의 취업시 지역 이동	76
<표 IV-32> 지역별 여성의 인적 특성(2010년)	78
<표 IV-33> 지역별 취업 여성의 산업별·직종별 현황(2010년)	79
<표 IV-34> 여성 취업자(20-39세)의 일자리 특성별 현황(2010년)	82
<표 IV-35> 여성 취업자(45세 이상)의 일자리 특성별 현황(2010년)	83
<표 IV-36> 비경제활동 여성의 비구직 사유(2010년)	84
<표 IV-37> 시군별 여성 노동시장 참여현황(2010년)	85
<표 IV-38> 지역*인적특성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현황(2010년)	86
<표 V-1> 16개 시도별 GRDP 및 1인당 GRDP	90
<표 V-2> 충남지역 시군별 GRDP(2005년 기준가격)	91
<표 V-3> 충남지역 시군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92
<표 V-4>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비중	93
<표 V-5> 시군별 사업체 종사자 수의 변화	94
<표 V-6> 2009년 사업체 종사자 수의 비교	95
<표 V-7>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수와 피보험자 수(2009. 12월 기준)	96
<표 V-8> 충남지역 산업단지 수 및 고용규모	97
<표 V-9> 충남시군별 취업자	98
<표 V-10> 충남시군별 성별 취업자(시지역)	99
<표 V-11> 충남시군별 성별 취업자(군지역)	100

<표 V-12> 충남시군별 타지역 통근 취업자	117
<표 V-13> 2010년 충남시군별 교육정도별 전공계열별 취업자(고등학교 및 전문대) ..	118
<표 V-14> 2010년 충남시군별 교육정도별 전공계열별 취업자(대학교 및 대학원)	119
<표 V-15> 전국 및 충남의 산업구조 변화	121
<표 V-16> 제조업 종사자수 변화: 광업·제조업조사	124
<표 V-17> 16개 시도별 고용형태의 구성(2010년)	126
<표 V-18> 충남지역 취업자의 시군별 고용형태 구성(2010년)	127
<표 V-19> 충남지역 취업자의 시군별 산업구성	128
<표 V-20> 충남지역 취업자의 시군별 직업구성	129
<표 V-21> 충남지역 취업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	130
<표 V-2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	131
<표 V-23> 임금근로자의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	132
<표 V-24> 임금근로자의 직업별 월평균 임금	133
<표 VI-1> 지역별 미스매치	139
<표 VI-2> 충남지역 지역별 미스매치	139
<표 VI-3> 직종별 미스매치 추정	142
<표 VI-4> 임금별 미스매치 추정	143
<표 VI-5> 학력별 미스매치 추정	145
<표 VI-6> 학력별 미스매치-학력구간 조정 후	146
<표 VI-7> 충남지역 노동시장별 구인배수	148
<표 VI-8> 충남지역 구직자 분해	148
<표 VI-9> 충남지역 시군별 구직자 분해-구조적 실업을 직종으로 한정	150
<표 VI-10> 충남지역 시군별 구직자 분해-구조적 실업을 임금으로 한정	151
<표 VI-11> 충남지역 시군별 구직자 분해-구조적 실업을 학력으로 한정 (학력구간 조정)	153
<표 VI-12> 충남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현황	155
<표 VI-13> 충남 사업체 고용동향 조사 규모별 사업체수	156
<표 VI-14> 지역별 고용조사-광업 및 제조업 산업을 희망하는 충남 실업자	157
<표 VI-15> 충남지역 직종별 채용계획인원	158
<표 VI-16> 충남지역 규모별 채용계획인원	159
<표 VI-17> 지역별 2011년도 채용계획인원비율 및 2010 실업인원비율 비교	160
<표 VI-18> 2011년도 상반기 직종별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161

<표 VI-19> 2011년 상반기 직업별 학력별 구인인원 및 2010년 9월 기준 실업인원	162
<표 VI-20> 지역별 학력별 구인인원비율과 실업인원비율	163
<표 VI-21> 구인경로	164
<표 VI-22> 구직경로	165
<표 VI-23> 구조적 미스매치 추정치가 큰 지역(2010년 기준)	167
<표 VI-24> 지역별 미스매치 추정치(2010)	167
<표 VI-25> 지역별 구직자 분해 요약(2010년 기준)	168
<표 VI-26> 지역별 구직자 분해 결과(2010년 기준)	168
<부표 1> 충청남도 통근행렬: 전체 취업자	180
<부표 2> 충청남도 노동수급 자급률 분석 : 전체표본	181
<부표 3> 충청남도 노동수급 자급률 분석 : 비농업 부문 16-64세 연령층	182
<부표 4> 충청남도 노동수급 자급률 분석 : 남성	183
<부표 5> 충청남도 노동수급 자급률 분석 : 청년층(19세이상, 35세 미만)	184
<부표 6> 충청남도 노동수급 자급률 분석 : 고학력층(전문대 이상)	185
<부표 7> 충청남도 노동수급 자급률 분석 : 임금근로자	186
<부표 8> 충청남도 노동수급 자급률 분석 : 제조업 종사자	187
<부표 9> 충청남도 노동수급 자급률 분석 : 고속편층	188
<부표 10> 주요고용지표(전국 vs 충남) : 2000년~2010년	189
<부표 11> 충남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 2008년~2010년	190
<부표 12> 충남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 2008년~2010년	191
<부표 13> 충남 시군별 산업별 취업자수 : 2009년~2010년	192
<부표 14> 충남 시군별 산업별 취업자 비중 : 2009년~2010년	193
<부표 15> 시도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자 : 2010년	194
<부표 16> 시도 연령별 취업자, 실업자 : 2010년	196
<부표 17> 시군별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자 : 2010년	198
<부표 18> 시군별 연령별 취업자, 실업자 : 2010년	200
<부표 19> 20-39세 여성의 연령대별 혼인상태 : 2010년	202
<부표 20> 공주·부여·연기·보령 직종별 실업비율과 구인비율	203
<부표 21> 연기·논산·공주 임금별 실업비율과 구인비율	204
<부표 22> 계룡·당진·연기 학력별 실업비율과 구인비율- 학력구간 조정후	204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목적	2
[그림 I-2] 충남 지역노동시장 구조의 분석방법	4
[그림 II-1] 충남 지역고용통계 구축기준	10
[그림 III-1] 지역의 노동수요와 공급 구성	19
[그림 III-2] 지역노동시장의 도출과정	20
[그림 III-3] 충남지역 취업자의 통근행렬 예시	20
[그림 III-4] 통근행렬로부터 산출된 지역노동시장권 지표들	21
[그림 III-5] 충남지역 노동시장권 분석결과 : 전체취업자	23
[그림 III-6]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따른 권역분석	29
[그림 IV-1] 충남시군별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41
[그림 IV-2] 충남 성별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41
[그림 IV-3] 충남시군별 교육정도별 생산가능인구	42
[그림 IV-4] 충남시군별 경제활동참가율	49
[그림 IV-5] 충남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53
[그림 IV-6] 충남 성별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	56
[그림 IV-7] 충남 시군별 고용률	56
[그림 IV-8] 충남지역 시군의 산업별 종사자 비중(2010년)	61
[그림 IV-9] 충남 성별 비경제활동 사유	65
[그림 IV-10] 시군별 비경제활동 사유	65
[그림 IV-11] 시도 연령별 주요 고용지표(2010년)	68
[그림 IV-12] 시도별 청년층(15~29세) 노동시장 참여현황(2010년)	69
[그림 IV-13] 시군별 청년층(15~29세) 노동시장 참여현황(2010년)	70
[그림 IV-14] 시군별 청년층(15~29세) 취업 현황(2010년)	71
[그림 IV-15] 청년(15~29세) 비경제활동 사유(2010년)	73
[그림 IV-16] 청년(15~29세) 취업자 특성(2010년)	74
[그림 IV-17] 청년(15~29세) 실업자의 일자리 희망(2010년)	75
[그림 IV-18] 지역별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2010년)	77
[그림 IV-19] 연령대별 여성의 고용률 현황(2010년)	79

[그림 IV-20] 20~39세 여성의 혼인상태별 고용률 (2010년)	80
[그림 IV-21] 20~39세 기혼 여성의 지역별 비경활 사유(2010년)	81
[그림 IV-22] 시군별 여성 고용률 비교(2010년)	85
[그림 V-1]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감률: 2009/2000년	93
[그림 V-2] 연령별 취업자	101
[그림 V-3] 교육정도별 취업자	102
[그림 V-4] 종사자지위별 취업자	104
[그림 V-5] 산업별 고용구조	105
[그림 V-6] 직종별 고용구조	107
[그림 V-7] 충남 2010 시군별 실업률 및 증감(2008년 대비)	108
[그림 V-8] 실업자의 산업별 일자리 희망	110
[그림 V-9] 2010년 실업자의 직종별 일자리 희망	111
[그림 V-10] 실업자의 구직임금	112
[그림 V-11] 실업자의 이직이유	113
[그림 V-12] 실업자의 구직기간	114
[그림 V-13] 전국 및 충남의 산업구조변화	120
[그림 V-14] 충남 제조업별 비중 및 입지계수의 증감: 2001-2009년	123
[그림 VI-1] 직종별 미스매치 추정치(M_1)	140
[그림 VI-2] 직종별 미스매치 추정치(M_2)	141
[그림 VI-3] 임금별 미스매치 추정치(M_1)	143
[그림 VI-4] 임금별 미스매치 추정치(M_2)	144
[그림 VI-5] 학력별 미스매치 추정치(M_1)	147
[그림 VI-6] 임금별 미스매치 추정치(M_2)	147
[그림 VI-7] 충남지역 구직자 분해	149
[그림 VI-8] 충남지역 시군별 구직자 분해-구조적 실업을 직종으로 한정	150
[그림 VI-9] 충남지역 시군별 구직자 분해-구조적 실업을 임금으로 한정	152
[그림 VI-10] 충남지역 시군별 구직자 분해-구조적 실업을 학력으로 한정 (학력구간 조정)	153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한 것은 EU를 비롯한 OECD국가들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노동시장정책이 한계를 노정하면서 부터이다. 이에 따라 그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탈중앙화된 지역단위 노동시장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왔다. 관련하여 OECD LEED(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는 최선의 지역발전전략으로 지역단위에서 노동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고용정책의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고용정책의 핵심은 노동수요측면에서는 기업이 정신을 고취시키고, 신규 기업의 역내 유인 및 육성이 요구되며, 노동공급측면에서는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재진입을 진작하는 지역단위(area-based)의 고용정책 구축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최근 지방정부, 지역의 시민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지역단위의 일자리 사업과 고용정책 수립을 시도하는 한편,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최근의 고용정책은 중앙에서의 국가 지배적 인력공급 정책에서 현장 중심인 지역중심 고용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의 산업 및 고용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고용안정 도모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지역에 기반한 고용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지역의 산업 및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도 전략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 고용노동부는 지역고용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들어서는 지역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맞춰 『지역 일자리공시제』를 도입(10.7.21)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지역 단위에서의 고용촉진 정책들의 시행으로 인해서 지역의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역노동시장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통계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역고용통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지역노동시장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수행되어왔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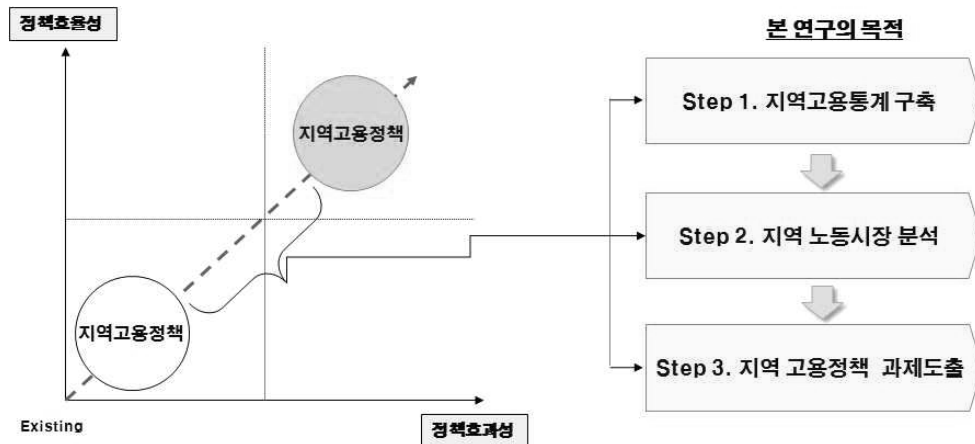
충남의 경우 몇몇 연구자들이 지역에 대한 노동시장 연구를 일부 수행했으나 자료의 부

즉 등으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에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지역의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과학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충남도가 체계적인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현재, 지역단위 고용통계 특히 시군단위 통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지역 노동시장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지역 노동시장의 특징 및 차이점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근거를 바탕으로 한(evidence-based) 노동시장분석을 통하여 중요점에 대한 발견(factor finding)과 이를 토대로 고용정책 수립 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목적



이를 위해 ① 지역고용통계 구축, ② 지역 노동시장권 설정 및 노동수급구조, 그리고 노동-수급간 미스매치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③ 지역 고용정책의 과제를 도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도내 개별 시·군별로 고용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구득한 원자료를 정책목적에 부합하도록 가공하고자 한다. 둘째, 이를 토대로 지역단위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수요 및 공급측면에서 심도 있는 실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셋째, 지역노동시장 분석결과를 토대로 충남의 주요한 고용정책 과

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1) 고용관련 통계 DB 구축 범위 및 방법

자료구축의 지역범위는 충청남도 16개 시·군으로 하되 단, 전국과의 상대적 수준 비교를 위해 구득 가능한 전국자료 포함한다. 자료의 유형은 노동의 수요 및 공급측면에서 통계를 구축하게 되며, 주요 구득대상 자료는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자료(2008~2010), 고용노동부 지역고용보험 DB 및 Work-Net 자료, 고용정보원자료,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 등이 해당된다. 구축방법은 1단계로 고용통계 생산기관 및 기관별 조사항목표 검토 후 원자료를 구득한 후 2단계로 16개 시·군별로 정책목적에 부합하도록 가공 및 유형화(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로 자료구축)작업을 수행한다.

2) 지역 노동시장 분석범위 및 방법

충남 지역노동시장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그림 1-2]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차원 ① 노동시장권 분석, ② 노동공급분석, ③ 노동수요분석, ④ 노동시장 미스매치 분석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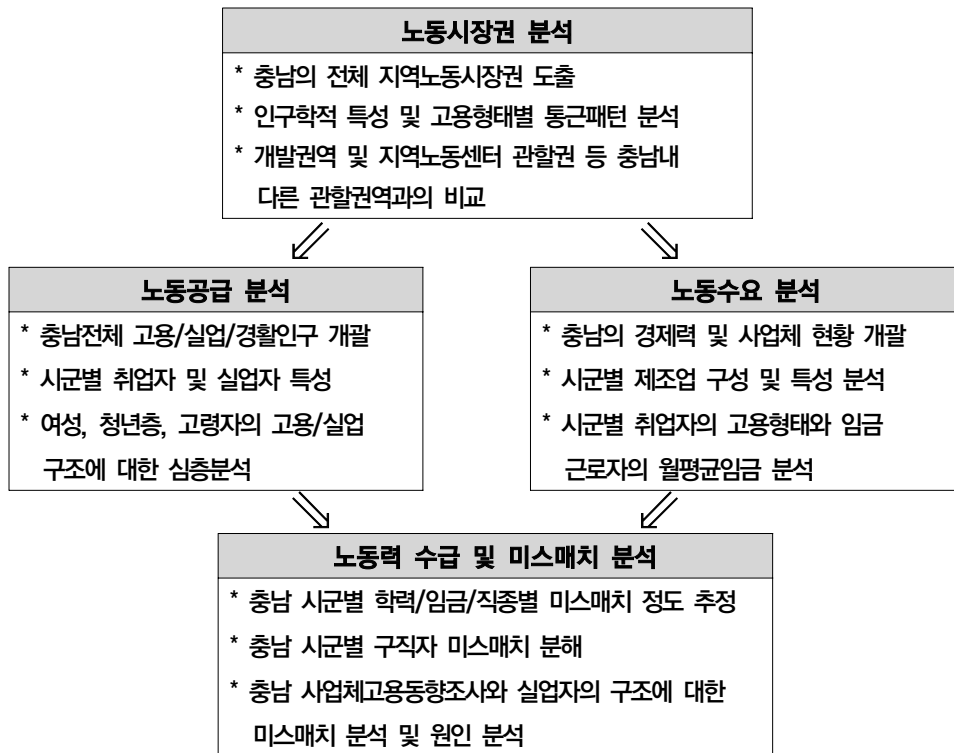
첫 번째 연구과정은 충남의 ‘지역노동시장권’ (local labor market areas: LLMA)을 도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0년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취업자의 ‘시군별 거주지-근무지’ 자료를 이용하여 충남의 지역노동시장이 몇 개로 구성되었는지 분석한 후, 전체 지역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인구학적 특성 및 고용형태, 그리고 산업 특성별로 노동시장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함께 파악하게 된다. 또한 도출된 노동시장권이 충남도의 경제권역, 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지역고용센터의 관할권역 등과 비교할 때 어떤 유사성과 차별성을 갖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노동시장권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도출된 노동시장권은 노동공급 및 수요측 분석, 그리고 노동수급 분석에 시군 행정단위와 함께 기초 지역단위로 사용된다.

두 번째 노동공급 측면의 분석에서는 실업, 고용, 경제활동참가 등의 지표에 초점을 맞추어 충남의 노동 공급구조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서 2008-2010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또한 타 지역과의 비교, 시간에 따른 변화, 인적 특성 및 일자리 특성에 따른 차이 등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충남의 노동공급 구조를 다각적으로 다루게 된다.

세 번째 노동수요 측면의 분석에서는 산업별 및 시군별 종사자 규모와 구성, 그리고 근로

조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노동수요의 규모 및 구성은 지역의 전체적인 경제력, 산업구조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충남의 GRDP/사업체 수/종사자 수 등의 기본 현황을 살펴보고, 충남지역의 16개 시군별 산업 구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때 각 지역의 산업 특화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입지계수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근무지에 기초한 시군별 고용형태 및 월평균 임금을 비교 분석하게 된다.

<그림 1-2> 충남 지역노동시장 구조의 분석방법



끝으로 노동력 수급 및 미스매치 구조 분석에서는 충남지역 노동시장의 수요-공급간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를 분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충남지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정도를 파악하고 구조적 미스매치 원인을 분해코자 한다. 또한, 구직자 분해를 통해 미스매치의 내막을 살펴보고, 수요/공급 조사자료를 통하여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워크넷의 구인/구직 자료와 충남 사업체고용동향 자체 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4. 연구자료

충남 지역노동시장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는 통계청 및 고용노동부 등에서 제공되는 집계 자료 및 원시자료, 그리고 본원과 리서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자료를 이용한다. 우선 집계자료로는 국가통계포털(KOSIS) 및 충청도청 홈페이지에서 16개 시도 혹은 시군별로 제공되는 고용·인구·노동·임금·산업·지역계정 등의 자료를 이용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구인/구직 자료인 워크넷과 고용보험 DB 집계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고용현황 자료 등을 활용한다. 원시자료로는 현재 시군단위의 대표성을 갖도록 설계된 유일한 고용관련 조사인 2008-2010년 『지역별고용조사』 자료와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신규노동력 수요 파악을 위해서 본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2011년 충남 사업체고용동향조사 자료(50인 이상 제조업체 대상)도 함께 활용한다.

5.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본 연구가 갖는 가장 큰 의의는 충남이라는 특정 광역단위를 타겟팅하여 지역노동시장권 도출부터 노동공급과 수요, 그리고 미스매치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틀 내에서 노동시장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자료가 이용가능한 범위에서 일관되게 시군 기초 단위에서의 분석결과를 최대한 도출하고자 했던 점에서도 차별성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그 구조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던 광역지역내의 하위 노동시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지역차원의 고용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지역고용통계 현황 및 구축

1. 고용통계와 지역고용통계

1) 지역고용통계의 개념적 정의

고용통계는 통계법의 적용을 받는 다양한 통계 중 한 나라의 노동력 규모와 취업자 및 실업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용통계는 노동수요가 갖는 파생수요로서의 특징으로 인하여 경제 산업의 구조적 측면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또한 동태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기초통계라 할 수 있다.

<표 II-1> 국가승인 고용통계(총 27종) 현황

No.	통 계 명	조사대상	작성부문	지정여부	
1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사업체 (수요측면)	고용구조	일반	
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지정	
3	장애인의무고용현황		고용동향	일반	
4	고령자고용현황				
5	방송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				
6	여성관리자패널조사				
7	사업체노동력조사*				
8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9	사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10	이공계인력국내외유입및유출실태조사				
11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가구 (공급측면)	고용구조	일반	
12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13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조사				
14	청년패널조사				
15	한국노동패널조사				
16	경기도시군별고용조사		고용동향		
17	외국인근로자고용동향				
18	경상남도창원시경제활동인구조사				
19	군산시경제활동인구조사				
20	전주시경제활동인구조사				
21	강원도취업여성실태조사				
22	고용보험통계				
23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4	경제활동인구조사(지역별고용조사)				
25	사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지정	
26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	개인 및 사업체	일반		
27	장애인구인구직및취업동향				

* 2011년 사업체고용동향조사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를 통합하여 사업체노동력조사로 변경

한편, 지역통계는 전국단위의 통계와 대칭적 의미로 국가의 단위행정구역별로 작성 또는

생산되는 통계로서 지역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통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 고용통계는 통계법의 적용을 받는 관련 통계 중 전국단위의 통계와 대칭적 의미로 단위 행정구역별로 노동력 규모와 취업자 및 실업자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 또는 생산되는 통계를 지칭한다.

2) 충남 고용통계 현황

2011년 현재, 총 27종의 국가승인 고용통계가 생산되고 있으며, 이 중 시·도 또는 그 이하의 행정구역단위까지 제공하는 통계는 총 17종이다. 지역 고용통계 17종 중 특정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직접 조사·작성하는 통계를 제외하면, 충남지역 고용관련 통계는 총 11종으로 다음과 같다.

<표 II-2> 충남 지역고용통계 현황(2010년 6월 현재)

통 계 명	조사주기	조사목적	공표범위	작성체계	생산기관
지역 별 고용 조사	분기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생산·제공	시군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고 령 자고 용 현황	1년	고령자 고용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현황을 조사	시도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사업주→지방노동청→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평등정책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고용보험통계	매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과 피보험자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고용보험 정보 및 고용동향 정보 제공	전국	신고인→지방노동관서→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개발본부 고용조사분석센터
고 용 형 태 별 근로실태조사	1년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주를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사회보험 등 각종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사업체 특성 및 인적·속성별로 파악하여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전국	조사원→노동부 지방관서→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노동시장분석과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조사	1년	대학졸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업(직장)이동경로를(추적)조사하여 교육-노동시장간 신뢰성 있는 인력수급정보 제공 및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도모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시도	전문면접원→전문조사회사(한국리서치)→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팀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개발본부 고용조사분석센터

1) 2011년 사업체고용동향조사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를 통합하여 사업체노동력조사로 변경

사업체 노동력조사 ¹⁾	매월	고용,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하여 매분기의 변동추이를 파악하여 임금, 고용 등 노동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	시도	조사원→고용노동부 지방관서→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 정책실 노동시장 정책관 노동시장 분석과
기업체장애인 고용실태조사	2년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실태와 고용관련 요인들을 파악하여 장애인고용 정책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시도	확률표본-면접조사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고용패널 팀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실태 조사	1년	산업기술인력의 현원 및 부족인력 현황을 업종별, 지역별, 학력별 수준에서 파악함으로써 산업기술인력의 수급전망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	시도	확률표본-면접조사	지식경제부 산업 경제실 산업경제 정책관 산업기술 기반팀
외국인근로자 고용동향	매월	고용허가제에서의 외국인근로자 취업 추이를 파악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 도입·관리 및 인력수급의 기초자료로 활용	전국	고용지원센터(지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대행·취업교육기관) → EPS의 원 시자료 정리 및 관리 (한국고용정보원) → EPS상에서 관련현황 확인(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 정책실 인력수급 정책관 외국인인 력정책과
워크넷구인구 직및취업동향	매월	공공취업알선기관을 이용하는 구인/구직 및 취업자의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노동시장 정보 및 고용동향 정보제공	시도	구인/구직자→공공 취업알선기관→한국 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개발본부 고 용조사분석센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반기	사업체의 <직무내용별> 현원,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등을 파악하여 인력수요 동향을 파악	시도	노동부 지방관서 담 당직원 및 임시조사 원→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노동시장분석과

이상의 지역고용통계 11종 중 시군단위로까지 구득가능한 통계는 지역별고용조사와 고용보험 통계 및 워크넷 구인구직취업동향 자료이다. 다만, 고용보험 및 워크넷구인구직취업동향 통계는 현재, 대전지방노동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대전·충청고용동향지에서 발표하고 있는 항목에 국한하여 시군단위로까지 관련통계 구득이 가능하다. 이외의 고용통계 8종은 시군단위로까지 구득이 불가능한바,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고령자고용동향은 방침상 공개불가이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전국표본을 통한 조사로 시도 또는 시군통계가 무의미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와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그리고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는 시도표본을 통한 조사로 통계조사 설계상 시군통계가 무의미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는 시도코드로만 데이터가 작성되어 시군통계가 구득불가한 실정이다.

되었으며, 지역별 고용정책 수립·시행·평가를 위한 시·군·구 지역별 고용통계의 필요성에 따라 2011년 5월부터 신설되어 연 2회 조사를 실시함

2. 충남 지역고용통계 구축

1) 구축목적

지역단위의 고용통계를 구축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군단위 고용의 특징 및 차이점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고용정책 수립 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 고용과 관련하여 현재 어떤 통계가 있고, 어떻게 활용가능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핵심적 신호(signal)역할을 하는 지역고용통계를 정책목적에 부합하도록 가공 및 재구성함으로써 기존 취약한 지역 고용통계의 양적 확충을 도모하고 더불어 통계상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한다. 셋째, 구축된 고용통계를 토대로 시·군단위 고용실태에 대한 중요점 발견(factor finding)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역고용통계 구축기준²⁾

(1) 정확성(Accuracy)

정확성은 지역 고용통계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여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기준이나, 동 연구에서는 고용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 승인통계를 구득·활용하게 된다.

(2) 관련성(Relevance)

관련성은 각 경제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고용지표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으로 충남도는 물론 지역경제 유관기관, 학계, 기업, 가게 등이 필요로 하는 세분화된 통계를 제공하게 된다.

(3) 시의성/적시성(Timeliness)

시의성/적시성은 적절한 통계의 작성주기 및 공표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나, 동 연구에서는 고용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기준을 고려하여 구축하기 어려운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4) 접근가능성/명확성(Accessibility)

접근가능성/명확성은 다양한 통계 수요자들의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준으로 지역 고용통계에 대한 일반인, 정책입안자, 연구자 등이 쉽게 접근할 있도록 향후 도 홈페이지 활

2) OECD가 통계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권고하는 국제적 기준

용 및 고용동향지를 작성·배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5)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비교가능성은 통계자료의 수집과정에서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단순한 행정구역별 구분뿐만 아니라 지역노동시장권(Local Labour Market Areas, LLMA)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지역권을 충남도 및 시·군단위로만 국한하여 통계를 제공하게 된다.

(6) 일관성(Coherence)

일관성은 통계조사 및 편제방법상 일관성을 유지해야하는 기준이나, 동 연구에서는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기준을 따르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광역시도간 비교 및 충남 내 각 시·군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계를 구축하게 된다.

<그림 II-1> 충남 지역고용통계 구축기준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정확성 (Accuracy)	지역 고용통계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여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기준	통계생산이 아니므로 동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승인 통계 구축·활용
관련성 (Relevance)	각 경제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고용지표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	학계의 의견수렴·반영
시의성/적시성 (Timeliness)	적절한 통계의 작성주기 및 공표시기를 결정하는 기준	통계생산이 아니므로 동 기준을 고려치 않음
접근가능성/명확성 (Comparability)	다양한 통계 수요자들의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준	향후 고용동향분석자료 작성·배포(대전충청 고용동향지와 차별화 필요)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통계자료의 구축과정에서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	(단기적) 시군단위 통계구축 (장기적) 지역노동시장권 고려
일관성 (Coherence)	통계조사 및 편제방법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준	통계생산이 아니므로 동 기준을 고려치 않음

3) 충남 고용통계 구축내용

(1) 지역별 고용조사 개요 및 구축내용

<표 II-3> 지역별 고용조사 개요

통계명칭	지역별고용조사
작성기관	통계청
작성주기	1년
작성목적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생산제공, 시도별 고용구조 분석자료 및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를 생산제공
조사내용 (작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규모 : 표본조사 •조사단위 : 개인, 가구 •조사범위 : 조사대상기간을 기준으로 조사대상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이상 가구원, 단, 현역군인, 경비교도대, 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교도소 수감자 제외 •조사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적사항 : 가구원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혼인상태 2) 확인항목 : 주된활동상태, 취업여부, 일시휴직여부, 구직여부 3) 취업자 : 부업여부, 취업시간 4) 실업자 : 취업가능성, 구직경로 및 방법, 구직기간 5)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희망여부, 비구직사유, 지난 1년간 구직경험여부 6) 희망직업(일) : 희망산업, 희망직업, 희망종사상지위, 희망최소임금 7) 직장 특성 : 전직유무 및 이직시기, 이직사유, 산업(주된활동, 직장소재지), 직업(하는일, 일한 부서명), 종사상지위, 근속기간, 월평균소득, 고용계약기간, 직업교육여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법 : 면접 및 인터넷 조사

자료: 통계청.

<표 II-4> 시군단위 신규구축 항목

세부항목	공표범위	공표	시군단위 신규구축항목
시군(9개도)			
시군(9개도)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시군	◆	
시군(9개도)/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	◆	
시군(9개도)/성/연령별 취업자	"	◆	
시군(9개도)별 타지역 통근 취업자	"	◆	
시군(9개도)/산업별 취업자	"	◆	
시군(9개도)/직업별 취업자	"	◆	
시군(9개도)/종사상지위별 취업자	"	◆	
시군(9개도)/성/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	◆	
시군(9개도)/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	◆	
시군(9개도)/교육정도별 비경제활동인구	"	◆	
근무지기준			
시군(9개도)/성/연령별 취업자(근무지기준)	시군	◆	
시군(9개도)/산업별 취업자(근무지기준)	"	◆	
시군(9개도)/직업별 취업자(근무지기준)	"	◆	
시군(9개도)/종사상지위별 취업자(근무지기준)	"	◆	
시도 및 전국			
시도/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시도		◆
시도/가구조관계/혼인상태별 경제활동상태	"		◆
시도/성/연령/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		◆
시도/성/연령/교육정도별 취업자	"		◆
시도/산업(중분류)별 취업자	"		◆
시도/직업(중분류)별 취업자	"		◆
시도/성/연령/교육정도별 실업자	"		◆
시도/구직산업/구직직업/구직종사지위별 실업자	"		◆
시도/구직임금/이직이유/구직기간별 실업자	"		◆
시도/성/연령/교육정도별 비경제활동인구	"		◆
시도/성/활동상태/취업희망여부별 비경제활동인구	"		◆
시도/직업교육 경험여부별 15세이상인구	"		◆
전국 산업(소분류)/성/연령/교육정도별 취업자	전국		◆
전국 산업(소분류)/성/연령/교육정도별 취업자	"		◆
전국 산업(중분류)/소득수준별 임금근로자	"		◆
전국 직업(중분류)/소득수준별 임금근로자	"		◆
전국 성/교육정도/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		◆
기타특성부분			
전국 산업(중분류)/교육정도/전공계열별 취업자(고졸이상)	전국		◆
전국 직업(중분류)/교육정도/전공계열별 취업자(고졸이상)	"		◆
전국 종사상지위/동일직업 근무년수별 취업자	"		◆

(2) 워크넷 구인구직조사 개요 및 신규 구축항목

<표 II-5>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조사 개요

조사 개요	통계명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최초작성연도	2002년도
	통계종류	일반·보고통계
	법적근거	승인번호 : 제32703호 승인일자 : 2002년01월29일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객체: 개인(구직자), 사업체(구인업체) ●조사범위: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 기관에 구직 및 구인을 등록하는 자 ●조사단위: 개인, 사업체
	작성기간	작성대상기간/시점: 매월
	작성방법	공공취업 지원서비스 기관을 통한 전산입력
	조사체계	구인.구직자 → 공공취업알선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적용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계속여부	계속
	작성지역	전국
	작성기준시점	매월
조사 방법론	자료처리 방법	집계방법: 구인·구직표 상의 기재사항, 구직등록자 중 취업자 집계
자료 제공	공표방법	인터넷 게재, 간행물
	공표범위	1. 지역 : 전국 및 시,도 2. 기타 : 구인배수, 일자리경쟁배수, 취업률 등
	공표주기	매월
	간행물명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워크넷통계연보
보고서 서식	보고서항목	직종별, 학력별, 연령별, 지역별 구인.구직 및 취업자수 등
기타	이용시 유의점	1.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이용한 구인.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노동시장 전체 수급상황을 대표하지는 못함. 2. 통계표에 수록된 단위가 반올림되어 표기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통계표의 숫자는 분류불능이나 오류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표 II-6> 시군단위 신규구축 항목

세부항목	공표범위	공표	시군단위 신규구축항목
	시도	지면(보고서)공개	
신규구인인원(개괄)	"	"	
종사상지위별	"	"	
연령별	"	"	
학력별	"	"	◆
임금대별	"	"	◆
신규구직자수(총괄)	"	"	
성별	"	"	◆
종사상지위별	"	"	
연령별	"	"	◆
학력별	"	"	◆
임금대별	"	"	◆
취업건수(총괄)	"	"	
성별	"	"	◆
종사상지위별	"	"	
연령별	"	"	◆
학력별	"	"	◆
임금대별	"	"	◆
직업중분류/지역 ³⁾ 별 신규구인인원	"	"	◆
지역중분류/지역별 신규구직자수	"	"	◆
직업중분류/지역별 취업건수	"	"	◆
산업/지역별 신규구인인원	"	"	◆
상용직 구인·구직통계	"	"	
성별	"	"	
연령별	"	"	
학력별	"	"	
임금대별	"	"	
기관별 구인·구직통계	"	"	
고용지원센터	"	"	
방문	"	"	
인터넷	"	"	
시군	"	"	
일일취업센터	"	"	
산업인력공단	"	"	
한국장애훈고용촉진공단	"	"	
여성인력개발센터	"	"	
고령자인재은행	"	"	
기타	"	"	
사업체 규모별 신규구인인원	"	"	
근무지역별 신규구인인원	"	"	
학력별 제사·희망임금 및 희망임금 충족률	"	"	
종사상 지위별 제사·희망임금 및 희망임금 충족률	"	"	
구인·구직지표	"	"	

3) 지역구분은 구인·구직을 등록한 지방노동관서 기준임

(3) 고용보험 DB⁴⁾

<표 II-7>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조사 개요

조사 개요	통계명	고용보험통계
	최초작성연도	1997년도
	통계종류	일반·보고통계
	법적근거	승인번호 : 제32702호 승인일자 : 1997년09월01일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개체: 개인, 사업체 ●조사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적용사업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사업 중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단,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피보험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제외근로자 : 65세 이상인 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다만,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단위: 사업체(고용보험가입사업장), 피보험자
	작성기간	●작성대상기간/시점: 매월
	작성방법	고용보험관련 신고서 상의 기재사항을 집계
	조사체계	신고인 → 지방노동관서 → 한국고용정보원
	적용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계속여부	계속
	작성지역	전국
	작성기준시점	작성대상월 익월
방법	자료처리 방법	●집계방법: 노동부 고용보험 사업으로 생성되는 행정통계 자료를 집계
	공표방법	인터넷 게재, 간행물
자료 제공	공표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 전국 및 시·도 내용 : 성별, 연령계층별, 교육정도별, 사업체규모별, 산업별, 직업별 등
	공표주기	월, 년
	간행물명	고용보험통계연보, 매월 고용보험통계 현황
보고서 서식	보고서항목	보험적용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상시, 상용), 고용보험 성립일, 산업간 사업장업종 변경경로 현황, 산업별 피보험자 현황, 경력직 노동력 이동 현황 등
기타	이용시 유의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별, 산업별 등의 사업장수, 피보험자수 등은 고용보험법 적용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수, 종사자수 등을 조사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음. 이 달의 통계 중 전년호의 수치와 다른 것은 정정한 것이니 최근 호의 수치를 이용해야 함.

자료: 통계청.

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간하는 『대전·충청 고용동향』에서 시군단위 고용보험통계를 개략적으로 수록하고 있음

<표 II-8> 시군단위 신규구축 항목

	공표범위	공표	시군단위 신규구축항목
적용사업장수 및 피보험자	시군	◆	
규모별	"	◆	
산업별	"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현황	"	◆	
성별	"	◆	
연령별	"	◆	
이직사유별	"	◆	
실업급여 지급현황	"	◆	
급여종류별	"	◆	
사업장 현황			
산업별 규모별 사업장 현황	시도		◆
산업·지역별 사업장	시도		◆
피보험자 현황	시도		
산업별 규모별 성별 순수 피보험자 현황	"		◆
산업별 지역별 성별 순수 피보험자 현황	"		◆
산업별 피보험자 취득·상실 현황	"		
규모별 피보험자 취득·상실 현황	"		
연령별 피보험자 취득·상실 현황	"		
산업별 상실사유별 성별 상실자 현황	"		
재취득자 노동력이동 현황	시도		
산업간 재취득자 노동력 이동현황	"		
지역간 재취득자 노동력 이동현황	"		
실업급여사업 현황	시도		
산업별 연령별 성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현황	"		◆
산업별 기초임금일액별 성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현황	"		
규모별 이직사유별 성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현황	"		◆
고용안정사업 현황	시도		
산업·규모별 고용안정 지원 현황	"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시도		
모성보호사업 현황	시도		
산업·규모별 산전후휴가 지원 현황	"		
산업별 통상임금별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현황	"		
산업별 규모별 성별 육아휴직급여 지원 현황	"		

제3장 충남 지역노동시장권 분석

1. 분석배경

이 장에서는 충남지역에 별도의 지역노동시장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를 구획할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지역노동시장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서 충남지역 16개 시군 지역 취업자의 통근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노동시장권(local labor market areas:LLMAs)을 도출하게 된다.

‘지역노동시장권’ 접근법이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리적 영역을 하나의 독립적인 지역노동시장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일상적’이라 함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주거이동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력의 이동행위를 제외했을 때 노동력 수급의 공간적 행태가 주거지와 일자리간의 통근패턴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이 접근법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지역노동시장권 개념은 개발과정부터가 정책적 필요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영국 고용부(department of employment)의 노동관할권을 개편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Smart(1974)의 연구가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후 Lever(1979), Ball(1980), Coombes et al.(1986) 등의 연구에 의해서 엄밀한 척도와 기준이 정립된다. 특히 EU의 등장은 ‘지역노동시장권’ 개념을 한층 더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U내 높은 수준의 소득 및 고용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특구(employment zone)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준으로 사용된다(Eurostat, 1992). 역사적으로 도시통계권(MSAs: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s)에 주로 의존했던 미국에서도 최근 이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Tolbert et al., 1996), OECD(2000)의 국가간 지역노동시장 연구에도 기본적인 분석단위로 사용되고 있다(OECD, 2000). 국내에서도 박진희(2005), 이상호(2008), 김을식(2009), 박시내(2009) 등이 전국단위의 지역노동시장권 도출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을 그대로 충남지역 노동시장권으로 설정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자료상의 문제점으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2000년 인구센서스(박진희, 2005)나 2005년 인구센서스(이상호, 2008)을 활용하고 있어서 충남지역 노동시장 활동의 동태적·공간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다. 둘째, 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취업자의 거주지와 근무지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셋째, 계층별 통근행태의 차이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 노동시장의 공간적 범위는 성별, 연령, 학력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산업·고용형태·직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이상호, 2008). 따라서, 취업자의 계층에 따른 노동시장 행태의 차이를

노동시장권 분석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장에서는 이상호(2008)의 연구방법을 준용하여 충남지역 노동시장권을 도출하되,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고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첫째, 분석을 위하여 현재 이용가능한 가장 최근의 자료인 통계청의 『2010년 지역별고용조사』를 사용한다. 본 자료는 시군 단위의 대표성을 갖도록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적합한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어서 보다 정확한 지역노동시장권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충남지역이 갖는 지역적 특수성과 주변 지역간의 관계를 지역노동시장권 도출에 반영하고자 한다. 충남지역은 경기도, 충청북도, 대전, 전라북도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세종시 건설 등으로 지역의 노동시장 활동이 갖는 특수성과 공간적 의존성이 다른 광역시도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지역노동시장권 분석에 반영하게 된다. 셋째, 지역 노동시장권의 도출과는 별도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고용형태 및 산업특성별로 통근행태의 특성을 별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표본을 세분화할 경우 자료의 신뢰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 집단에 대해 별도의 지역노동시장권을 도출하지는 않을 것이다.

2. 분석방법과 자료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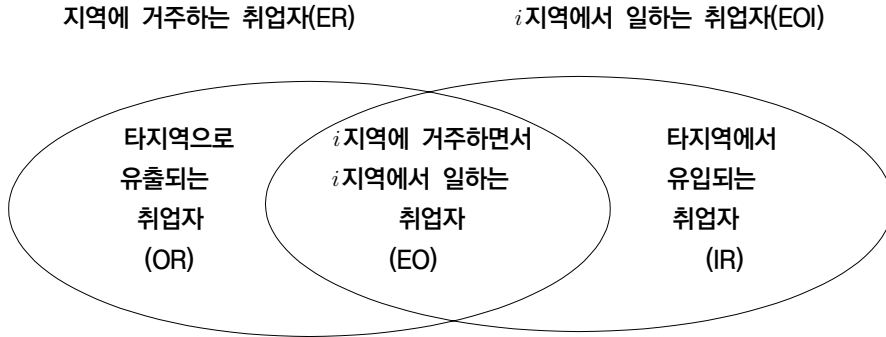
1) 핵심개념과 척도

‘지역노동시장권’ 접근법은 지역노동시장에 관한 기능적 접근(functional approach)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하나의 단위지역은 지역노동시장 내에서 크게 주거지와 업무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 때 주거지로서의 역할은 노동공급 기능과 연관되며, 업무지로서의 역할은 노동수요 기능과 연관된다. 그리고 특정 기초지역(시군)이 주거지와 업무지 중 어느 것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이 지역에서 주거하거나 일하는 취업자들 각각의 규모와 타 지역과의 공간적 의존도(spatial dependency)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통근관계 속에서 어떤 단위 지역 의 노동력은 <그림 III-1>과 같이 i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취업자(ER-EO),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취업자(OR),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취업자(IR)로 구분할 수 있다.

Laan(2001)에 따르면 이 지역의 노동시장 기능은 노동공급 자급률(employment self-containment ratio: ESC), 노동수요 자급률(housing self-containment ratio: HSC), 그리고 일자리/주거 비율(home-work ratio: HWR)이라는 세 가지 척도에 따라 규정될 수 있다. 이 때 각각의 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노동수요 자급률(HSC)은 ‘특정 지역으로 통근하는 취업자 중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통근자를 제외한 지역내 취업자 비중’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공급 자급률(ESC)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중 역외로 유출되는 통근자를 제외한 지역

내 취업자 비중' 을 의미한다. 한편, 일자리/주거 비율(HWR)은 노동공급과 수요의 상대적 비율에서 1을 뺀값(상대적 비율이 동일하면 0, 업무지 기능이 강할수록 0보다 커지고, 주거지 기능이 강할수록 0보다 적어짐)으로 정의된다.

<그림 III-1> 지역의 노동수요와 공급 구성



$$SC = \frac{ER - OR}{(ER - OR) + IR} \times 100 = \frac{EO}{EOI} \times 100 \quad (1)$$

$$ESC = \frac{ER - OR}{ER} \times 100 = \frac{EO}{ER} \times 100 \quad (2)$$

$$HWR = \left[\frac{ER - OR + IR}{ER} - 1 \right] \times 100 = \left[\frac{ESC}{HSC} - 1 \right] \times 100 = \frac{IR - OR}{ER} \times 100 \quad (3)$$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두 지역간의 공간적 의존도는 '통근강도'(commuting intensity)로 표현될 수 있다. 즉, 통근강도란 '어떤 두 지역간의 통근행위가 밀접한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Coombes et al.(1986)에서 사용한 대칭적 통근강도 산출법을 이용한다.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두 지역의 통근강도는 '지역1에서 지역2로의 통근자수 제공/유출지의 거주자 합계와 유입지의 근무자 합계' + '지역2에서 지역1로의 통근자수 제공/유출지의 거주자 합계와 유입지의 근무자 합계'로 구성된다.

$$\text{통근강도}(CI_{.2}) = \left\{ \frac{(OR_1 \times OR_1)}{(ER_1 \times EOI_2)} + \frac{(OR_2 \times OR_2)}{(ER_1 \times EOI_2)} \right\} \times 100 \quad (4)$$

유의할 점은 분모에 각 지역의 인구규모를 가중하여 나누기 때문에, 전체 취업자 규모가 크면 클수록 두 지역간의 통근관계는 약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시군 지역에서 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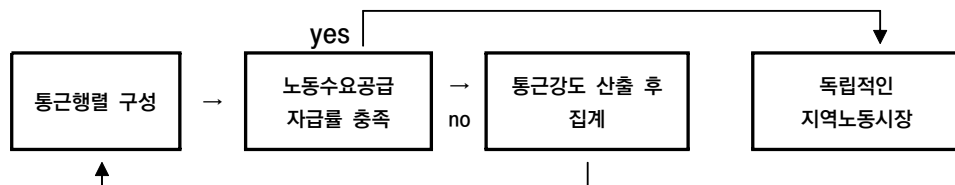
시로의 통근자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대도시의 인구규모가 크기 때문에 통근강도는 크지 않을 수 있다.

2) 지역노동시장권의 도출과정

위의 개념에 입각하여 지역노동시장권을 도출하는 과정은 아래의 <그림 III-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첫째, 충남지역 취업자의 거주지와 업무지간의 관계를 표현한 통근행렬을 구성한다. 둘째, 특정 지역이 노동수요 및 공급자급률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일반적으로 HSC와 ESC의 최소값이 70-75%수준을 넘어설 경우 독립적인 노동시장으로 간주한다. 셋째, 만일 특정지역이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통근강도가 가장 높은 지역과 통합한다. 이러한 과정은 모든 지역이 노동수요 및 공급자급률 기준을 초과할 때까지 반복진행 된다.

지역노동시장권의 도출과정에 사용되는 핵심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천안시와 아산시의 통근행렬을 예시한 <그림 III-3>을 이용한다. 아래의 그림에서 천안시의 총 거주 취업자는 R , 총 통근 취업자는 EOI_1 , 천안시에서 거주하면서 일하는 취업자는 EO_1 , 천안시에서 아산시로 유출되는 취업자는 OR_1 (아산시 기준으로는 유입되는 통근자, 즉 IR_2), 천안시로 유입되는 아산시 통근자는 IR_1 (아산시 기준으로는 유출되는 통근자, 즉 OR_2)이 된다.

<그림 III-2> 지역노동시장의 도출과정



<그림 III-3> 충남지역 취업자의 통근행렬 예시

(단위 : 명)

		업무지			
		천안시	아산시	...	거주자 합계
거주지	천안시	207,626 (EO_1)	22,191 (OR_1 IR_2)	...	243,746 (ER_1)
	아산시	10,902 (OR_2 , IR_1)	101,506 (EO_2)	...	118,793 (ER_2)

	업무지 합계(EOI_1)	250,728 (EOI_1)	135,827 (EOI_2)

위의 행렬을 이용하여 천안시의 노동수요자급률, 노동공급자급률, 일자리주거비, 그리고 통근강도를 구하면 아래의 식 (5)-(8)과 같다. 아산시의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이용하여 지표를 산출하면 <그림 III-4>와 같은 결과가 산출되며, 통근강도는 두 지역간에 대칭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동일한 수치를 가지게 된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천안지역은 노동수요 및 노동공급 자급률이 모두 75%를 초과하여 독립적인 지역노동시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아산시의 경우 노동공급 자급률은 85.4%이나, 노동수요 자급률은 75%에는 미달하고 70%는 넘어서고 있는 수준이다. 여기서는 분석방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시를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SC = \frac{EO_1}{EOI_1} \times 100 = 82.8 \quad (5)$$

$$ESC_1 = \frac{EO_1}{Er_1} \times 100 = 85.2 \quad (6)$$

$$HWR_1 = \left[\frac{ESC_1}{HSC_1} - 1 \right] \times 100 = 2.9 \quad (7)$$

$$\text{통근강도}(CI_1) = \left\{ \frac{(OR_1 \times OR_1)}{(ER_1 \times EOI_2)} + \frac{(OR_2 \times OR_2)}{(ER_1 \times EOI_2)} \right\} \times 100 = 1.9 \quad (8)$$

<그림 III-4> 통근행렬로부터 산출된 지역노동시장권 지표들

		업무지		
		천안시	아산시	...
거주지	천안시	85.2 (ESC_1) 82.8 (HSC_1)	1.9 (CI_1)	...
	아산시	1.9 (CI_1)	85.4 (ESC_2) 74.7 (HSC_2)	...

3) 자료의 구성

충청남도의 지역노동시장권 도출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료는 통계청의 2010년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micro data)이다. 최초 조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회 실시되다가, 2010년 4분기부터 분기별 조사로 조사주기가 변경됨.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10년 연간 자료’이다. 본 자료는 2005년 인구센서스 전수자료로부터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도지역’의 시군 대표성을 갖도록 설계되었으나,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광역시에 대해서는 시군 식별 코드가 제공되지 않다. 주요 변수로는 거주지 시군코드, 근무지 시군코드, 취업여부, 종사상지

위 등 지역노동시장권 분석에 필요한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본 자료외에 인구센서스 샘플자료(2%, 5%)가 사용될 수 있으나, 충청남도의 경우 16개 시군 지역모두 식별이 가능한 점, 조사시점이 2005년인 점, 서로 다른 자료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석상의 오차문제 등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표 III-1> 통근행렬 분석에 사용된 표본(가중치 적용)

(단위 : 명, %)

거주지		통근지		총합
		타지역	충남지역	
타지역	명	0	93,495	93,495
	%	0	8.7	8.7
충남지역	명	33,993	947,123	981,116
	%	3.2	88.1	91.3
총합	명	33,993	1,040,617	1,074,610
	%	3.2	96.8	100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다음과 같다. 2010년 조사 응답자 354,508명으로 이중 취업자는 205,841명임. 이중 충남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는 취업자 16,725명을 대상으로 통근행렬을 도출한다. 통근행렬을 산출함에 있어서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3가지 형태의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9개도 156개 시군 집계에 사용되는 ‘가중치1’을 사용한다. 분석표본 1,074,610명(가중치 적용) 중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통근하는 취업자는 88.1%, 충남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지역으로 통근하는 취업자는 3.16%,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충남지역으로 통근하는 취업자는 8.7%이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다음과 같다. 2010년 조사 응답자 354,508명으로 이중 취업자는 205,841명임. 이중 충남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는 취업자 16,725명을 대상으로 통근행렬을 도출한다. 통근행렬을 산출함에 있어서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3가지 형태의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9개도 156개 시군 집계에 사용되는 ‘가중치1’을 사용한다. 분석표본 1,074,610명(가중치 적용) 중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통근하는 취업자는 88.1%, 충남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지역으로 통근하는 취업자는 3.16%,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충남지역으로 통근하는 취업자는 8.7%이다. 본 표본을 기준으로 <그림 III-3>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16개 시군에 대해 통근행렬을 도출하고, <그림 III-4>와 같은 지역노동시장권 지표들을 산출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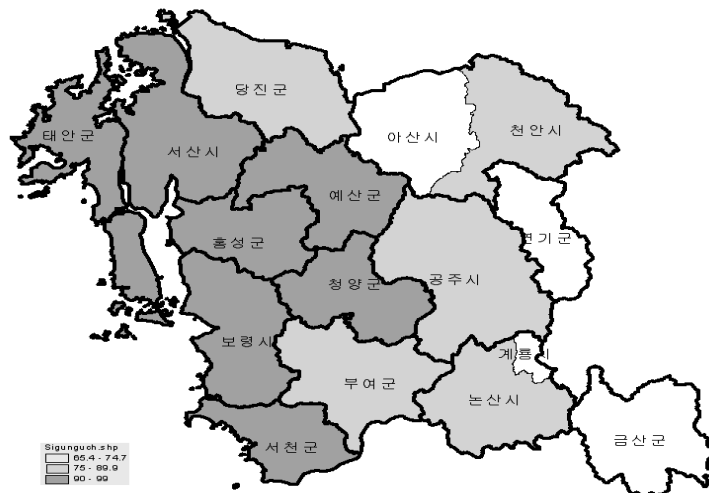
3. 분석 결과

1) 전체 노동시장권 분석결과

충남지역 16개 시군지역은 10개의 ‘독립 지역노동시장’ + 2개의 ‘통합 노동시장’ + 2개의 ‘타광역권 연계형시장’ 으로 구분된다(그림 III-5, 표 III-2 참조). 구체적으로 시군 단위가 하나의 독립적인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지역은 총 10개 시군이다. 이 중에서 노동수요공급 자급률이 모두 90% 이상인 지역(〈그림 III-5〉에서 가장 짙은 지역)으로는 보령시·서산시·서천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태안군 등 7개 시군이다. 이들 지역은 인접 지역에 대한 공간적 의존도가 극히 낮은 지역이다. 완전 독립시장 중 노동수요 혹은 공급 자급률이 90% 미만인 지역으로는 공주시, 당진군, 부여군 등 3개 시군 지역이다.

시군단위가 독립적인 노동시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접 시군과 통합한 지역으로는 천안·아산과 논산·계룡시가 있다. 아산시의 경우 전체 노동공급 자급률은 85.4%로 독립적인 노동시장 요건을 충족하지만, 노동수요 자급률은 74.7%로 다소 유보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농업부문 종사자, 청소년취업자(19세미만), 노령취업자(65세 이상)를 제외한 ‘비농부문 주() 경제활동연령층’에 대한 분석에서는 노동공급 자급률이 71.7%, 노동공급 자급률이 83.8%로 더욱 낮아지고 있다. 즉, 주된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할 때, 두 지역간의 공간적 의존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산시로의 노동력 유입이 가장 많은 1차 유입지는 천안시이며, 노동력 유입이 두 번째로 많은 2차 유입지는 경기도 평택시이다. 천안시와 아산시의 공간적 의존도를 의미하는 통근강도 역시 1.89로 가장 높게 나타나, 두 도시를 하나의 지역노동시장권으로 통합하였다. 두 도시를 통합할 경우 통합된 천안·아산시의 노동공급자급률은 94.4%, 노동수요자급률은 88.5%로 나타나 독립적인 노동시장 요건을 충족시킨다.

<그림 III-5> 충남지역 노동시장권 분석결과 : 전체취업자



계룡시의 경우 노동수요 자급률이 65.4%, 노동공급 자급률이 52.9%로 충남지역 내에서 가

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계룡시의 1차 유출지는 대전광역시이지만, 인구규모를 고려한 통근강도를 산출할 경우 가장 밀접한 공간적 의존성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논산시(0.40)로 나타났다. 계룡시와 논산시를 통합할 경우 노동공급자급률은 88.0%, 노동수요자급률은 86.4%로 나타나 독립적인 노동시장 요건을 충족시킨다.

‘타광역권 연계형시장’ 이란, 자체적으로는 독립적인 노동시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나, 타지역과의 통근강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충남 이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노동시장권 통합 과정을 거치지 못한 시군이다. 금산군은 대전 지역이 1차 유출입지역이며, 통근강도 역시도 0.41로 가장 높았으며, 연기군은 1차 유출입지역이 충청북도 청원군이며 통근강도 역시 0.42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그림 III-5> 독립노동시장은 서부지역 및 중부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타광역권 의존형시장 및 통합노동시장 지역은 북부 및 동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충남지역 16개 시군의 노동시장 기능을 살펴보면, 아산시·금산군·연기군·당진군 등은 업무지로서의 기능이 큰 반면, 계룡시는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통근행렬 분석결과 : 전체 취업자

시군명	취업자 전체			비농부문 주(主) 경제활동연령층 (19세 이상, 65세 미만)		
	노동수요자급률	노동공급자급률	일자리/ 주거비	노동수요자급률	노동공급자급률	일자리/ 주거비
천안시	82.8	85.2	2.9	81.3	84.1	3.4
공주시	84.9	90.8	7.0	77.9	86.0	10.5
보령시	94.7	97.6	3.1	92.9	96.9	4.4
아산시	74.7	85.4	14.3	71.7	83.8	16.8
서산시	95.1	96.4	1.4	93.7	95.1	1.5
논산시	86.9	92.9	6.9	80.2	89.3	11.4
계룡시	65.4	52.9	-19.0	64.0	50.7	-20.8
금산군	72.1	95.5	32.4	56.5	92.1	63.1
연기군	74.4	85.8	15.4	66.9	81.7	22.2
부여군	89.9	94.9	5.5	79.9	90.2	12.9
서천군	91.1	96.0	5.4	86.7	94.3	8.8
청양군	90.9	94.7	4.2	81.7	90.1	10.3
홍성군	94.5	94.2	-0.4	92.1	91.1	-1.1
예산군	92.0	90.2	-1.9	86.5	86.5	-0.1
태안군	95.1	95.8	0.8	93.6	93.7	0.2
당진군	89.2	98.6	10.5	85.5	98.0	14.6

<표III-2>의 ‘일자리/주거비’ 에서 0보다 값이 클수록 업무지로서의 기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취업자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금산군이 32.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연기군 15.4, 아산시 14.3, 당진군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주거비’ 의 값이 0보다 적을수록 주거지로서의 기능도 역시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으며, 계룡시는 이 수치값이 -19.0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충남지역내 최대도시인 천안시의 경우 일자리/주거비가 2.9로 업무지와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골고루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9-65세미만 비농업부문 집단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주거지와 업무지의 특성값이 더욱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산군의 경우 일자리 주거비가 전체표본에서 제시된 값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63.1값을 기록하였다.

2) 성별, 연령별, 학력별 분석결과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노동시장권의 범위는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체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바, 충남지역에서도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남성, 청년층, 고학력층에 대한 노동수요 및 공급 자급률, 일자리/주거비를 분석하였다(표 III-3 참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취업자 전체’에 대한 분석결과보다 노동수요 및 공급 자급률이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독립적인 노동시장 구성 요건인 자급률 75%에 미치는 못하는 시군의 숫자는 전체 표본 분석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수요 및 노동공급 자급률은 전체 표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남성의 통근행태가 여성보다 타지역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층의 경우 남성보다 노동수요 및 공급 자급률이 75%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 지역의 숫자가 더욱 증가하였다. 기존의 아산계룡·금산연기 외에 공주시와 서천군이 각각 71.7%와 73.6%의 노동수요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공주시의 경우 노동력의 1차 유입지가 대전으로 공주시에서 일하는 청년층 취업자 중 16.7%가 대전시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군에서 일하는 취업자 중 11.5%는 경기도 거주자이며, 11.4%는 기타광역시로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남지역 타시군 거주하면서 서천군으로 통근하는 청년층 취업자는 3.5%에 불과하다.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층은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등이 75% 자급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주시의 경우 노동수요 자급률이 6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전에 거주하면서 공주시로 통근하는 고학력층 취업자의 비중이 2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공급 자급률 측면에서는 전체 표본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계룡시의 자급률이 일관되게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계룡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자의 최대 통근지는 역시 대전시로 남성의 24.6%, 청년층의 27.9%, 고학력층의 26.9%가 대전광역시로 통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남성·청년층·고학력층 일수록 상대적으로 통근범위가 넓게 나타나며, 따라서 보다 넓은 범위의 노동시장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과 고학력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 정책의 경우, 지나치게 시군 범위의 정책에 의존하기 보다는 보다 넓은 광역권 차원의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 반대로 여성·고령·저학력층의 경우 공간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군 차원에서의 직업훈련이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표 III-3> 통근행렬 분석결과 :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시군명	남성			청년층(19세 이상, 35세 미만)			고학력층(전문대 이상)		
	노동수요 자급률	노동공급 자급률	일자리/ 주거비	노동수요 자급률	노동공급 자급률	일자리/ 주거비	노동수요 자급률	노동공급 자급률	일자리/ 주거비
천안시	78.8	82.7	5.0	77.3	85.2	10.3	76.6	80.9	5.6
공주시	82.6	88.3	7.0	71.7	83.6	16.7	65.1	77.3	18.8
보령시	93.6	97.4	4.1	96.9	97.3	0.5	89.3	97.3	9.0
아산시	71.5	83.9	17.4	70.9	79.2	11.8	63.4	78.6	24.1
서산시	93.1	95.6	2.7	94.9	93.4	-1.5	92.4	92.1	-0.3
논산시	83.5	90.9	8.9	84.4	91.0	7.8	69.6	87.5	25.7
계룡시	62.8	45.8	-27.2	73.6	42.9	-41.7	59.7	44.4	-25.6
금산군	67.7	94.3	39.3	61.5	88.0	43.1	57.9	89.7	55.0
연기군	68.3	83.2	21.8	70.7	81.3	15.0	63.7	76.5	20.1
부여군	86.3	95.4	10.6	83.3	87.0	4.5	74.0	92.5	25.0
서천군	86.3	95.6	10.8	73.6	88.7	20.5	76.9	94.1	22.4
청양군	88.0	95.0	8.0	88.4	82.5	-6.7	74.7	87.6	17.3
홍성군	94.1	92.8	-1.3	90.7	88.4	-2.5	92.4	90.3	-2.3
예산군	88.4	90.9	2.8	78.6	81.4	3.6	82.2	82.7	0.6
태안군	92.2	96.6	4.7	96.1	91.0	-5.3	90.2	94.9	5.2
당진군	84.8	98.5	16.1	93.3	97.6	4.7	76.4	96.7	26.7

3) 고용형태 및 산업별, 직업별 분석결과

충남지역의 고용형태별·산업별·직업별 노동수요 및 공급 자급률, 일자리/주거비 분석결과는 <표 III-4>와 같다. 우선 임금근로자의 경우, 독립적인 노동시장 구성 요건인 자급률 75%에 미치는 못하는 시군의 숫자가 전체 표본 분석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수요 및 노동공급 자급률은 전체 취업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준집단인 비임금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통근권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 종사자의 경우 75% 자급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 지역이 기존의 아산·계룡·금산·연기 외에 천안·논산·예산까지 포함되고 있다. 특히 천안시 경우 노동수요 및 공급 자급률이 모두 75%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제조업 취업자의 21.6%가 아산시로 통근하는 한편, 천안시에서 일하고 있는 제조업 취업자의 6.6%가 아산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아산시에 거주하는 제조업 취업자의 9.7%가 천안시로 통근하는 한편, 아산시에서 일하고 있는 제조업 취업자의 23.7%가 천안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을 통합할 경우, 통합된 천안·아산시의 노동수요 자급률은 82.9%, 노동공급 자급

률은 92.8%로 독립적인 노동시장 성립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계룡시와 논산시의 공간적 의존성 역시 전체표본보다 제조업취업자 표본에서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시에 거주하는 제조업 취업자의 9.8%만이 계룡시에서 근무하는 반면 41.9%는 논산시에, 23.8%는 대전광역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시에서 일하는 제조업 취업자의 35.3%만이 계룡시에 거주하며, 64.7%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산시 제조업 종사자의 노동수요 자급률은 64.5%로 나머지 노동력의 18.1%는 대전광역시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논산계룡시의 노동수요 자급률은 68.5%, 노동공급 자급률은 79.4%로 논산계룡시는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독립적인 노동시장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며 19.7%의 노동력을 대전광역시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통근행렬 분석결과 : 고용형태 · 산업 · 직업별

시군명	임금근로자			제조업			고숙련층 (직업대분류 (준)전문가)		
	노동수요 자급률	노동공급 자급률	일자리/ 주거비	노동수요 자급률	노동공급 자급률	일자리/ 주거비	노동수요 자급률	노동공급 자급률	일자리/ 주거비
천안시	78.4	82.2	4.8	72.6	69.8	-3.8	78.8	80.3	1.9
공주시	76.2	84.4	10.7	83.0	86.4	4.1	61.6	77.3	25.5
보령시	91.6	96.2	5.1	95.0	100.0	5.3	94.6	98.5	4.2
아산시	70.5	83.7	18.7	63.0	85.6	35.8	57.3	78.2	36.5
서산시	92.2	93.8	1.8	93.5	96.4	3.1	91.2	93.4	2.4
논산시	78.6	88.3	12.3	64.5	83.8	29.9	69.0	88.5	28.3
계룡시	60.6	49.9	-17.6	35.3	9.8	-72.2	54.8	43.3	-21.0
금산군	51.6	89.5	73.5	43.4	96.5	122.4	77.8	92.3	18.6
연기군	64.5	79.5	23.3	60.0	83.9	39.8	54.9	72.7	32.4
부여군	80.1	92.4	15.3	78.1	88.8	13.6	67.3	93.7	39.2
서천군	84.8	94.0	10.9	78.1	98.5	26.1	83.0	88.1	6.2
청양군	76.8	90.8	18.1	83.9	91.7	9.3	68.7	86.3	25.7
홍성군	91.2	90.1	-1.2	92.4	89.1	-3.5	96.9	90.4	-6.8
예산군	81.4	85.5	5.0	72.5	81.0	11.8	79.4	85.3	7.5
태안군	90.0	93.5	3.9	100.0	90.3	-9.7	93.8	93.4	-0.4
당진군	83.4	97.6	17.0	83.8	97.8	16.6	72.8	98.3	35.0

표준직업분류 상 전문가준전문가 이상의 고숙련층의 경우 ‘고학력층’과 비슷한 패턴의 통근패턴을 보이고 있다. 노동력의 공급의 타지역 의존도가 높은 지역(즉, 노동수요 자급률이 낮은 지역)으로는 공주·아산·논산·계룡·연기·부여·청양·당진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주시에서 근무하는 고숙련 취업자의 27.8%가 대전광역시 거주자이며, 다음으로는 천안시 거주자가 4.1%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여군의 경우 노동력의 주요 외부 공급지가 대전(11.4%)과 논산(9.5%)이며, 청양군의 주요 외부 공급지는 공주(19.1%), 당진군의 주요 외부 공급지는 경기(10.4%)로 각각 나타났다.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동부 접경지역 고학력 취업자의 주요

노동공급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대전은 공주(27.8%)·논산(14.1%)·계룡(45.2%)·금산(20.6%)·연기(23.8%)·부여(11.4%) 등의 최대 노동공급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충남지역은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거주자보다 6.7%(일자리/거주취업자 = 1,040,617/981,116명) 정도 더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부 및 동부 6개 시군(천안·아산·연기·금산·논산·계룡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동수요의 외부 의존도가 7.5%(일자리/거주취업자 = 505,273/469,865명)로 더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장 공간적 의존도는 남성·청년·층고학력·층임금·근로자·제조업 종사자·고속권·충 등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도시세력권 및 고용센터 관할구역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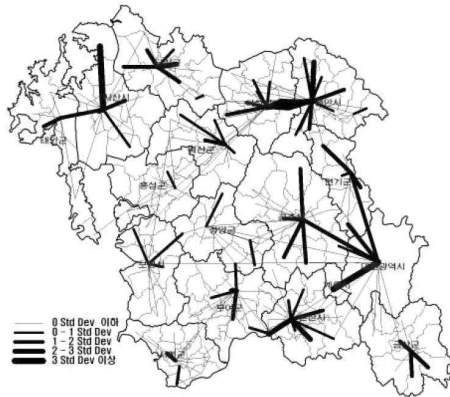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충남지역의 노동시장권을 생활권·광역개발계획권·고용센터관할권역 등과 비교하게 된다. 우선 <그림 III-6>에 제시된 것과 같이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따른 권역들과 비교해보면, 첫 째 일용품 구매권과 노동시장권이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다소 차이점도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그림 (i)의 일용품 구매권에서 천안·아산이 동일권역으로 나타나고, 연기·계룡 등도 대전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노동시장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태안과 서산의 관계가 높게 나타나며 금산·논산이 대전과 독립적인 권역으로 나타나는 점, 그리고 공주와 대전의 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은 다소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그림 (ii) 산업단지와의 유사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산업단지가 밀집된 동부 접경지역들이 주로 노동수요 자급률이 낮다는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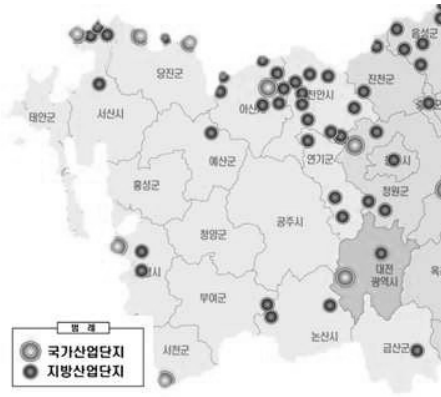
다만 당진·서산·보령·서천 등은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노동시장권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노동력의 수급이 기초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연계체제를 살펴보면, 향후 충남지역의 노동시장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우선 예산·홍성에 도청이 이전됨에 따라, 현재는 독립적 노동시장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예산·홍성과 인접지역간에 공간적 관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주시의 경우에도 교통인프라 등의 개선에 따라 세종시 및 대전광역시와의 공간적 의존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중인 (iv) 4대 개발경영권을 살펴보면 종으로 구획된 서해안권을 제외한 북부권, 내륙권, 금강권이 횡으로 구획되어 있어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종으로 통합된 노동시장권과 다소 차이가 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만일 4대 개발경영권이 실제 충남지역내 소권역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면, 향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권 역시도 이와 비슷한 권역으로 재편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I-6>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따른 권역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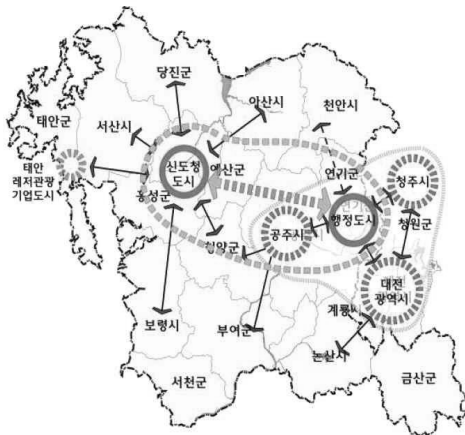
(i) 일용품 구매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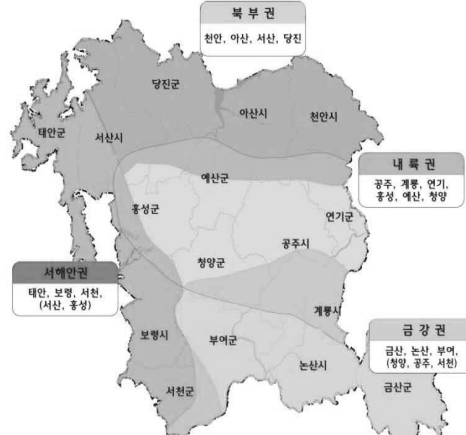
(ii) 산업단지의 분포



(iii)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연계체제



(iv) 4대 개발경역권의 구분



자료 (i), (ii), (iv) :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충남발전연구원
(iii) : 충청광역경제권 장기발전구상,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한편 <표 III-5>에 제시된 것처럼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센터 관할구역과의 유사성을 비교 검토하면, 금산군은 대전고용센터에서 관할하고, 논산·계룡은 논산출장센터에서, 연기는 연기출장센터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노동시장권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관할권이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출장소 없이 천안고용센터에서 관리되고 있는 예산군과 당진군, 보령고용센터에서 관리되고 있는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등은 독립적인 노동시장권임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고용센터에서 통합관리 되고 있어서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고령자·장애인·기혼 여성 등 상대적으로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고용서비스 이용에 더욱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요약하

면 지역고용센터는 상대적으로 노동력의 공간적 이동이 활발한 동부 접경 지역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제조업 구성이 낙후한 내륙 지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5>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센터 관할구역

고용센터	관할 지역
대전고용센터	금산군, 대전광역시
공주고용센터	공주시
논산출장센터	논산시, 계룡시
연기출장센터	연기군
천안고용센터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당진군
서산고용센터	서산시, 태안군
보령고용센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4. 소결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충남지역 노동시장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충남 지역 16개 시군지역은 10개의 ‘독립 지역노동시장’ + 2개의 ‘통합 노동시장’ + 2개의 ‘타광역권 연계형시장’ 으로 구분된다. 시군단위가 독립적인 노동시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접 시군과 통합한 지역인 ‘통합 노동시장’ 은 천안·아산과 논산·계룡시가 있다. 자체적으로는 독립적인 노동시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나, 타지역과의 통근강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충남 이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노동시장권 통합과정을 거치지 못한 ‘타광역권 연계형노동시장’ 은 금산군과 연기군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개 시군은 ‘독립 지역노동시장’ 으로 보령시·서산시·서천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태안군(이상 노동수급자급률 90% 이상)과 공주시·당진군·부여군(이상 노동수급자급률 80% 이상) 등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 16개 시군의 노동시장 기능을 살펴보면, 아산시·금산군·연기군·당진군 등은 업무지로서의 기능이 큰 반면, 계룡시는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남지역의 노동시장권은 인구학적 특성 및 일자리 특성에 따라서도 다양한 범위를 갖고, 노동시장 공간적 의존도는 남성·청년·충고학력·충임금근로·자제·조업 종사자·고숙련층 등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충남 노동시장권은 생활권·광역개발계획권·고용센터관할구역 등과 비교했을 때에도 독자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의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충남지역에도 행정구역과는 별도의 지역노동시장권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역들은 시군 행정단위가 그 자체로 독립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통합된 형태의 노동시장도 그 범위가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충남지역의 경우 노동시장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노동시장 행태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노동시장의 범위는 인구학적 특성 및 고용형태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므로 고용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성별·연령·숙련 수준·고용형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자리 공시제의 시행,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충남의 경우 독립 지역노동시장인 지역에 소수의 지역고용센터가 분포하고 있어서, 고령·장애·이혼 여성 등 상대적으로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고용서비스 이용에 더욱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해 고용지원 서비스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가능한 바, ① 지역고용센터의 출장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역고용센터를 집중화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러한 접근의 근본적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② 기초지자체, 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이를 지역고용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③ 고용노동부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역간 경쟁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는 『부산고용촉진지구』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단은 고용지원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부산의 강서지역(사상구, 사하구, 강서구)에 민관합동의 ‘원스톱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고용센터가 접근하기 어려운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고용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충남지역은 세종시 건설, 도청소재지 이전 등 노동시장권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외부적 요인들이 많으므로, 주기적으로 노동시장권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가 공개될 경우 지역별고용조사를 이용한 분석결과와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제4장 충남 지역노동 공급분석

1. 분석내용 및 자료

이 장에서는 충남지역의 노동 공급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충남지역의 노동 공급을 알아보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혹은 비경제활동률), 고용률, 실업률 등이 있다. 또한 타 지역과의 비교, 시간에 따른 변화, 인적 특성 및 일자리 특성에 따른 차이 등 충남지역 노동시장의 특징을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충남지역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코자 한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지역단위는 주로 행정구역상 구분인 충남지역 내의 16개 시군을 기준으로 하나, 타 지역과의 비교를 위해 광역단위(광역시·도)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노동시장권 분석에 따라 독립적 노동시장권을 형성하지 못한 천안·아산시, 논산·계룡시, 연기군, 금산군에 대해서는 통합노동시장을 기준으로 한 분석도 실시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자료는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이다.⁵⁾ 『지역별고용조사』는 2008년에 지역단위 표집을 통해 처음 조사가 실시된 이후, 2010년 자료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지역별고용조사』는 광역시 단위를 제외⁶⁾하고는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서는 조사 연혁이 짧고, 조사주기가 길다는 단점이 있다. 『지역별고용조사』에는 세가지 종류의 가중치가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1’을 전체적으로 사용하여 분석하게 된다. 『지역별고용조사』의 가중치는 다음의 세가지다. 첫째, 가중치1은 9개도 156개 시군 집계 승수로 시군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설계를 하여 시군별로 표본추출률이 다르다. 둘째, 가중치2는 16개 시도 및 전국 집계 승수(학술 및 정책 연구용 : 설계가중치 및 사후중화)로 16개 시도 및 전국을 추정할 수 있도록 가중치2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가중치3은 16개 시도 및 전국 집계 승수(KOSIS 제공용 : 경제활동인구조사 주요지표에 대한 보정)로 매월 조사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조사기준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표본설계상의 이유로 주요 고용지표가 일치하지 않음에 따른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자료(2010년 9월)를 벤치마킹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충남 지역의 노동시장 분석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바, ‘가중치1’을 사용하여 작성하고자 한다.

5)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한국의 노동시장 분석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자료로서 장기간에 걸친 시계열 자료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에는 지역코드가 제공되지 않아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를 지님

6) 서울과 6개 광역시에 대해서는 구별 자료가 제공되지 않음

2. 충남의 노동공급 구조

1) 인구규모 및 수준

(1) 인구추이

충남의 인구는 2008년 2,018,537명에서 2010년 현재 2,075,514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1.40%씩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 기간 중 천안, 보령, 아산, 서산, 계룡, 연기, 당진지역은 인구가 증가한 반면, 공주,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의 인구증가는 주로 북부권의 인구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남 전체인구 중 북부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53.1%에서 2010년 54.4%로 약 1.3%p 증가하였다.

<표 IV-1> 충남 시군별 인구규모(주민등록인구 기준)

(단위 : 명, %)

	년		2009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08~’10)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2,018,537	100.00	2,037,582	100.00	2,075,514	100.00	1.40
천안시	537,698	26.64	540,832	26.54	557,673	26.87	1.84
공주시	125,143	6.20	124,172	6.09	124,930	6.02	-0.09
보령시	106,885	5.30	106,754	5.24	107,346	5.17	0.22
아산시	240,942	11.94	256,449	12.59	265,191	12.78	4.91
서산시	156,867	7.77	158,886	7.80	160,468	7.73	1.14
논산시	127,797	6.33	127,097	6.24	127,507	6.14	-0.11
계룡시	41,411	2.05	42,760	2.10	43,088	2.08	2.00
금산군	56,740	2.81	56,220	2.76	56,555	2.72	-0.16
연기군	78,645	3.90	79,482	3.90	81,871	3.94	2.03
부여군	76,687	3.80	75,564	3.71	75,029	3.61	-1.09
서천군	60,507	3.00	60,066	2.95	60,085	2.89	-0.35
청양군	33,062	1.64	32,613	1.60	32,541	1.57	-0.79
홍성군	88,176	4.37	87,631	4.30	88,078	4.24	-0.06
예산군	88,144	4.37	87,163	4.28	87,002	4.19	-0.65
태안군	63,401	3.14	63,095	3.10	63,247	3.05	-0.12
당진군	136,432	6.76	138,798	6.81	144,903	6.98	3.06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 성별인구 추이

충남의 남성인구는 2008년 1,020,317명에서 2010년 현재 1,049,363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1.41%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여성인구는 동 기간 중 998,220명에서 1,026,151명으로 연평균 1.39%씩 증가하고 있다.

<표 IV-2> 충남 시군별 성별 주민등록인구(시지역)

(단위 : 명, %)

	년		2009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08~’10)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2,018,537	100.00	2,037,582	100.00	2,075,514	100.00	1.40
남	1,020,317	50.55	1,029,725	50.54	1,049,363	50.56	1.41
여	998,220	49.45	1,007,857	49.46	1,026,151	49.44	1.39
천안시	537,698	100.00	540,832	100.00	557,673	100.00	1.84
남	271,984	50.58	273,299	50.53	282,595	50.67	1.93
여	265,714	49.42	267,533	49.47	275,078	49.33	1.75
공주시	125,143	100.00	124,172	100.00	124,930	100.00	-0.09
남	63,153	50.46	62,678	50.48	63,097	50.51	-0.04
여	61,990	49.54	61,494	49.52	61,833	49.49	-0.13
보령시	106,885	100.00	106,754	100.00	107,346	100.00	0.22
남	54,065	50.58	53,990	50.57	54,188	50.48	0.11
여	52,820	49.42	52,764	49.43	53,158	49.52	0.32
아산시	240,942	100.00	256,449	100.00	265,191	100.00	4.91
남	122,763	50.95	130,253	50.79	134,672	50.78	4.74
여	118,179	49.05	126,196	49.21	130,519	49.22	5.09
서산시	156,867	100.00	158,886	100.00	160,468	100.00	1.14
남	79,808	50.88	80,943	50.94	81,747	50.94	1.21
여	77,059	49.12	77,943	49.06	78,721	49.06	1.07
논산시	127,797	100.00	127,097	100.00	127,507	100.00	-0.11
남	64,156	50.20	63,802	50.20	63,944	50.15	-0.17
여	63,641	49.80	63,295	49.80	63,563	49.85	-0.06
계룡시	41,411	100.00	42,760	100.00	43,088	100.00	2.00
남	20,388	49.23	21,152	49.47	21,322	49.48	2.26
여	21,023	50.77	21,608	50.53	21,766	50.52	1.75

※ : KOSIS 국가통계포털

2010년 현재, 충남도 전체인구 중 남성인구 비중은 50.56%인 반면, 여성인구 비중은 49.44%이다. 여성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계룡, 부여, 서천, 홍성지역이며,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남성인구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3> 충남 시군별 성별 주민등록인구(군지역)

(단위 : 명, %)

	년		2009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08~‘10)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56,740	100.00	56,220	100.00	56,555	100.00	-0.16
남	28,830	50.81	28,575	50.83	28,736	50.81	-0.16
여	27,910	49.19	27,645	49.17	27,819	49.19	-0.16
연기군	78,645	100.00	79,482	100.00	81,871	100.00	2.03
남	40,238	51.16	40,640	51.13	41,648	50.87	1.74
여	38,407	48.84	38,842	48.87	40,223	49.13	2.34
부여군	76,687	100.00	75,564	100.00	75,029	100.00	-1.09
남	38,338	49.99	37,810	50.04	37,503	49.98	-1.09
여	38,349	50.01	37,754	49.96	37,526	50.02	-1.08
서천군	60,507	100.00	60,066	100.00	60,085	100.00	-0.35
남	29,946	49.49	29,664	49.39	29,606	49.27	-0.57
여	30,561	50.51	30,402	50.61	30,479	50.73	-0.13
청양군	33,062	100.00	32,613	100.00	32,541	100.00	-0.79
남	16,695	50.50	16,468	50.50	16,366	50.29	-0.99
여	16,367	49.50	16,145	49.50	16,175	49.71	-0.59
홍성군	88,176	100.00	87,631	100.00	88,078	100.00	-0.06
남	43,808	49.68	43,612	49.77	43,800	49.73	-0.01
여	44,368	50.32	44,019	50.23	44,278	50.27	-0.10
예산군	88,144	100.00	87,163	100.00	87,002	100.00	-0.65
남	44,239	50.19	43,783	50.23	43,675	50.20	-0.64
여	43,905	49.81	43,380	49.77	43,327	49.80	-0.66
태안군	63,401	100.00	63,095	100.00	63,247	100.00	-0.12
남	31,825	50.20	31,651	50.16	31,744	50.19	-0.13
여	31,576	49.80	31,444	49.84	31,503	49.81	-0.12
당진군	136,432	100.00	138,798	100.00	144,903	100.00	3.06
남	70,081	51.37	71,405	51.45	74,720	51.57	3.26
여	66,351	48.63	67,393	48.55	70,183	48.43	2.85

※ : KOSIS 국가통계포털

(3) 연령계층별 인구추이

충남의 인구는 '08~'10년 기간 중 연평균 1.40%씩 증가하고 있으나 연령계층별로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충남의 유년인구(0~14세)는 2000년 347,758명에서 2010년 현재, 337,497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1.49%씩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인구 중 유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23%에서 2010년 16.26%로 감소하였다.

<표 IV-4> 충남 시군별 연령계층별 주민등록인구(시지역)

(단위 : 명, %)

	년		2009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08~’10)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2,018,537	100.00	2,037,582	100.00	2,075,514	100.00	1.40
0-14세	347,758	17.23	341,858	16.78	337,497	16.26	-1.49
15-64세	1,377,091	68.22	1,394,476	68.44	1,429,461	68.87	1.88
65세 이상	293,688	14.55	301,248	14.78	391,083	18.84	15.40
천안시	537,698	100.00	540,832	100.00	557,673	100.00	1.84
0-14세	111,175	20.68	106,964	19.78	105,960	19.00	-2.37
15-64세	385,610	71.71	391,347	72.36	407,363	73.05	2.78
65세 이상	40,913	7.61	42,521	7.86	55,864	10.02	16.85
공주시	125,143	100.00	124,172	100.00	124,930	100.00	-0.09
0-14세	18,427	14.72	17,564	14.14	16,959	13.57	-4.07
15-64세	85,040	67.95	84,405	67.97	85,423	68.38	0.22
65세 이상	21,676	17.32	22,203	17.88	28,731	23.00	15.13
보령시	106,885	100.00	106,754	100.00	107,346	100.00	0.22
0-14세	16,484	15.42	15,851	14.85	15,260	14.22	-3.78
15-64세	71,993	67.36	72,045	67.49	72,732	67.75	0.51
65세 이상	18,408	17.22	18,858	17.66	24,389	22.72	15.10
아산시	240,942	100.00	256,449	100.00	265,191	100.00	4.91
0-14세	47,011	19.51	50,612	19.74	51,594	19.46	4.76
15-64세	168,272	69.84	179,077	69.83	185,833	70.08	5.09
65세 이상	25,659	10.65	26,760	10.43	34,950	13.18	16.71
서산시	156,867	100.00	158,886	100.00	160,468	100.00	1.14
0-14세	29,574	18.85	29,255	18.41	28,645	17.85	-1.58
15-64세	105,523	67.27	107,207	67.47	108,965	67.90	1.62
65세 이상	21,770	13.88	22,424	14.11	28,921	18.02	15.26
논산시	127,797	100.00	127,097	100.00	127,507	100.00	-0.11
0-14세	19,032	14.89	18,336	14.43	17,602	13.80	-3.83
15-64세	84,882	66.42	84,402	66.41	85,027	66.68	0.09
65세 이상	23,883	18.69	24,359	19.17	31,616	24.80	15.06
계룡시	41,411	100.00	42,760	100.00	43,088	100.00	2.00
0-14세	9,774	23.60	9,805	22.93	9,558	22.18	-1.11
15-64세	28,865	69.70	30,038	70.25	30,475	70.73	2.75
65세 이상	2,772	6.69	2,917	6.82	3,970	9.21	19.67

※ : KOSIS 국가통계포털

<표 IV-5> 충남 시군별 연령계층별 주민등록인구(군지역)

(단위 : 명, %)

	년		2009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08~’10)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56,740	100.00	56,220	100.00	56,555	100.00	-0.16
0-14세	7,467	13.16	7,150	12.72	7,091	12.54	-2.55
15-64세	36,631	64.56	36,312	64.59	36,528	64.59	-0.14
65세 이상	12,642	22.28	12,758	22.69	16,306	28.83	13.57
연기군	78,645	100.00	79,482	100.00	81,871	100.00	2.03
0-14세	12,503	15.90	12,491	15.72	12,438	15.19	-0.26
15-64세	53,358	67.85	54,021	67.97	56,055	68.47	2.50
65세 이상	12,784	16.26	12,970	16.32	17,245	21.06	16.14
부여군	76,687	100.00	75,564	100.00	75,029	100.00	-1.09
0-14세	9,996	13.03	9,388	12.42	8,761	11.68	-6.38
15-64세	48,314	63.00	47,576	62.96	47,407	63.18	-0.94
65세 이상	18,377	23.96	18,600	24.61	24,309	32.40	15.01
서천군	60,507	100.00	60,066	100.00	60,085	100.00	-0.35
0-14세	7,424	12.27	7,040	11.72	6,672	11.10	-5.20
15-64세	37,795	62.46	37,440	62.33	37,574	62.53	-0.29
65세 이상	15,288	25.27	15,586	25.95	20,553	34.21	15.95
청양군	33,062	100.00	32,613	100.00	32,541	100.00	-0.79
0-14세	3,913	11.84	3,671	11.26	3,488	10.72	-5.59
15-64세	20,106	60.81	19,774	60.63	19,812	60.88	-0.73
65세 이상	9,043	27.35	9,168	28.11	11,652	35.81	13.51
홍성군	88,176	100.00	87,631	100.00	88,078	100.00	-0.06
0-14세	13,000	14.74	12,583	14.36	12,199	13.85	-3.13
15-64세	57,831	65.59	57,319	65.41	57,876	65.71	0.04
65세 이상	17,345	19.67	17,729	20.23	22,820	25.91	14.70
예산군	88,144	100.00	87,163	100.00	87,002	100.00	-0.65
0-14세	11,676	13.25	11,176	12.82	10,624	12.21	-4.61
15-64세	57,893	65.68	57,087	65.49	57,238	65.79	-0.57
65세 이상	18,575	21.07	18,900	21.68	24,032	27.62	13.74
태안군	63,401	100.00	63,095	100.00	63,247	100.00	-0.12
0-14세	8,081	12.75	7,796	12.36	7,491	11.84	-3.72
15-64세	42,536	67.09	42,050	66.65	42,123	66.60	-0.49
65세 이상	12,784	20.16	13,249	21.00	16,919	26.75	15.04
당진군	136,432	100.00	138,798	100.00	144,903	100.00	3.06
0-14세	22,221	16.29	22,176	15.98	23,155	15.98	2.08
15-64세	92,442	67.76	94,376	68.00	99,030	68.34	3.50
65세 이상	21,769	15.96	22,246	16.03	28,806	19.88	15.03

※ : KOSIS 국가통계포털

한편, 충남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00년 1,377,091명에서 2010년 현재, 1,429,461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1.88%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인구 중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8.22%에서 2010년 68.87%로 다소 증가하였다. 충남의 노년인구(65세 이상)는 2000년 293,688명에서 2010년 현재, 391,083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15.40%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인구 중 노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4.55%에서 2010년 18.84%로 증가하였다.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의 기준이 되는 노년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지역은 공주, 보령,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지역이며, 고령사회(aged society)의 기준이 되는 노년인구 비율이 14%~20%인 지역은 서산, 당진이다. 반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의 기준이 되는 노년인구 비율이 7% 이상이나, 고령사회로 진입하지 않은 지역은 천안, 아산, 계룡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생산가능인구

충남의 생산가능인구는 '08~'10년 기간 중 연평균 1.88%씩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08~'10년 기간 중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연기, 홍성, 당진지역이다.

<표 IV-6> 충남 시군별 생산가능인구

(단위 : 명, %)

	년		2009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08~’10)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377,091	68.22	1,394,476	68.44	1,429,461	68.87	1.88
천안시	385,610	71.71	391,347	72.36	407,363	73.05	2.78
공주시	85,040	67.95	84,405	67.97	85,423	68.38	0.22
보령시	71,993	67.36	72,045	67.49	72,732	67.75	0.51
아산시	168,272	69.84	179,077	69.83	185,833	70.08	5.09
서산시	105,523	67.27	107,207	67.47	108,965	67.90	1.62
논산시	84,882	66.42	84,402	66.41	85,027	66.68	0.09
계룡시	28,865	69.70	30,038	70.25	30,475	70.73	2.75
금산군	36,631	64.56	36,312	64.59	36,528	64.59	-0.14
연기군	53,358	67.85	54,021	67.97	56,055	68.47	2.50
부여군	48,314	63.00	47,576	62.96	47,407	63.18	-0.94
서천군	37,795	62.46	37,440	62.33	37,574	62.53	-0.29
청양군	20,106	60.81	19,774	60.63	19,812	60.88	-0.73
홍성군	57,831	65.59	57,319	65.41	57,876	65.71	0.04
예산군	57,893	65.68	57,087	65.49	57,238	65.79	-0.57
태안군	42,536	67.09	42,050	66.65	42,123	66.60	-0.49
당진군	92,442	67.76	94,376	68.00	99,030	68.34	3.50

※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반면, 감소지역은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지역이다. 2010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천안(73.05%)이며, 다음으로 계룡(70.73%), 아산(70.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양군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60.88%로 도내 16개 시군 중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서천과 부여지역이 각각 62.53%, 63.18%로 생산가능인구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충남의 생산가능인구는 '08~'10년 기간 중 연평균 1.88%씩 증가하고 있으나, 성별로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중 남성인구는 2008년 720,463명에서 2010년 749,549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1.99%씩 증가한 반면, 생산가능 여성인구는 동 기간 중 656,628명에서 680,002명으로 연평균 1.76%씩 증가하였다.

<표 IV-7> 충남 시군별 성별 생산가능인구(시지역)

(단위 : 명, %)

	년		2009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08~’10)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377,091	100.00	1,394,476	100.00	1,429,461	100.00	1.88
남	720,463	52.32	730,291	52.37	749,459	52.43	1.99
여	656,628	47.68	664,185	47.63	680,002	47.57	1.76
천안시	385,610	100.00	391,347	100.00	407,363	100.00	2.78
남	197,702	51.27	200,577	51.25	209,608	51.45	2.97
여	187,908	48.73	190,770	48.75	197,755	48.55	2.59
공주시	85,040	100.00	84,405	100.00	85,423	100.00	0.22
남	44,684	52.54	44,527	52.75	45,137	52.84	0.51
여	40,356	47.46	39,878	47.25	40,286	47.16	-0.09
보령시	71,993	100.00	72,045	100.00	72,732	100.00	0.51
남	38,033	52.83	38,148	52.95	38,479	52.91	0.58
여	33,960	47.17	33,897	47.05	34,253	47.09	0.43
아산시	168,272	100.00	179,077	100.00	185,833	100.00	5.09
남	88,066	52.34	93,259	52.08	96,830	52.11	4.86
여	80,206	47.66	85,818	47.92	89,003	47.89	5.34
서산시	105,523	100.00	107,207	100.00	108,965	100.00	1.62
남	55,510	52.60	56,531	52.73	57,426	52.70	1.71
여	50,013	47.40	50,676	47.27	51,539	47.30	1.51
논산시	84,882	100.00	84,402	100.00	85,027	100.00	0.09
남	44,785	52.76	44,615	52.86	44,910	52.82	0.14
여	40,097	47.24	39,787	47.14	40,117	47.18	0.02
계룡시	28,865	100.00	30,038	100.00	30,475	100.00	2.75
남	14,381	49.82	14,993	49.91	15,234	49.99	2.92
여	14,484	50.18	15,045	50.09	15,241	50.01	2.58

※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표 IV-8> 충남 시군별 성별 생산가능인구(군지역)

(단위 : 명, %)

	년		2009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08~‘10)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36,631	100.00	36,312	100.00	36,528	100.00	-0.14
남	19,860	54.22	19,727	54.33	19,882	54.43	0.06
여	16,771	45.78	16,585	45.67	16,646	45.57	-0.37
연기군	53,358	100.00	54,021	100.00	56,055	100.00	2.50
남	28,607	53.61	29,007	53.70	29,971	53.47	2.36
여	24,751	46.39	25,014	46.30	26,084	46.53	2.66
부여군	48,314	100.00	47,576	100.00	47,407	100.00	-0.94
남	25,594	52.97	25,353	53.29	25,251	53.26	-0.67
여	22,720	47.03	22,223	46.71	22,156	46.74	-1.25
서천군	37,795	100.00	37,440	100.00	37,574	100.00	-0.29
남	19,998	52.91	19,837	52.98	19,918	53.01	-0.20
여	17,797	47.09	17,603	47.02	17,656	46.99	-0.40
청양군	20,106	100.00	19,774	100.00	19,812	100.00	-0.73
남	10,939	54.41	10,827	54.75	10,819	54.61	-0.55
여	9,167	45.59	8,947	45.25	8,993	45.39	-0.95
홍성군	57,831	100.00	57,319	100.00	57,876	100.00	0.04
남	29,960	51.81	29,840	52.06	30,161	52.11	0.33
여	27,871	48.19	27,479	47.94	27,715	47.89	-0.28
예산군	57,893	100.00	57,087	100.00	57,238	100.00	-0.57
남	30,411	52.53	30,104	52.73	30,239	52.83	-0.28
여	27,482	47.47	26,983	47.27	26,999	47.17	-0.88
태안군	42,536	100.00	42,050	100.00	42,123	100.00	-0.49
남	22,415	52.70	22,207	52.81	22,293	52.92	-0.27
여	20,121	47.30	19,843	47.19	19,830	47.08	-0.73
당진군	92,442	100.00	94,376	100.00	99,030	100.00	3.50
남	49,518	53.57	50,739	53.76	53,301	53.82	3.75
여	42,924	46.43	43,637	46.24	45,729	46.18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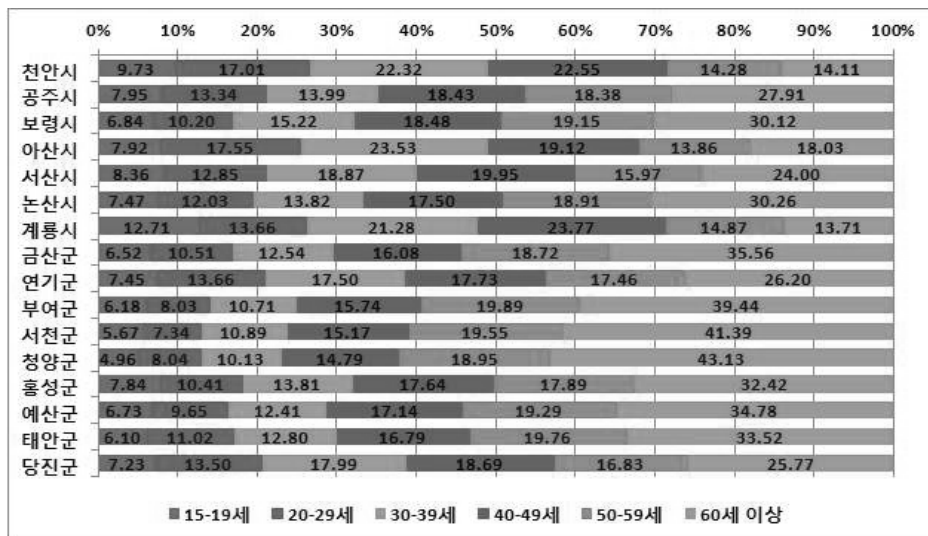
※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충남의 생산가능인구는 충남의 ‘08~‘10년 기간 중 연평균 1.88%씩 증가하고 있으나, 연령 계층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중 청년층(15~29세) 인구는 2008년 400,957명에서 2010년 현재, 397,538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0.43%씩 감소하였다.

생산가능인구 중 중고령층(30~59세) 인구는 2008년 887,064명에서 2010년 현재, 931,553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2.48%씩 증가하였으며, 생산가능인구 중 노년층(60~64세) 인구는 2008년 89,070명에서 2010년 현재, 100,370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6.15%씩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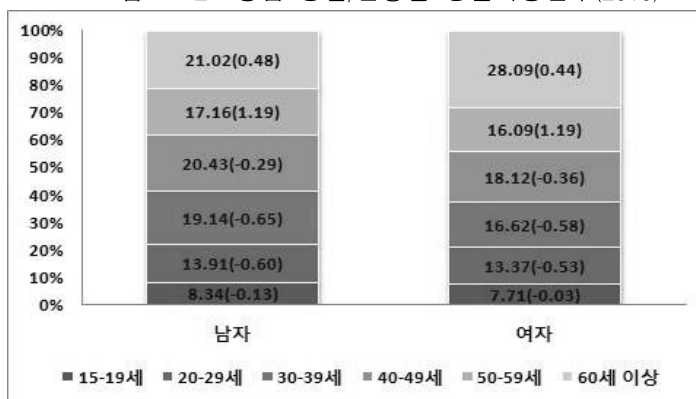
충남의 성별/연령별 생산가능인구 비중 및 증감에서의 특징적인 것은 15-29 연령계층 남자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8.34%로 기준년도에 비해 비중이 0.13%p 감소하였으며 이는 동 기간동안 비중이 0.03%p 감소한 여자보다 큰 수치이다. 특히, 여자의 경우 60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28.09%로 60세 이상 남성 21.09%보다 성별/연령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중 증감 역시 남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림 IV-1> 충남 시군별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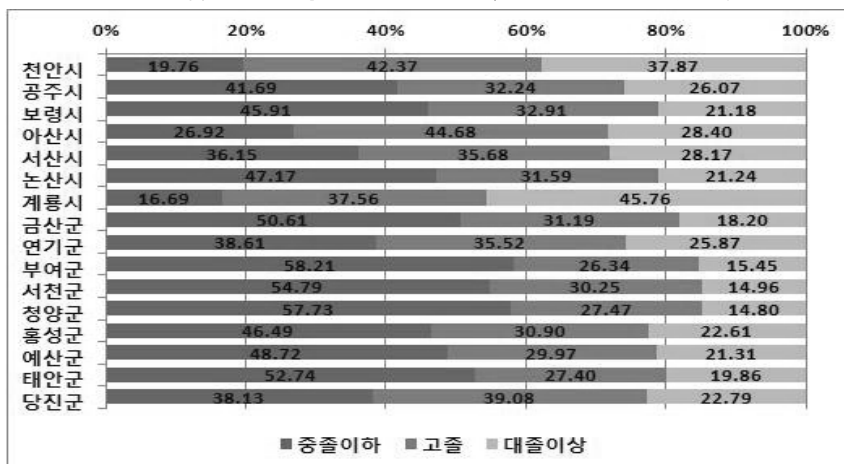
<그림 IV-2> 충남 성별/연령별 생산가능인구(2010)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충남의 2010년 교육정도별 생산가능인구를 살펴보면 중졸이하가 336,193명으로 33.25%, 고졸이 273,299명으로 36.82%, 대졸이상이 302,623명으로 29.93%를 차지하였다. 생산가능인구 중 중졸이하가 33.25%로 2008년 비해 연평균 1.79% 감소하였으며, 고졸은 연평균 1.61%, 대졸이상은 4.58% 증가하여, 특히 대졸이상 생산가능인구의 증가가 특징적이다. 시지역에서는 계룡시의 2010년 고졸 생산가능인구가 5,267명으로 34.34%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10.32%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군지역에서는 금산군과 연기군, 홍성군의 대졸이상 생산가능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9.53%, 12.00%, 9.65%로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며, 금산군과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의 경우 대졸이상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타 시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림 IV-3> 충남 시군별 교육정도별 생산가능인구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3) 경제활동인구 추이

충남의 경제활동인구는 2008년 985,826명에서 2010년 현재, 1,011,115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1.27%씩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계룡, 금산, 연기, 태안, 당진지역인 반면, 논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지역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2010년 현재, 충남 북부권에 소재하고 있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지역에 도내 전체경제활동인구의 53.61%가 분포하고 있다. 천안지역의 경제활동인구는 도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25.27%에 해당하는 255,536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아산 123,746명(12.24%), 서산 81,959명(8.11%), 당진 74,845명(7.40%) 등의 순이다. 충남의 경제활동인구는 '08~'10년 기간 중 연평균 1.27%씩 증가하고 있으나, 성별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IV-9> 충남 시군별 경제활동인구

(단위 : 명, %)

	년		2009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08~’10)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985,826	100.00	990,404	100.00	1,011,115	100.00	1.27
천안시	249,520	25.31	252,677	25.51	255,536	25.27	1.20
공주시	60,767	6.16	62,669	6.33	61,541	6.09	0.63
보령시	48,849	4.96	50,639	5.11	52,055	5.15	3.23
아산시	116,140	11.78	117,375	11.85	123,746	12.24	3.22
서산시	76,776	7.79	77,955	7.87	81,959	8.11	3.32
논산시	66,052	6.70	63,988	6.46	62,952	6.23	-2.37
계룡시	13,340	1.35	14,296	1.44	15,336	1.52	7.22
금산군	28,275	2.87	27,435	2.77	31,039	3.07	4.77
연기군	35,120	3.56	37,092	3.75	38,646	3.82	4.90
부여군	40,483	4.11	39,768	4.02	38,689	3.83	-2.24
서천군	31,827	3.23	30,233	3.05	31,202	3.09	-0.99
청양군	18,881	1.92	18,044	1.82	18,308	1.81	-1.53
홍성군	43,914	4.45	43,864	4.43	43,288	4.28	-0.72
예산군	44,910	4.56	45,492	4.59	43,328	4.29	-1.78
태안군	37,761	3.83	38,468	3.88	38,643	3.82	1.16
당진군	73,211	7.43	70,408	7.11	74,845	7.40	1.11

※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표 IV-10> 충남 시군별 성별 경제활동인구(시지역)

(단위 :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08~’10)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충청남도	985,826	100.00	990,404	100.00	1,011,115	100.00	1.27
남	586,278	59.47	592,470	59.82	601,879	59.53	1.32
여	399,548	40.53	397,934	40.18	409,235	40.47	1.20
천안시	249,520	100.00	252,677	100.00	255,536	100.00	1.20
남	152,547	61.14	154,275	61.06	154,813	60.58	0.74
여	96,972	38.86	98,402	38.94	100,723	39.42	1.92
공주시	60,767	100.00	62,669	100.00	61,541	100.00	0.63
남	36,717	60.42	36,601	58.40	36,829	59.84	0.15
여	24,051	39.58	26,068	41.60	24,713	40.16	1.37
보령시	48,849	100.00	50,639	100.00	52,055	100.00	3.23
남	29,863	61.13	30,809	60.84	31,271	60.07	2.33
여	18,986	38.87	19,831	39.16	20,784	39.93	4.63
아산시	116,140	100.00	117,375	100.00	123,746	100.00	3.22
남	72,670	62.57	75,170	64.04	78,068	63.09	3.65
여	43,470	37.43	42,205	35.96	45,678	36.91	2.51
서산시	76,776	100.00	77,955	100.00	81,959	100.00	3.32
남	46,140	60.10	46,552	59.72	48,901	59.67	2.95
여	30,636	39.90	31,403	40.28	33,058	40.33	3.88
논산시	66,052	100.00	63,988	100.00	62,952	100.00	-2.37
남	36,729	55.61	36,943	57.73	35,589	56.53	-1.56
여	29,324	44.40	27,045	42.27	27,363	43.47	-3.40
계룡시	13,340	100.00	14,296	100.00	15,336	100.00	7.22
남	7,693	57.67	8,031	56.18	8,427	54.95	4.66
여	5,647	42.33	6,264	43.82	6,909	45.05	10.61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경제활동인구 중 남성인구는 2008년 586,278명에서 2010년 현재, 601,879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1.32%씩 증가한 반면, 여성인구는 동 기간 중 399,548명에서 409,235명으로 연평균 1.2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V-11> 충남 시군별 성별 경제활동인구(군지역)

(단위 : 명, %)

	년		2009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08~‘10)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28,275	100.00	27,435	100.00	31,039	100.00	4.77
남	17,060	60.34	16,780	61.16	17,419	56.12	1.05
여	11,215	39.66	10,655	38.84	13,620	43.88	10.20
연기군	35,120	100.00	37,092	100.00	38,646	100.00	4.90
남	21,448	61.07	22,041	59.42	23,007	59.53	3.57
여	13,672	38.93	15,051	40.58	15,639	40.47	6.95
부여군	40,483	100.00	39,768	100.00	38,689	100.00	-2.24
남	22,080	54.54	21,907	55.09	21,907	56.62	-0.39
여	18,404	45.46	17,861	44.91	16,783	43.38	-4.51
서천군	31,827	100.00	30,233	100.00	31,202	100.00	-0.99
남	17,696	55.60	16,808	55.59	16,961	54.36	-2.10
여	14,131	44.40	13,425	44.41	14,241	45.64	0.39
청양군	18,881	100.00	18,044	100.00	18,308	100.00	-1.53
남	10,289	54.49	10,294	57.05	10,284	56.17	-0.02
여	8,592	45.51	7,750	42.95	8,024	43.83	-3.36
홍성군	43,914	100.00	43,864	100.00	43,288	100.00	-0.72
남	24,918	56.74	25,682	58.55	25,268	58.37	0.70
여	18,996	43.26	18,182	41.45	18,019	41.63	-2.61
예산군	44,910	100.00	45,492	100.00	43,328	100.00	-1.78
남	25,549	56.89	25,160	55.31	25,795	59.53	0.48
여	19,361	43.11	20,332	44.69	17,533	40.47	-4.84
태안군	37,761	100.00	38,468	100.00	38,643	100.00	1.16
남	20,995	55.60	21,348	55.50	21,114	54.64	0.28
여	16,766	44.40	17,120	44.50	17,530	45.36	2.25
당진군	73,211	100.00	70,408	100.00	74,845	100.00	1.11
남	43,884	59.94	44,069	62.59	46,225	61.76	2.63
여	29,327	40.06	26,339	37.41	28,620	38.24	-1.21

※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충남의 경제활동인구는 '08~'10년 기간 중 연평균 1.27%씩 증가하고 있으나, 연령계층별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중 청년층(15~29세)인구는 2008년 132,642명에서 2010년 현재, 133,409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1.19%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 중 중고령층(30~59세)인구는 2008년 655,182명에서 2010년 현재, 676,627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1.62%씩 증가하였다. 한편, 경제활동인구 중 노년층(60세 이상)인

구는 2008년 194,002명에서 2010년 현재, 201,086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1.81%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충남 시군별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시지역)

(단위 : 명, %)

	년		2009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08~’10)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985,826	100.00	990,404	100.00	1,011,115	100.00	1.27
15-29세	136,642	13.86	133,523	13.48	133,409	13.19	-1.19
30-59세	655,182	66.46	665,909	67.24	676,627	66.92	1.62
60세 이상	194,002	19.68	190,972	19.28	201,086	19.89	1.81
천안시	249,520	100.00	252,677	100.00	255,536	100.00	1.20
15-29세	46,008	18.44	45,057	17.83	43,421	16.99	-2.85
30-59세	184,562	73.97	184,250	72.92	188,630	73.82	1.10
60세 이상	18,949	7.59	23,370	9.25	23,486	9.19	11.33
공주시	60,767	100.00	62,669	100.00	61,541	100.00	0.63
15-29세	7,161	11.78	8,125	12.96	6,584	10.70	-4.11
30-59세	40,899	67.30	41,481	66.19	40,812	66.32	-0.11
60세 이상	12,707	20.91	13,063	20.84	14,147	22.99	5.51
보령시	48,849	100.00	50,639	100.00	52,055	100.00	3.23
15-29세	5,989	12.26	5,731	11.32	5,763	11.07	-1.90
30-59세	32,111	65.74	33,161	65.49	34,091	65.49	3.04
60세 이상	10,750	22.01	11,748	23.20	12,201	23.44	6.54
아산시	116,140	100.00	117,375	100.00	123,746	100.00	3.22
15-29세	24,694	21.26	20,798	17.72	21,978	17.76	-5.66
30-59세	77,518	66.75	82,512	70.30	87,363	70.60	6.16
60세 이상	13,928	11.99	14,065	11.98	14,406	11.64	1.70
서산시	76,776	100.00	77,955	100.00	81,959	100.00	3.32
15-29세	9,826	12.80	9,634	12.36	10,025	12.23	1.01
30-59세	50,018	65.15	51,179	65.65	53,148	64.85	3.08
60세 이상	16,932	22.05	17,142	21.99	18,786	22.92	5.33
논산시	66,052	100.00	63,988	100.00	62,952	100.00	-2.37
15-29세	6,659	10.08	6,569	10.27	6,331	10.06	-2.49
30-59세	41,788	63.27	42,964	67.14	41,069	65.24	-0.86
60세 이상	17,604	26.65	14,455	22.59	15,553	24.71	-6.01
계룡시	13,340	100.00	14,296	100.00	15,336	100.00	7.22
15-29세	1,812	13.58	1,985	13.89	2,213	14.43	10.51
30-59세	10,404	77.99	11,349	79.39	11,896	77.57	6.93
60세 이상	1,124	8.43	961	6.72	1,225	7.99	4.40

※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표 IV-13> 충남 시군별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군지역)

(단위 : 명, %)

	년		2009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08~’10)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28,275	100.00	27,435	100.00	31,039	100.00	4.77
15-29세	2,701	9.55	2,421	8.82	2,733	8.81	0.59
30-59세	16,893	59.75	17,026	62.06	18,401	59.28	4.37
60세 이상	8,681	30.70	7,988	29.12	9,906	31.91	6.82
연기군	35,120	100.00	37,092	100.00	38,646	100.00	4.90
15-29세	4,676	13.31	4,810	12.97	5,116	13.24	4.60
30-59세	24,282	69.14	25,647	69.14	26,748	69.21	4.96
60세 이상	6,162	17.55	6,635	17.89	6,783	17.55	4.92
부여군	40,483	100.00	39,768	100.00	38,689	100.00	-2.24
15-29세	2,519	6.22	2,696	6.78	2,813	7.27	5.67
30-59세	24,661	60.92	24,530	61.68	23,507	60.76	-2.37
60세 이상	13,304	32.86	12,542	31.54	12,370	31.97	-3.57
서천군	31,827	100.00	30,233	100.00	31,202	100.00	-0.99
15-29세	2,160	6.79	1,998	6.61	2,151	6.89	-0.21
30-59세	18,499	58.12	17,941	59.34	18,344	58.79	-0.42
60세 이상	11,168	35.09	10,294	34.05	10,708	34.32	-2.08
청양군	18,881	100.00	18,044	100.00	18,308	100.00	-1.53
15-29세	985	5.22	1,279	7.09	1,348	7.36	16.98
30-59세	10,448	55.34	9,979	55.30	10,074	55.03	-1.81
60세 이상	7,447	39.44	6,786	37.61	6,886	37.61	-3.84
홍성군	43,914	100.00	43,864	100.00	43,288	100.00	-0.72
15-29세	4,534	10.32	4,913	11.20	4,483	10.36	-0.56
30-59세	28,018	63.80	27,467	62.62	27,145	62.71	-1.57
60세 이상	11,363	25.88	11,485	26.18	11,660	26.94	1.30
예산군	44,910	100.00	45,492	100.00	43,328	100.00	-1.78
15-29세	3,912	8.71	4,101	9.01	4,026	9.29	1.45
30-59세	27,698	61.67	27,705	60.90	26,883	62.05	-1.48
60세 이상	13,300	29.61	13,686	30.08	12,418	28.66	-3.37
태안군	37,761	100.00	38,468	100.00	38,643	100.00	1.16
15-29세	3,738	9.90	3,943	10.25	3,711	9.60	-0.36
30-59세	22,230	58.87	22,547	58.61	22,019	56.98	-0.48
60세 이상	11,793	31.23	11,978	31.14	12,915	33.42	4.65
당진군	73,211	100.00	70,408	100.00	74,845	100.00	1.11
15-29세	9,265	12.66	9,462	13.44	10,713	14.31	7.53
30-59세	45,157	61.68	46,173	65.58	46,497	62.12	1.47
60세 이상	18,790	25.67	14,774	20.98	17,636	23.56	-3.12

※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4) 고용상황 추이

2010년 현재, 충남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49%로 2008년(62.83%) 대비 0.34%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0년 현재, 충남의 고용률은 60.72%로 2008년(61.23%) 대비 0.51%p 감소한 반면, 충남의 실업률은 2.82%로 2008년(2.54%) 대비 0.28%p 증가하였다. 2010년 현재, 태안군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2.1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청양 68.58%, 금산 67.79%, 서산 66.0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계룡시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2.80%로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연기 59.50%, 공주 59.90%, 논산 60.59%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14> 충남 시군별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실업률(시지역)

(단위 : %)

		년	2009년	2010년	기준년도 대비 증감
	경제활동참가율	62.83	62.06	62.49	-0.34
	고용률	61.23	60.46	60.72	-0.51
	실업률	2.54	2.58	2.82	0.28
천안시	경제활동참가율	61.77	61.56	60.89	-0.88
	고용률	59.91	59.31	58.53	-1.38
	실업률	3.01	3.66	3.87	0.86
공주시	경제활동참가율	59.21	60.92	59.90	0.69
	고용률	57.43	59.75	58.59	1.16
	실업률	3.01	1.92	2.20	-0.82
보령시	경제활동참가율	58.75	60.48	61.88	3.13
	고용률	57.32	59.28	60.95	3.63
	실업률	2.44	2.00	1.50	-0.94
아산시	경제활동참가율	64.18	61.42	62.11	-2.07
	고용률	61.92	59.43	60.00	-1.92
	실업률	3.52	3.24	3.40	-0.12
서산시	경제활동참가율	64.14	63.66	66.09	1.96
	고용률	62.33	62.70	64.21	1.88
	실업률	2.81	1.50	2.85	0.04
논산시	경제활동참가율	63.68	61.45	60.59	-3.09
	고용률	62.45	59.85	59.73	-2.73
	실업률	1.92	2.60	1.42	-0.50
계룡시	경제활동참가율	49.94	50.44	52.80	2.86
	고용률	48.34	48.61	50.89	2.55
	실업률	3.20	3.62	3.61	0.40

※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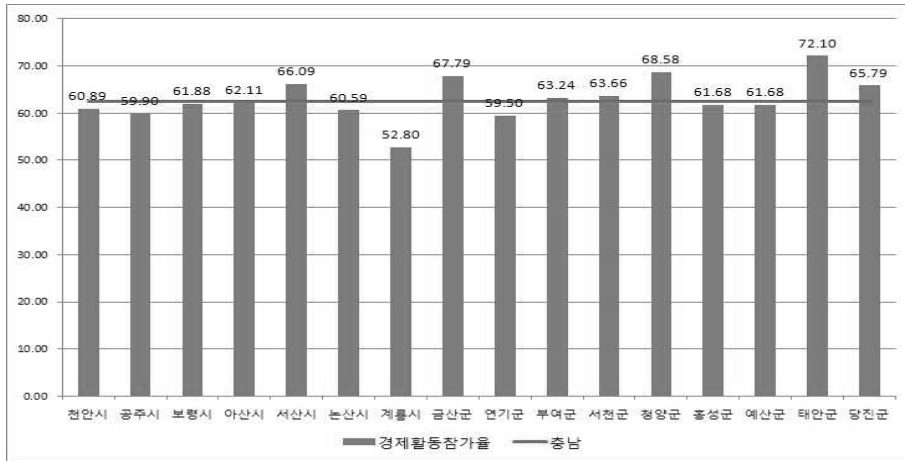
<표 IV-15> 충남 시군별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실업률(군지역)

(단위 : %)

		년	2009년	2010년	기준년도 대비 증감
	경제활동참가율	61.70	59.70	67.79	6.09
	고용률	61.01	59.28	66.61	5.60
	실업률	1.12	0.69	1.74	0.62
연기군	경제활동참가율	55.56	58.45	59.50	3.94
	고용률	53.84	57.01	57.54	3.69
	실업률	3.09	2.46	3.30	0.21
부여군	경제활동참가율	65.53	64.51	63.24	-2.29
	고용률	65.04	63.99	61.27	-3.77
	실업률	0.75	0.80	3.12	2.37
서천군	경제활동참가율	64.86	61.65	63.66	-1.19
	고용률	63.95	61.12	62.68	-1.28
	실업률	1.39	0.85	1.55	0.16
청양군	경제활동참가율	70.18	67.08	68.58	-1.60
	고용률	69.31	66.15	67.89	-1.42
	실업률	1.24	1.39	1.02	-0.23
홍성군	경제활동참가율	62.71	62.33	61.68	-1.03
	고용률	60.68	60.24	59.88	-0.79
	실업률	3.25	3.35	2.92	-0.33
예산군	경제활동참가율	63.54	64.46	61.68	-1.86
	고용률	62.17	63.57	60.05	-2.12
	실업률	2.16	1.38	2.64	0.49
태안군	경제활동참가율	70.53	71.57	72.10	1.57
	고용률	69.48	69.04	70.50	1.02
	실업률	1.48	3.53	2.22	0.73
당진군	경제활동참가율	68.31	63.42	65.79	-2.51
	고용률	67.13	62.00	64.40	-2.73
	실업률	1.72	2.24	2.12	0.40

※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IV-4> 충남 시군별 경제활동참가율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표 IV-16> 충남 시군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시지역)

(단위 : %)

		년	2009년	2010년	기준년도 대비증감
	경제활동참가율	62.83	62.06	62.49	-0.34
	남	75.90	75.20	75.29	-0.60
	여	50.16	49.25	49.98	-0.17
천안시	경제활동참가율	61.77	61.56	60.89	-0.88
	남	76.05	75.49	74.01	-2.04
	여	47.69	47.74	47.85	0.17
공주시	경제활동참가율	59.21	60.92	59.90	0.69
	남	72.58	71.94	72.36	-0.22
	여	46.22	50.13	47.67	1.46
보령시	경제활동참가율	58.75	60.48	61.88	3.13
	남	73.31	74.99	75.72	2.42
	여	44.77	46.51	48.53	3.76
아산시	경제활동참가율	64.18	61.42	62.11	-2.07
	남	79.61	77.95	78.00	-1.62
	여	48.47	44.58	46.08	-2.40
서산시	경제활동참가율	64.14	63.66	66.09	1.96
	남	78.11	76.70	79.41	1.29
	여	50.52	50.85	52.96	2.44
논산시	경제활동참가율	63.68	61.45	60.59	-3.09
	남	72.65	72.58	70.05	-2.60
	여	55.14	50.80	51.53	-3.61
계룡시	경제활동참가율	49.94	50.44	52.80	2.86
	남	67.35	65.29	66.36	-0.99
	여	36.93	39.05	42.26	5.33

※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2010년 현재, 충남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49%로 2008년(62.83%) 대비 0.34%p 감소하였으며,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보다 훨씬 높게 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5.20%로 2008년(75.90%) 대비 0.60%p 감소한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98%로 2008년(50.16%) 대비 0.17%p 감소하는 데 그쳤다.

<표 IV-17> 충남 시군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군지역)

(단위 : %)

		년	2009년	2010년	기준년도 대비 증감
	경제활동참가율	61.70	59.70	67.79	6.09
	남	75.91	74.32	77.45	1.53
	여	48.03	45.57	58.47	10.44
연기군	경제활동참가율	55.56	58.45	59.50	3.94
	남	68.02	69.28	70.65	2.63
	여	43.16	47.56	48.29	5.13
부여군	경제활동참가율	65.53	64.51	63.24	-2.29
	남	75.07	74.52	74.98	-0.10
	여	56.86	55.38	52.51	-4.35
서천군	경제활동참가율	64.86	61.65	63.66	-1.19
	남	76.50	72.76	73.69	-2.81
	여	54.47	51.75	54.79	0.31
청양군	경제활동참가율	70.18	67.08	68.58	-1.60
	남	79.29	79.08	79.67	0.39
	여	61.70	55.83	58.20	-3.50
홍성군	경제활동참가율	62.71	62.33	61.68	-1.03
	남	73.43	75.13	73.98	0.55
	여	52.64	50.23	50.02	-2.62
예산군	경제활동참가율	63.54	64.46	61.68	-1.86
	남	74.49	73.45	75.60	1.11
	여	53.22	55.99	48.54	-4.69
태안군	경제활동참가율	70.53	71.57	72.10	1.57
	남	79.80	80.63	80.04	0.24
	여	61.57	62.77	64.40	2.83
당진군	경제활동참가율	68.31	63.42	65.79	-2.51
	남	81.05	78.15	79.75	-1.30
	여	55.30	48.22	51.29	-4.00

※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충남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62.83%에서 2010년 62.49%로 동 기간 중 약 0.34%p 감소한 가운데 연령계층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년층(1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39.05%에서 2010년 현재, 38.06으로 동 기간 중 0.98%p 감소하였으며, 중고령층(30

~5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84.37%에서 2010년 현재, 77.81%로 동 기간 중 6.56%p 감소하였다. 또한 노년층(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51.19%에서 2010년 현재, 50.52%로 동 기간 중 0.67%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 충남 시군별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시지역)

(단위 : %)

		년	2009년	2010년	기준년도 대비증감
	경제활동참가율	62.83	62.06	62.49	-0.34
	15-29세	39.05	38.18	38.06	-0.98
	30-59세	84.37	77.65	77.81	-6.56
	60세 이상	51.19	49.14	50.52	-0.67
천안시	경제활동참가율	61.77	61.56	60.89	-0.88
	15-29세	41.97	40.85	38.70	-3.27
	30-59세	82.16	75.78	75.98	-6.18
	60세 이상	34.32	40.99	39.66	5.34
공주시	경제활동참가율	59.21	60.92	59.90	0.69
	15-29세	31.55	36.62	30.10	-1.44
	30-59세	86.50	78.97	78.20	-8.30
	60세 이상	46.06	46.38	49.34	3.28
보령시	경제활동참가율	58.75	60.48	61.88	3.13
	15-29세	40.08	39.23	40.22	0.14
	30-59세	82.51	74.79	76.68	-5.83
	60세 이상	44.48	47.41	48.15	3.67
아산시	경제활동참가율	64.18	61.42	62.11	-2.07
	15-29세	51.75	42.04	43.32	-8.43
	30-59세	83.12	77.19	77.60	-5.53
	60세 이상	41.75	40.49	40.11	-1.64
서산시	경제활동참가율	64.14	63.66	66.09	1.96
	15-29세	37.31	36.49	38.11	0.80
	30-59세	81.91	76.21	78.22	-3.69
	60세 이상	60.58	59.31	63.13	2.56
논산시	경제활동참가율	63.68	61.45	60.59	-3.09
	15-29세	31.42	31.55	31.25	-0.17
	30-59세	87.90	81.97	78.68	-9.22
	60세 이상	58.10	46.78	49.47	-8.63
계룡시	경제활동참가율	49.94	50.44	52.80	2.86
	15-29세	25.10	26.26	28.89	3.79
	30-59세	75.50	66.85	68.35	-7.15
	60세 이상	31.61	25.24	30.76	-0.85

※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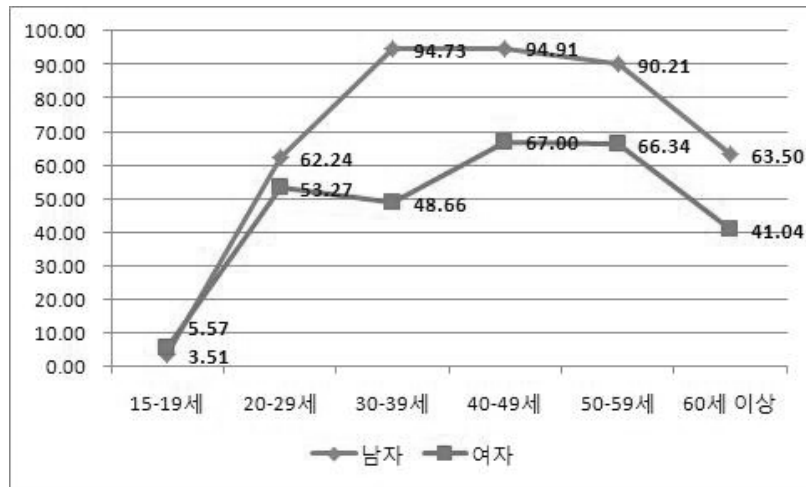
<표 IV-19> 충남 시군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군지역)

(단위 : %)

		년	2009년	2010년	기준년도 대비 증감
	경제활동참가율	61.70	59.70	67.79	6.09
	15-29세	32.62	30.07	35.05	2.43
	30-59세	85.78	78.09	84.90	-0.88
	60세 이상	54.52	49.60	60.85	6.33
연기군	경제활동참가율	55.56	58.45	59.50	3.94
	15-29세	33.81	35.93	37.30	3.49
	30-59세	82.85	76.77	78.16	-4.69
	60세 이상	37.62	39.80	39.87	2.25
부여군	경제활동참가율	65.53	64.51	63.24	-2.29
	15-29세	27.36	30.44	32.35	4.99
	30-59세	90.09	84.70	82.91	-7.18
	60세 이상	56.72	52.63	51.26	-5.45
서천군	경제활동참가율	64.86	61.65	63.66	-1.19
	15-29세	32.00	30.58	33.74	1.75
	30-59세	90.18	79.46	82.07	-8.12
	60세 이상	56.99	51.65	52.79	-4.20
청양군	경제활동참가율	70.18	67.08	68.58	-1.60
	15-29세	26.34	35.21	38.86	12.51
	30-59세	92.16	83.61	86.01	-6.16
	60세 이상	66.29	59.89	59.81	-6.48
홍성군	경제활동참가율	62.71	62.33	61.68	-1.03
	15-29세	33.94	37.54	35.01	1.07
	30-59세	86.49	78.55	78.40	-8.09
	60세 이상	52.03	51.45	51.25	-0.78
예산군	경제활동참가율	63.54	64.46	61.68	-1.86
	15-29세	31.88	34.48	34.98	3.10
	30-59세	86.98	79.90	78.36	-8.61
	60세 이상	56.23	57.02	50.83	-5.40
태안군	경제활동참가율	70.53	71.57	72.10	1.57
	15-29세	37.83	41.44	40.44	2.61
	30-59세	88.19	84.36	83.23	-4.96
	60세 이상	69.54	68.41	71.88	2.34
당진군	경제활동참가율	68.31	63.42	65.79	-2.51
	15-29세	40.47	40.47	45.42	4.95
	30-59세	86.22	78.24	76.40	-9.83
	60세 이상	67.59	51.61	60.16	-7.43

※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IV-5> 충남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10년)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충남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62.83%에서 2010년 62.49%로 동 기간 중 약 0.34%p 감소한 가운데 교육정도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0년 현재, 중졸이하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7.84%로 2008년(58.86%) 대비 1.03%p 감소하였으며, 고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77%로 2008년(62.99%) 대비 0.22%p 감소하였다. 또한 대졸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8.21%로 2008년(68.41%) 대비 0.2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 충남 시군별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시지역)

(단위 : %)

		년	2009년	2010년	기준년도 대비 증감
	경제활동참가율	62.83	62.06	62.49	-0.34
	중졸이하	58.86	56.20	57.84	-1.03
	고졸	62.99	63.24	62.77	-0.22
	대졸이상	68.41	68.45	68.21	-0.20
천안시	경제활동참가율	61.77	61.56	60.89	-0.88
	중졸이하	45.83	45.13	48.68	2.85
	고졸	63.37	62.24	61.60	-1.76
	대졸이상	69.49	69.94	66.46	-3.03
공주시	경제활동참가율	59.21	60.92	59.90	0.69
	중졸이하	53.05	56.52	57.11	4.06
	고졸	61.69	60.30	59.49	-2.21
	대졸이상	66.45	68.93	64.90	-1.55
보령시	경제활동참가율	58.75	60.48	61.88	3.13
	중졸이하	51.75	56.11	56.99	5.24
	고졸	58.33	59.35	57.96	-0.37
	대졸이상	74.49	72.44	78.56	4.07
아산시	경제활동참가율	64.18	61.42	62.11	-2.07
	중졸이하	54.46	48.76	49.30	-5.17
	고졸	66.72	65.38	65.16	-1.57
	대졸이상	71.39	67.89	69.49	-1.90
서산시	경제활동참가율	64.14	63.66	66.09	1.96
	중졸이하	65.71	63.97	67.38	1.67
	고졸	60.87	59.74	61.28	0.41
	대졸이상	66.44	68.99	70.53	4.09
논산시	경제활동참가율	63.68	61.45	60.59	-3.09
	중졸이하	64.46	57.31	57.89	-6.57
	고졸	64.16	66.31	64.34	0.18
	대졸이상	60.91	62.84	61.00	0.09
계룡시	경제활동참가율	49.94	50.44	52.80	2.86
	중졸이하	37.32	30.12	36.87	-0.45
	고졸	43.56	45.70	48.28	4.71
	대졸이상	60.29	62.44	62.31	2.02

※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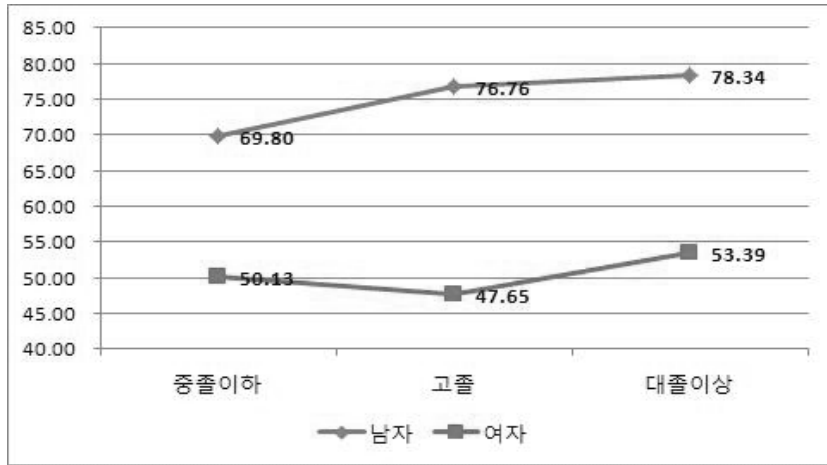
<표 IV-21> 충남 시군별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군지역)

(단위 : %)

		년	2009년	2010년	기준년도 대비 증감
	경제활동참가율	61.70	59.70	67.79	6.09
	중졸이하	60.51	56.94	66.41	5.90
	고졸	64.30	68.92	71.38	7.09
	대졸이상	60.12	52.94	65.50	5.38
연기군	경제활동참가율	55.56	58.45	59.50	3.94
	중졸이하	49.44	50.51	49.81	0.37
	고졸	63.61	68.28	68.10	4.49
	대졸이상	53.49	58.41	62.18	8.68
부여군	경제활동참가율	65.53	64.51	63.24	-2.29
	중졸이하	65.83	60.91	59.88	-5.95
	고졸	62.18	67.41	64.90	2.72
	대졸이상	70.57	72.99	73.10	2.52
서천군	경제활동참가율	64.86	61.65	63.66	-1.19
	중졸이하	61.32	56.76	58.66	-2.66
	고졸	66.47	64.96	66.30	-0.17
	대졸이상	75.17	72.83	76.67	1.51
청양군	경제활동참가율	70.18	67.08	68.58	-1.60
	중졸이하	70.89	65.37	64.66	-6.22
	고졸	66.51	68.73	71.61	5.10
	대졸이상	73.51	70.60	78.25	4.74
홍성군	경제활동참가율	62.71	62.33	61.68	-1.03
	중졸이하	61.25	58.76	58.72	-2.53
	고졸	63.29	59.64	59.62	-3.68
	대졸이상	65.24	74.35	70.59	5.34
예산군	경제활동참가율	63.54	64.46	61.68	-1.86
	중졸이하	63.25	61.65	57.09	-6.16
	고졸	59.55	68.38	63.66	4.10
	대졸이상	70.43	64.90	69.40	-1.04
태안군	경제활동참가율	70.53	71.57	72.10	1.57
	중졸이하	72.26	73.80	74.81	2.55
	고졸	62.28	65.45	61.93	-0.35
	대졸이상	77.12	73.99	78.92	1.80
당진군	경제활동참가율	68.31	63.42	65.79	-2.51
	중졸이하	70.26	58.43	64.10	-6.17
	고졸	63.65	64.77	64.40	0.75
	대졸이상	72.12	69.06	71.02	-1.09

※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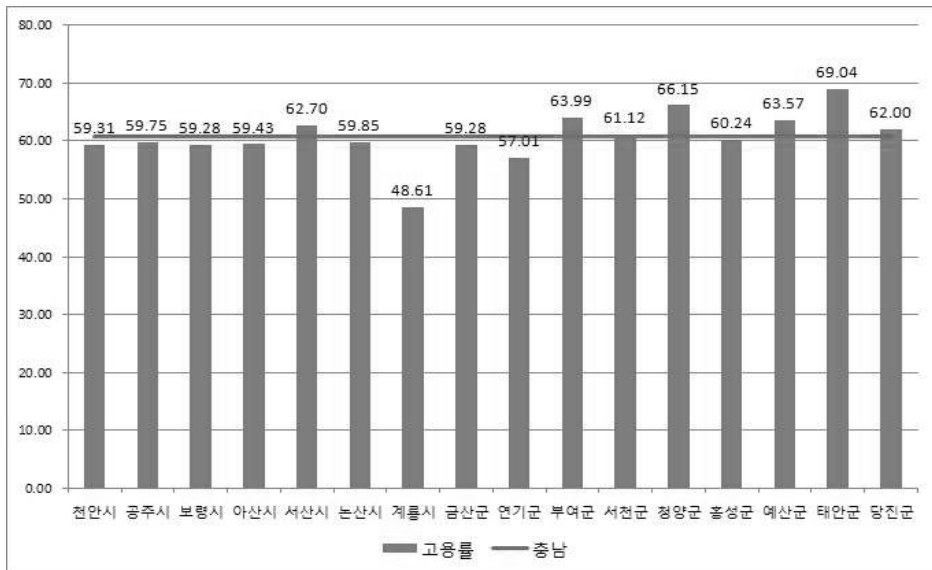
<그림 IV-6> 충남 성별/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2010년 현재, 충남의 고용률은 60.72%로 2008년(61.23%) 대비 0.51%p 감소한 가운데 성별로는 남성의 고용률이 여성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고용률은 73.09%로 2008년(74.07%) 대비 0.98%p 감소하였으며, 여성의 고용율은 48.64%로 2008년(48.78%) 대비 0.14%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7> 충남 시군별 고용률(2010년)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표 IV-22> 충남 시군별 성별 고용률(시지역)

(단위 : %)

		년	2009년	2010년	기준년도 대비증감
	고용률	61.23	60.46	60.72	-0.51
	남	74.07	73.25	73.09	-0.98
	여	48.78	47.99	48.64	-0.14
천안시	고용률	59.91	59.31	58.53	-1.38
	남	74.32	73.06	71.36	-2.96
	여	45.70	45.67	45.78	0.09
공주시	고용률	57.43	59.75	58.59	1.16
	남	70.42	70.44	70.41	-0.01
	여	44.79	49.28	46.98	2.19
보령시	고용률	57.32	59.28	60.95	3.63
	남	70.93	72.78	74.22	3.29
	여	44.25	46.26	48.15	3.91
아산시	고용률	61.92	59.43	60.00	-1.92
	남	77.71	75.84	75.52	-2.19
	여	45.85	42.72	44.33	-1.52
서산시	고용률	62.33	62.70	64.21	1.88
	남	75.89	75.34	77.27	1.39
	여	49.13	50.29	51.32	2.19
논산시	고용률	62.45	59.85	59.73	-2.73
	남	71.23	70.72	68.56	-2.67
	여	54.11	49.45	51.27	-2.84
계룡시	고용률	48.34	48.61	50.89	2.55
	남	64.60	62.32	64.07	-0.53
	여	36.20	38.09	40.65	4.45

※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표 IV-23> 충남 시군별 성별 고용률(군지역)

(단위 : %)

		년	2009년	2010년	기준년도 대비 증감
	고용률	61.01	59.28	66.61	5.60
	남	74.65	73.93	75.86	1.21
	여	47.88	45.13	57.68	9.80
연기군	고용률	53.84	57.01	57.54	3.69
	남	65.60	68.17	68.54	2.94
	여	42.14	45.79	46.46	4.33
부여군	고용률	65.04	63.99	61.27	-3.77
	남	74.27	73.88	71.91	-2.36
	여	56.65	54.97	51.54	-5.10
서천군	고용률	63.95	61.12	62.68	-1.28
	남	74.95	71.91	71.83	-3.13
	여	54.15	51.51	54.58	0.43
청양군	고용률	69.31	66.15	67.89	-1.42
	남	77.81	77.79	78.98	1.18
	여	61.39	55.24	57.50	-3.89
홍성군	고용률	60.68	60.24	59.88	-0.79
	남	70.70	72.46	70.96	0.26
	여	51.25	48.70	49.38	-1.87
예산군	고용률	62.17	63.57	60.05	-2.12
	남	72.95	72.05	73.54	0.59
	여	52.02	55.58	47.31	-4.71
태안군	고용률	69.48	69.04	70.50	1.02
	남	78.24	76.51	78.64	0.40
	여	61.02	61.79	62.61	1.60
당진군	고용률	67.13	62.00	64.40	-2.73
	남	79.58	76.21	77.96	-1.61
	여	54.42	47.33	50.31	-4.11

※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2010년 현재, 충남의 고용률은 60.72%로 2008년(61.23%) 대비 0.51%p 감소하는 가운데 연령계층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34.68%로 2008년(35.92%) 대비 1.24%p 감소하였으며, 중고령층(30~59세)의 고용률 76.06%로 2008년(76.42%) 대비 0.3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년층(60세 이상)의 고용률은 50.14%로 2008년(50.93%) 대비 0.79%p 감소하였다. 충남의 고용률은 60.72%로 2008년(61.23%) 대비 0.51%p 감소하는 가운데 교육 정도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졸이하의 고용률은 57.05%로 2008년(58.22%) 대비 1.17%p 감소하였으며 고졸의 고용률은 60.89%로 2008년(60.81%) 대비 0.0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졸이상의 고용률은 65.31%로 2008년(66.23%) 대비 0.92%p 감소하였다.

<표 IV-24> 충남 시군별 연령계층별 고용률(시지역)

(단위 : %)

		년	2009년	2010년	기준년도 대비 증감
	고용률	61.23	60.46	60.72	-0.51
	15-29세	35.92	35.27	34.68	-1.24
	30-59세	76.42	75.98	76.06	-0.36
	60세 이상	50.93	48.87	50.14	-0.79
천안시	고용률	59.91	59.31	58.53	-1.38
	15-29세	39.11	37.40	35.09	-4.02
	30-59세	75.43	73.64	73.85	-1.58
	60세 이상	34.02	40.55	38.75	4.73
공주시	고용률	57.43	59.75	58.59	1.16
	15-29세	26.24	33.61	27.58	1.34
	30-59세	77.12	77.95	76.73	-0.39
	60세 이상	45.72	46.38	49.22	3.50
보령시	고용률	57.32	59.28	60.95	3.63
	15-29세	35.92	37.78	38.30	2.38
	30-59세	71.62	73.34	75.74	4.12
	60세 이상	44.48	46.78	47.79	3.31
아산시	고용률	61.92	59.43	60.00	-1.92
	15-29세	48.61	39.66	40.52	-8.10
	30-59세	75.16	74.74	75.46	0.30
	60세 이상	41.34	40.49	39.08	-2.26
서산시	고용률	62.33	62.70	64.21	1.88
	15-29세	34.18	33.75	34.59	0.40
	30-59세	74.91	75.55	76.22	1.31
	60세 이상	59.40	59.31	62.96	3.56
논산시	고용률	62.45	59.85	59.73	-2.73
	15-29세	29.32	28.70	29.32	-0.01
	30-59세	78.51	80.12	77.78	-0.73
	60세 이상	57.95	46.45	49.35	-8.60
계룡시	고용률	48.34	48.61	50.89	2.55
	15-29세	23.75	24.12	26.73	2.98
	30-59세	63.46	64.83	66.23	2.77
	60세 이상	30.51	24.89	30.31	-0.20

※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표 IV-25> 충남 시군별 연령계층별 고용률(군지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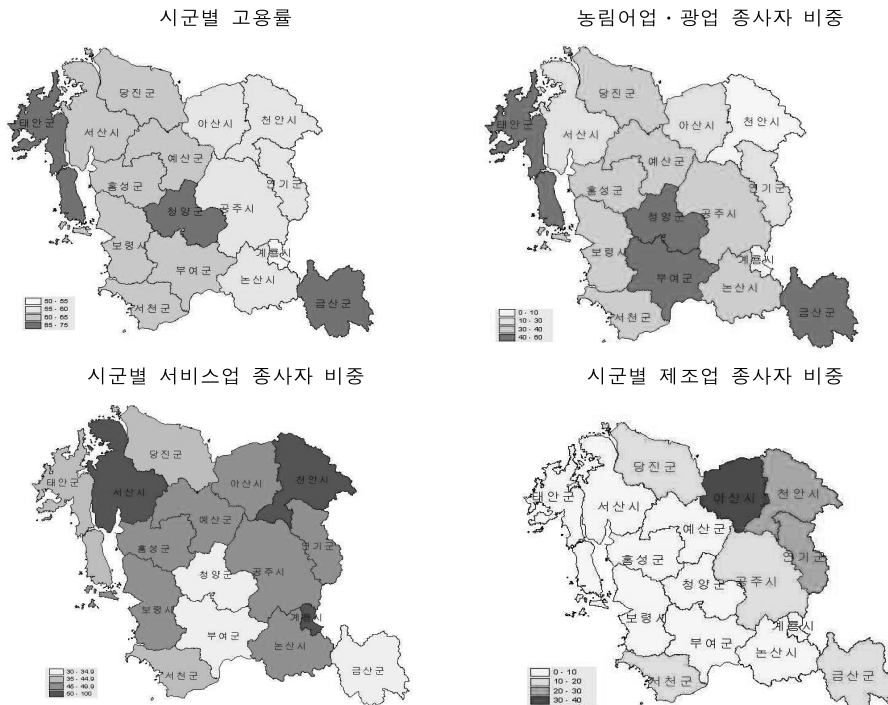
		년	2009년	2010년	기준년도 대비 증감
	고용률	61.01	59.28	66.61	5.60
	15-29세	30.80	27.72	31.61	0.81
	30-59세	77.36	78.09	83.74	6.38
	60세 이상	54.52	49.60	60.72	6.20
연기군	고용률	53.84	57.01	57.54	3.69
	15-29세	31.17	33.76	34.43	3.26
	30-59세	71.49	75.20	75.88	4.39
	60세 이상	37.41	39.23	39.26	1.85
부여군	고용률	65.04	63.99	61.27	-3.77
	15-29세	27.36	30.44	26.94	-0.41
	30-59세	83.66	83.60	80.44	-3.22
	60세 이상	56.72	52.63	51.11	-5.60
서천군	고용률	63.95	61.12	62.68	-1.28
	15-29세	28.32	29.84	31.81	3.49
	30-59세	80.79	78.64	80.81	0.02
	60세 이상	56.70	51.53	52.39	-4.31
청양군	고용률	69.31	66.15	67.89	-1.42
	15-29세	21.74	32.45	35.20	13.45
	30-59세	87.05	82.50	85.51	-1.54
	60세 이상	66.29	59.74	59.81	-6.48
홍성군	고용률	60.68	60.24	59.88	-0.79
	15-29세	28.75	30.77	29.69	0.94
	30-59세	78.43	76.99	76.83	-1.60
	60세 이상	51.87	51.28	51.08	-0.80
예산군	고용률	62.17	63.57	60.05	-2.12
	15-29세	26.25	33.87	31.11	4.87
	30-59세	78.91	78.69	76.48	-2.42
	60세 이상	56.23	56.44	50.60	-5.63
태안군	고용률	69.48	69.04	70.50	1.02
	15-29세	35.23	33.20	35.31	0.08
	30-59세	82.10	82.61	81.95	-0.15
	60세 이상	69.54	67.81	71.61	2.06
당진군	고용률	67.13	62.00	64.40	-2.73
	15-29세	38.10	38.50	40.77	2.67
	30-59세	78.76	76.51	75.60	-3.16
	60세 이상	67.40	51.27	60.16	-7.24

※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한편, 태안군과 금산군의 고용률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이유는 농업인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인구가 많은 지역은 고령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타 지역에 비해 고용률은 높으나 소득수준은 낮은 가능성이 많다. 반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천안시와 아산시 서비스업과 제조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아산시는 충남 지역내에서 제조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내에서 가장 고용률이 낮았던 계룡시의 경우에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계룡대와 관련된 공공서비스 및 음식숙박업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계룡시, 천안시와 함께 비교적 높은 서비스업 비중을 보이는 서산시는 관광산업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 세분류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서산시의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비중은 서산시 전체 취업자의 7%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충남 지역을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네 개 권역(동북, 서북, 동남, 서남)으로 나눌 경우, 동북 지역에 제조업 종사자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동북지역이 서울, 대전 등의 광역도시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8> 충남지역 시군의 산업별 종사자 비중(2010년)

(단위: %)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표 IV-26> 충남 시군별 교육정도별 고용률(시지역)

(단위 : %)

		2008년	2009년	2010년	기준년도 대비 증감
충청남도	고용률	61.23	60.46	60.72	-0.51
	중졸이하	58.22	55.64	57.05	-1.17
	고졸	60.81	61.23	60.89	0.08
	대졸이상	66.23	65.97	65.31	-0.92
천안시	고용률	59.91	59.31	58.53	-1.38
	중졸이하	44.99	44.38	47.21	2.22
	고졸	60.74	59.66	59.33	-1.41
	대졸이상	67.95	67.22	63.55	-4.40
공주시	고용률	57.43	59.75	58.59	1.16
	중졸이하	52.83	56.18	56.85	4.02
	고졸	59.54	59.02	58.60	-0.95
	대졸이상	62.49	66.51	61.36	-1.13
보령시	고용률	57.32	59.28	60.95	3.63
	중졸이하	51.45	55.17	56.49	5.04
	고졸	55.84	58.30	56.31	0.47
	대졸이상	72.03	70.35	77.82	5.79
아산시	고용률	61.92	59.43	60.00	-1.92
	중졸이하	53.11	48.33	47.14	-5.97
	고졸	64.10	62.34	63.17	-0.93
	대졸이상	68.68	65.93	67.23	-1.45
서산시	고용률	62.33	62.70	64.21	1.88
	중졸이하	64.30	63.31	66.59	2.29
	고졸	59.31	59.01	58.71	-0.61
	대졸이상	63.76	67.28	68.13	4.37
논산시	고용률	62.45	59.85	59.73	-2.73
	중졸이하	63.60	56.52	57.17	-6.43
	고졸	62.93	65.05	63.96	1.03
	대졸이상	58.82	58.82	59.10	0.28
계룡시	고용률	48.34	48.61	50.89	2.55
	중졸이하	36.13	29.05	35.86	-0.27
	고졸	41.19	43.66	46.61	5.42
	대졸이상	59.17	60.48	59.89	0.72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표 IV-27> 충남 시군별 교육정도별 고용률(군지역)

(단위 : %)

		년	2009년	2010년	기준년도 대비 증감
	고용률	61.01	59.28	66.61	5.60
	중졸이하	60.51	56.94	66.26	5.75
	고졸	63.48	68.05	69.56	6.07
	대졸이상	57.56	51.96	62.56	5.00
연기군	고용률	53.84	57.01	57.54	3.69
	중졸이하	49.28	49.93	48.81	-0.47
	고졸	60.55	66.20	66.20	5.65
	대졸이상	51.26	56.48	58.67	7.41
부여군	고용률	65.04	63.99	61.27	-3.77
	중졸이하	65.40	60.79	59.18	-6.22
	고졸	61.71	66.56	62.39	0.67
	대졸이상	69.78	71.60	67.25	-2.53
서천군	고용률	63.95	61.12	62.68	-1.28
	중졸이하	60.89	56.54	58.34	-2.55
	고졸	64.71	64.13	65.15	0.44
	대졸이상	74.13	71.79	73.56	-0.56
청양군	고용률	69.31	66.15	67.89	-1.42
	중졸이하	70.64	65.11	64.53	-6.11
	고졸	65.52	66.38	70.30	4.78
	대졸이상	70.07	69.55	76.48	6.41
홍성군	고용률	60.68	60.24	59.88	-0.79
	중졸이하	60.42	58.39	58.21	-2.21
	고졸	59.77	57.22	57.71	-2.06
	대졸이상	62.69	68.89	66.29	3.60
예산군	고용률	62.17	63.57	60.05	-2.12
	중졸이하	62.93	61.26	56.60	-6.33
	고졸	57.85	67.14	60.80	2.95
	대졸이상	66.92	63.41	66.88	-0.04
태안군	고용률	69.48	69.04	70.50	1.02
	중졸이하	71.87	72.47	74.26	2.39
	고졸	60.92	61.45	59.72	-1.20
	대졸이상	74.51	70.30	75.37	0.86
당진군	고용률	67.13	62.00	64.40	-2.73
	중졸이하	69.92	57.91	64.10	-5.82
	고졸	62.16	63.28	63.52	1.36
	대졸이상	70.03	66.36	66.41	-3.61

※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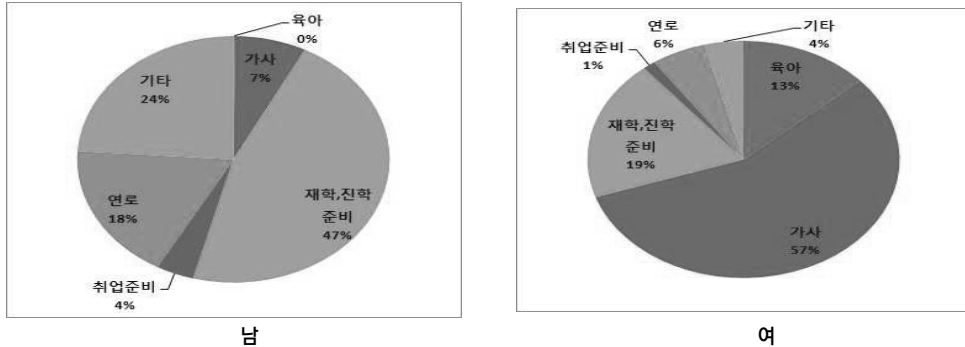
5)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충남의 비경제활동인구의 2008~2010년 추이에서는 전반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가운데 50~59세 남자, 20~29세 남자, 30~39세 남자의 비경제활동인구 연평균 증가각각 6.11%, 5.36%, 3.48% 증가하였다. 반면, 20~29세 여자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2.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령시, 서산시, 금산군, 연기군, 태안군에서는 전반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당진군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천안시의 경우 30~39세 남자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연평균 30.55% 감소하였으나 타 연령대 남자 비경제활동인구는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공주시에서는 30~39세 비경제활동인구가 남, 녀 모두 증가하였다. 보령시의 경우 30세 이상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산시는 전체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0~39세 남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특징적이다. 서산시는 아산시와는 반대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40~49세 남자 비경제활동인구가 연평균 36.59%로 크게 감소하였다. 논산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9세 여자와 40~49세 남자의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계룡시에서는 무엇보다 남자의 비경제활동인구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49세 남자의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20~49세 여자의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금산군의 경우 무엇보다 모든 연령층 여자의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부여군에서는 20~29세, 40~49세 남자의 비경제활동인구의 연평균 감소율이 각각 19.84%, 50.56%에 달해 타 시군과는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천군에서는 남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진 가운데 특히 30~39세 남자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73.21%에 달하였다. 태안군의 경우 20~29세 여자의 비경제활동인구가 21.33% 감소한 반면, 남자의 비경제활동인구는 7.63% 증가하였다. 당진군에서는 전체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20~29세 남녀 비경제활동인구가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성별/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 추이에서는 학력이 높아지면서 비경제활동인구의 연평균 증가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자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여자보다 높았다. 구체적으로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에서는 중졸이하 학력의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논산시, 금산군, 예산군에서는 고졸 학력의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령시, 서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청양군에서는 대졸이상 학력의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졸이하 학력의 비경제활동인구에서는 부여군 여자의 비경제활동인구 연평균 증가율이 9.53%, 당진군 남자가 15.80%로 증가하였다. 고졸 학력에서는 남자 비경제활동인구가 서천군에서는 연평균 19.45%, 홍성군에서는 12.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학력에서는 남자 비경제활동인구가 천안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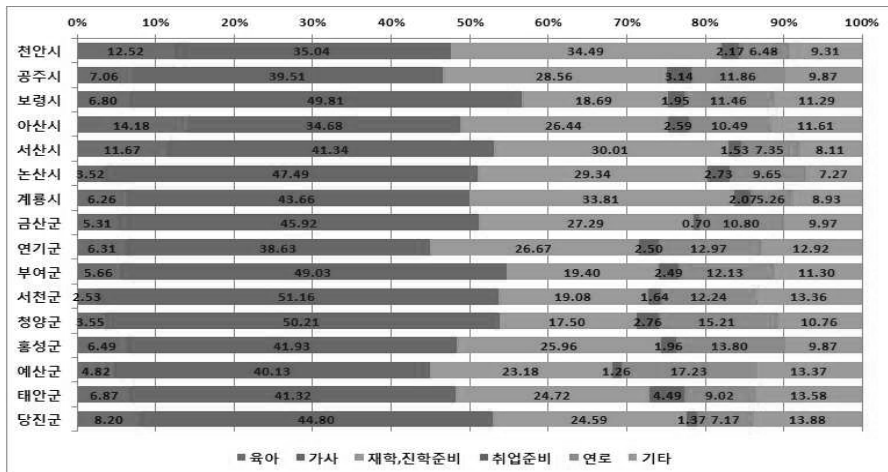
서는 21.92%, 계룡시에서는 15.49%, 태안군에서는 18.27% 증가하였다.

<그림 IV-9> 충남 성별 비경제활동사유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IV-10> 시군별 비경제활동사유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충남의 성별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추이에서는 전반적으로 남성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활동상태별로는 육아가 67.29%, 취업준비가 20.83%, 가사가 15.81%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 시군 전체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 남자의 활동상태에서는 가사와 취업준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육아의 활동상태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아산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남자의 활동상태에서 연로가 타 시군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에서 육아부분이 감소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공주시, 서산시에서는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서천군의 경우 육아부분이 17.80% 정도로 크게 감소하였다. 공주시, 계룡시,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의

경우 여자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에서 취업준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반면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청양군, 홍성군 등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IV-28> 충남 고용동향 총괄

(%: 연평균 증감률)

구 분		2008	2009	2010	기준년대비	
					증감	증감률
충 남	15세이상인구	1,569,052	1,595,841	1,618,112	49,060	1.55
	경제활동인구	985,826	990,404	1,011,115	25,289	1.27
	취업자	960,759	964,829	982,564	21,805	1.13
	실업자	25,067	25,575	28,549	3,482	6.72
	비경제활동인구	583,226	605,437	606,997	23,771	2.02
	경제활동참가율	62.83	62.06	62.49	-0.34	
	고용률	61.23	60.46	60.72	-0.51	
	실업률	2.54	2.58	2.82	0.28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2010년 충남의 15세이상인구는 1,618,112명으로 기준년도(2008년)에 비하여 49,060명 증가하여 연평균 1.55%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1,011,115명으로 기준년도에 비하여 25,289명 증가하였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62.49%로 기준년도에 비하여 0.3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606,997명으로 연평균 2.20%의 증가율을 보였다. 취업자는 982,564명으로 2010년 고용률은 60.72%로, 취업자는 연평균 1.3%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고용률은 기준년도에 비해 0.51%p 하락하였다. 실업자는 28,549명으로 기준년도에 비해 3,482명 증가하여 연평균 6.7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실업률은 2.82%로 기준년도에 비해 0.28%p 증가하였다.

2010년 충남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62.49%, 고용률은 60.72%, 실업률은 2.82%로 분석되었다.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자수는 충청남도에서 천안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제활동참가율이 72.10%, 고용률이 70.50%인 태안군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계룡시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52.80%, 고용률은 50.89%로 나타났다.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천안시로 3.87%였으며, 계룡시 3.61%, 아산시 3.40%, 연기군 3.30%, 부여군 3.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업률이 가장 낮은 곳은 청양군으로 1.02%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과도 연관된 문제로 단순히 높은 실업률이 나쁜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는 보다 많은 사람이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실업률도 함께 높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IV-29> 2010년 충남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경제활동인구총괄)

(단위 : 명, %)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자수	취업자수	실업자수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충청남도	1,618,112	1,011,115	982,564	28,549	62.49	60.72	2.82
천안시	419,672	255,536	245,655	9,880	60.89	58.53	3.87
공주시	102,734	61,541	60,191	1,351	59.90	58.59	2.20
보령시	84,126	52,055	51,273	782	61.88	60.95	1.50
아산시	199,223	123,746	119,540	4,206	62.11	60.00	3.40
서산시	124,006	81,959	79,623	2,336	66.09	64.21	2.85
논산시	103,900	62,952	62,055	897	60.59	59.73	1.42
계룡시	29,048	15,336	14,782	553	52.80	50.89	3.61
금산군	45,785	31,039	30,499	541	67.79	66.61	1.74
연기군	64,950	38,646	37,369	1,277	59.50	57.54	3.30
부여군	61,178	38,689	37,483	1,206	63.24	61.27	3.12
서천군	49,011	31,202	30,719	483	63.66	62.68	1.55
청양군	26,695	18,308	18,123	186	68.58	67.89	1.02
홍성군	70,181	43,288	42,025	1,262	61.68	59.88	2.92
예산군	70,243	43,328	42,181	1,146	61.68	60.05	2.64
태안군	53,600	38,643	37,787	857	72.10	70.50	2.22
당진군	113,760	74,845	73,259	1,586	65.79	64.40	2.12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다만, 고용률이 최근 2~3년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충남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또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충남 지역의 높은 고용률 증가로 인한 효과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농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태안군, 청양군 등의 고용률이 높고, 계룡시의 고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전년대비 취업자 수 증감과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금산군이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이 크게 증가해 충남 지역 내에서 노동시장 상황이 가장 좋아진 반면, 부여군의 고용상태가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 계룡시, 당진군 등은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고용률은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천안시와 논산시로 출퇴근하는 취업자가 인근의 통합노동시장권인 아산시와 계룡시로 유입됨에 따른 현상으로 추정된다. 전년대비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이 모두 감소한 지역은 공주시, 부여군, 예산군 등의 지역이다.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우에는 인구 수가 많고 고용률은 낮으며 실업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계룡시는 충남 지역내에서 고용률이 가장 낮고 실업률은 높은 지역으로 노동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룡시의 최근 3년간 고용률은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통합노동시장권을 형성하고 있는 논산시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충남 내에서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노

동시장은 태안군과 금산군으로 이들 지역은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을 뿐 아니라 전년대비 고용률도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이 지역들은 농업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아 높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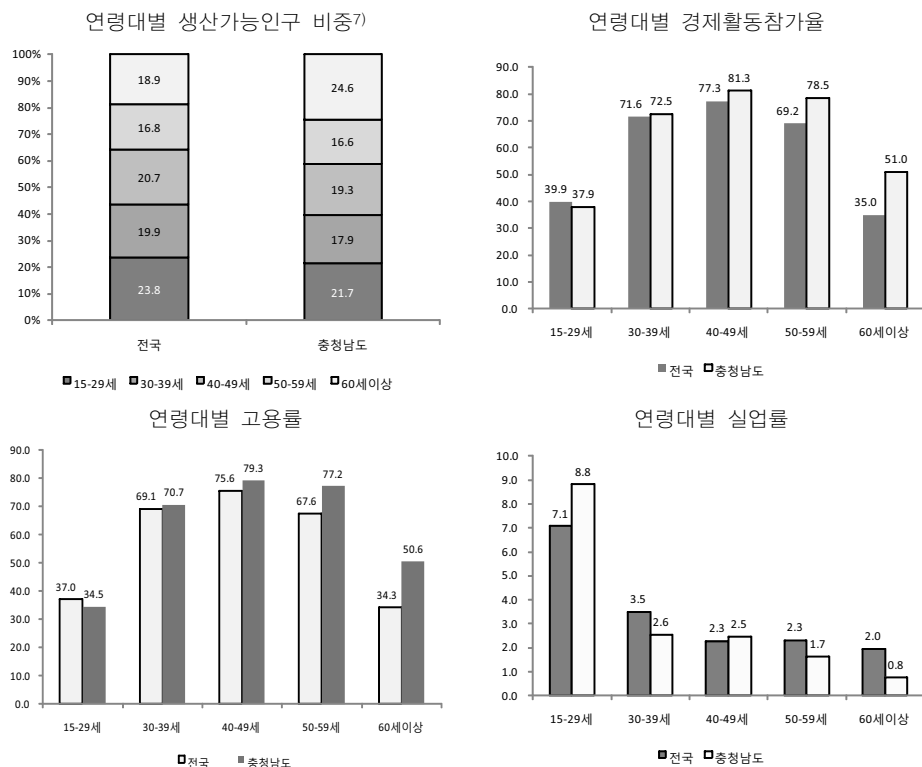
3. 청년층 및 여성의 노동공급 구조

1) 충남의 청년층 노동공급 구조

<그림 IV-11>에 제시되어 있듯이 충남지역의 15~29세에 속한 청년층 비중은 21.7%로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충남지역은 전국 대비 고령층의 비중이 높고 청년층의 비중은 낮은 인구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림 IV-11> 시도 연령별 주요 고용지표(2010년)

(단위 :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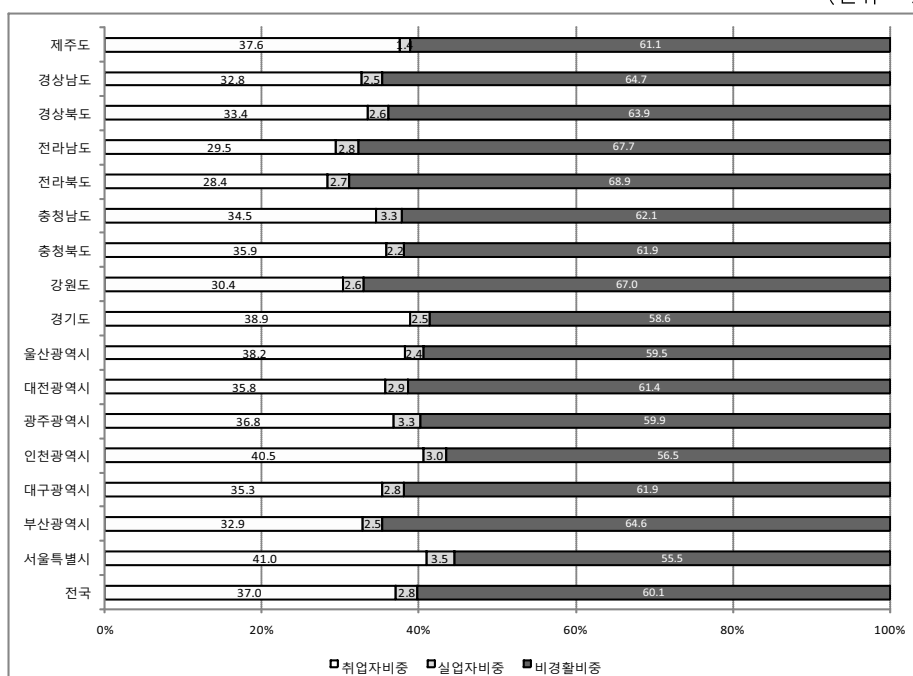
- 7)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전체를 100으로 하여, 해당 연령에 속한 사람들의 비중을 의미함.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은 해당 연령에 속한 사람 수를 100으로 하여 산출함

충남 지역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9%, 고용률은 34.5%, 실업률은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9.9%, 고용률은 37.0%, 실업률은 7.1%로 충남지역 청년층 고용 지표들은 다소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국 대비 1.7%포인트나 높아, 이들이 일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노동시장 미스매치의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남 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비중도 높고 고용률도 높은 고령층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V-12>과 같이 시도별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고용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울산, 제주 지역이다. 충남의 청년층 고용률은 전라, 강원 지역 등에 비해서는 높지만, 인접한 대전, 충북 등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 지역 청년 중 실업자의 비중은 3.3%로 서울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업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림 IV-12> 시도별 청년층(15~29세) 노동시장 참여현황(2010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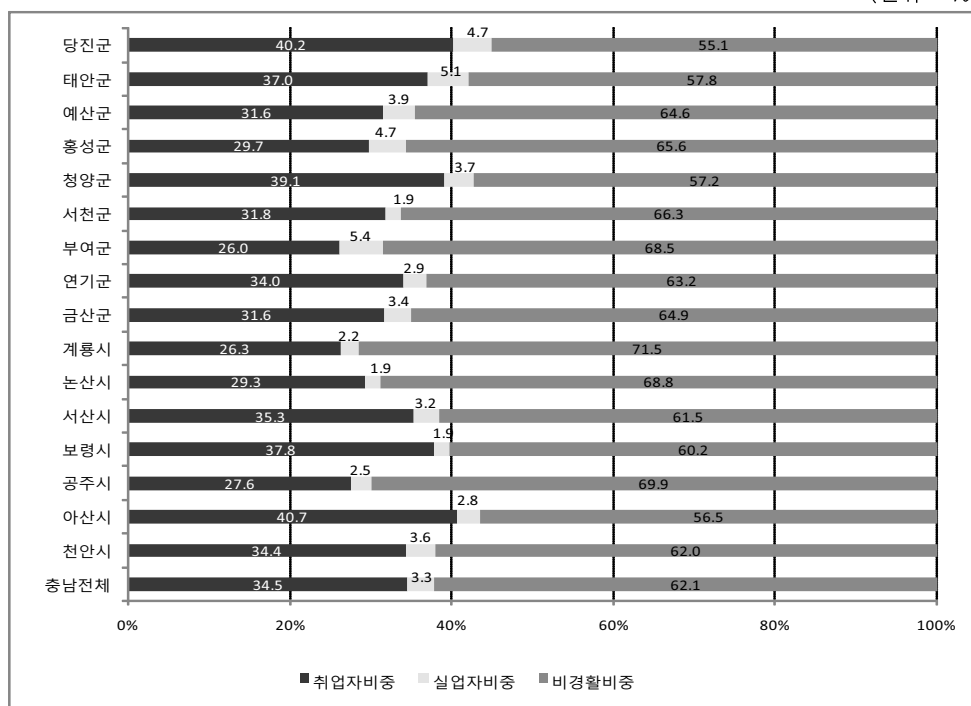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주 : 15~29세에 속한 청년을 100으로 본 후,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각각의 비중을 산출함. 이에 따라 '실업자비중 = (실업자수 / 15~29세청년수) * 100' 으로 산출하였으므로, '실업률 = (실업자수 / 15~29세청년중경제활동참가자) * 100' 과는 다름에 유의함

한편 비경제활동참가자의 비중은 62.1%로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도지역 중에서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청년 비경제활동률에 비해 6.6%포인트나 높고 인접한 대전이나 충북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비경제활동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IV-13>과 같이 시군별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아산시, 당진군, 청양군, 보령시, 태안군 등의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계룡시는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비율이 충남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3> 시군별 청년층(15~29세) 노동시장 참여현황(2010년)

(단위 :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충남 지역의 청년층은 천안시나 아산시와 같은 제조업이 발달된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이 청년 취업자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은 전체 고용률은 높지 않으나 청년 고용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제조업 종사자가 많은 아산 지역의 노동시장 특징을 시사하는 것이다. 전체 고용률이 높은 지역인 태안군, 청양군은 청년 고용률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인구 대비 청년층의 비중이 낮은 지역으로 청년의 고용률 자체는 높지만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해 청년층의 이탈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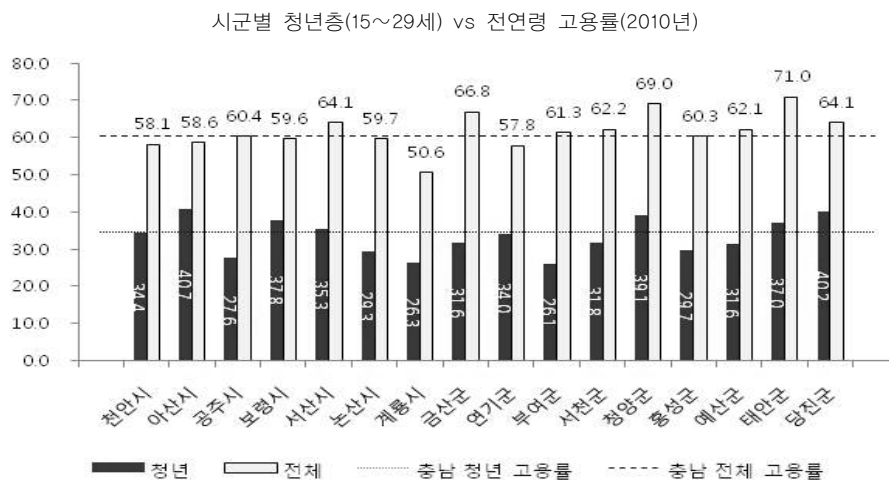
8)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분모가 '15~29세청년수'이므로, 취업자비중은 청년층 고용률과 비경제활비중은 청년층 비경제활동률과 동일한 수치를 가짐

성이 높다. 또한 비교적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는 당진군이나 연기군을 제외한 군단위 지역은 주로 농업 종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청년의 비중이 낮고 청년 취업자의 비중도 낮아 이들 지역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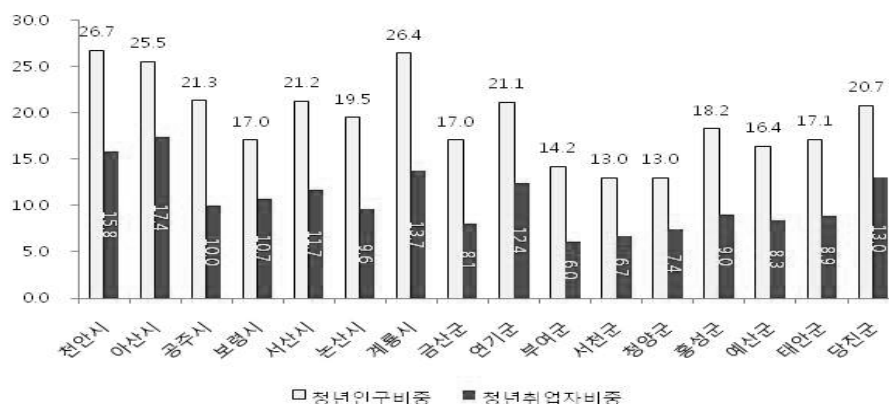
다만 시군별 인적 특성별 특성을 분석할 때, 각 집단에 속한 관측치의 수가 작아 이로 인한 편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그림 IV-14>참조). 특히 실업과 관련된 시군별 분석의 경우 관측치가 매우 작으므로 해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천안·아산지역 청년실업자의 실제 관측치는 11명에 불과하다.⁹⁾

<그림 IV-14> 시군별 청년층(15~29세) 취업 현황(2010년)

(단위 : %)



시군별 청년층(15~29세) 인구비중 vs 취업자 비중(2010년)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주 : 청년인구비중 = (청년인구/15세이상인구)*100, 청년취업자비중=(청년 취업자 수/15세이상전체 취업자 수)*100로 산출

9) 본고는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전체적으로 가중치를 사용하고 있음

본 연구는 지역적 특색을 살펴보고자 부득이 이 수치를 사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가 아닌 전반적인 규모 및 경향에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를 감안한다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지역별고용조사』가 시군별 노동공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며 해석상 주의를 기울여 사용할 경우 지역노동시장의 개략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판단된다.

충남 지역 청년 취업자들의 학력은 전국 청년 취업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타 도지역에 비해서도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충남 지역 내에서는 청년층 취업자들 간의 학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졸이하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충남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빠름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특징은 지역 내에 고학력 일자리가 적음을 반증하고 있다. 고졸이하 청년 실업자의 비중은 전국이 34.9%, 타 도지역이 38.8%인데 반해 충남지역은 3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대졸이하 청년실업자 비중은 전국 32.6%, 타 도지역 31.1%, 충남지역 36.1%로 충남이 높았다. 이는 충남 지역 내 일자리가 저학력 위주의 일자리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전문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4년제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의 비중은 다른 지역과 유사한 수준이다.

한편, 충남 지역 청년 중 기혼자의 비중은 전국 평균뿐 아니라 다른 도 지역에 비해서도 높았으며 이러한 특징이 비경제활동 청년의 비중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청년의 상당수가 학업으로 인해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물러 있음은 쉽게 알 수 있다(<그림 IV-15>참조).

<표 IV-30> 전국 : 충남 지역 청년층 인적 특성(2010년)

(단위 : %)

		청년전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전국	충남	도*	전국	충남	도*	전국	충남	도*	전국	충남	도*
성별	남	49.2	50.8	50.7	47.2	53.2	50.8	56.5	62.2	60.2	50.0	48.8	50.4
	여	50.8	49.2	49.3	52.8	46.8	49.3	43.5	37.8	39.8	50.0	51.2	49.6
학력별	고졸이하	48.5	54.5	54.1	29.7	38.2	31.8	34.9	34.4	38.8	60.8	64.7	65.8
	전문대이하	34.3	32.0	31.6	37.7	35.5	38.1	32.6	36.1	31.1	32.3	29.8	28.4
	4년제이하	16.3	12.9	13.6	31.0	24.8	28.6	31.4	29.5	29.5	6.6	5.4	5.6
	석사이상	0.9	0.6	0.6	1.7	1.5	1.5	1.1	0.0	0.6	0.4	0.1	0.2
혼인 상태별	미혼	89.2	83.9	87.1	84.2	75.3	79.6	93.1	87.7	92.3	92.1	88.4	90.5
	기혼유배우	10.6	15.7	12.8	15.6	23.9	20.0	6.7	12.3	7.6	7.8	11.4	9.3
	사별,이혼	0.2	0.4	0.2	0.2	0.7	0.3	0.2	0.0	0.1	0.1	0.2	0.1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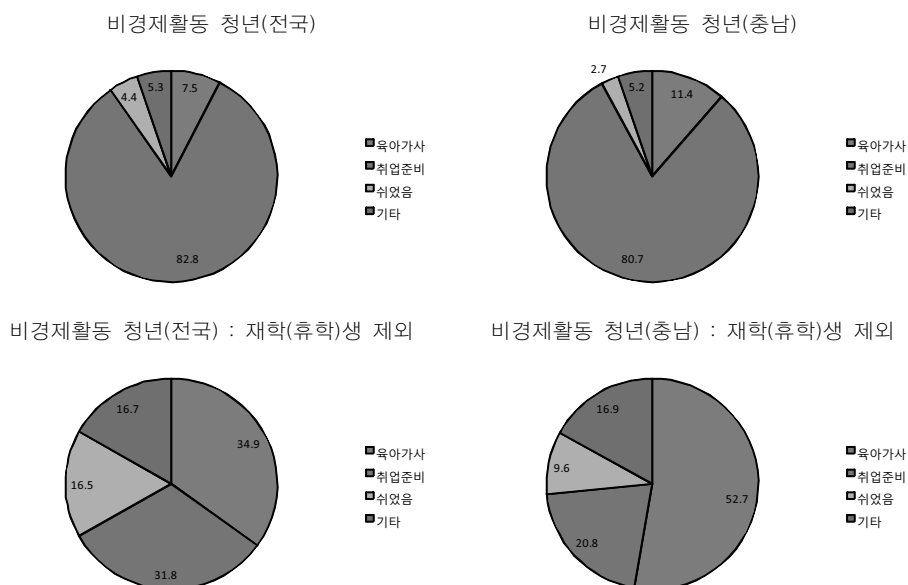
주1) 고졸이하에는 전문대 재학중퇴학학 등이 포함되며, 전문대이하에는 4년제대학 재학중퇴학학 등이 포함됨. 4년제이하에는 석사재학생이 포함되어 있음

주2) '도*' 지역은 서울과 6대광역시, 수도권인 경기도, 분석 대상인 충청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도(광역시)를 의미하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의미함

비경제활동인구의 80% 이상이 취업준비¹⁰⁾를 위해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취업준비중이라고 응답한 청년 가운데 정규교육기관에 통학 중인 청년의 비중은 각각 74.7%(전국)과 75.4%(충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5>의 하단에서는 정규교육기관 통학을 위해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을 제외하고 비경제활동 상태에 남아있는 청년들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정규교육기관 재학생을 제외한 후 비경제활동 사유를 살펴보았다. 비경제활동 청년 중에서 정규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를 제외했을 때 충남지역의 경우 육아와 가사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국의 경우에는 1/3가량만이 비경제활동 이유로 육아와 가사를 들어 충남지역 여성의 혼인 시기가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빠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특별한 이유 없이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중은 전국 평균 16.5%인데 반해 충남 지역은 9.6%에 그쳐 충남 지역 청년 노동시장의 건전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림 IV-15> 청년(15~29세) 비경제활동 사유(2010년)

(단위 :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청년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충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으며 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 청년 취업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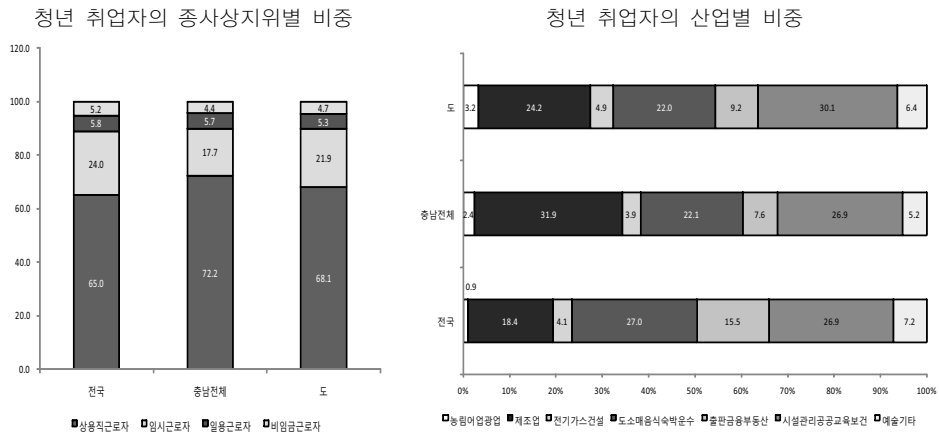
10) 취업준비에는 정규교육기관통학, 입시학원통학, 취업을위한학원이나기관통학, 취업준비 등이 포함됨

95.6%가 임금근로자이며 72.2%가 상용직 종사자로 다른 도지역에 비해서도 건전한 임금근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 취업자의 31.9%가 제조업 종사자로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이들의 직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의 비중이 29.2%로 타 도지역의 20.9%보다도 8.3%포인트나 높다. 전국 평균 청년 취업자의 직종별 비중은 관리자·전문가 비중이 29.8%, 사무직이 25.5%, 서비스·판매직이 22.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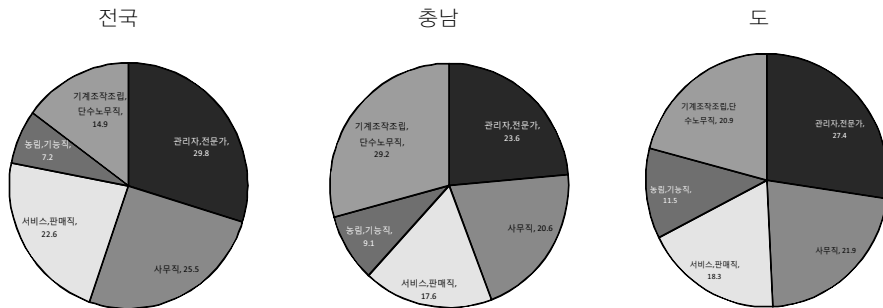
이처럼 충남지역 청년 노동시장은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높고 관리직 혹은 사무직의 비중이 낮은 저숙련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남지역 청년 취업자 중 고졸이하 저학력자의 비중이 높았던 것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그림 IV-16> 청년(15~29세) 취업자 특성(2010년)

(단위 : %)



청년 취업자의 직종별 비중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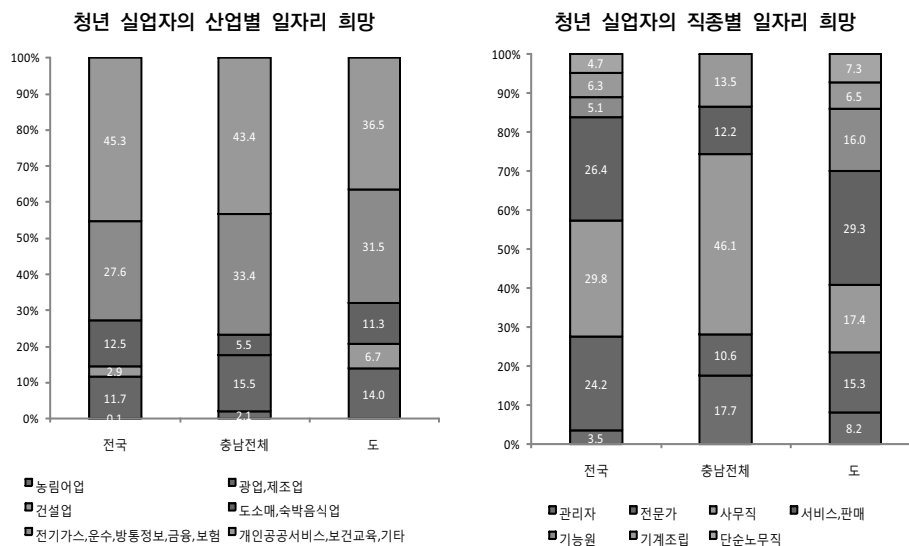
청년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참가자가 희망하는 일자리 특성¹¹⁾을 살펴보면 충남 지역 청년

11) 『지역별고용조사』의 설문 구조상 2010년 기준 ‘희망하는 산업 및 직업’에 응답하는 사람은

들은 다른 지역 청년에 비해 전기가스·운수·방송통신정보·금융·보험 분야와 광업·제조업¹²⁾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사무직 희망자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관리직과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 도지역의 경우 서비스종사자 및 판매자종사자를 희망하는 비중이 29.3%로 매우 높았는데 반해 이들 직종을 희망하는 충남 지역 청년 실업자는 12.2%에 그치고 있다.

<그림 IV-17> 청년(15~29세) 실업자의 일자리 희망(2010년)

(단위 :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이상에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충남지역 청년노동시장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저숙련 노동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지역에 자리 잡은 산업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충남 지역 고학력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대거 유출되고 있을 가능성을 반증하고 있다. 충남 지역 내 대학 재학생들은 졸업 후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충남 지역 내에서 찾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취업하여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학력 청년들의 희망 일자리와 지역 내 실재하는 일자리 간의 불일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¹³⁾

“실업자와 구직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한정되어 있음. 비경제활동인구라 할지라도 (정규학교 통학 등의 이유로) 현재 시점에서 일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음에 유의

12) 『지역별 고용조사』의 경우 취업자의 일자리 산업과 직업은 세분류까지 제공하고 있으나,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중 일자리 희망자의 희망산업과 직업은 범주로 질문하고 있음. 이 같은 이유로 본고가 분류한 산업분류와 희망 산업분류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함

13) 이는 충남지역 청년 노동시장과 인력수급에 관한 별도의 심층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여기에서는 GOMS 자료를 이용하여 대졸자의 취업경로를 지역단위로 살펴보는 것으로 같음하며, 보

<표 IV-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충남 지역 대졸 취업자의 직장 소재지는 서울이 38.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지역이 23.3%, 동일 지역에 취업을 한 대졸 취업자는 22.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충남과 인접한 대전의 경우에는 동일 지역내 취업자의 비중이 46.0%로 매우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과 충남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서울지역 취업자 중 출신 대학의 소재지별로 보아도 서울과 경기지역 대졸자를 제외하면 충남지역 졸업생의 비중이 7.2%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지역 취업자 중에서도 충남지역 졸업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서도 충남 지역내 고학력자는 졸업 후 지역내에서 일자리를 잡지 않고 타 지역의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동 규모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큰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충남지역의 경우 고학력 청년의 유출을 막기 위해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적 팽창보다는 고학력 노동자를 유인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이전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로 인한 시너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표 IV-31> 충남지역 대학졸업생의 취업시 지역 이동

(단위 : 명, %)

			직장소재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학 교 소 재 지	총 교 소 재 지	빈도	352	4	6	47	41	3	3	216	4	15	207	5	3	10	6	2	926
		비중	38.0	0.4	0.6	5.1	4.4	0.3	0.3	23.3	0.4	1.6	22.4	0.5	0.3	1.1	0.6	0.2	100.0
	대 전	빈도	103	4	3	283	12	5	2	56	11	28	81	4	6	12	4	1	615
		비중	16.7	0.7	0.5	46.0	2.0	0.8	0.3	9.1	1.8	4.6	13.2	0.7	1.0	2.0	0.7	0.2	100.0

			학교소재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직 장 소 재 지	서 울	빈도	1,966	87	48	103	128	75	14	1,268	239	178	352	114	61	193	59	24	4,909
		비중	40.0	1.8	1.0	2.1	2.6	1.5	0.3	25.8	4.9	3.6	7.2	2.3	1.2	3.9	1.2	0.5	100.0
	경 기	빈도	487	60	24	56	102	43	8	973	115	106	216	63	41	95	43	15	2,447
		비중	19.9	2.5	1.0	2.3	4.2	1.8	0.3	39.8	4.7	4.3	8.8	2.6	1.7	3.9	1.8	0.6	100.0
	충 남	빈도	49	8	7	81	11	9	4	53	2	23	207	27	9	19	5	0	514
		비중	9.5	1.6	1.4	15.8	2.1	1.8	0.8	10.3	0.4	4.5	40.3	5.3	1.8	3.7	1.0	0.0	100.0
	대 전	빈도	28	3	2	283	2	6	1	13	4	18	47	23	5	16	8	0	459
		비중	6.1	0.7	0.4	61.7	0.4	1.3	0.2	2.8	0.9	3.9	10.2	5.0	1.1	3.5	1.7	0.0	100.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08.

주1) 분석 대상은 전문대이상 학력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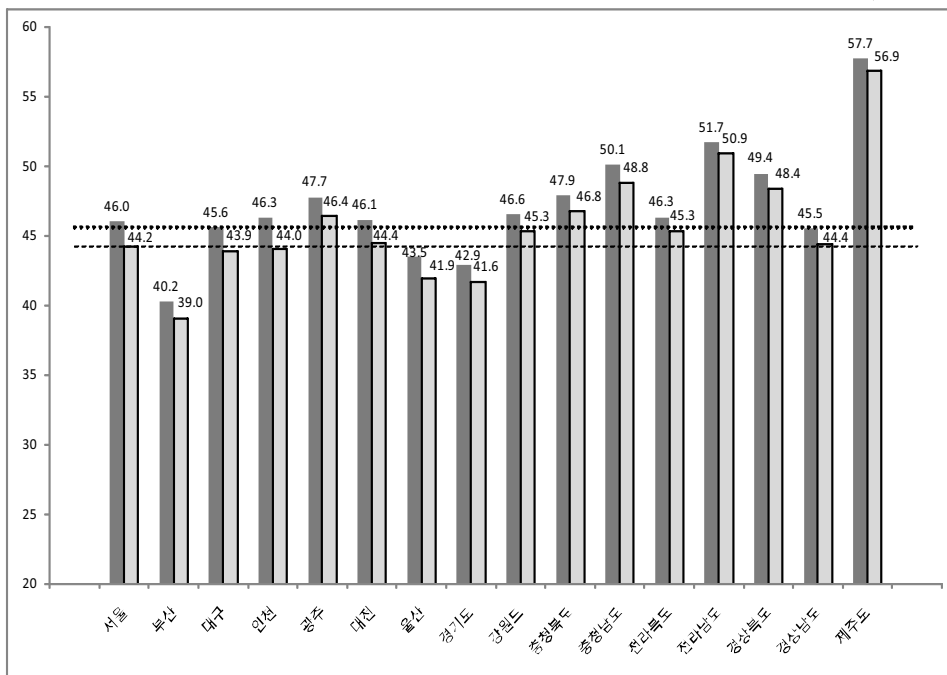
주2)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08'은 2008년 졸업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2009년에 조사가 실시됨

2) 충남의 여성 노동 시장 분석

충남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1%, 고용률은 48.8%, 실업률은 2.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IV-18〉참조). 전국 평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5.6%, 고용률은 44.2%, 실업률은 3.1%인데 반해 충남 지역 여성 노동시장의 지표들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IV-18〉 지역별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2010년)

(단위 :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그러나 이는 충남 지역내 거주 여성의 상당수가 고령자이며, 농업 종사자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IV-32〉 참조). 충남은 60세 이상 여성의 비중이 28.1%로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은 전국 평균보다 2.9세 많은 47.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균연령은 다른 도지역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40세 미만 여성의 비중이 다른 도지역에 비해 약간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취업한 여성의 인적 특성을 비교해보면, 전국적으로 40대 여성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남 지역의 경우에는 60세 여성 취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평균 40세 미만 여성 취업자의 비중은 41.5%였으나 충남 지역 여성 취업자 중 40세 미만자의 비중은 30.2%에 그쳐 그 차이가 무려 11.3%포인트에

달한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충남 지역은 그 차이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충남지역 여성 취업자 중 고졸이하 여성은 76.0%로 다른 도지역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대로 전국 기준 4년제 대졸이하 여성취업자의 비중은 20.4%로 충남지역 4년제 대졸이하 고학력 여성 취업자 비중보다 2배가량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충남 지역내 일자리가 저숙련·저학력 일자리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IV-32> 지역별 여성의 인적 특성(2010년)

(단위 : 세, %)

		전체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국	도지역	충남	전국	도지역	충남	전국	도지역	충남
평균연령		44.4	47.5	47.3	43.0	47.6	48.2	45.8	47.6	46.7
연령별	15-29세	23.7	20.2	21.1	20.6	13.8	14.2	25.7	25.6	27.3
	30-39세	19.0	16.2	16.6	20.9	16.8	16.0	17.3	15.6	17.3
	40-49세	20.0	18.9	18.1	27.3	25.8	23.9	14.1	12.5	12.0
	50-59세	16.4	16.9	16.1	19.1	21.4	21.9	14.4	12.9	10.7
	60세이상	20.9	27.8	28.1	12.1	22.2	24.1	28.5	33.5	32.6
학력별	고졸이하	66.0	20.5	76.1	61.1	71.2	76.0	70.6	76.8	76.6
	전문대졸이하	15.4	53.4	12.8	15.7	13.1	11.3	14.9	14.0	14.1
	4년대졸이하	16.9	13.6	9.9	20.4	14.2	10.7	13.5	8.7	8.9
	석사이상	1.8	15.2	1.2	2.8	1.5	2.0	1.0	0.6	0.4
혼인 상태별	미혼	24.2	19.0	18.4	14.1	8.5	8.3	23.6	22.3	22.7
	기혼유배우	59.9	61.2	63.8	69.2	72.2	74.5	57.8	54.3	56.1
	사별,이혼	15.9	19.8	17.8	16.7	19.4	17.2	18.6	23.4	21.3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주1) 고졸이하에는 전문대 재학중퇴학학 등이 포함되며, 전문대이하에는 4년제대학 재학중퇴학학 등이 포함됨. 4년제이하에는 석사재학생이 포함되어 있음.

주2) “도” 지역은 서울과 6대광역시, 수도권인 경기도, 분석 대상인 충청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도(광역시)를 의미하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의미함

이는 <표 IV-33>의 취업자의 산업별, 직종별 특징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충남지역의 경우 30.9%의 여성 취업자가 농림어업 종사자로 전국 대비 3배가량 타 도지역에 비해서도 3.5%포인트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직종별로도 충남지역의 경우에는 농림작기능직의 비중이 30.9%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관리자전문가의 비중은 13.6%, 사무직 비중은 11.1%에 그치고 있다. 비경제활동 여성의 인적 특성에서도 이 같은 경향은 그대로 나타나는데 60세 이상 저학력 여성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오히려 저연령층의 비경제활동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혼과 출산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시기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M-curve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태도 및 경력단절을 가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구간 연령대별(5세 단위) 평균 고용률(=(해당연령의여성취업자수/해당연령의여성수)*100으로 산출)을 연결하여 작성된다.

<표 IV-33> 지역별 취업 여성의 산업별·직종별 현황(2010년)

(단위 : %)

		전국	도*지역	충남
산업별	농림어업	10.4	27.4	30.9
	제조업	12.0	9.9	12.7
	전기가스·건설	1.9	1.6	1.3
	도소매·운수·숙박음식	29.0	24.7	23.1
	출판·금융·부동산 등	10.1	5.6	4.7
	사업시설관리·공공교육·보건	28.9	24.9	22.0
	예술·취미·기타	7.7	5.9	5.3
직종별	관리자·전문가	21.6	15.8	13.6
	사무직	17.4	11.6	11.1
	서비스·판매직	30.0	26.7	24.7
	농림작·기능원	13.0	28.1	30.9
	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18.1	17.9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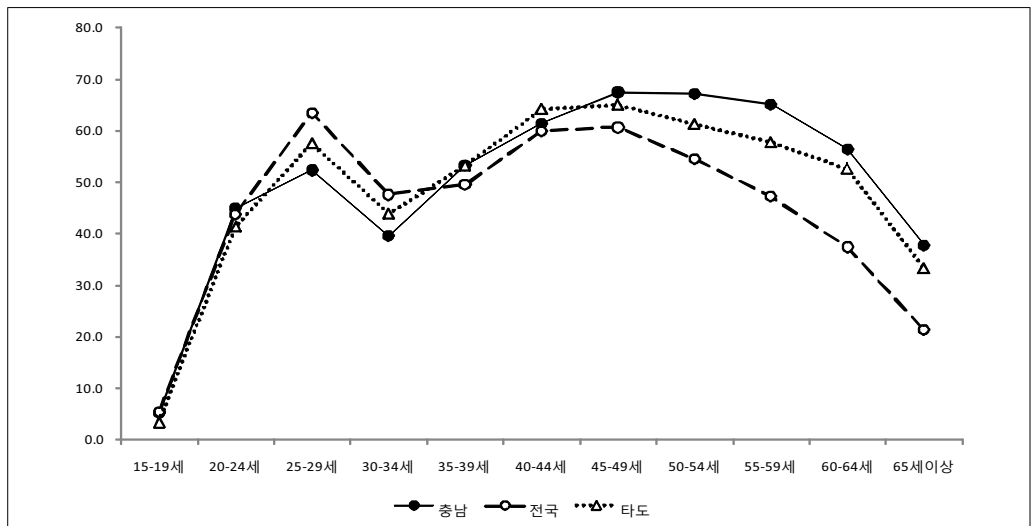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주1) '도' 지역은 서울과 6대광역시, 수도권인 경기도, 분석 대상인 충청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도(광역시)를 의미하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의미함

<그림 IV-19> 연령대별 여성의 고용률 현황(2010년)

(단위 :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이상
전국	5.3	43.6	63.4	47.6	49.5	59.9	60.6	54.4	47.3	37.3	21.4
충남	5.1	44.8	52.3	39.5	53.2	61.3	67.4	67.1	65.1	56.4	37.7
타도	3.4	41.3	57.4	43.8	53.1	64.1	65.0	61.2	57.6	52.6	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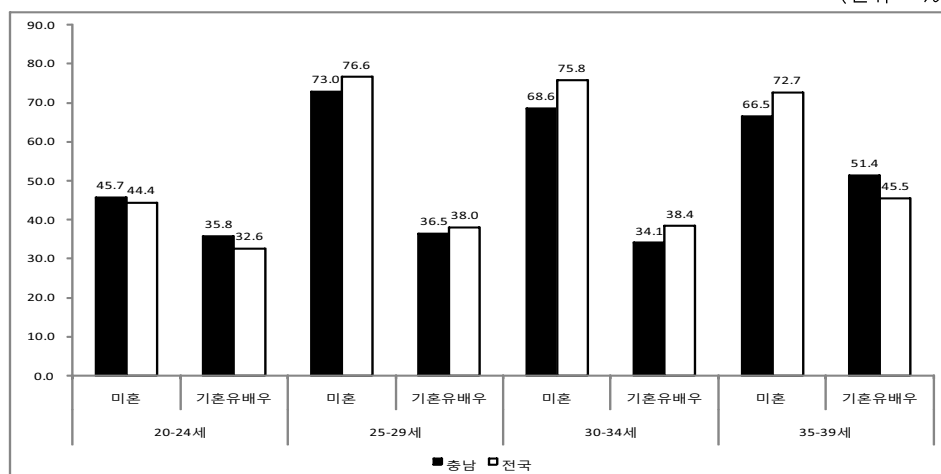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고용률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모든 지역에서 30~34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충남지역 30~34세 여성의 고용률은 39.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 여성은 25~34세 사이에 전국 평균을 밑도는 고용률을 보이다 35세 이상의 연령대별 고용률이 점점 증가해 45세 이상 여성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젊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매우 저조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고령 여성의 고용률이 높은 것은 농업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농림어업 종사 가능성이 높은 타도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충남지역의 경우 그 변동 폭이 타 도지역에 비해서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젊은 여성의 낮은 고용률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20~39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실시한 바, 충남 지역 20~24세 여성 중 기혼유배우자의 비중은 10.5%로 전국 대비 2배가량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25~29세에서 가장 커지고 있다. 이는 충남 지역 여성이 다른 지역 여성보다 빠른 시기에 결혼과 육아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림 IV-20> 20~39세 여성의 혼인상태별 고용률 (2010년)

(단위 :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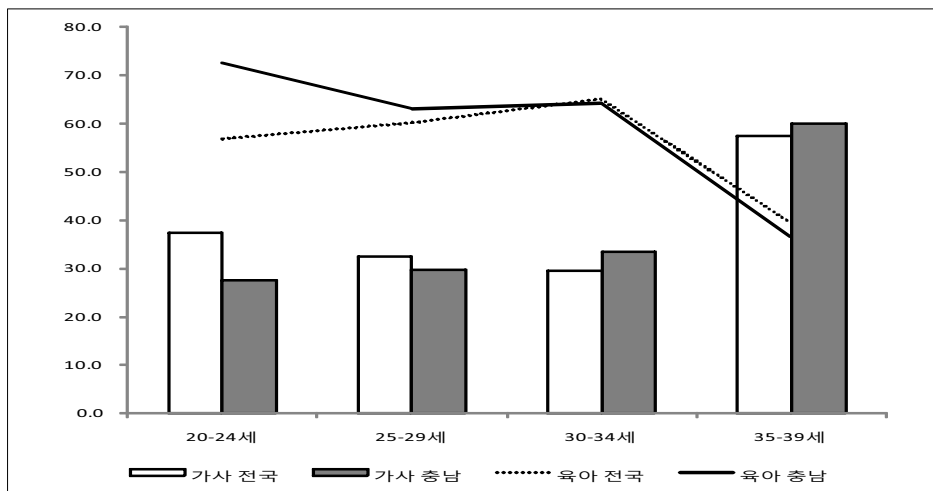
20~39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앞서 M-curve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충남은 25~34세 사이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매우 낮다. 그러나 35세 이상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충남 지역 39세 이하 미혼 여성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특히 30~39세 사이의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9세 기혼여성 중 비경제활동자의 대부분은 육아와 가사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충남 지역은 보다 젊은 연령대에서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충남지역의 경우 육아를 위해 비경제활동 중인 기혼여성은 20-24

세에서 가장 높은 74.4%를 기록,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이 비중도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전국을 기준으로 할 때는 보다 높은 연령대인 30~34세 사이에서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그림 IV-21> 20~39세 기혼 여성의 지역별 비경활 사유(2010년)

(단위 : %)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육아	전국	56.7	60.2	65.0	39.5
	충남	72.4	63.1	64.2	36.6
	도지역*	54.2	61.2	63.5	36.2
가사	전국	37.5	32.5	29.6	57.4
	충남	27.6	29.8	33.4	60.0
	도지역*	41.6	33.8	32.0	60.2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주1) 비중의 합계가 100%가 되지 않는 이유는 육아 혹은 가사 이외의 이유로 비경활상태에 놓여있는 기혼여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2) '도지역' 은 서울과 6대광역시, 수도권인 경기도, 분석 대상인 충청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도(광역시)를 의미하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의미함

20~39세 기혼여성 중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충남지역의 경우 농림어업과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9세 기혼여성 취업자의 직종별 특성을 살펴보면 관리자·전문가 / 사무직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농림직·기능원 / 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직종의 비중은 높았다. 또 표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5세 구간별 기혼 취업 여성의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특히 충남 20~24세 여성의 경우 기계조

작조립·단순노무직 종사자 비중이 70%를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충남 지역 기혼 여성의 고용률이 호전되는 35~39세 구간에서도 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 종사자 비중은 20.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⁴⁾ 종사상 지위별로는 충남 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대비 상용직 종사자의 비중이 적은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4> 여성 취업자(20~39세)의 일자리 특성별 현황(2010년)

(단위 : %)

		기혼여성			미혼여성		
		전국	충남	타도*	전국	충남	타도*
산업별	농림어업	1.7	6.0	5.1	0.3	0.8	1.0
	제조업	13.0	19.7	11.9	9.9	17.3	11.7
	전기가스·건설	2.6	3.4	2.5	2.4	2.0	2.5
	도소매·운수·숙박음식	24.2	23.9	23.7	23.3	16.9	18.9
	출판·금융·부동산 등	14.6	8.8	10.3	17.0	9.0	10.3
	사업시설관리·공공교육·보건	38.4	33.9	40.6	40.0	48.1	49.1
	예술·협화·기타	5.7	4.3	5.9	7.0	6.0	6.7
직종별	관리자·전문가	32.9	26.1	30.1	40.4	39.4	43.0
	사무직	28.6	23.9	24.9	32.9	31.1	30.9
	서비스직·판매직	23.3	23.0	25.4	21.2	18.0	18.6
	농림작·기능원	3.5	6.9	6.4	1.4	1.3	1.7
	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11.7	20.1	13.3	4.1	10.3	5.8
종사상 지위별	상용근로자	56.3	54.3	52.3	66.4	74.9	68.5
	임시근로자	21.0	19.7	19.3	22.7	14.5	21.5
	일용근로자	3.6	3.6	3.7	3.4	3.5	2.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4	2.8	3.6	1.1	0.5	1.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7.3	5.8	8.4	5.4	5.2	4.0
	무급가족종사자	8.5	13.8	12.7	1.1	1.6	2.0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주1) '도지역' 은 서울과 6대광역시, 수도권인 경기도, 분석 대상인 충청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도(광역시)를 의미하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의미함

한편, 20~39세 미혼인 여성 취업자의 경우에도 충남지역은 제조업 / 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 종사자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았다. 하지만 충남 지역 젊은 미혼 여성들은 기혼 여성과는 달리 사업시설관리·공공서비스·교육·보건 분야 종사자가 48.1%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40.0%에 비해 8.1%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또한 관리자·전문가의 비중도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기혼여성에 비해 미혼여성들의 일자리 여건이 보다 양질임을 짐작케 한다. 종사상 지위별로도 충남 지역 20~39세 미혼 여성 취업자의 74.6%가 상용직 근로자로 전국 평균 66.3%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14) 취업한 기혼 여성의 연령대별 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 종사자 비중(전국 vs 충남)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32.8	71.9	11.4	21.2	7.6	13.7	13.8	2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충남 지역 젊은 여성의 노동시장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행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타 지역 여성에 비해 이른 시기에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게 되는 충남 지역 여성들은 양질의 일자리에서는 조기에 퇴출되는 양상을 보이며 비교적 단순한 직종의 일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혼 여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육아의 부담이 경감되는 시기가 오면 제조업/단순노무직 혹은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저임금 일자리로 재진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여성의 고용률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일자리의 질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IV-35> 여성 취업자(45세 이상)의 일자리 특성별 현황(2010년)

(단위 : %)

		전국	충남	타도*
산업별	농림어업	21.4	49.2	44.7
	제조업	12.0	9.1	8.0
	전기가스·건설	1.5	0.6	1.1
	도소매·운수·숙박음식	31.2	21.5	23.9
	출판·금융·부동산 등	5.2	2.2	2.9
	사업시설관리·공공교육·보건	19.7	12.3	14.0
	예술협화·기타	9.0	5.2	5.4
직종별	관리자·전문가	8.3	4.1	4.7
	사무직	5.7	2.7	2.9
	서비스직·판매직	33.6	24.1	26.1
	농림작·기능원	25.0	48.4	45.0
	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27.5	20.8	21.4
종사상 지위별	상용근로자	22.3	16.0	15.5
	임시근로자	21.8	11.9	13.5
	일용근로자	9.0	6.1	7.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4.0	3.2	2.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8.9	21.6	24.0
	무급가족종사자	24.1	41.3	36.8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주1) '도지역' 은 서울과 6대광역시, 수도권인 경기도, 분석 대상인 충청남도도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도(광역시)를 의미하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의미함

이 같은 경향은 중고령 여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재확인되는데 충남 지역 45세 이상 중고령 여성 취업자의 절반가량은 농림어업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도 농림작·기능원 종사자 비중이 48.4%로 매우 높는데 반해 관리자·전문가 비중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전국 평균뿐 아니라 다른 도지역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경제활동 여성 중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성의 비중은 충남 지역이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⁵⁾ 그러나 비경제활동 여성이 일하기를 원하면서도 구직 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사유

15) 일하기를 원했던 비경제활동 여성 인구 비중(연령별, 전국vs충남, 2010년기준)

별로는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2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육아가 2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 지역 실망 실업¹⁶⁾ 여성이 희망하는 산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보건·교육업 및 기타 타산업이 66.7%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직종별로는 서비스직(28.4%)을 선호함. 이들이 취직 시 받기를 희망하는 임금 수준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가 3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만원 100만원 사이(27.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⁷⁾

<표 IV-36> 비경제활동 여성의 비구직 사유(2010년)

(단위 : %)

	전국	충남	타도*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9.2	6.7	12.5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19.2	26.4	16.4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7.1	8.9	7.2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4.2	2.2	5.9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8.9	7.6	6.1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15.5	14.3	14.1
육아	13.5	20.5	18.1
가사	10.3	4.2	9.6
통학	2.0	1.1	0.8
심신장애	2.6	2.8	2.2
기타	7.8	5.2	6.9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시군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태안시, 청양군, 금산군, 서천시 등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의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계룡시에 거주하는 여성의 고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안시, 아산시 등의 제조업 지역도 여성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전체의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 간의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아산시로 15.4%포인트 차이를 보인다. 이외에도 당진군,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등이 남녀간 고용률 격차가 큰 지역이다. 반면, 태안군, 서천군 등은 격차가 작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충남 지역 여성의 실업률은 평균 2.6%로 그다지 높지는 않으나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 연기군 등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령시, 서천군, 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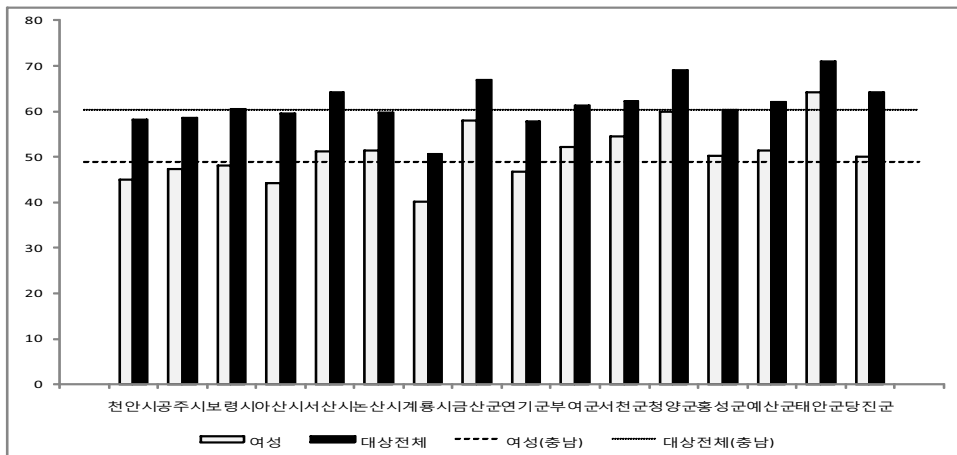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전국	2.7	5.1	5.7	4.1	1.6
충남	1.2	4.4	3.3	2.7	0.9

16) 일하기를 원하지만 비경제활동 상태에 남아 있는 사람

17) 이는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이 종일제 일자리보다는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나 『지역별고용조사』에서는 해당 변수가 조사되지 않아 명확한 이유를 판별하기는 어려움

군, 논산시 등의 여성 실업률은 1%미만의 미미한 수준이다. 특이한 점은 논산시의 경우로 전체 고용률은 59.7%로 충남 전체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데 반해 여성의 고용률은 51.4%로 충남 여성 평균 고용률을 웃돌고 있다. 또한 논산시의 여성 실업률은 0.5%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논산시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중이 높고, 일하고자 하는 여성이 비교적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노동시장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V-22> 시군별 여성 고용률 비교(2010년)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표 IV-37> 시군별 여성 노동시장 참여현황(2010년)

(단위 : %)

	전체 대상			여성		
	경활률	고용률	실업률	경활률	고용률	실업률
충남전체	62.4	60.3	2.8	50.1	48.8	2.6
전안·아산	60.9	58.6	3.7	46.8	44.8	4.2
천안시	60.4	58.1	3.9	47.1	45.1	4.4
아산시	61.7	59.6	3.4	46.0	44.2	3.8
공주시	59.9	58.6	2.2	48.0	47.3	1.4
보령시	61.3	60.4	1.5	48.5	48.1	0.8
서산시	65.9	64.1	2.8	52.8	51.3	2.8
논산·계룡	58.8	57.7	1.9	49.3	48.7	1.2
논산시	60.6	59.7	1.4	51.6	51.4	0.5
계룡시	52.5	50.6	3.6	41.8	40.1	3.9
금산군	67.9	66.8	1.6	58.7	57.9	1.4
연기군	59.7	57.8	3.3	48.7	46.8	3.8
부여군	63.3	61.3	3.1	53.2	52.2	1.8
서천군	63.1	62.2	1.6	54.8	54.6	0.4
청양군	69.7	69.0	1.0	60.6	59.9	1.2
홍성군	62.0	60.3	2.7	50.6	50.2	0.8
예산군	63.7	62.1	2.6	52.5	51.3	2.3
태안군	72.6	71.0	2.2	66.0	64.2	2.7
당진군	65.5	64.1	2.1	51.0	50.0	1.9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표 IV-38>는 제조업 지역과 농업지역 여성의 인적 특성을 분석한 내용이다. 상대적으로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아산시, 천안시, 연기군을 제조업 지역으로 농업 종사자 비중이 40%이상인 태안군, 청양군, 부여군, 금산군을 농업지역으로 정의한다. 지역별로 여성의 연령 대별 구성이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는데 제조업지역은 40세 이하 인구가 47.2%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데 반해 농업지역은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42.3%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취업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제조업 지역은 40세 이하 여성취업자 비중이 41.4%였으나 농업지역은 17.6%에 그치고 있다. 여성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제조업 지역의 경우에는 40~49세로 27.3%였고 농업지역은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8> 지역·인적특성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현황(2010년)

(단위 : %)

		제조업지역		농업지역	
		여성전체	취업여성	여성전체	취업여성
연령별	15-29세	26.2	20.4	14.1	7.2
	30-39세	21.0	21.0	10.2	10.4
	40-49세	20.0	27.3	14.6	19.6
	50-59세	13.9	18.6	18.9	24.9
	60세이상	18.9	12.7	42.3	38.0
학력별	고졸이하	70.8	69.3	86.1	86.8
	전문대졸이하	15.7	14.3	6.9	5.9
	4년대졸이하	12.2	14.0	6.4	6.7
	석사이상	1.3	2.5	0.6	0.7
혼인 상태별	미혼	22.1	17.8	13.2	7.5
	기혼유배우	63.4	69.6	63.8	75.7
	사별,이혼	14.5	12.6	23.1	16.9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주 : 제조업 지역에는 아산시, 천안시, 연기군이 포함되며, 농업 지역에는 태안군, 청양군, 부여군, 금산군이 포함됨

학력별로는 전 지역에서 고졸이하 학력자가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조업 지역의 학력수준이 농업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났다. 또한 혼인상태별로는 농업지역 여성이 제조업 지역 여성에 비해 혼인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농업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연령이 제조업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연령보다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충남 지역 여성의 고용률이 타 지역과 비교해 낮지 않은 것은 농업 종사자 및 제조업/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 이는 고령 여성의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색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한편, 천안, 아산 등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연령 여성의 고용률이 높았으나 해당 일자리는 여전히 저학력/저숙련 일자리일 가능성이 크다.

4. 소결

충남 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4%, 고용률은 60.6%, 실업률은 2.8%로 전국 평균대비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비교적 건전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고용률이 최근 2~3년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충남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또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충남 지역의 높은 고용률 증가로 인한 효과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농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태안군, 청양군 등의 고용률이 높고, 계룡시의 고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전년대비 취업자 수 증감과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금산군이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이 크게 증가해 충남 지역 내에서 노동시장 상황이 가장 좋아진 곳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부여군의 고용상태가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산시, 계룡시, 당진군 등은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고용률은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천안시와 논산시로 출퇴근하는 취업자가 인근의 통합노동시장권인 아산시와 계룡시로 유입됨에 따른 현상으로 추정된다. 한편, 전년대비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이 모두 감소한 지역은 공주시, 부여군, 예산군 등의 지역이다.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우에는 인구 수가 많고 고용률은 낮으며 실업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계룡시는 충남 지역내에서 고용률이 가장 낮고 실업률은 높은 지역으로 노동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룡시의 최근 3년간 고용률은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통합노동시장권을 형성하고 있는 논산시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충남 내에서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노동시장은 태안군과 금산군으로 이들 지역은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을 뿐 아니라 전년대비 고용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 지역들은 농업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아, 높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충남 지역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9%, 고용률은 34.5%, 실업률은 8.8%로 전국 평균 대비 다소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천안시나 아산시 등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지역의 청년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용률이 높은 지역인 태안군, 청양군은 청년 고용률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지역은 인구 대비 청년층의 비중 자체가 낮은 지역으로 농업인구가 다수인 지역이다. 충남지역 청년 노동시장은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높고, 관리직 혹은 사무직의 비중이 낮은 저숙련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충남 지역 청년의 54.5%, 청년 취업자의 38.2%가 고졸이하 학력자로 전국 평균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31.9%, 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 종사자의 비중도 29.2%로 타 지역에 비해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충남 지역 고학력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대거 유출되고 있을

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충남 지역 내 대학 재학생들은 졸업 후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충남 지역 내에서 찾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취업하여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충남 지역 대졸 취업자의 직장 소재지는 서울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지역 등의 순이다. 충남과 인접한 대전은 동일 지역 내 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지역 취업자 중 출신 대학의 소재지별로도 서울과 경기지역 대졸자를 제외하면 충남지역 졸업생의 비중이 7.2%로 가장 높았다. 이에 충남지역의 경우 고학력 청년의 유출을 막기 위해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적 팽창보다는 고학력 노동자를 유인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충남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1%, 고용률은 48.8%, 실업률은 2.2%로 전국 대비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충남 지역내 거주 여성의 상당수가 고령자이며 농업 종사자인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충남은 60세 이상 여성의 비중이 28.1%로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은 전국 평균보다 2.9세 많은 47.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여성의 인적 특성을 비교해보면 전국 기준 40대 여성의 취업 확률이 가장 높았으나 충남의 경우에는 60세 여성 취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충남 지역은 그 차이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남지역의 경우 30.9%의 여성 취업자가 농림어업 종사자로 전국 대비 약 3배 정도 많았으며 직종별로는 농림작기능직의 비중이 30.9%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충남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젊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매우 저조한데 그 이유는 결혼과 출산이 이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령 여성의 고용률이 높고 농업종사자 비중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충남 지역 여성의 고용률은 타 지역과 비교해 낮지는 않으나 농업 종사자 및 제조업/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저숙련 노동시장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고령 여성의 비중이 높고 육아와 가사를 위해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이탈한 젊은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 기혼여성의 경우 낮은 학력과 노동시장 조기 이탈로 인해 노동시장 재진입시 무급가족종사자나 제조업체의 단순조립조작 등 저숙련 일자리로 복귀 혹은 노동시장 복귀를 포기한 채 지속적인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젊은 기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고 재진입시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는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충남 지역내 농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지역(태안군, 청양군 등)의 경우에는 청년 및 고학력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들 지역은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아 고용률 자체는 낮지 않지만 점차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노동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년층의 이주를 촉진하고 지역노동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5장 충남 지역노동 수요분석

1. 분석내용 및 자료

이 장에서는 충남지역의 노동수요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하여 노동수요의 규모 및 구성은 지역의 전체적인 경제력, 산업구조 등에 따라 결정된다. 노동공급 분석이 주로 개인단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노동수요 분석에서는 주로 사업체 단위에 초점을 맞추어 충남지역 내 다양한 사업체 현황과 산업구조 및 근로조건을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분석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GRDP·사업체 수·종사자·취업자수, 그리고 취업형태별·산업별·직종별·임금수준별 고용구조 등을 살펴본 후 충남지역의 16개 시군별 산업 구성을 집중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때 각 지역의 산업 특화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입지계수 분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일자리의 질(고용형태 및 임금)을 지역별로 비교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첫째, 노동수요 부문에 대한 자료 활용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가능하므로 특정 시점에서의 시군별 비교외에 지난 10년간의 시군간 노동수요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둘째, 충남지역의 사업체 기준 종사자 규모는 어떤 자료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추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사용되는 자료로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고용보험 DB, 산업단지자료 등이다. 마지막으로 충남지역 일자리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노동공급 분석에서 사용되었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사용하되, 이 장에서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고용형태와 임금을 분석한다는 것이 차별적이다.

2. 충청남도의 경제력 및 노동수요 개요

1) 충남의 지역총생산

<표 V-1>에 제시되어 있듯이 충남지역의 GRDP는 2009년 기준으로 60,760십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GRDP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중은 서울(24.1%), 경기(19.9%), 경남(7.1%), 경북(6.5%)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00년 당시에 충남의 지역총생산은 4.8%로 부산(5.7%)에 이어 여섯 번째 수준이었으나 2006년부터 부산을 추월하게 된 것이다. 충남은 1인당 GRDP 수준에서도 33.7백만원으로 울산(46.2백만원)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V-2>와 같이 2008년 기준 충남지역 시군별 GRDP를 살펴보면 천안·아산이 전체 지역총생산의 절반 정도인 49.1%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수준은 천안·아산의 2000년 GRDP 수준보다 145.7%가 증가한 수치로 불과 10년 사이에 이 지역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1> 16개 시도별 GRDP 및 1인당 GRDP

	2000년		2009년		2009년 1인당 GRDP (백만원)
	GRDP (십억원)	전국 대비 %	GRDP (십억원)	전국 대비 %	
서울	151,356	25.1	257,436	24.1	25.7
부산	34,127	5.7	55,851	5.2	16.1
대구	21,860	3.6	32,917	3.1	13.5
인천	27,122	4.5	49,702	4.7	18.8
광주	13,134	2.2	22,056	2.1	15.2
대전	14,008	2.3	24,405	2.3	16.2
울산	28,959	4.8	50,364	4.7	46.2
경기	114,628	19.0	211,693	19.9	18.5
강원	16,964	2.8	27,583	2.6	19.0
충북	19,842	3.3	31,683	3.0	21.4
충남	29,277	4.8	65,760	6.2	33.7
전북	19,299	3.2	32,018	3.0	18.6
전남	27,829	4.6	50,462	4.7	28.6
경북	40,377	6.7	69,185	6.5	26.6
경남	39,600	6.6	75,492	7.1	24.1
제주	5,350	0.9	9,478	0.9	17.4
전국	603,733	100.0	1,066,084	100.0	

자료 : 통계청 KOSIS

특히, 아산시의 경우 2000년에는 충남내 GRDP 비중이 16.1% 정도로 천안시의 23.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2009년에는 24.9%로 천안(24.2%)을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아산시의 GRDP 증가율은 208.0%에 이르고 있다. 천안·아산 다음으로는 서산이 12.7%, 당진 9.0%의 GRDP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내 GRDP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는 청양군(계룡은 0.7%이지만 논산과 통합노동시장권이므로 제외)으로 1.1%에 그치고 있다. 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등 6개 군지역의 GRDP는 2000년에 충남 전체의 21.7%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14.7%에 그치고 있다. 반면, 당진군의 경우 2000년에서 2008년 기간 동안 GRDP가 180.0%나 증가하여 아산시 다음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V-2> 충남지역 시군별 GRDP(2005년 기준가격)

	2000년		2008년		GRDP 증가율(%)
	GRDP (십억원)	충남 대비 %	GRDP (십억원)	충남 대비 %	
천안시	7,326	23.7	14,895	24.2	103.3
공주시	1,643	5.3	2,118	3.4	28.9
보령시	1,565	5.1	2,196	3.6	40.3
아산시	4,986	16.1	15,356	24.9	208.0
서산시	3,599	11.6	7,812	12.7	117.1
논산시	1,659	5.4	2,019	3.3	21.7
계룡시	215	0.7	402	0.7	87.0
금산군	811	2.6	1,301	2.1	60.5
연기군	1,248	4.0	2,106	3.4	68.8
부여군	1,116	3.6	1,252	2.0	12.1
서천군	1,130	3.7	1,311	2.1	16.0
청양군	591	1.9	657	1.1	11.1
홍성군	1,154	3.7	1,559	2.5	35.1
예산군	963	3.1	1,523	2.5	58.1
태안군	972	3.1	1,505	2.4	54.8
당진군	1,984	6.4	5,555	9.0	180.0
천안/아산	12,312	39.8	30,251	49.1	145.7
논산/계룡	1,874	6.1	2,421	3.9	29.2
충남전체	30,963	100.0	61,569	100.0	98.8

자료 : 통계청 KOSIS

2)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2009년의 충남지역 시군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은 <표 V-3>과 같다. 충남지역의 2009년 사업체 수는 131,555개이며 종사자수는 665,433명이다. 충남 지역내 각 시군별 사업체 비중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천안·아산이 36.9%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논산·계룡이 8.3%를 차지하였다. 이들 지역 다음으로 서산시 7.4%, 당진군 6.4%, 공주시 6.1%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반면 청양군은 사업체 수가 1.6%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각 시군별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천안·아산이 4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천안시가 30.9%, 아산시는 1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 다음으로는 서산시 7.1%, 논산·계룡 6.7%, 당진군이 6.4%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청양군은 종업원 수에서도 1.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2009년 사이에 각 시군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감률을 살펴보면 <그림 V-1>과 같다. 충남지역 전체 사업체 수는 10.4%, 종사자 수는 33.9%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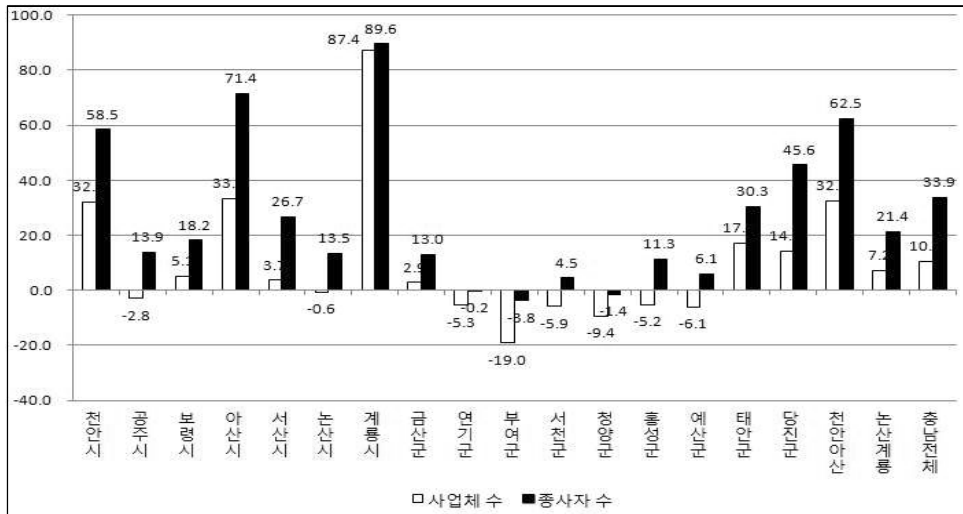
났다. 시군별로는 계룡시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가 각각 87.4%와 89.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논산·계룡을 통합하여 살펴본 결과 이보다는 낮은 수준인 7.2%(사업체 수)와 21.4%(종사자 수)로 나타났다. 천안·아산의 사업체 수는 32.4%, 종사자 수는 62.5%가 증가하여 사실상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아산의 경우 사업체 수가 87.4%, 종사자 수가 8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 역시도 사업체 수가 32.0%, 종사자 수가 58.5% 증가하여 아산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 밖에 당진군과 태안군도 각각 종사자 수가 45.6%, 30.3% 증가하여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연기군(-0.2%), 부여군(-3.8%), 청양군(-1.4%) 등은 종사자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점차 지역의 쇠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3> 충남지역 시군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사업체 현황				종사자 현황			
	2000년		2009년		2000년		2009년	
	사업체수	전체대비 %	사업체수	전체대비 %	종사자수	전체대비 %	종사자수	전체대비 %
천안시	26,743	22.4	35,311	26.8	129,944	26.1	205,913	30.9
공주시	8,286	7.0	8,054	6.1	32,512	6.5	37,021	5.6
보령시	7,305	6.1	7,675	5.8	25,786	5.2	30,491	4.6
아산시	9,956	8.4	13,289	10.1	59,076	11.9	101,270	15.2
서산시	9,412	7.9	9,756	7.4	37,133	7.5	47,051	7.1
논산시	9,317	7.8	9,258	7.0	32,974	6.6	37,419	5.6
계룡시	908	0.8	1,702	1.3	3,808	0.8	7,219	1.1
금산군	4,584	3.8	4,716	3.6	17,546	3.5	19,820	3.0
연기군	5,209	4.4	4,931	3.7	26,351	5.3	26,306	4.0
부여군	5,801	4.9	4,699	3.6	19,317	3.9	18,581	2.8
서천군	4,647	3.9	4,372	3.3	17,139	3.4	17,909	2.7
청양군	2,378	2.0	2,155	1.6	8,933	1.8	8,808	1.3
홍성군	6,917	5.8	6,556	5.0	23,087	4.6	25,707	3.9
예산군	6,190	5.2	5,815	4.4	21,040	4.2	22,321	3.4
태안군	4,154	3.5	4,868	3.7	13,283	2.7	17,309	2.6
당진군	7,342	6.2	8,398	6.4	29,037	5.8	42,288	6.4
천안/아산	36,699	30.8	48,600	36.9	189,020	38.0	307,183	46.2
논산/계룡	10,225	8.6	10,960	8.3	36,782	7.4	44,638	6.7
충남전체	119,149	100.0	131,555	100.0	496,966	100.0	665,433	100.0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KOSIS

<그림 V-1>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감률: 2009/2000년



<표 V-4>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비중

	2000년			2009년			증감	
	전체	10인 미만(A)	300인 이상(B)	전체	10인 미만(C)	300인 이상(D)	10인미만 (C-A)	300인 이상(D-B)
천안시	100.0	40.9	10.4	100.0	35.4	16.2	-5.5	5.9
공주시	100.0	51.2	5.8	100.0	43.6	9.1	-7.6	3.3
보령시	100.0	59.5	6.3	100.0	49.9	7.1	-9.6	0.7
아산시	100.0	33.8	19.9	100.0	26.0	30.3	-7.8	10.4
서산시	100.0	49.5	16.3	100.0	40.7	14.0	-8.9	-2.3
논산시	100.0	54.4	1.9	100.0	48.5	4.1	-5.9	2.2
계룡시	100.0	52.6	0.0	100.0	51.5	10.9	-1.2	10.9
금산군	100.0	50.1	9.0	100.0	45.1	14.9	-5.0	5.9
연기군	100.0	38.6	12.1	100.0	36.8	15.6	-1.8	3.5
부여군	100.0	55.9	4.6	100.0	45.8	10.1	-10.1	5.5
서천군	100.0	51.2	9.6	100.0	46.8	8.2	-4.4	-1.3
청양군	100.0	51.7	0.0	100.0	45.6	4.7	-6.1	4.7
홍성군	100.0	58.6	1.6	100.0	52.1	5.7	-6.5	4.2
예산군	100.0	57.5	3.4	100.0	48.0	7.2	-9.5	3.8
태안군	100.0	63.4	6.7	100.0	58.9	10.1	-4.5	3.4
당진군	100.0	51.7	6.1	100.0	39.6	12.7	-12.1	6.6
천안/아산	100.0	38.7	13.3	100.0	32.3	20.9	-6.4	7.5
논산/계룡	100.0	54.2	1.7	100.0	49.0	5.2	-5.3	3.5
충남전체	100.0	47.4	9.4	100.0	39.4	15.0	-8.0	5.6

주 : 10~299인 종사자수는 제외되었으므로, A와 B, C와 D의 합계는 100.0이 아님

자료 : 통계청 KOSIS,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가 39.4%,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가 1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4> 참조). 2000년과 비교할 때 10인 미만 사업체 비중은 8.0%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는 5.6% 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아산의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 비중이 2000년 13.3%에서 2009년 20.9%로 7.5% 포인트 증가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산의 경우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 규모가 2009년 30.35로 10인 미만 영세사업체 종사자 비중인 26.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태안(58.9%)과 홍성(52.1%)은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구조가 가장 영세한 시군으로 나타났다.

<표 V-5> 시군별 사업체 종사자 수의 변화

	2001년			2009년			전체 종사자 증감률	제조업 종사자 증감률
	전체 종사자수 (A)	제조업 종사자수 (B)	제조업 종사자비 율(%)	전체 종사자수 (C)	제조업 종사자수 (D)	제조업 종사자비 율(%)		
천안시	143,748	51,915	36.1	205,913	67,809	32.9	43.2	30.6
공주시	31,923	6,382	20.0	37,021	5,726	15.5	16.0	-10.3
보령시	26,531	3,236	12.2	30,491	3,840	12.6	14.9	18.7
아산시	63,062	30,854	48.9	101,270	57,105	56.4	60.6	85.1
서산시	35,627	7,145	20.1	47,051	11,577	24.6	32.1	62.0
논산시	32,187	6,439	20.0	37,419	8,209	21.9	16.3	27.5
계룡시	17,734	5,936	33.5	7,219	278	3.9	-59.3	-95.3
금산군	27,160	11,597	42.7	19,820	7,508	37.9	-27.0	-35.3
연기군	17,837	3,154	17.7	26,306	10,162	38.6	47.5	222.2
부여군	15,125	3,109	20.6	18,581	3,562	19.2	22.8	14.6
서천군	9,067	2,067	22.8	17,909	3,677	20.5	97.5	77.9
청양군	21,598	2,624	12.1	8,808	2,329	26.4	-59.2	-11.2
홍성군	21,473	4,078	19.0	25,707	3,640	14.2	19.7	-10.7
예산군	14,552	814	5.6	22,321	4,704	21.1	53.4	477.9
태안군	27,837	6,979	25.1	17,309	661	3.8	-37.8	-90.5
당진군*	4,114	388	9.4	42,288	13,266	31.4	927.9	3319.1
천안/아산	206,810	82,769	40.0	307,183	124,914	40.7	48.5	50.9
논산/계룡	49,921	12,375	24.8	44,638	8,487	19.0	-10.6	-31.4
충남전체	509,575	146,717	28.8	665,433	204,053	30.7	30.6	39.1

주1) : 확보가능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원자료가 2001년부터이므로 비교년도 변경

2) : 전체종사자 증감률 = (C-A)/A*100, 제조업종사자 증감률 = (D-B)/B*100

자료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충남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수는 2009년 204,053명으로 전체 사업체 종사자수의 30.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5> 참조). 충남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수는

2001년에 비해 39.1%가 증가한 것으로 전체 종사자 증가율인 30.6%보다 8.5% 포인트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 시군별로는 천안·아산의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40.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산의 경우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56.4%로 절반을 넘고 있다. 그 밖에 연기(38.6%), 금산(37.9%), 천안(32.9%), 당진(31.4%) 등도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30%를 넘는 지역들이다.

2001년과 2009년 사이에 제조업 종사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당진군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군과 연기군도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충남지역 종사자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지역별고용조사·광업제조업조사·고용보험DB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준에서 측정된 충남지역 사업체 종사자 규모를 비교 분석하게 된다. 우선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파악된 종사자 규모는 지역별고용조사에서 파악된 근무지 기준의 취업자 규모와 비교할 때 전산업 기준으로는 65.5%(665,433/1,016,413명)를 포괄하고 제조업종사자 기준으로는 114.4%(204,053/178,335명)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6> 참조).

<표 V-6> 2009년 사업체 종사자 수의 비교

	사업체기초통계조사1)			지역별고용조사2)			전산업	제조업
	전체 종사자수 (A)	제조업 종사자수 (B)	제조업 종사자 비율(%) (B/A)	전체 취업자수 (C)	제조업 취업자수 (D)	제조업 종사자 비율(%) (D/C)	포괄률 (A/C *100)	포괄률 (B/D *100)
천안시	205,913	67,809	32.9	248,568	52,662	21.2	82.8	128.8
공주시	37,021	5,726	15.5	64,708	7,587	11.7	57.2	75.5
보령시	30,491	3,840	12.6	49,718	4,706	9.5	61.3	81.6
아산시	101,270	57,105	56.4	120,715	43,373	35.9	83.9	131.7
서산시	47,051	11,577	24.6	78,599	11,746	14.9	59.9	98.6
논산시	37,419	8,209	21.9	68,161	7,274	10.7	54.9	112.9
계룡시	7,219	278	3.9	11,501	306	2.7	62.8	90.9
금산군	19,820	7,508	37.9	37,017	8,023	21.7	53.5	93.6
연기군	26,306	10,162	38.6	43,044	11,200	26.0	61.1	90.7
부여군	18,581	3,562	19.2	39,144	2,903	7.4	47.5	122.7
서천군	17,909	3,677	20.5	31,173	3,751	12.0	57.5	98.0
청양군	8,808	2,329	26.4	18,757	1,436	7.7	47.0	162.2
홍성군	25,707	3,640	14.2	41,999	4,305	10.3	61.2	84.5
예산군	22,321	4,704	21.1	46,478	4,888	10.5	48.0	96.2
태안군	17,309	661	3.8	38,335	940	2.5	45.2	70.3
당진군	42,288	13,266	31.4	78,497	13,234	16.9	53.9	100.2
천안/아산	307,183	124,914	40.7	369,283	96,035	26.0	83.2	130.1
논산/계룡	44,638	8,487	19.0	79,662	7,579	9.5	56.0	112.0
충남전체	665,433	204,053	30.7	1,016,413	178,335	17.5	65.5	114.4

자료1) : 2009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자료2) : 2009년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가중치적용, 근무지 기준)

충남지역 전체로 볼 때 전체 취업자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과소추정되고 있으며 제조업종사자 수는 지역별 고용조사가 과소추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시군별로는 천안·아산의 사업체 종사자 수가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파악된 취업자 수의 83.2%로 비교적 높은 포괄률을 보이고 있으나 부여·예산·태안·청양과 같이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50% 미만의 포괄률을 보이고 있다. 시군별 제조업 종사자의 경우 천안·아산(130.1%), 청양(162.2%), 논산(112.2%) 등에서 지역별 고용조사보다 많은 수의 제조업 종사자가 확인되고 있다.

세부표본에 대한 지역별 고용조사의 ‘측정오차’ (measurement errors)를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제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잘 파악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파악되지만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누락된 취업자들은 주로 농림어업 종사자 및 비공식부문 종사자, 근로형태가 비전형적인 서비스부문 종사자들일 것이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등록 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인 반면, 지역별 고용조사가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표본조사임을 감안할 때 시군별 포괄률의 차이는 그 자체로 지역의 산업 및 고용구조를 반영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V-7>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수와 피보험자 수(2009. 12월 기준)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수	피보험자 수						
		전 체	제조업		10인 미만		300인 이상	
			명	%	명	%	명	%
천안시	14,480	116,334	61,842	53.2	27,452	23.6	28,808	24.8
공주시	3,330	15,989	4,049	25.3	5,247	32.8	776	4.9
보령시	2,528	12,564	2,808	22.3	4,709	37.5	1,454	11.6
아산시	6,772	73,233	53,123	72.5	11,587	15.8	26,912	36.7
서산시	3,710	23,969	10,848	45.3	6,692	27.9	5,636	23.5
논산시	3,353	15,899	5,643	35.5	5,888	37.0	400	2.5
계룡시	818	2,859	209	7.3	1,227	42.9	8	0.3
금산군	1,694	10,836	5,837	53.9	3,837	35.4	1,786	16.5
연기군	2,594	16,689	10,164	60.9	3,860	23.1	3,209	19.2
부여군	1,521	8,117	2,304	28.4	2,826	34.8	1,190	14.7
서천군	1,445	7,589	3,128	41.2	2,554	33.7	302	4.0
청양군	876	4,110	1,496	36.4	1,500	36.5		
홍성군	2,084	9,831	2,347	23.9	4,103	41.7	741	7.5
예산군	2,210	11,296	4,278	37.9	3,719	32.9	982	8.7
태안군	1,656	6,724	257	3.8	2,550	37.9	789	11.7
당진군	4,970	28,241	14,797	52.4	7,227	25.6	5,908	20.9
천안아산	21,252	189,567	114,965	60.6	39,039	20.6	55,720	29.4
논산계룡	4,171	18,758	5,852	31.2	7,115	37.9	408	2.2
충청남도	54,041	364,280	183,130	50.3	94,978	26.1	78,901	21.7

자료 : 고용보험DB

다음으로 충남지역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수를 살펴보면 2009년 12월 기준으로 54,041개의 사업장에서 364,280명의 피보험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규모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파악된 충남지역 사업체의 41.1% 수준이며 종사자 규모로는 54.7% 수준이다. 그러나 비임금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상용직 임금근로자(422,902명) 기준으로는 86.1%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 기준으로 볼 경우에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파악된 제조업 종사자의 89.7%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군별로는 천안·아산의 피보험자 수가 충남 전체 피보험자수의 절반 이상인 189,567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천안·아산의 제조업 피보험자 비중은 전체 피보험자의 6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37.9%,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공단 현황 및 고용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 12월 기준으로 충남지역에는 139개의 산업단지에 약 92,570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표 V-8> 참조). 단지 유형별로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5개 국가산업단지(고정국가산업단지, 대죽자원비축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장항국가산업단지)에 5,363명(5.8%)이 고용되어 있다. 이중에서 석문(당진)과 장항(서천)의 경우 현재 조성중이거나 미개발 상태이므로 이들 단지에 입주자가 완료될 경우 국가 산업단지 고용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44개 일반산업단지의 고용규모는 60,757명(65.6%)으로 이중에서 30여개가 조성중이거나 미개발 상태여서 향후 고용규모가 급속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90개 농공단지의 고용규모는 26,450명으로 전체 산업단지 고용의 28.6%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고용규모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파악된 충남지역 전체 제조업 종사자인 204,053명(2009년)의 45.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산업단지 개발이 진척될수록 산업단지의 고용비중은 증가할 전망이다.

<표 V-8> 충남지역 산업단지 수 및 고용규모

	유형	단지수	가동/입주업 체비율	고용		
				10.12	09.12	증감율
전국	국가	40	88.7	895,950	845,427	6.0
	일반	434	86.9	550,211	505,503	8.8
	도시첨단	6	99.1	1,001	751	33.3
	농공	421	86.3	129,806	122,729	5.8
	합계	901		1,576,968	1,474,410	6.5
충남	국가	5	60.6	5,363	5,229	2.6
	일반	44	66.1	60,757	57,318	6.0
	농공	90	87.3	26,450	23,838	11.0
	합계	139		92,570	86,385	6.7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3) 취업자 추이

충남도의 취업자는 2010년 982,565명으로 2008~2010년 기간 연평균 1.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대비 취업자 비중이 큰 지역은 천안시 25%, 아산시 12%, 서산시 8%, 당진군 7.4%의 순으로 서북부권 지역의 취업자가 많다. 시군의 경우 취업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큰 지역은 계룡시 7%, 연기군 4.79%, 금산군 4.45%, 보령시 3.72%로 나타난 반면, 취업자가 감소한 지역은 부여군 3.41%, 논산시 2.13%, 예산군 2.02%로 나타났다.

<표 V-9> 충남 시군별 취업자

(단위 :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충청남도	960,759	100.00	964,829	100.00	982,565	100.00	1.13
천안시	242,018	25.19	243,435	25.23	245,656	25.00	0.75
공주시	58,936	6.13	61,465	6.37	60,190	6.13	1.06
보령시	47,658	4.96	49,629	5.14	51,273	5.22	3.72
아산시	112,055	11.66	113,577	11.77	119,540	12.17	3.29
서산시	74,616	7.77	76,785	7.96	79,622	8.10	3.30
논산시	64,783	6.74	62,324	6.46	62,056	6.32	-2.13
계룡시	12,913	1.34	13,777	1.43	14,783	1.50	7.00
금산군	27,957	2.91	27,245	2.82	30,498	3.10	4.45
연기군	34,034	3.54	36,178	3.75	37,369	3.80	4.79
부여군	40,179	4.18	39,450	4.09	37,483	3.81	-3.41
서천군	31,385	3.27	29,975	3.11	30,719	3.13	-1.07
청양군	18,646	1.94	17,794	1.84	18,123	1.84	-1.41
홍성군	42,488	4.42	42,395	4.39	42,025	4.28	-0.55
예산군	43,941	4.57	44,862	4.65	42,182	4.29	-2.02
태안군	37,200	3.87	37,110	3.85	37,786	3.85	0.78
당진군	71,949	7.49	68,828	7.13	73,258	7.46	0.91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성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충남도의 경우 남자는 584,299명, 여자는 398,266명, 비중으로는 59%, 41%로 나타났다. 충남도의 성별 취업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남자는 1.05%, 여자는 1.24%로 나타났다. 시군별 남녀 취업자를 살펴보면 남자의 취업자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계룡시 5.01%, 연기군 3.88%, 아산시 3.23%, 서산시 3.04%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의 취업자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금산군 9.63%, 계룡시 9.58%, 연기군 6.18%, 보령시 4.8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0> 충남 시군별 성별 취업자(시지역)

(단위 :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08~‘10)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충청남도	960,759	100.00	964,829	100.00	982,565	100.00	1.13
남	572,184	59.56	577,083	59.81	584,299	59.47	1.05
여	388,575	40.44	387,747	40.19	398,266	40.53	1.24
천안시	242,018	100.00	243,435	100.00	245,656	100.00	0.75
남	149,094	61.60	149,299	61.33	149,287	60.77	0.06
여	92,925	38.40	94,135	38.67	96,369	39.23	1.84
공주시	58,936	100.00	61,465	100.00	60,190	100.00	1.06
남	35,625	60.45	35,837	58.30	35,836	59.54	0.30
여	23,311	39.55	25,628	41.70	24,354	40.46	2.21
보령시	47,658	100.00	49,629	100.00	51,273	100.00	3.72
남	28,893	60.63	29,903	60.25	30,649	59.78	2.99
여	18,765	39.37	19,726	39.75	20,624	40.22	4.84
아산시	112,055	100.00	113,577	100.00	119,540	100.00	3.29
남	70,936	63.30	73,133	64.39	75,593	63.24	3.23
여	41,120	36.70	40,444	35.61	43,947	36.76	3.38
서산시	74,616	100.00	76,785	100.00	79,622	100.00	3.30
남	44,823	60.07	45,726	59.55	47,586	59.76	3.04
여	29,792	39.93	31,059	40.45	32,037	40.24	3.70
논산시	64,783	100.00	62,324	100.00	62,056	100.00	-2.13
남	36,008	55.58	35,997	57.76	34,832	56.13	-1.65
여	28,775	44.42	26,327	42.24	27,224	43.87	-2.73
계룡시	12,913	100.00	13,777	100.00	14,783	100.00	7.00
남	7,379	57.14	7,666	55.64	8,137	55.04	5.01
여	5,535	42.86	6,111	44.36	6,646	44.96	9.58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표 V-11> 충남 시군별 성별 취업자(군지역)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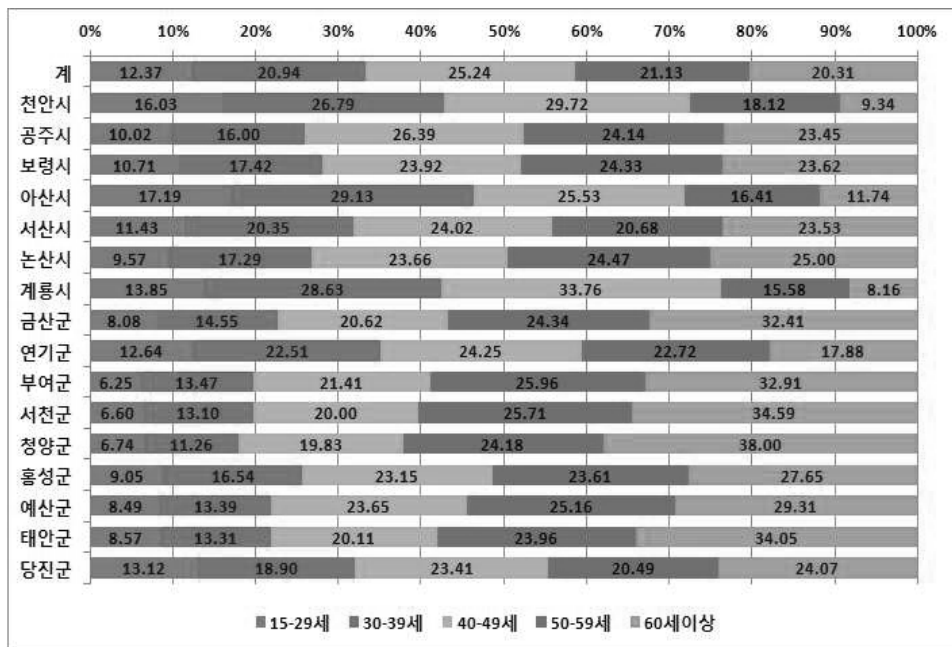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08~‘10)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금산군	27,957	100.00	27,245	100.00	30,498	100.00	4.45
남	16,777	60.01	16,693	61.27	17,062	55.94	0.85
여	11,180	39.99	10,552	38.73	13,436	44.06	9.63
연기군	34,034	100.00	36,178	100.00	37,369	100.00	4.79
남	20,686	60.78	21,687	59.95	22,321	59.73	3.88
여	13,347	39.22	14,492	40.06	15,048	40.27	6.18
부여군	40,179	100.00	39,450	100.00	37,483	100.00	-3.41
남	21,844	54.37	21,721	55.06	21,010	56.05	-1.93
여	18,335	45.63	17,728	44.94	16,473	43.95	-5.21
서천군	31,385	100.00	29,975	100.00	30,719	100.00	-1.07
남	17,338	55.24	16,613	55.42	16,532	53.82	-2.35
여	14,047	44.76	13,362	44.58	14,188	46.19	0.50
청양군	18,646	100.00	17,794	100.00	18,123	100.00	-1.41
남	10,097	54.15	10,126	56.91	10,195	56.25	0.48
여	8,549	45.85	7,668	43.09	7,928	43.75	-3.70
홍성군	42,488	100.00	42,395	100.00	42,025	100.00	-0.55
남	23,992	56.47	24,769	58.42	24,235	57.67	0.51
여	18,496	43.53	17,626	41.58	17,790	42.33	-1.93
예산군	43,941	100.00	44,862	100.00	42,182	100.00	-2.02
남	25,020	56.94	24,680	55.01	25,092	59.49	0.14
여	18,922	43.06	20,182	44.99	17,090	40.51	-4.96
태안군	37,200	100.00	37,110	100.00	37,786	100.00	0.78
남	20,584	55.33	20,257	54.59	20,743	54.90	0.39
여	16,616	44.67	16,853	45.41	17,043	45.10	1.28
당진군	71,949	100.00	68,828	100.00	73,258	100.00	0.91
남	43,088	59.89	42,975	62.44	45,190	61.69	2.41
여	28,861	40.11	25,853	37.56	28,068	38.31	-1.38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충남도의 2010년 연령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15-29세의 취업자는 121,548명으로 12.37%, 30-59세는 661,462명으로 67.32%, 60-64세는 199,556명으로 20.31%를 차지하고 있다. 시급 지역에서 15-29세 취업자 비중이 큰 지역은 아산시 17.19%, 천안시 16.03%로 나타났으며,

15-29세 취업자 비중이 작은 지역은 논산시 9.57%, 공주시 10.02%로 나타났다. 또한 60-64세 취업자 비중이 큰 지역은 논산시 25%, 보령시 23.62%, 서산시 23.53%로 나타났으며, 60-64세 취업자 비중이 작은 지역은 계룡시 8.16%, 천안시 9.34%, 아산시 11.74%로 나타났다. 군급 지역의 경우 15-29세 취업자 비중이 큰 지역은 당진군 13.12%, 연기군 12.64%로 나타났으며, 15-29세 취업자 비중이 작은 지역은 논산시 9.57%, 공주시 10.02%로 나타났다. 또한 60-64세 취업자 비중이 큰 지역은 청양군 38.0%, 서천군 34.59%, 태안군 34.05%로 나타났으며, 60-64세 취업자 비중이 작은 지역은 연기군 17.88%, 당진군 24.07%, 홍성군 27.65%로 나타났다. 군 지역은 연기군을 제외하고 60-64세 취업자 비중이 충남도 비중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 지역은 15-29세의 취업자의 비중이 군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60-64세 취업자 비중은 군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2> 연령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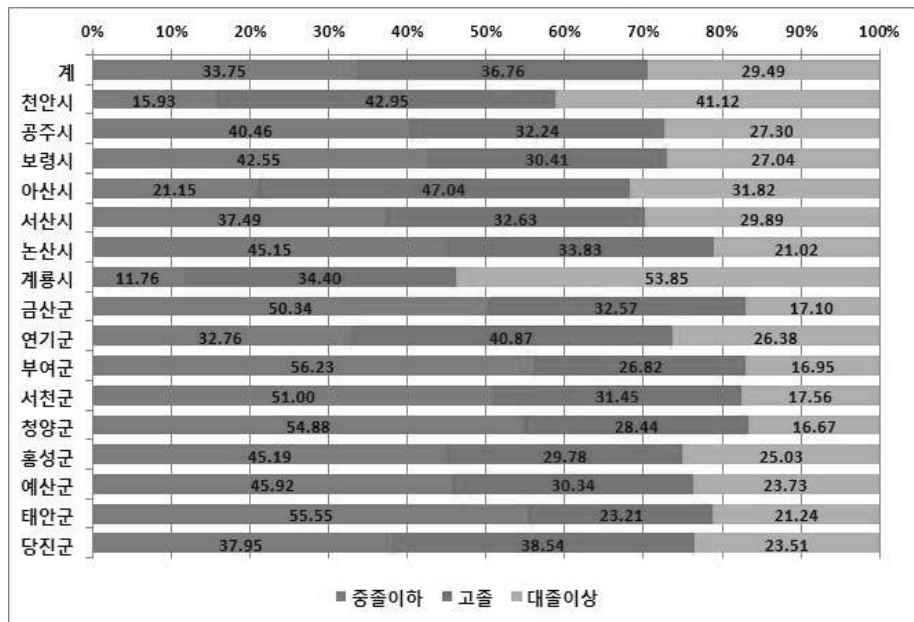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충남의 성별/연령별 취업자 추이에서는 15-19세와 50-59세의 연령층에서 모두 크게 취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중 특히 여성의 증가추세가 더 높았다. 20-29세 연령층에서는 여성의 취업자수가 증가한 반면 남성의 취업자수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30-39세 연령층에서는 여성의 취업자수의 감소가 남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천안시에서는 15-19세,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15-19세 남성, 50세 이상의 여성층에서 그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20-29세 연령층 남성의 경우 연평균 13.31%의 감소율을 보였다. 공주시와 보령시의 경우 15-39세 연령층의 여성의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40세 이상에서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에서는 청소년 여성을 제외한 청년층에서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 시군과는 다르게 60세 이상의 취업자수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서산시의 경우 15-19세의 청소년 남성층에서 취업자수가 증가한 것이 두드러졌다. 논산시에서는 청소년층의 취업자의 감소가 뚜렷한 가운데 50-59세 연령층과 20-29세 여성층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계룡시의 경우 40-59세 연령층에서 취업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충남 시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20-29세 여성층의 취업자수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금산군에서는 30세 이상의 여성층이 남성층에 비해 매우 큰 취업자수 증가를 보였다. 청양군에서는 20-29세의 취업자수 증가와 30-39세의 취업자수 감소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당진군에서는 60세 이상의 취업자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V-3> 교육정도별 취업자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충남도의 학력별 취업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고졸의 비중이 36.76%, 중졸이하 33.75%, 대졸이상이 29.49%로 나타났다. 중졸이하의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여군 56.23%, 태안군 55.55%, 청양군 54.88%, 서천군 51.0%로 나타났으며, 비중이 낮은 지역

은 계룡시 11.76%, 천안시 15.93%, 아산시 21.15% 로 나타났다. 고졸 취업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아산시 47.04%, 천안시 42.95%, 연기군 40.87%, 당진군 38.5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중이 낮은 지역은 태안군 23.21%, 부여군 26.82%, 청양군 28.44%, 홍성군 29.78%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졸 취업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계룡시 53.85%, 천안시 41.12%, 아산시 31.82%, 연기군 26.38%로 나타났으며, 비중이 낮은 지역은 청양군 16.67%, 부여군 16.95%, 금산군 17.10%, 서천군 17.56%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취업자의 비중은 시 지역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학력 취업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 취업자 비중을 충남도 전체 비중과 비교해 보면 모든 군 지역은 대졸 취업자의 비중이 충남도 비중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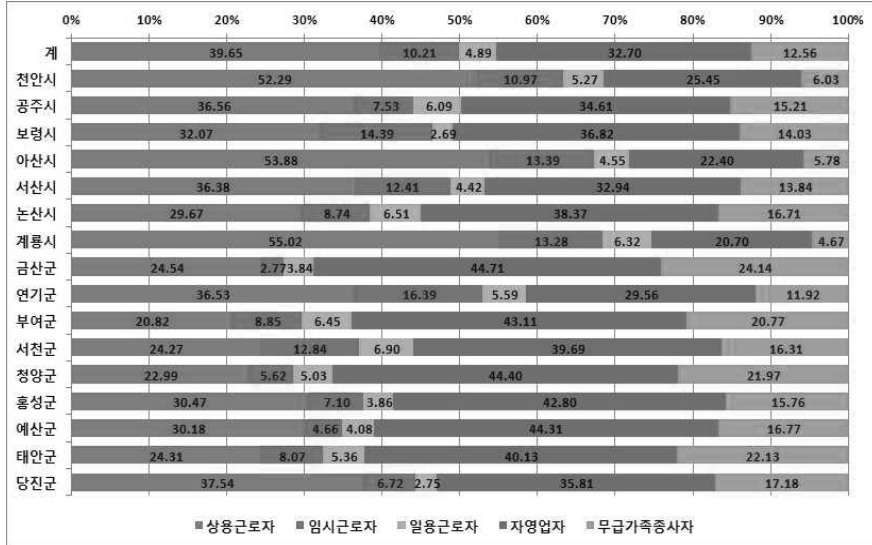
충남 전체적으로 중졸이하 학력의 취업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고졸과 대졸이상 학력의 취업자는 증가하고 있다. 학력이 높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취업자수가 증가하였다. 반면 중졸이하의 여성 취업자는 남성의 취업자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공주시에서는 중졸이하 여성의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졸과 대졸이상 여성의 취업자수는 감소하고 있다. 보령시의 경우 전체적으로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졸이하 여성과 고졸 남성의 취업자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아산시와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에서는 대졸이상 여성의 취업자수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금산군에서는 고졸 이하 여성의 취업자수와 대졸이상 남성의 취업자수 증가율이 타 시군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연기군과 서천군의 경우 고졸이상 여성의 취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태안군에서는 특히 대졸이상 여성의 취업률 증가가 두드러졌다.

4) 취업형태별 고용구조

충남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54.75%, 비임금근로자는 45.25%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39.65%, 임시근로자 비중은 10.21%, 일용근로자 비중은 4.89%로 나타났다. 한편, 비임금근로자의 비중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32.70%, 무급가족근로자 비중은 12.56% 수준이다. 시군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계룡시 74.63%, 아산시 71.82%, 천안시 68.52%, 연기군 58.5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중이 낮은 지역은 금산군 31.15%, 청양군 33.63%, 부여군 36.12%, 태안군 37.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시 근로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연기군 16.39%, 보령시 14.39%, 아산시 13.39%, 서천군 12.8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중이 낮은 지역은 금산군 2.77%, 예산군 4.66%, 청양군 5.62%, 당진군 6.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금산군 44.71%, 청양군 44.40%, 예산군 44.31%, 부여군 43.11%, 홍성군 42.8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중이 낮은 지역은 계룡시 20.70%, 아산시 22.40%, 천안시 25.45%, 연기군 29.56%로

나타났다.

<그림 V-4> 종사자지위별 취업자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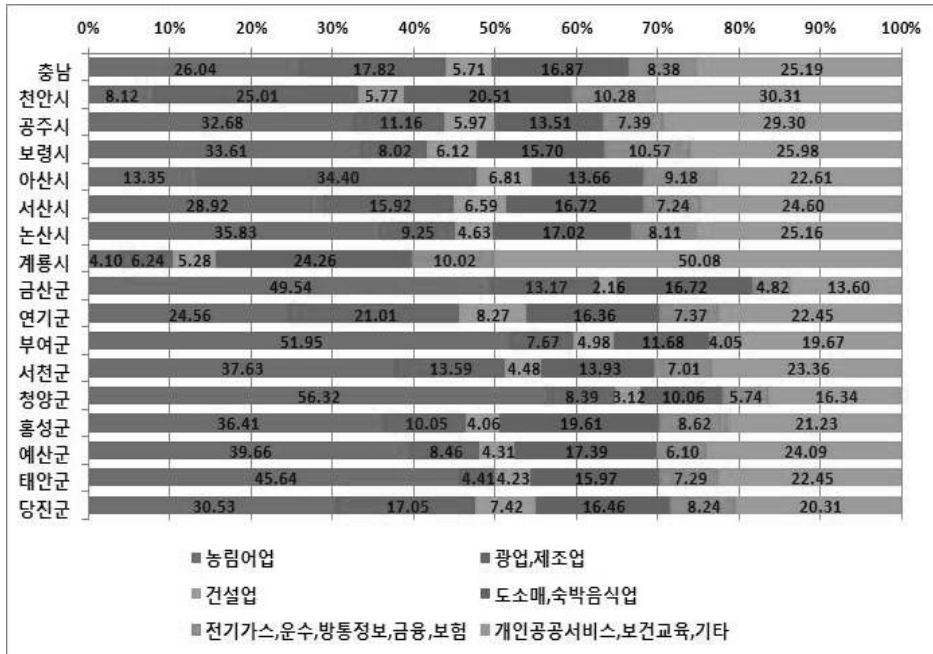
시군의 고용형태별 구성을 살펴보면, 천안시와 아산시, 계룡시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용직 비중도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광역대도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아산시와 천안시의 경우 충남지역의 산업중심지로서의 특성이 고용구조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계룡시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아산시와 천안시에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대전에서 통근하는 취업자가 많은데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시군 지역들의 경우 임금근로자 비중이나 상용직 비중 측면에서 천안시와 아산시와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지역들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산업별 고용구조

충남도의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농림어업 취업자는 2010년 기준 255,848명으로 비중은 26.04%로서 연평균 1.45%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자는 2010년 기준 173,814명으로 비중은 17.69%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8%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 취업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으로 연평균 170.32%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87.85%, 금융 및

보험 32.28%, 교육서비스 17.82%로 나타났다.

<그림 V-5> 산업별 고용구조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농림어업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청양군 56.32%, 부여군 51.95%, 금산군 49.54%, 태안군 45.6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중이 낮은 지역은 계룡시 4.10%, 천안시 8.12%, 아산시 13.35%, 연기군 24.56%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 취업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천안시 21.52%, 금산군 7.41%, 보령시 5.27%, 서산시 2.05%, 연기군 2.6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지역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아산시 34.32%, 천안시 25.01%, 연기군 20.88%, 서산시 15.7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중이 낮은 지역은 태안군 3.45%, 계룡시 6.09%, 부여군 7.57%, 보령시 7.66%, 청양군 8.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이 큰 지역은 서천군 15.31%, 태안군 11.11%, 서산시 8.19%, 홍성군 8.04%, 보령시 5.5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감소율이 큰 지역은 예산군 11.38%, 당진군 5.14%, 논산시 4.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우 제조업 종사자와 서비스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천안시와 아산시 역시 산업별 종사자의 구성비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천안시의 경우 민간 서비스업 종사자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차지하였으나, 이에 반해 제조업 종사자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의 경우 제조업 종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것은 민간 서비스업이다.

이 산업 구성의 차이는 두 지역간 노동시장 의존성이 높은 가운데 서로 기능적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풀이된다. 즉 아산은 상대적으로 제조업 등 생산의 기능이 강한 반면, 상대적으로 소비 기능이 보다 강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산업별 일자리 구성에서 눈에 띄는 지역은 계룡과 연기지역이다. 계룡은 공공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충남의 타 시군보다 현격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의 비중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계룡시는 육군·해군·공군 3군 본부가 위치한 군사행정 중심지로 이러한 도시의 특성이 고용구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연기는 충남의 타 시군보다 건설업 종사자의 비중이 현격히 높게 나타났다. 역시나 행정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지역의 산업특성이 고용구조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등 10개 시군은 농림어업(광업포함) 종사자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시군 지역이다. 특히 청양군, 부여군, 태안군 등은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이 절반 가까이 이르고 있다. 반면 당진과 태안은 농업 인구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제조업 비중도 천안·아산에 이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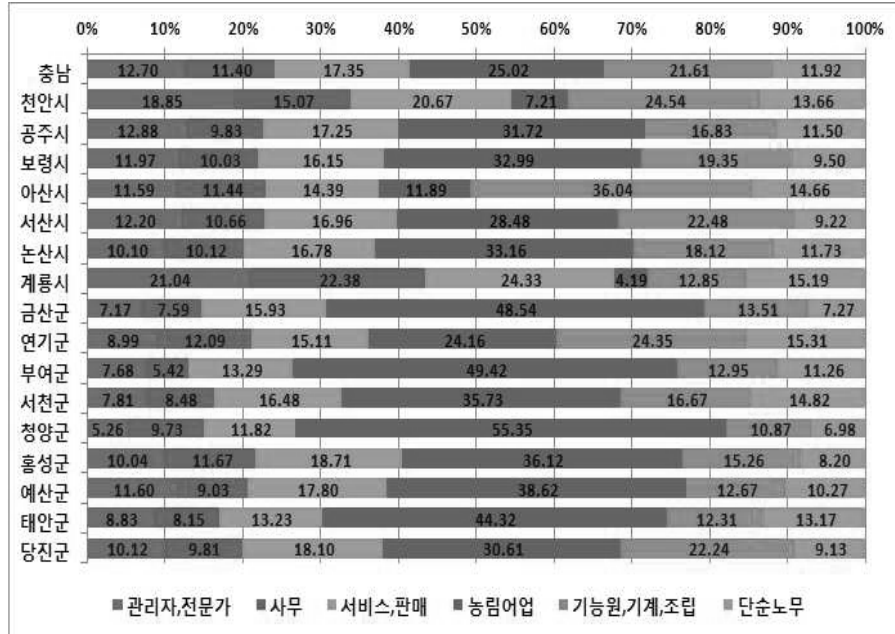
6) 직종별 고용구조

충남도의 직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245,813명으로 25.02%로 가장 많은 직종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136,909명으로 13.93%, 단순노무종사자가 11,7157명 11.9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116,672명 11.87%, 사무종사자 11,2047명 1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이 큰 직종별 취업자는 단순노무 종사자 6.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3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6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3.50%로 나타났다.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는 직종은 관리자 및 관련 종사자로서 -18.2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37%, 사무종사자 -1.34%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비중이 큰 지역은 청양군 55.35%, 부여군 49.42%, 금산군 48.54%, 태안군 44.32%, 예산군 38.62%, 홍성군 36.12%, 서천군 35.73%, 논산시 33.16%, 공주시 31.72%, 당진군 30.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비중이 큰 지역은 아산시 24.36%, 천안시 16.91%, 연기군 15.10%, 서산시 14.29%, 당진군 14.21%로 나타났다.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이 큰 지역은 천안시 15.31%, 계룡시 15.19%, 서천군 14.82%, 아산시 14.66%, 태안군 13.17, 부여군 11.26%의 순이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중이 큰 지역은 천안시 18.82%, 계룡시 20.81%, 공주시 12.48%, 보령시 11.01%, 서산시 11.0%, 아산시 10.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무종사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계룡시 22.38%,

천안시 15.07%, 연기군 12.09%, 홍성군 11.67%, 아산시 11.44%, 서산시 10.66%, 논산시 10.12%, 보령시 10.0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6> 직종별 고용구조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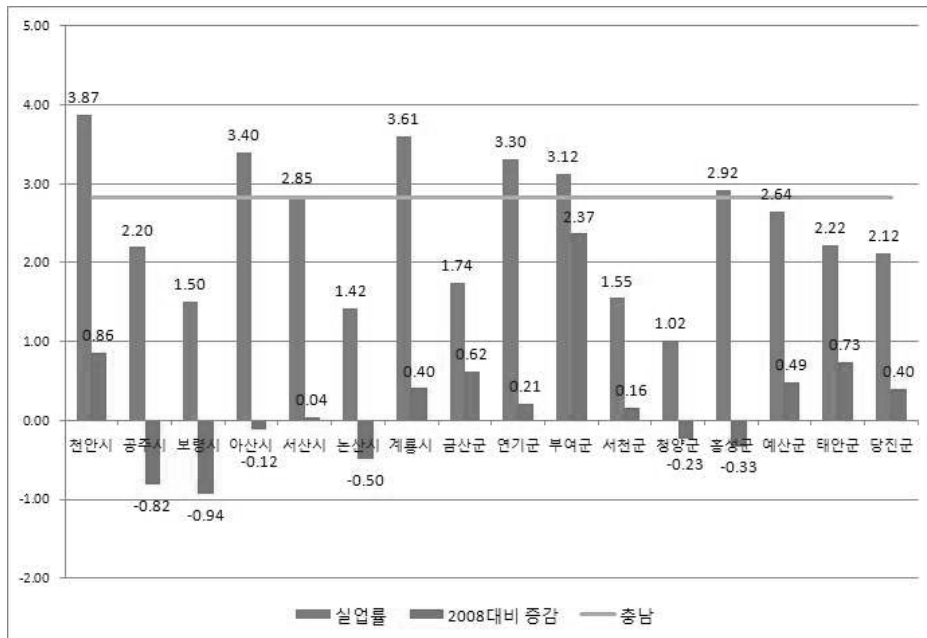
취업자의 시군별 직업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천안·아산에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전문가 및 준전문가와 사무직 그리고 기능직 및 장치조작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천안의 경우 기능직 및 장치조작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문가 및 준전문가, 사무직이 타 시군 지역에 비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은 기능직 및 장치조작원 비중이 높아 충남의 제조업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직업구성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몇몇 시군 지역 일자리의 직업별 구성 현황 역시도 지역의 기능적 역할과 산업구성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공주는 전문가 및 준전문가의 비중이 천안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공주는 공주대학교, 공주교대, 공주영성대학 등의 교육기관과 충남발전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어 교육 및 연구기능이 직업구성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계룡시는 군사행정의 중심지로서 전문가 및 준전문가 비중이 충남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서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높은 비중과 연관되어 서비스·판매직 종사자의 비중 역시도 높게 나타났다. 서산과 당진은 충남의 북부권 산업 벨트를 형성하는 한 축으로서 직업 구성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능직 및 장치조작원 비중과 농림어

업 종사자 비중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기는 높은 건설업 비중과 연관되어 기능직 및 장치조작원 비중과 단순노무직 등 생산직 근로자의 비중이 합쳐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머지 대부분의 군 지역(보령시 포함)들은 직업 구성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7) 실업자 추이

2010년 현재, 충남의 실업률은 2.82%로 2008년(2.54%) 대비 0.28%p 감소하는 가운데 성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실업률은 2.92%로 2008년(2.40%) 대비 0.52%p 증가한 반면, 여성의 실업률은 2.68%로 2008년(2.75%) 대비 0.07%p 감소하였다.

<그림 V-7> 충남 2010 시군별 실업률 및 증감(2008년 대비)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2010년 현재, 충남의 실업률은 2.82%로 2008년(2.54%) 대비 0.28%p 감소하는 가운데 연령계층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8.89%로 2008년(8.01%) 대비 0.88%p, 중고령층(30~59세)의 실업률은 2.24%로 2008년(2.00%) 대비 0.24%p 증가하였다. 또한 노년층(60세 이상)의 실업률은 0.76%로 2008년(0.51%) 대비 0.25%p 증가하였다. 2010년 현재, 충남의 실업률은 2.82%로 2008년(2.54%) 대비 0.28%p 감소하는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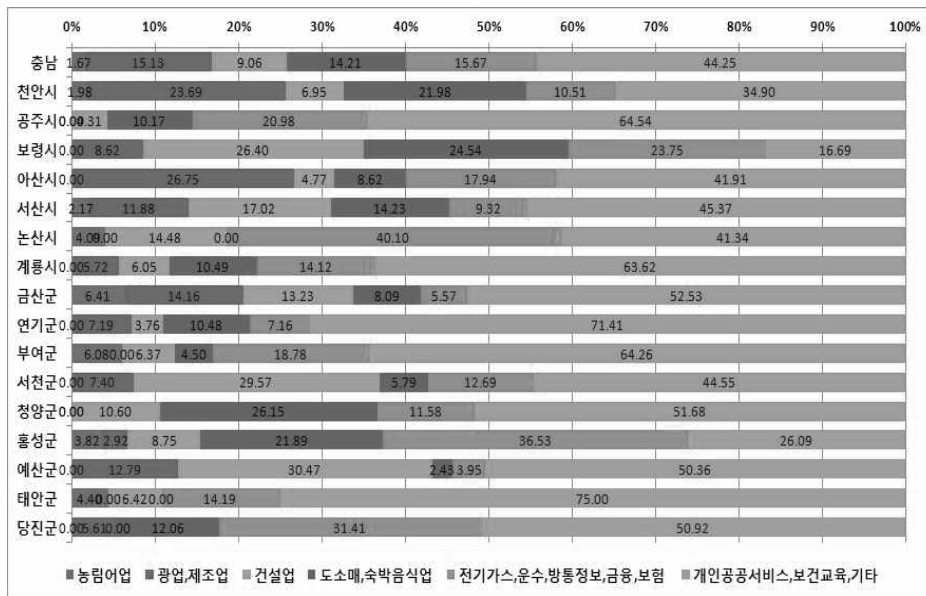
운데 교육정도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졸이하의 실업률은 1.36%로 2008년(1.09%) 대비 0.27%p 증가한 반면, 고졸의 실업률은 2.98%로 2008년(3.46%) 대비 0.47%p 감소하였다. 또한 대졸이상의 실업률은 4.26%로 2008년(3.19%) 대비 1.07%p 증가하였다.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우에는 인구 수가 많고 고용률은 낮으며 실업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계룡시는 충남 지역내에서 고용률이 가장 낮고 실업률은 높은 지역으로 노동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룡시의 최근 3년간 고용률은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통합노동시장권을 형성하고 있는 논산시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충남 내에서 고용지표상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노동시장은 태안군과 금산군으로 이들 지역은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을 뿐 아니라, 전년대비 고용률도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이 지역들은 농업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아 높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2008~2010년 기간 실업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6.72%이며, 산업별로는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59.82%,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27.64% 증가하여 타 산업보다 그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반면 건설업 구직자는 7.01%, 광업·제조업 구직자는 1.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천안시 실업자의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4.77%이었으며, 특히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0.17%, 광업·제조업 19.01%로 두드러졌다. 공주시의 경우 실업자가 연평균 14.11% 감소하였으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실업자는 57.99% 증가하였다. 보령시 역시 실업자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전기·가스업, 하수·폐기물처리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48.61%로 크게 증가하였다. 아산시는 실업자가 소폭 증가한데 그쳤으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구직자가 21.62% 감소하여 타 시군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산시 산업별 실업자 추이에서는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구직자가 63.70%, 광업·제조업 구직자가 52.20%로 대폭 증가하였다. 논산시의 경우 실업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15.95%로 크게 낮아졌으며, 농업·임업 및 어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감소하였다. 금산군에서는 실업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광업·제조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에서의 구직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연기군에서는 광업·제조업의 구직자가 54.88% 감소하였다. 부여군의 실업자 추이를 살펴보면 2008~2010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이 99.10%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에서의 구직자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서천군의 경우 건설업 구직자가 116.90%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구직자가 42.85% 감소하였다. 청양군에서는 광업·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들에서의 구직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홍성군 구직자 추이에서는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과 전기·가스업, 하수·폐기물처리업, 운수업, 방송통

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에서 큰 증가율을 보였고, 광업·제조업, 건설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에서는 건설업 구직자가 56.98%로 크게 증가한 반면, 전기·가스업, 하수·폐기물처리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구직자는 35.51% 감소하였다. 태안군에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에서의 구직자가 42.35%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타 산업들에서는 감소하였다. 당진군 구직산업별 실업자 추이를 보면 농업·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 구직자가 100% 감소한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에서 156.08% 증가하였다.

<그림 V-8> 실업자의 산업별 일자리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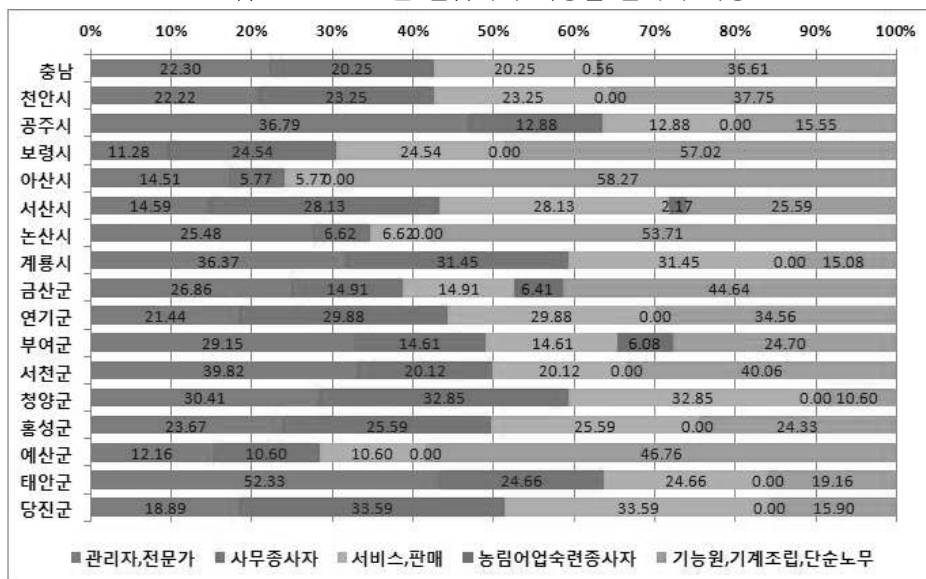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충남 구직직종별 실업자 추이를 살펴보면, 실업자가 2008~2010년 기간 연평균 6.72% 증가한 가운데,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의 구직자가 연평균 29.06% 증가하였으며, 사무종사자와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직종군에서는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직종군은 14.08% 감소하였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천안시는 전 직종군에서 구직자가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직종군에서는 100% 감소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공주시에서는 서비스, 판매 종사자 직종군과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직종군 구직자가 크게 감소한 반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군에서 구직자가 42.98% 증가하였다. 아산시의 경우 사무종사자 직종 구직자가 20.70%,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구직자가 17.76% 증가한 가운데, 서비스, 판

매 종사자 직종 구직자가 51.62% 감소하였다. 서산시에서는 서비스, 판매 종사자 직종 구직자가 60.98%로 크게 증가하였다. 논산시의 경우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 구직자가 69.26% 증가하였으나, 타 직종 구직자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군에서는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직종 구직자가 149.97% 증가하였다. 연기군의 경우 사무종사자 직종 구직자가 32.35% 감소하는 가운데,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 구직자가 162.91%, 서비스, 판매 종사자가 34.66% 증가하였다. 부여군에서는 전 직종에 걸쳐 구직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3.86%, 서비스, 판매 종사자 직종 구직자가 112.46%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천군의 경우 사무종사자 직종 구직자가 100%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청양군에서는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직종 구직자가 51.68%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판매 종사자 직종 구직자가 67.65%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군의 경우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 구직자가 120.50%, 서비스, 판매 종사자 직종 구직자가 128.15%로 크게 증가하였다. 당진군에서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직종 구직자가 100%,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직종 구직자 역시 17.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9> 2010년 실업자의 직종별 일자리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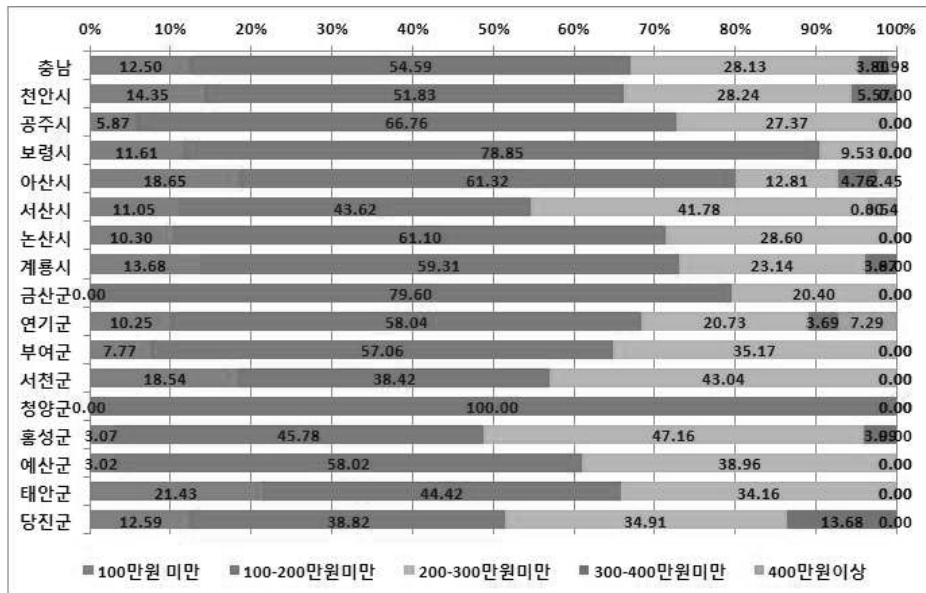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충남의 구직종사상지위별 실업자 추이에서는 전체적으로 실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시간제 구직자가 18.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비임금근로자 지위 구직자가 연평균

10.65% 감소하였고, 계룡시 역시 40.67% 감소하였으나, 반면 당진군과 아산시도 각각 75.51%, 54.51%로 크게 증가하였다. 서산시의 경우 시간제 구직자가 연간 10.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구직임금수준별 실업자 추이에서는 200~300만원 미만인 21.01%, 300~400만원 미만인 44.54%, 400만원 이상이 74.53% 증가하여 기대 임금 수준이 높은 구직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태안군, 당진군에서는 100만원 미만 임금 구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태안군과 당진군의 경우 각각 95.19%, 113.05%로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의 구직자가 감소한 반면 높은 소득의 구직자가 대폭 증가해 구직자들의 기대임금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V-10> 실업자의 구직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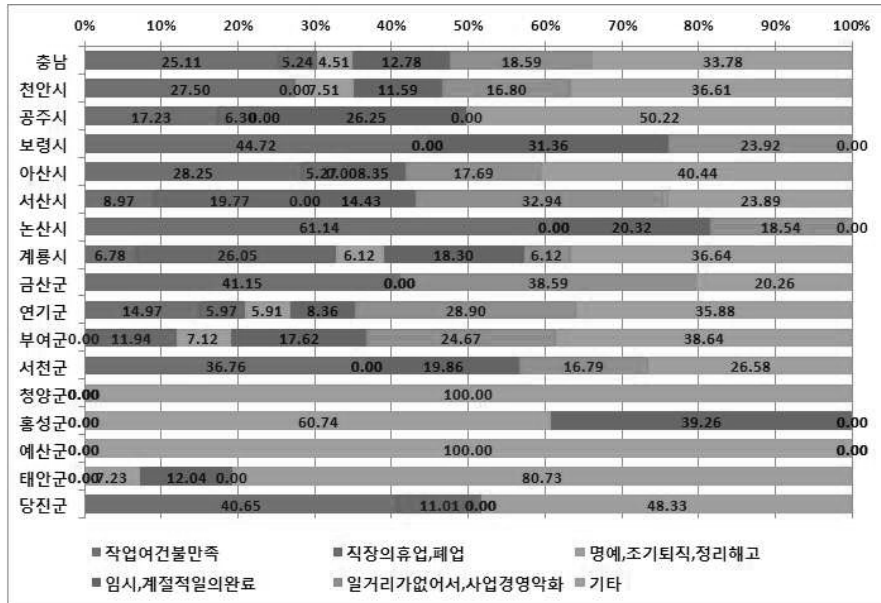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충남의 1년 미만의 기간 안에 전직을 가지고 있었던 실업자들의 이직이유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가 연평균 84.48%의 증가율로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육아 50.19%,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가 35.45%를 차지하였다. 반면 심신장애,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직장의 휴업, 폐업을 원인으로 한 이직사유는 감소하였다. 공주시의 경우 개인, 가족관련 이유로 인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와 논산시, 당진군은 작업여건(시간, 보수 등) 불만족을 원인으로 한 실업자가 증가한 반면,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를 원인으로 한 실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기군의 경우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로 인한 실업자가 기간 연평균 64.24% 증가하는 실정이다. 서산시의 경우 직장의 휴업, 폐업으로 인한 실업자가 연평균 128.72%,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로 인한 실업자가 119.88% 증가하였다.

이직시기의 경우 1년 미만이 연평균 8.87%, 1년 이상이 8.82% 증가율을 보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천안시의 경우 이직시기가 1년 이상인 실업자가 연평균 30.28%의 증가율을 보여 이직시기 1년 미만의 실업자에 3배에 해당하였다. 공주시는 이직시기 1년 미만의 실업자가 연평균 34.03% 증가한 데에 비해, 1년 이상의 실업자는 연평균 20.20% 감소하였다. 연기군의 경우 이직시기가 1년 이상인 실업자는 27.82% 감소한 반면, 1년 미만 실업자는 97.66%로 크게 증가였다.

<그림 V-11> 실업자의 이직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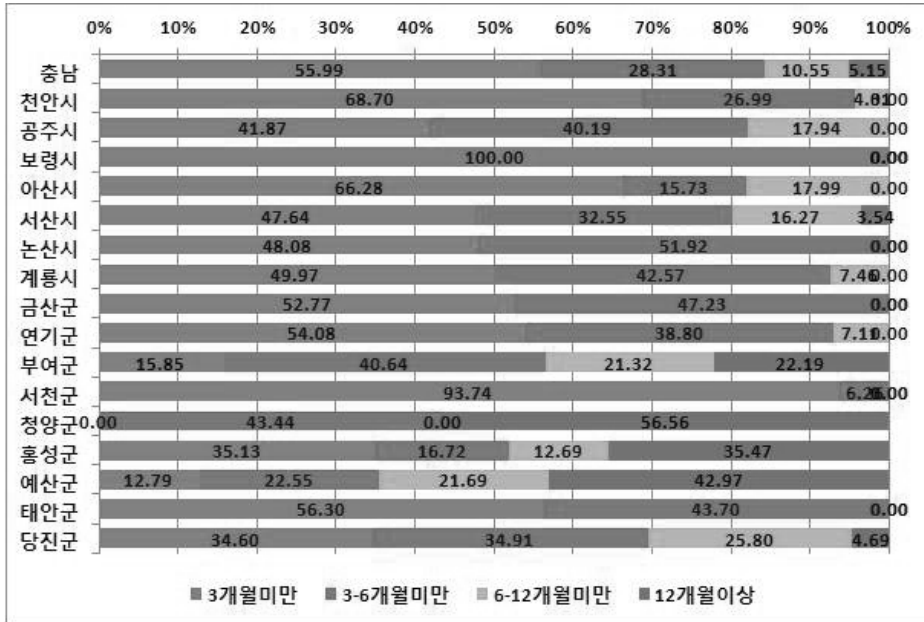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충남의 구직기간별 실업자 추이에서는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실업자가 연평균 18.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12개월 미만의 실업자는 13.48%, 12개월 이상 실업자는 5.01% 감소하여 실업기간이 짧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산시와 논산시, 당진군에서는 구직기간 6개월~12개월 미만의 실업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2개월 이상의 구직기간을 가진 실업자들은 크게 감소하였다. 부여군의 경우 실업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기간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에서는 12개월 이상

의 구직기간을 가지고 있는 실업자가 연평균 82.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 실업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V-12> 실업자의 구직기간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8) 타지역 통근 취업자 및 교육정도전공계열별 취업자 구조

충남 시군별 타지역 통근 취업자 구조를 살펴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충남 각 시군에서 최대통근지는 대전광역시 3, 아산시가 2, 천안시가 2, 서산시가 2로 나타났다. 최대통근지가 대전광역시인 시군은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이었으며 아산시가 최대통근지인 시군은 천안시와 예산군, 천안시가 최대통근지인 시군은 아산시와 연기군, 서산시가 최대통근지인 시군은 태안군과 당진군이다. 거주지내 통근자는 2008년~2010년 기간 연평균 아산시가 3.8%, 보령시가 3.6%, 계룡시와 금산군이 3.4%, 서산시가 3.2% 증가하였다. 거주지의 통근자는 기간 연평균 금산군이 47.2%, 연기군이 31.7%, 공주시가 18.8% 증가하였으며, 반면 서천군은 15.5%, 홍성군이 13.9% 감소하였다. 동일시도 통근 취업자의 기간 연평균 연기군이 73.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계룡시 26.9%, 보령시가 25.4%의 증가율을 보였다. 타 시도 통근 취업자의 경우 기간 연평균 당진군 58.1%, 금산군 47.2%, 홍성군 22.5%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보령시 29.3%, 서천군이 24.2% 순으로 감소하였다.

충남의 교육정도별 취업자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35.9%, 전문대 졸업자가 9.30%, 대학교 졸업자가 14.53%, 대학원(석사 및 박사) 졸업자가 2.51%를 차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 졸업 취업자가 고등학교 졸업 취업자 중 56.08%를 차지해 전문계고 43.58%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문계고 졸업 취업자 중에서는 상업고 졸업 취업자가 45.09%, 공업고가 28.64%, 농림어업고 45.09%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 전문대 졸업 취업자 중에서는 공학계열 취업자가 41.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인문사회계열 25.98%, 자연계열 10.18%, 예술체육계열 8.38%, 의약계열 7.79% 순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공계열별 대학교 졸업 취업자 중에서는 인문사회계열 취업자가 35.54%, 공학계열 33.77%, 자연계열 12.20%, 교육(사범)계열 10.11%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 대학원(석사박사) 졸업 취업자 중에서는 인문사회계열이 41.07%로, 교육(사범)계열 20.77%, 공학계열 17.12%, 자연계열 10.65%에 비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시군별 전공계열별 고등학교 졸업 취업자를 살펴보면, 예산군의 경우 일반고 졸업 취업자가 82.29%로 나타났으며, 천안시, 보령시, 논산시, 연기군, 부여군의 경우 전문계고 졸업 취업자의 비중이 충남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림어업고 졸업 취업자의 비중은 청양군 51.12%, 공주시 44.26%, 서산시 41.47%, 금산군 35.37%로 높게 나타났고 공업고 졸업 취업자의 비중은 아산시 36.83%, 천안시 31.88%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시군별 전공계열별 전문대 졸업 취업자 통계에서는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에서 인문사회계열 전공 취업자 비중이, 금산군, 연기군, 예산군에서는 예술체육계열 전공 취업자 비중이, 공주시와 서천군에서는 교육(사범)계열 취업자 비중이, 보령시와 태안군에서는 자연계열 취업자 비중이,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홍성군, 당진군에서는 공학계열 취업자 비중이, 서천군에서는 의약계열 졸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금산군의 경우 전체 전문대 졸업 취업자 중 인문사회계열 취업자가 37.2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청양군 34.91%, 부여군 34.44%, 논산시가 33.54%를 보였다. 예술체육계열 전문대 졸업 취업자는 연기군 14.65%, 부여군 14.60%, 예산군 14.43%의 비중을 보여 타 시군에 비해 그 비중이 높았다. 교육(사범)계열 전문대 졸업 취업자는 공주시 12.57%, 서천군 14.49%로 나타나 타 시군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태안군과 보령시의 자연계열 전문대 졸업 취업자는 각각 22.23%, 18.32%를 차지하였다. 공학계열 전문대 졸업 취업자는 아산시가 52.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보령시 48.72%, 홍성군 46.65%, 서산시 44.48%, 당진군 44.15%의 비중을 보였다. 특히 서천군의 경우 의약계열 전문대 졸업 취업자가 22.95%나 차지하여 그 비중이 두드러졌다. 전공계열별 대학교 졸업 취업자의 경우, 예술체육계열에서는 당진군이, 의약계열에서는 금산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서천군은 인문사회계열을 졸업한 취업자가 48.56%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금산군 45.49%, 계룡시 45.12%, 예산군 41.25%로 나타났다. 당진군의 경우 예술체육계열 졸업 취업자가 11.22%로 두드러졌으며, 태안군과 부여군은 교육(사범)계열 졸업 취업

자가 각각 19.23%와 17.05%를 차지해 타 시군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자연계열 졸업 취업자는 홍성군 19.81%와 공주시 18.44%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공학계열 졸업 취업자는 천안시에서 38.55%, 당진군 37.71%, 보령시 36.11%, 아산시 35.44%로 나타났다. 특히 금산군에서는 의약계열 졸업 취업자가 10.32%로 타 시군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전공계열별 대학원(석사박사) 졸업 취업자의 경우 시군별로 그 특성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부여군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대학원 졸업 취업자가 81.62%를 차지하였으며, 연기군에서는 예술체육계열 졸업 취업자가 10.06%로 충남 시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보령시에서는 교육(사범)계열 대학원 졸업 취업자가 45.97%를 차지하였고, 당진군에서는 자연계열 대학원 졸업 취업자가 충남 시군에서 가장 높은 25.29%를 차지하고 있다. 계룡시의 공학계열 대학원 졸업 취업자는 37.14%로 충남 시군에서 두드러졌으며, 의약계열에서는 금산군이 21.24%, 예산군이 18.48%로 타 시군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V-12> 충남 시군별 타지역 통근 취업자

(단위 : 천명, %)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취업자			최대통근지			취업자			최대통근지			취업자			최대통근지			취업자			최대통근지					
	거주 지내 통근	거주지의 타지역 통근	동일 시도 시도	통근자	거주 지내 통근	거주지의 타지역 통근	동일 시도 시도	통근자	거주 지내 통근	거주지의 타지역 통근	동일 시도 시도	통근자	거주 지내 통근	거주지의 타지역 통근	동일 시도 시도	통근자	거주 지내 통근	거주지의 타지역 통근	동일 시도 시도	통근자	거주 지내 통근	거주지의 타지역 통근	동일 시도 시도	통근자			
충청남도	960.7	874.3	86.4	58.1	28.6	-	48.1	964.8	869.7	95.6	66.1	29.4	-	52.3	982.7	891.9	90.7	60.7	29.9	-	46.5	1.1	1.0	2.5	2.2	2.2	-1.7
천안시	242.0	203.9	38.1	25.3	12.8	아산시	22.1	243.4	207.4	36.1	25.4	10.7	아산시	21.3	245.7	209.6	36.1	25.7	10.3	아산시	22.0	0.8	1.4	-2.7	0.8	-10.3	-0.2
공주시	58.9	55.0	3.9	2.3	1.6	대전	1.0	61.5	55.2	6.3	3.4	2.9	대전	1.9	60.2	54.7	5.5	3.3	2.2	대전	1.5	1.1	-0.3	18.8	19.8	17.3	22.5
보령시	47.7	46.6	1.1	0.7	0.4	홍성군	0.3	49.6	48.1	1.6	1.4	0.1	홍성군	0.6	51.3	50.0	1.3	1.1	0.2	홍성군	0.4	3.7	3.6	8.7	25.4	-29.3	15.5
아산시	112.1	95.4	16.6	13.6	3.0	천안시	12.8	113.6	90.8	22.8	18.7	4.1	천안시	16.4	119.5	102.7	16.8	12.6	4.2	천안시	11.2	3.2	3.8	0.6	-3.7	18.3	-6.5
서산시	74.6	72.2	2.4	2.0	0.4	당진군	0.8	76.8	72.9	3.9	3.4	0.5	당진군	1.7	79.6	76.9	2.7	2.3	0.4	당진군	1.0	3.3	3.2	6.1	7.2	0.0	11.8
논산시	64.8	61.3	3.5	2.0	1.6	대전	0.9	62.3	59.6	2.8	1.3	1.5	대전	1.0	62.1	57.6	4.4	2.5	1.9	부여군	1.4	-2.1	-3.1	12.1	11.8	9.0	24.7
계룡시	12.9	7.3	5.6	1.8	3.8	대전	3.4	13.8	7.5	6.3	2.5	3.8	대전	3.3	14.8	7.8	7.0	2.9	4.1	대전	3.4	7.1	3.4	11.8	26.9	3.9	0.0
금산군	28.0	27.3	0.6	0.0	0.6	대전	0.6	27.2	26.1	1.2	0.1	1.1	대전	0.8	30.5	29.2	1.3	0.0	1.3	대전	1.0	4.4	3.4	47.2	-	47.2	29.1
연기군	34.0	31.1	3.0	0.7	2.3	대전	1.0	36.2	31.1	5.1	2.3	2.8	천안시	1.5	37.4	32.2	5.2	2.1	3.0	천안시	1.7	4.9	1.8	31.7	73.2	14.2	30.4
부여군	40.2	38.3	1.8	1.5	0.4	논산시	0.4	39.4	37.6	1.9	1.5	0.3	논산시	0.5	37.5	35.9	1.6	1.1	0.5	서천군	0.3	-3.4	-3.2	-5.7	-14.4	11.8	-13.4
서천군	31.4	30.0	1.4	0.7	0.7	군산시 (권북)	0.4	30.0	29.0	1.0	0.3	0.7	군산시 (권북)	0.5	30.7	29.7	1.0	0.6	0.4	보령시	0.3	-1.1	-0.5	-15.5	-7.4	-24.4	-13.4
청양군	18.6	18.0	0.6	0.6	0.1	공주시	0.2	17.8	17.4	0.4	0.4	0.1	예산군	0.2	18.1	17.5	0.7	0.6	0.1	공주시	0.2	-1.4	-1.4	8.0	0.0	0.0	0.0
홍성군	42.5	39.8	2.7	2.5	0.2	예산군	1.6	42.4	40.6	1.8	1.6	0.2	예산군	0.6	42.0	40.0	2.0	1.7	0.3	예산군	0.5	-0.6	0.3	-13.9	-17.5	22.5	-44.1
예산군	43.9	41.4	2.6	2.1	0.5	아산시	0.9	44.9	42.4	2.5	2.2	0.3	아산시	0.8	42.2	39.3	2.9	2.4	0.5	아산시	0.6	-2.0	-2.6	5.6	6.9	0.0	-18.4
태안군	37.2	36.1	1.1	1.1	0.0	서산시	0.9	37.1	36.3	0.8	0.8	0.0	서산시	0.7	37.8	36.8	1.0	1.0	0.0	서산시	0.7	0.8	1.0	-4.7	-4.7	-	-11.8
당진군	71.9	70.6	1.4	1.2	0.2	아산시	0.8	68.8	67.7	1.1	0.8	0.3	아산시	0.5	73.3	72.0	1.2	0.8	0.5	서산시	0.3	1.0	1.0	-7.4	-18.4	58.1	-38.8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표 V-13> 2010년 충남 시군별 교육정도별 전공계열별 취업자(고등학교 및 전문대)

(단위 : 명, %)

	취업자																	
	고등학교										전문대							
	졸업										졸업							
	일반고	전문계고				기타	인문사회 계열	예술체육 계열	교육 (사범) 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상업고		농림 어업고	공업고	기타 전문계고														
충청남도	982,565	361,188	352,908	197,899	153,795	69,345	28,297	44,043	12,110	1,213	101,399	91,394	23,742	7,662	5,877	9,306	37,690	7,116
친안시	245,656	105,506	103,289	47,950	54,890	25,355	7,895	17,497	4,143	449	26,275	22,737	6,229	1,672	1,743	1,748	9,413	1,931
공주시	60,190	19,408	18,819	11,881	6,938	1,770	3,071	1,698	399	0	4,705	4,385	1,297	355	551	550	1,277	355
보령시	51,273	15,590	15,202	8,054	7,080	3,466	1,192	1,563	859	67	5,001	4,559	894	50	313	835	2,221	246
아산시	119,540	56,230	54,719	34,431	20,073	10,477	1,757	7,393	447	214	17,151	15,554	3,190	1,456	599	1,615	8,182	511
서산시	79,622	25,977	25,235	14,569	10,551	3,108	4,376	2,934	133	115	10,867	9,956	2,385	633	350	1,004	4,428	1,157
논산시	62,056	20,996	20,713	10,152	10,561	5,458	784	2,846	1,473	0	4,784	4,576	1,535	555	305	274	1,225	683
계룡시	14,783	5,085	4,996	2,998	1,938	1,187	107	399	245	61	1,619	1,526	429	183	153	186	500	75
금산군	30,498	9,932	9,752	6,639	3,113	1,410	1,101	531	71	0	1,719	1,584	590	232	21	153	408	180
연기군	37,369	15,272	14,783	8,043	6,741	2,778	1,293	1,907	762	0	3,454	3,179	916	464	157	335	1,176	131
부여군	37,483	10,054	9,710	4,478	5,083	3,168	804	792	320	148	2,143	2,044	704	258	210	128	667	78
서천군	30,719	9,660	9,516	5,898	3,551	1,606	1,017	859	69	67	2,225	2,118	384	139	307	293	508	486
청양군	18,123	5,155	5,027	2,958	2,052	484	1,049	427	93	17	1,255	974	340	56	20	154	386	18
홍성군	42,025	12,516	12,352	8,066	4,286	2,448	637	789	412	0	4,543	3,910	918	244	298	493	1,824	133
예산군	42,182	12,800	12,226	10,061	2,164	767	676	633	89	0	4,298	4,172	1,207	602	256	555	1,141	412
태안군	37,786	8,771	8,695	5,890	2,805	1,231	748	745	81	0	2,638	2,560	462	262	114	569	998	156
당진군	73,258	28,236	27,875	15,831	11,969	4,632	1,791	3,031	2,515	75	8,722	7,561	2,263	502	481	414	3,338	564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표 V-14> 2010년 충남 시군별 교육정도별 전공계열별 취업자(대학교 및 대학원)

(단위 : 명, %)

	취업자														
	대학교										대학원(석사박사)				
	종업										졸업				
	인문사회 계열	예술체육 계열	교육 (사범) 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인문사회 계열	예술체육 계열	교육 (사범) 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인문사회 계열	예술체육 계열	교육 (사범) 계열
충청남도	982,565	161,814	142,735	50,732	6,098	14,432	17,418	48,205	5,850	26,533	24,638	10,118	1,000	5,118	2,623
천안시	245,656	63,692	55,995	18,044	1,793	5,692	6,096	21,586	2,784	11,038	10,843	3,937	532	1,818	1,155
공주시	60,190	9,850	8,835	2,791	514	1,201	1,629	2,422	278	1,878	1,606	500	44	560	242
보령시	51,273	7,795	6,993	2,139	522	767	655	2,525	384	1,068	1,068	461	50	491	0
아산시	119,540	18,323	15,225	5,676	614	1,482	1,749	5,396	308	2,559	1,857	982	0	425	352
서산시	79,622	11,051	9,589	3,520	411	858	1,171	3,233	396	1,878	1,815	703	65	423	251
논산시	62,056	7,205	6,935	2,643	198	397	1,118	2,231	347	1,053	923	358	85	291	71
계룡시	14,783	5,271	4,610	2,080	214	386	607	1,093	229	1,069	999	326	96	143	39
금산군	30,498	3,236	2,829	1,287	216	104	476	454	292	259	259	132	0	0	35
연기군	37,369	5,878	4,939	2,220	232	349	663	1,476	0	525	467	177	47	154	90
부여군	37,483	3,754	3,160	1,299	89	539	484	626	124	457	419	342	38	0	0
서천군	30,719	2,838	2,646	1,285	103	267	274	591	125	330	330	215	0	43	36
청양군	18,123	1,501	1,345	528	57	143	184	433	0	265	265	172	0	74	19
홍성군	42,025	4,730	4,639	1,789	187	414	919	1,179	152	1,245	1,185	554	0	311	37
예산군	42,182	4,393	4,022	1,659	148	294	569	1,298	55	1,321	1,234	360	45	329	68
태안군	37,786	4,718	4,180	1,630	38	804	295	1,099	314	668	598	409	0	56	34
당진군	73,258	7,576	6,792	2,141	762	736	529	2,561	62	922	771	488	0	0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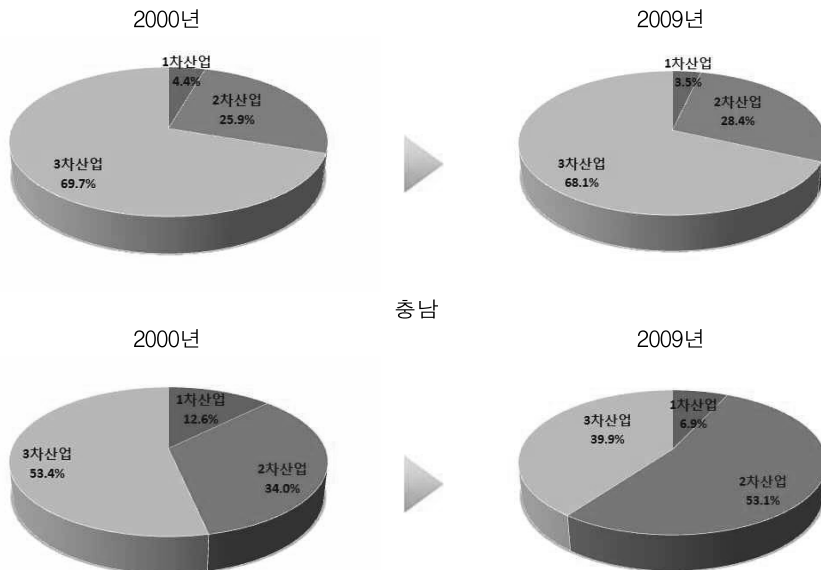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3. 산업구조 분석

1) 산업구조 변화

2000년대 들어 국내 산업구조는 3차산업 > 2차산업 > 1차산업의 비중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차산업의 비중은 2000년 4.4%에서 2009년 3.5%로 약간 감소한 반면, 2차산업(제조업)의 비중은 동 기간 중 25.9%에서 2006년 28.4%로 증가하였고, 3차산업(서비스업)의 비중은 69.7%에서 2006년 68.1%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산업구조는 2000년대 들어 제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2009년 현재, 2차산업 > 3차산업 > 1차산업의 비중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GRDP에서 차지하는 각 산업의 비중을 보면 1차, 3차산업은 감소한 반면, 2차산업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2.6%에서 2009년 6.9%로 감소하였고, 3차산업은 동 기간 중 53.4%에서 39.9%로 감소하였다. 반면, 2차산업의 비중은 동 기간 중 34.0%에서 53.1%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충남 지역경제의 고도성장은 바로 제조업부문의 급속한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V-13> 전국 및 충남의 산업구조 변화



우리나라는 00~09년 기간 중 연평균 4.2%씩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취업계수는 동 기간

중 30.6에서 23.5로 감소함에 따라 경제성장 대비 고용창출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정도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취업계수는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1차산업은 00~09년 기간 중 73.7에서 47.3으로 감소하였으며, 2차산업과 3차산업은 동 기간 중 각각 24.0 → 13.5, 30.3 → 26.5로 감소하였다. 한편, 충남지역은 '00~'09년 기간 중 연평균 9.0%씩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취업계수는 동 기간 중 28.8에서 14.4로 감소함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정도가 전국평균을 크게 상회하였다. 산업별 취업계수 감소 추이를 보면, 1차산업은 '00~'09년 기간 중 73.4에서 54.9로 감소하였으며, 3차산업은 동 기간 중 28.5에서 20.4로 감소하였다. 특히, 2차산업부문의 취업계수는 12.7에서 4.5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충남지역경제에서 2차산업(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제조업의 지역경제 성장기여 대비 고용창출력은 상대적으로 여타 산업부문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제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자본집약형 산업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노동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15> 전국 및 충남의 산업구조 변화

구분	전국						충남					
	2000			2009			2000			2009		
	GDP (십억원)	취업자 (천명)	취업 계수*	GDP (십억원)	취업자 (천명)	취업 계수*	GDP (십억원)	취업자 (천명)	취업 계수*	GDP (십억원)	취업자 (천명)	취업 계수*
계	691,468	21,156	30.6	999,220	23,506	23.5	30,963	891	28.8	67,214	965	14.4
1차산업	30,673	2,260	73.7	35,356	1,671	47.3	3,899	286	73.4	4,667	256	54.9
2차산업	178,756	4,293	24.0	283,426	3,836	13.5	10,533	134	12.7	35,701	162	4.5
3차산업	482,039	14,603	30.3	680,438	17,999	26.5	16,532	471	28.5	26,845	547	20.4

* 취업계수=(취업자수/GDP 10억원)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 산업구조 분석결과

다음으로 충남의 제조업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종사자 비중 및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를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입지계수는 지역산업의 특화도를 판단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수로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 비중을 해당 산업의 전국비중으로 나눈 값이다. 만일 1보다 크면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특화도를 갖고 있으며 1보다 적으면 전국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지계수를 해석할 때 유의할 점은 이 지수가 산업의 상대적인 규모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왜곡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전체 산업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때 특정산업이 조금만 집중해 있어도 입지계수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산업의 규모 자체를 함께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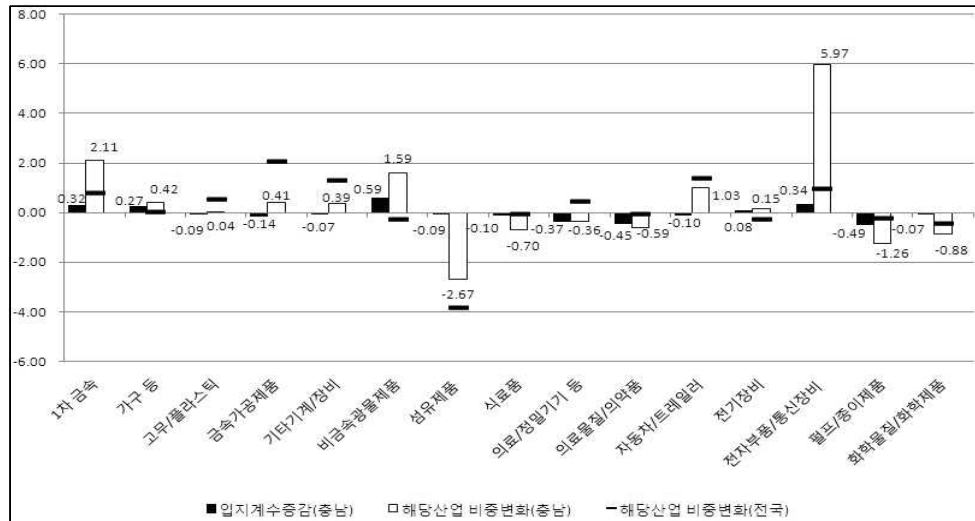
$$Q_j \quad \frac{E_{ij}/E_j}{E_i/E_t} = \frac{\text{지역}(j) \text{의 } i \text{산업 종사자 비중}}{\text{전국}(t) \text{의 } i \text{산업 종사자 비중}}$$

<표 V-16>에서 종사자 수가 1만명 이상이면서 입지계수가 1이상인 특화산업은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유리, 도자기, 시멘트 등),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 제조업, 전자기장비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통신기기 제조업 등 6개 산업이다. 이 중에서 종사자 규모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36,094명이 종사하고 있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기기 제조업이며,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에 25,109명이 종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특화도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으로 입지계수가 1.97에 이르고 있다. 당진·아산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철강 제조업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과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도 입지계수는 1에 미치지 못하지만 2001년과 비교할 때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1만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들이다. 화학제품 제조업 등도 1만명에는 못 미치지만 입지계수가 1.31로 특화 수준이 높으며 1차금속 제조업은 종사자 규모와 특화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산업 분야이다. 충남의 4대전략산업이 전자정보기기산업(디스플레이)와 자동차부품산업, 첨단문화산업, 농축산 바이오산업 등임을 고려할 때 통계에서도 이러한 산업구조가 잘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V-14>에서는 2001년부터 2009년 기간 동안의 산업별 비중 변화와 입지계수의 증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전자부품·컴퓨터·통신기기 제조업은 충남지역내비중증가율(흰색 막대)이 5.97% 포인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철강이나 비철금속을 제조하는 1차금속 제조업(2.11% 포인트)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비중이 증가하지만 충남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비금속광물 제조업(1.59% 포인트)은 전국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지역에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섬유제품 제조업(-2.67% 포인트)은 전국적으로나 충남지역내에서나 그 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1.26% 포인트)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0.88% 포인트) 역시도 감소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입지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비금속광물 제조업(0.59)이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전자부품·컴퓨터·통신기기 제조업(0.34)과 1차금속 제조업(0.32) 역시도 입지계수의 증가율이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특화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산업은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0.49)이고 의료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0.45)과 의료 및 정밀기기 제조업(-0.37)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4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경우 아직 산업 구성 비중 측면에서는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 구성 비중의 증가율은 제조업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업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림 V-14> 충남 제조업별 비중 및 입지계수의 증감: 2001-2009년



주: 증감은 2009년 값에서 2000년 값을 뺀 수치임.

4. 주요 근로조건 분석

여기서는 충남지역 일자리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하여 근무지 기준으로 고용형태와 임금 등을 분석하게 된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나 광업제조업조사와는 달리 개인(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표본조사로 노동공급 측면의 분석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구체적으로 거주지 기준으로 고용구조를 분석한 것과는 달리, ‘근무지’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노동공급측 분석에서 다루어진 주요 내용이 고용·실업·경제활동참가 등이었다면 노동수요측 분석에서 주로 다루어질 내용은 일자리 질의 구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파악된 충남지역의 종사자 규모는 지역별고용조사에서 파악된 근무지 기준의 일자리 규모와 비교할 때 전산업 기준으로 65.5% (665,433/1,016,413명)밖에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군별로는 천안·아산의 사업체 종사자 수가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파악된 일자리 수의 83.2%로 비교적 높은 포괄률을 보이고 있으나 부여·예산·태안·청양과 같이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50% 미만의 포괄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업체 자료를 이용한 앞서의 분석결과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 고용조사는 사업체 대상 조사에서 누락 가능성이 큰 비정규직 근로자, 비등록 자영업자, 농림어업 종사자 등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자나 비공식부문 근로자들에 대한 파악이 상대적으로 더 정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하의 분석은 2010년 지역별 고용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로 시군단위의 특성치들이 작은 표본 수로 인해서 추정오차가 클 수 있으며 따라서 분석결과와 정책적 활용에 있어서는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1) 고용형태의 구성

충남지역 일자리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형태별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57.9%로 상용직 40.5%, 임시직 11.2%, 일용직이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17>). 비임금 근로자는 42.1%로 고용주 5.6%, 자영업자가 24.9%, 무급가족종사자는 11.6%로 나타났다. 충남에서 근무하는 임금근로자 비중은 전남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최하 수준으로 임시직 및 일용직의 비중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반면,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 고용형태 구성을 살펴보면 천안·아산 경우 임금근로자 비중이 72.5%이며 상용직 비중도 52.2%로 광역대도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아산시의 경우 임금근로자 비중이 74.5%, 상용직 비중이 56.4%에 이르는 등 충남지역의 산업 중심지로서의 특성이 고용구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천안의 경우에도 임금근로자 비중이 71.4%, 상용직 비중이 50.0%로 아산과 비슷한 고용형태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표 V-17> 16개 시도별 고용형태의 구성(2010년)

(단위 : %)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합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소계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소계	
서울특별시	53.6	17.3	7.0	77.9	7.1	12.0	3.0	22.1	100.0
부산광역시	48.4	17.5	8.9	74.8	6.3	14.7	4.1	25.2	100.0
대구광역시	38.4	23.3	10.1	71.7	7.1	16.3	4.9	28.3	100.0
인천광역시	43.8	23.3	9.1	76.2	6.5	13.6	3.7	23.8	100.0
광주광역시	43.0	23.4	9.4	75.8	6.4	14.3	3.6	24.2	100.0
대전광역시	45.7	20.5	11.1	77.3	6.6	13.0	3.1	22.7	100.0
울산광역시	51.3	21.6	7.0	79.9	5.3	11.9	2.9	20.1	100.0
경기도	45.6	20.0	7.9	73.5	6.7	15.2	4.6	26.5	100.0
강원도	38.8	14.5	8.4	61.7	6.0	23.6	8.8	38.3	100.0
충청북도	43.2	13.6	8.2	65.0	5.6	20.6	8.8	35.0	100.0
충청남도	40.5	11.2	6.1	57.9	5.6	24.9	11.6	42.1	100.0
전라북도	35.4	14.8	8.3	58.5	5.2	24.9	11.4	41.5	100.0
전라남도	33.2	11.6	6.0	50.8	4.7	29.6	14.9	49.2	100.0
경상북도	39.0	12.4	6.8	58.2	4.7	24.5	12.6	41.8	100.0
경상남도	46.2	12.0	6.7	64.9	5.6	20.6	8.9	35.1	100.0
제주도	32.2	17.6	12.9	62.7	5.5	21.8	9.9	37.3	100.0

계룡시는 임금근로자 비중이 77.3%로 가장 높지만 임시직(20.8%)과 일용직(11.2%)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노동시장권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 있듯이 계룡시는 대전에서 통근하는 취업자가 많은데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논산계룡을 통합할 경우, 임금근로자 비중은 52.9%로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시군 지역들은 임금근로자 비중이나 상용직 비중 측면에서 천안·아산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기군과 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군 지역들은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50~60%에 이르고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는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충남의 산업 및 직업별 일자리 구성을 살펴보면 <표 V-19> 및 <표 V-20>과 같다. 우선 <표 V-19>에 제시되어 있듯이 산업별 일자리 구성을 살펴보면 천안·아산의 경우 제조업 종사자와 서비스업 종사자가 각각 28.9%와 28.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과 아산을 별도로 살펴볼 경우, 산업별 종사자 구성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의 경우 민간 서비스업 종사자가 32.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운수업 포함) 종사자가 27.1%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제조업 종사자는 23.2%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V-18> 충남지역 취업자의 시군별 고용형태 구성(2010년)

(단위 : %)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합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소계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소계	
천안시	50.0	13.8	7.6	71.4	6.9	16.3	5.5	28.6	100.0
공주시	37.4	7.4	7.4	52.1	6.1	27.5	14.3	47.9	100.0
보령시	32.2	14.2	4.9	51.2	4.4	31.2	13.2	48.8	100.0
아산시	56.4	12.9	5.2	74.5	4.9	15.2	5.4	25.5	100.0
서산시	36.0	13.3	5.4	54.7	6.5	25.1	13.7	45.3	100.0
논산시	31.4	9.7	7.1	48.2	6.9	29.7	15.3	51.8	100.0
계룡시	45.4	20.8	11.2	77.3	5.9	12.8	4.0	22.7	100.0
금산군	32.9	3.8	4.8	41.4	4.4	35.1	19.1	58.6	100.0
연기군	40.4	15.5	6.9	62.9	4.9	21.2	11.0	37.1	100.0
부여군	24.0	8.6	7.0	39.6	3.6	37.3	19.5	60.4	100.0
서천군	27.0	14.0	7.0	47.9	4.7	32.2	15.2	52.1	100.0
청양군	26.7	5.9	6.0	38.6	1.1	40.0	20.3	61.4	100.0
홍성군	28.4	8.1	4.5	41.0	4.1	39.3	15.6	59.0	100.0
예산군	31.6	5.3	4.1	41.0	5.0	37.5	16.5	59.0	100.0
태안군	24.4	9.3	5.9	39.7	5.3	33.9	21.2	60.4	100.0
당진군	40.1	6.9	3.5	50.5	6.0	28.4	15.2	49.5	100.0
천안아산	52.2	13.5	6.8	72.5	6.2	15.9	5.5	27.6	100.0
논산계룡	33.6	11.5	7.7	52.9	6.7	27.0	13.5	47.2	100.0

아산의 경우에는 제조업 종사자가 3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민간 서비스업으로 2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구성의 차이는 두 지역간 노동시장 의존성이 높은 가운데 서로 기능적 영역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아산은 상대적으로 제조업 등 생산의 기능이 강한 반면 천안은 상대적으로 소비 기능이 보다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산업별 일자리 구성에서 눈에 띄는 지역은 계룡과 연기군이다. 계룡은 공공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충남의 타 시군보다 현격히 높은 수준인 17.8%로 나타났으며 도소매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비중도 35.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계룡시는 육군·해군·공군 3군 본부가 위치한 군사행정 중심지로 이러한 도시의 특성이 고용구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연기는 충남의 타 시군보다 건설업 종사자의 비중이 현격히 높은 1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나 행정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지역의 산업특성이 고용구조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V-19> 충남지역 취업자의 시군별 산업구성

(단위 : %)

	농림어업 및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 하수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공공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합계
천안시	7.2	23.2	0.3	6.7	27.1	2.6	32.8	100.0
공주시	30.5	10.5	0.5	6.8	18.1	5.5	28.1	100.0
보령시	32.5	8.0	5.0	7.9	18.9	5.6	22.2	100.0
아산시	11.6	39.8	0.8	7.2	17.9	1.5	21.3	100.0
서산시	28.1	15.4	1.1	8.1	20.4	4.8	22.2	100.0
논산시	32.3	10.9	0.6	4.5	22.1	4.2	25.4	100.0
계룡시	3.5	1.9	0.0	6.3	35.1	17.8	35.5	100.0
금산군	39.7	21.4	1.2	3.2	18.9	2.9	12.7	100.0
연기군	20.6	25.4	0.3	11.4	17.4	3.5	21.3	100.0
부여군	48.8	7.8	0.7	7.6	12.1	5.0	18.1	100.0
서천군	34.8	15.9	1.6	4.9	16.4	6.3	20.2	100.0
청양군	51.8	8.5	0.1	4.6	11.9	7.1	16.1	100.0
홍성군	36.2	9.6	1.3	5.0	23.4	3.8	20.8	100.0
예산군	38.6	9.7	0.0	3.6	19.6	4.9	23.6	100.0
태안군	46.0	3.3	3.2	4.1	17.9	5.6	19.9	100.0
당진군	28.0	18.2	1.1	8.3	18.9	2.7	22.8	100.0
천안아산	8.7	28.9	0.5	6.9	23.9	2.2	28.8	100.0
논산계룡	27.7	9.5	0.5	4.8	24.2	6.4	27.0	100.0
충남 전체	23.9	19.0	1.0	6.6	20.9	3.8	24.7	100.0

그 밖에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등 10개 시군은 농림어업(광업포함) 종사자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시군 지역이다. 특히, 청양군(51.8%), 부여군(48.8%), 태안군(46.0%) 등은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이 절반 가까이 이르고 있다. 반면, 당진과 태안은 농업 인구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제조업 비중도 천안·아산에 이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V-20>에 제시되어 있듯이 취업자의 시군별 직업구성을 살펴보면 천안·아산에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전문가 및 준전문가(16.3%)와 사무직(14.4%), 그리고 기능직 및 장치조작원(28.3%)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천안의 경우, 기능직 및 장치조작원이 24.3%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문가 및 준전문가(18.0%), 사무직(15.6%)이 타 시군 지역에 비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은 기능직 및 장치조작원 비중이 35.9%로 충남의 제조업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직업구성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표 V-20> 충남지역 취업자의 시군별 직업구성

(단위 : %)

	전문가및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판매	농림어업	기능직및 장치조작원	단순노무직	합계
천안시	18.0	15.6	21.0	6.3	24.3	14.8	100.0
공주시	15.2	11.0	18.0	29.4	15.1	11.3	100.0
보령시	12.0	9.7	15.5	31.5	21.3	9.9	100.0
아산시	13.1	12.3	12.6	10.4	35.9	15.7	100.0
서산시	12.2	11.5	16.7	27.5	22.8	9.3	100.0
논산시	12.6	10.5	17.3	29.6	18.4	11.5	100.0
계룡시	18.6	19.0	30.3	5.1	8.0	19.0	100.0
금산군	6.5	8.4	16.6	38.2	20.2	10.1	100.0
연기군	10.4	14.5	13.2	20.0	25.5	16.5	100.0
부여군	9.8	7.4	11.5	46.3	13.5	11.5	100.0
서천군	7.7	8.4	17.6	33.1	17.3	16.0	100.0
청양군	7.1	11.3	11.7	51.0	12.0	6.9	100.0
홍성군	9.3	10.9	19.5	35.8	16.1	8.4	100.0
예산군	12.5	8.9	17.3	37.6	13.6	10.1	100.0
태안군	8.6	8.0	14.0	43.7	12.0	13.7	100.0
당진군	12.6	10.7	16.5	27.9	23.9	8.4	100.0
천안아산	16.3	14.4	18.1	7.7	28.3	15.1	100.0
논산계룡	13.6	11.9	19.4	25.7	16.8	12.7	100.0
충남 전체	13.2	12.0	17.1	22.8	22.3	12.6	100.0

그 밖에 몇몇 시군 지역 일자리의 직업별 구성 현황 역시도 지역의 기능적 역할과 산업구성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공주는 전문가 및 준전문가의 비중이 15.2%로 천안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공주는 공주대학교, 공주교대, 공주영상대학 등의 교육기관과 충남발전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어 교육 및 연구기능이 직업구성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계룡시는 군사행정의 중심지로서 전문가 및 준전문가 비중이 18.6%로 충남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서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높은 비중과 연관되어 서비스판매직 종사자의 비중 역시도 30.3%로 높게 나타났다. 서산과 당진은 충남의 북부권 산업 벨트를 형성하는 한 축으로서 직업 구성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능직 및 장치조작원 비중이 각각 22.8%와 23.9%,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도 각각 27.5%와 27.9%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기는 높은 건설업 비중과 연관되어 기능직 및 장치조작원 비중과 단순노무직 등 생산직 근로자의 비중이 합쳐서 42.0%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머지 대부분의 군 지역(보령시 포함)들은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이 낮게는 30%, 높게는 50% 수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 구성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충남지역 일자리의 연령 및 학력별 구성은 <표 V-21>과 같다. 우선 일자리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산업 및 직업별 시군간 격차 못지 않게 큰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천안·아산·계룡·연기 등은 20-30대 취업자의 비중이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등 6개 군 지역은 60대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21> 충남지역 취업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

(단위 : %)

	연령별					최종학력				합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천안시	19.5	26.1	27.3	17.7	9.4	17.0	46.3	10.0	26.7	100.0
공주시	10.5	17.0	24.8	24.4	23.2	39.5	33.2	5.8	21.5	100.0
보령시	10.8	16.8	25.7	23.4	23.3	42.7	31.8	9.3	16.3	100.0
아산시	16.9	28.4	27.2	16.5	11.0	21.2	48.6	11.5	18.7	100.0
서산시	12.0	19.9	23.9	21.1	23.1	38.3	35.0	12.3	14.5	100.0
논산시	9.9	18.2	24.1	24.1	23.8	42.2	33.9	7.0	16.9	100.0
계룡시	13.6	21.3	36.9	18.2	10.0	12.2	45.7	10.6	31.5	100.0
금산군	9.8	15.4	25.2	24.1	25.5	43.3	38.9	6.6	11.3	100.0
연기군	15.2	19.3	25.4	24.4	15.7	31.3	45.6	7.8	15.4	100.0
부여군	6.2	13.8	22.1	27.2	30.6	54.3	27.9	5.5	12.4	100.0
서천군	8.0	13.7	20.6	25.3	32.4	48.1	32.6	7.5	11.8	100.0
청양군	7.2	11.8	22.2	23.0	35.8	53.1	30.9	5.5	10.6	100.0
홍성군	9.5	15.5	24.5	22.8	27.8	46.4	31.1	9.0	13.5	100.0
예산군	8.2	13.8	24.6	24.7	28.7	46.8	31.0	9.2	13.0	100.0
태안군	8.2	13.2	21.8	23.3	33.6	55.5	24.2	6.5	13.8	100.0
당진군	12.4	19.4	24.8	21.2	22.3	35.4	39.9	10.8	14.0	100.0
천안아산	18.6	26.9	27.3	17.3	9.9	18.5	47.1	10.6	23.9	100.0
논산계룡	10.5	18.7	26.1	23.2	21.6	37.4	35.8	7.6	19.2	100.0
충남전체	13.6	20.7	25.5	21.0	19.3	33.0	39.3	9.2	18.5	100.0

주 : 각 학력별 중퇴·휴학 등은 이전 수준 학력으로 처리함

일자리의 교육수준별 비중 구성도 현격한 지역별 격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천안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36.7%에 이르고 계룡시 역시 42.1%의 취업자가 전문대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비중이 높고 고령자가 많은 대부분의 군 지역들은 중졸이하 학력 소지자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개월 동안의 월평균임금을 조사하고

있는데 앞서와 마찬가지로 근무지를 기준으로 충남지역 취업자들의 시군별 월평균임금을 살펴볼 것이다. 다만, 지역별 고용조사가 개인단위 표본조사인 점이나 월평균임금에 대한 설문 항목 자체가 개략적인 임금을 질문한다는 점에서 추정오차가 클 수 있고 평균임금 구성에 연령이나 교육수준, 근속, 사업체규모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지역별 물가차이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과도한 해석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충남의 2010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95.36만원으로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은 상용직이 227.26만원, 임시직은 119.56만원, 일용직은 94.85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V-2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단위 : 만원, %)

	월평균임금(2010)				연평균증가율(2008년 기준)			
	전체임금 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전체임금 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충남	195.36	227.26	119.56	94.85	2.12	1.49	-1.92	-1.98
천안시	210.74	240.99	123.77	91.47	3.48	1.43	-2.41	-1.42
공주시	192.57	226.52	102.26	100.36	1.11	2.86	-0.89	-8.39
보령시	194.01	235.70	121.57	84.45	-0.87	-3.46	-4.59	3.75
아산시	187.97	212.78	122.50	86.82	3.21	1.91	0.89	-13.44
서산시	211.80	253.45	130.01	98.78	0.54	3.90	-1.65	-1.60
논산시	167.96	200.25	110.80	97.43	3.49	3.08	1.28	3.74
계룡시	191.19	223.69	105.91	87.43	-1.05	-2.94	-6.19	-2.67
금산군	168.97	189.94	92.53	90.10	-1.36	-3.72	-6.08	-1.47
연기군	171.81	204.99	123.34	97.09	3.64	5.23	9.90	-6.33
부여군	154.04	193.53	99.67	101.15	-2.78	-1.27	-5.03	7.50
서천군	168.45	218.67	112.31	96.22	-2.12	-1.49	-5.32	4.78
청양군	179.32	212.38	108.61	107.18	1.31	3.02	2.60	10.97
홍성군	185.15	216.86	101.94	88.07	6.43	5.92	-2.22	-0.21
예산군	184.58	208.61	108.31	93.83	3.51	0.90	-3.71	3.87
태안군	186.25	228.00	115.23	103.91	2.72	4.50	8.18	8.64
당진군	211.32	232.71	133.28	109.85	0.16	-0.02	-3.50	5.70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상용직은 2008년을 기준으로 하여 연평균 1.4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시직은 기준년도에 비해 연평균 1.92%, 1.98% 감소하였다. 전체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서산시로 221.8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천안시와 당진군이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반면 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154.04만원의 부여군으로 나타났다. 임시직의 경우 대부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와 연기군, 태안군에서는 임금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보령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당진군은 임금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임금의 상승세는 상용직과 임시직 모두 연기군에서 크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교육수준별 월평균임금 추세를 살펴보면, 교육수준별 임금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졸이하가 128.08만원, 고졸이 184.32만원, 전문대졸이 200.76만원, 대졸이상이 257.68만원으로 중졸이하와 고졸, 전문대졸과 대졸이상간의 학력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임금의 상승과 하락이 전 시군 및 학력에 걸쳐 불규칙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중졸이하의 학력에서 임금감소가 크게 이루어졌다.

<표 V-23> 임금근로자의 교육수준별 월평균임금

(단위 : 만원, %)

	월평균임금(2010)				연평균증가율(2008년 기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충남	128.08	184.32	200.76	257.68	2.69	3.46	3.30	-0.28
천안시	122.85	184.64	211.48	274.22	-0.26	2.84	7.55	5.03
공주시	120.91	181.48	200.29	253.48	3.39	-1.72	-1.94	-3.83
보령시	103.43	192.57	196.02	247.92	-7.33	5.11	3.06	4.09
아산시	123.38	185.49	198.27	238.79	8.97	-0.70	-3.72	-8.80
서산시	127.65	204.02	211.29	276.28	11.18	13.24	9.91	15.81
논산시	118.79	167.75	181.74	225.62	9.17	2.81	4.36	-4.03
계룡시	86.03	158.32	204.54	231.44	-10.55	-7.61	1.95	2.44
금산군	118.95	167.60	213.53	209.87	4.44	3.43	14.60	0.59
연기군	108.08	170.70	175.36	217.28	1.71	6.27	0.98	-4.86
부여군	106.80	146.44	181.73	219.93	-1.83	-10.22	2.91	-5.84
서천군	108.99	184.59	196.95	236.99	4.53	2.88	0.94	-2.87
청양군	95.95	175.11	186.14	246.36	-2.25	6.09	2.78	5.99
홍성군	121.03	166.21	180.13	263.30	-1.72	1.13	-1.53	8.46
예산군	124.61	156.92	198.38	267.32	2.86	-2.09	0.79	1.70
태안군	112.70	191.27	193.54	246.93	-8.03	-3.89	-5.98	-2.21
당진군	62.07	217.01	198.23	269.72	-26.81	11.57	1.64	3.88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충남의 2010 임금근로자의 직업별 월평균임금을 보면 관리자 및 전문가가 251.67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무가 242.40만원, 기능장치조작원이 208.19만원,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197.78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 시군 전체적으로 농림어업숙련종사자들의 월평균임금은 상승한 반면, 관리자 및 전문가 직업에서는 월평균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금수준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충남도의 경우 100-200만원 미만의 취업자가 215,824명으로 40.1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00-300만원미만 134,984명으로 25.09%, 100만원 미만 83,011명 15.43%, 300-400만원미만 62,224명 11.57%, 400-500만원미만 26,352명 4.9%, 500만원 이상이 15,519명 2.89% 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임금수준은 500만원 이상의 취업자로서 16.92%로 나타났다.

<표 V-24> 임금근로자의 직업별 월평균임금

(단위 : 만원, %)

	월평균임금(2010)						연평균증가율(2008년 기준)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농림 어업	가정 조작	단순 노무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농림 어업	가정 조작	단순 노무
충남	251.67	242.40	148.65	197.78	208.19	111.86	-2.91	2.46	1.49	-	5.62	-3.19
천안시	284.17	267.99	144.19	204.50	215.76	115.62	10.54	10.50	-6.34	21.19	8.09	-6.06
공주시	252.80	229.28	173.42	195.72	195.51	109.77	-3.62	0.74	7.84	14.70	0.51	10.95
보령시	239.05	229.96	159.18	174.01	208.12	114.88	9.09	3.48	10.56	22.99	4.96	1.07
아산시	243.70	242.09	146.12	191.21	198.70	107.63	-5.94	-0.72	-2.13	21.28	-3.40	5.60
서산시	248.26	258.44	152.91	209.08	231.29	121.32	17.62	8.14	6.63	17.74	18.52	12.52
논산시	193.09	215.02	146.84	183.42	182.43	101.94	-8.49	-5.69	0.07	-12.58	-0.79	11.05
계룡시	232.52	243.23	151.26	198.62	201.83	95.70	-2.45	10.73	8.18	-	3.47	-8.36
금산군	201.97	208.33	136.39	187.30	178.42	105.51	0.77	3.11	4.37	43.67	1.44	-4.32
연기군	211.87	220.95	128.26	198.77	189.74	112.67	-3.08	4.39	-6.56	42.77	10.07	1.93
부여군	183.09	203.01	136.17	160.01	204.83	87.44	-9.67	-4.37	0.02	32.45	2.42	-7.58
서천군	207.62	238.91	135.49	207.10	192.84	104.94	-2.14	1.35	-7.12	48.14	7.09	2.03
청양군	272.39	212.40	152.03	171.05	167.25	110.58	8.89	1.24	4.43	57.38	4.79	2.37
홍성군	230.85	226.32	155.44	181.40	186.01	102.50	9.09	-2.14	2.30	22.17	7.09	-3.18
예산군	258.53	208.77	151.68	167.65	173.97	107.95	0.07	1.76	-5.43	27.40	-6.54	4.16
태안군	227.45	220.55	166.70	240.09	235.18	103.76	-3.87	-2.34	4.37	28.04	0.49	-9.60
당진군	235.10	229.82	150.24	219.89	238.60	149.28	-1.79	1.03	1.90	38.22	12.17	15.43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시군별로 살펴보면 100-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취업자가 많은 지역은 논산시 45.65%, 금산군 45.26%, 부여군 45.13%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300만원미만의 임금을 받는 취업자가 많은 지역은 당진군 32.19%, 아산시 27.68%, 서산시 26.92%, 서산시 26.92%, 계룡시 25.66%, 예산군 25.36%의 순으로 나타났다. 100만원미만의 임금을 받는 취업자가 많은 지역은 부여군 27.60%, 서천군 23.40%, 연기군 21.86%, 청양군 21.39%, 논산시 20.38%, 계룡시 18.91%로 나타났다. 400-500만원미만의 임금을 받는 취업자가 많은 지역은 천안시 7.42%, 서산시 5.66%, 청양군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5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취업자가 많은 지역은 서산시 4.58%, 천안시 3.94%, 예산군 3.51%, 청양군 3.15%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소결

노동수요 측면에서 충남지역은 천안·아산·서산·당진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권 벨트와 나머지 시군간에 뚜렷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안·아산은 GRDP, 전체종사자 수, 제조업종사자 수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충남 전체의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반과 비교했을 때 이 지역으로의 경제력 및 노동수요의 집중도가 증가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남의 제조업은 금속기계·자동차·전자통신 등의 핵심 산업 등에서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들 산업에서의 노동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사자 수가 1만명 이상이면서 입지계수가 1이상인 특화산업은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유리, 도자기, 시멘트 등),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통신기기 제조업 등 6개 산업이다. 그러나 금속가공제품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등도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력 제조업의 대부분은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북부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업별 고용조사를 이용하여 일자리의 질을 분석한 결과, 충남지역은 전국에서 임금근로자 비중이 전남을 제외할 때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 일자리의 과반수 가까이를 차지하는 천안·아산의 경우, 임금근로자 비중이 광역대도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나머지 시군의 비임금 근로자(주로 농림어업종사자) 비중이 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동력 구성상의 지역간 격차는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그대로 반영되어 전체적인 충남지역의 시군간 소득격차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크게 두 가지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부문의 인력수급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가, 둘째,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서산·당진으로 연결되는 북부 산업벨트와 나머지 지역들간의 불균형 발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연기·공주·논산·계룡·금산 등 동부 접경지역들은 세종시 건설과 대전광역시와의 연계발전을 통해서 향후 노동수요의 증가가 요인들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접경지역들 역시도 향후 세종시와 대전광역시, 그리고 수도권 남부지역의 성장에 따라 오히려 충남지역의 고급인력들은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오히려 주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나머지 대부분의 군지역들은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지역 자체의 경제적 쇠퇴로 인한 빈곤건강 등의 사회적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과제에 대한 해법 역시도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향후 노동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부문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충남도 차원의 교육 및 훈련 정책이다. 앞서 노동공급 측 분석에서도 살펴본 바 있듯이 충남지역 4년제 및 전문대졸자의 유출은 다른 시도보다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남지역의 인력수요가 타 지역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내 인재들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훈련 정책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컨대 향후 인력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과 직종의 인력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의 대학들, 특히 폴리텍이나 전문대학 등 기능인력의 양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에 관

런 과정을 개설하는 등의 의식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충남의 4대 전략산업 중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바이오산업 육성 등이 고용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들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륙지역으로 확장되는 교통 등의 인프라도 오히려 노동력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유인이 될 수도 있다. 즉, 산업정책이나 인프라 확장만으로는 시군간 불균형 발전을 완화시킨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고용과 복지 측면에서의 정책적 개입이 별도로 필요하다.

따라서 두 번째 과제는 충남도 차원의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 제시와 쇠퇴지역의 기초지자체 차원의 맞춤형 고용·복지 전략의 구성이다. 본 연구는 양적 자료의 기초적 분석에 의존하여 개략적인 지역별 노동시장만을 개괄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대학·연구소 등이 연계되어 개별 기초지자체의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기초한 정책대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제6장 충남 지역노동시장 수요-공급간 미스매치 분석

1. 분석내용 및 자료

이 장에서는 충남지역 노동시장의 수요-공급간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충남지역의 고용전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남지역의 각 지역단위별로 발생하는 노동력 수급의 불일치 원인 진단을 통하여 이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별 일자리 창출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충남지역 노동시장의 수급불일치를 구조적으로 분해하여 살펴봄으로서 지자체별 세부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예. 구인구직 서비스, 직업훈련 등)을 계획·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시장 미스매치(Mismatch)는 개념상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지만 조건의 상이함으로 거래가 형성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수급불일치의 원인으로는 지역, 산업, 임금, 학력, 직종 등으로 생각될 수 있다.

최근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실업문제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 사용한 미스매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장재호·홍현균(2009)은 전체 실업을 마찰적 미스매치, 구조적 미스매치, 노동수요부족 실업으로 분해하여 미스매치의 내막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들 연구는 오오하시·오오타니(2007) 방식을 이용하여 구직자를 취업자, 마찰적 미스매치, 노동수요부족 미스매치, 구조적 미스매치(지역별 미스매치로 한정)로 분해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최창곤·이선경(2010)은 Padoa Schioppa(1991)와 Jackman, Layard and Savouri(1991)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마찰적 실업은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스매치의 정도를 측정하여 학력별, 연령별 및 임금별 순으로 수급불일치의 정도가 존재함을 증명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들의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충남지역 노동시장을 세부 지역별 노동시장으로 구분하여 노동시장 미스매치 정도를 파악하고 구조적 미스매치의 원인을 분해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전 장에서 동일 노동시장으로 구분된 천안/아산, 논산/계룡에 대하여 추가 분석하고자 한다. 미스매치 분석은 첫 번째로 미스매치의 정도를 추정하고 두 번째로 구직자의 미스매치 분해를 통해 전체 실업을 분해하여 미스매치의 내막을 확인하고 세 번째로 사업체와 실업자 대상의 조사자료 분석을 통해 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충남지역 노동시장 미스매치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충남지역 내 미스매치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창곤·이선경(2010)에서 제안한 미스매치의 정도 중 M_1 과 M_2 지표를 이용하여 이를 추정하게 된다.

$$M_1 = \frac{1}{2} |u_i - v_i|$$
$$M_2 = 1 - \sum (u_i v_i)^{\frac{1}{2}}$$

여기서, v_i 는 전체실업대비 해당 개별 노동시장에서의 실업비율, v_i 는 전체 구인대비 해당 개별 노동시장에서의 구인비율을 의미하고 이들 지표의 경우 최적실업률은 구인/구직비율이 모든 개별 노동시장에서 동일한 상황에서의 실업률이며 일정한 조건하에서 거시노동시장에서 채용률을 극대화하는 실업률을 의미한다. β_1 은 구조적인 균형을 갖기 위하여 다른 노동 시장으로 이동해야하는 실업자 비율 추정치, M_2 는 전체 실업률에 대하여 구조적인 수급불일치가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추정치이다. 두 수치 모두 0에 가까울수록 수급불일치의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구직자의 미스매치 분해는 실업을 노동수요부족과 구조적 실업으로 분해하는 방식이다. 실업을 분해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이 중 Armstrong and Taylor(1981)에 의한 분해 방식이 대표적이다.¹⁸⁾ 이 때 워크넷의 구인/구직 통계를 이용하여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노동수요부족 실업으로 전체 구직자를 미시적으로 분해하여 지역별 인력수급 불일치 원인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충남 지역의 고용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워크넷 자료가 노동시장의 구인/구직 정보의 대표성 문제뿐만 아니라 구직자 분해 분석과정에서 취업가능건수가 취업건수보다 많아 마찰적 실업이 음수가 도출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는 일본의 연구¹⁹⁾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문제로 구직 등록 후 취업알선 절차 없이 취업상태로 진입하는 경우, 이 건수가 취업자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많은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나 이로 인하여 전체 마찰적 실업이 음수가 발생하는 시군이 존재하고 이를 해석할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인건수	구직건수	취업건수	취업가능건수
지역 A	50	100	30	50
지역 B	100	70	20	70
계	150	170	50	150

구직자 분해의 예는 다음과 같다. 구조적 실업을 지역만이 원인이라고 가정하여 구직자를 분해하였을 때 취업가능 건수는 구인건수와 구직건수 중 작은 값이다. 즉, 취업가능건수는 미스매치가 존재하지 않을 때 취업이 가능한 수이다. 구조적 실업의 경우, 지역 A의 취업가능건수는 50건, 지역 B의 취업가능건수는 70건으로 전체 지역의 취업가능건수 150보다 그 합이 30건이 작다. 이러한 괴리는 구직초과 지역에서 구인초과 지역으로 구직자가 이동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다음으로 마찰적 실업은 동일 지역에서 구직자수를 채울만한 구인이 존재함에도 발생하는 미취업상태이다. 지역 A에서 취업가능건수가 50건인데도 취업건수는 30

18) 최근 국내 연구 또한 활발하여 이 방식을 이용하여 전국의 시도 수준에서 실업 분해를 시도한 장재호·홍현균(2009)의 연구에서 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분해방법을 소개하고 있음

19) 오오하시(2006), 오오타니(2007)

건으로 20건의 마찰적 실업이 발생되며, 지역별로 이들 건수를 합하여 마찰적 미스매치를 계산한다. 그리고 노동수요부족 실업은 전체 구직자수에서 전체 구인인원을 빼는 것으로 구인구직간 갭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구직건수(170)는 취업자(50), 구조적(지역간) 실업(30), 마찰적 실업(70), 노동수요부족 실업(20)의 합이 된다.

현재 시점에서 수요-공급간 미스매치를 분석할 수 있는 조사 자료는 노동시장 공급 부분의 지역별 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존재하고 수요 자료로는 노동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직종별 노동력 조사가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시군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고 직종별 노동력조사의 경우 시군별 데이터의 최초 공개시점이 9월 이후로 현재 분석이 불가하다. 또한 추후에도 정확한 수요-공급 미스매치 분석을 위한 시점문제에 있어 지역별 고용조사와 직종별 노동력조사의 조사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 사업체고용동향 조사자료(충남 지역 제조업 50인 이상 사업체 대상)와 지역별 고용조사(가중치 1 사용)자료를 이용하여 조사상 나타나는 미스매치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미스매치의 추정 결과

1) 충남지역 지역별 미스매치

전국의 지역별(광역시, 도별) 수급 불일치 추정치는 다음의 표와 같다. 전국의 지역별 수급 불일치를 살펴보면, M_2 모두가 2004년, 2005년에 높았다가 이후 수치가 줄어들을 알 수 있다. 2009년의 수치는 각각 0.078, 0.005로 지역별 수급불일치의 정도가 높지 않다. 지역별 불일치는 지역별로 근로자의 노동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수록 감소할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2005년을 지나면서 지역별 수급불일치의 정도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1963~1984년까지 이들 수치의 가장 작은 값은 각각 0.14, 0.40²⁰⁾임을 살펴보았을 때도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급불균형의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²¹⁾

충남 지역에 한정하여 충남지역의 시군별 구인/구직 데이터 셋을 이용 충남지역 지역별 수급 불일치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다. 이때 사용한 자료는 충남지역 시군별 워크넷의 신규구인인원, 신규구직인원, 취업자 수이다. 2009년 충남지역 시군별 지역별 수급 불일치의 정도는 M_1 이 0.156, M_2 가 0.024로 전국의 도별 수급불일치의 정도 0.078, 0.005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20) Structural Unemployment, Jackman and Roper

21) 이 결과는 도, 광역시가 단일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 때문에 작은 추정치가 산출된 것일 수 있음. 정확한 지역별 미스매치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시군별 데이터가 필요하나 이는 워크넷 원자료가 필요한 부분으로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쉽지 않음

<표 VI-1> 지역별 미스매치

년도	M1	M2
2000	0.107	0.012
2001	0.101	0.009
2002	0.097	0.009
2003	0.053	0.004
2004	0.110	0.009
2005	0.123	0.010
2006	0.085	0.005
2007	0.075	0.004
2008	0.083	0.005
2009	0.078	0.005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전국의 수치 또한 시군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하여야 하나 자료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도별 수치만 추정한다. 지역이 세분될수록 거주지와 직장주소지의 불일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불일치의 정도가 이로 인해 다소 증가한 면이 함께 혼합되어 있기는 하나 M_2 를 추정하기 위하여 계산된 실업비율과 구인비율의 절대값 차 평균이 2009년 전국 0.0098, 충남 0.0151로 충남이 상대적으로 높고 실업비율과 구인비율의 곱의 제공근 또한 전국 0.0622, 충남 0.0367로 충남 지역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아²²⁾ 지역단위가 다른데서 오는 추정치의 증가치를 제외하더라도 충남지역의 지역별 미스매치 정도가 전국의 평균보다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VI-2> 충남지역 지역별 미스매치

	시군별		노동시장권별		충북지역 시군별	
	M1	M2	M1	M2	M1	M2
2009	0.156	0.024	0.153	0.022	0.313	0.062
2010	0.171	0.026	0.171	0.022	0.355	0.082

하지만 충남지역 지역별(시군별) 미스매치의 수치와 다른 도와 같은 범주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충북지역 시군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를 비교해본 결과, 인접지역인 충북지역의 미스매치는 충남의 수치보다 높아 2009년 M_1 이 0.313, 2010년 0.355로 충남지역의 수치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충남지역의 시군별 미스매치의 정도가 충북지역에 비하여는 높지 않은 정도의 수치인 것으로 판단되며, 시군별 노동이동이 충북지역에 비하여 유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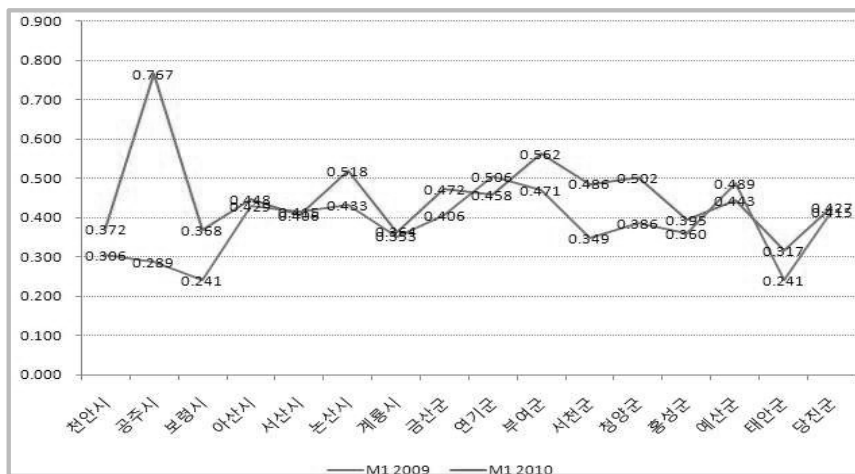
22) 이 수치는 M_2 를 구하기 위한 음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불일치의 정도가 클수록 작아짐

2) 충남지역 직종별 미스매치(시군별)

충남지역의 시군별 직종별 미스매치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직종은 관리직,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금융보험 관련직,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보건·의료 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영업원 및 판매 관련직, 경비 및 청소 관련직,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음식서비스 관련직, 건설 관련직, 기계 관련직, 재료 관련직(금속, 유리,점토,시멘트), 화학 관련직, 섬유 및 의복 관련직, 전기·전자 관련직, 정보통신 관련직, 식품가공 관련직,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농림어업 관련직, 군인 등 총 24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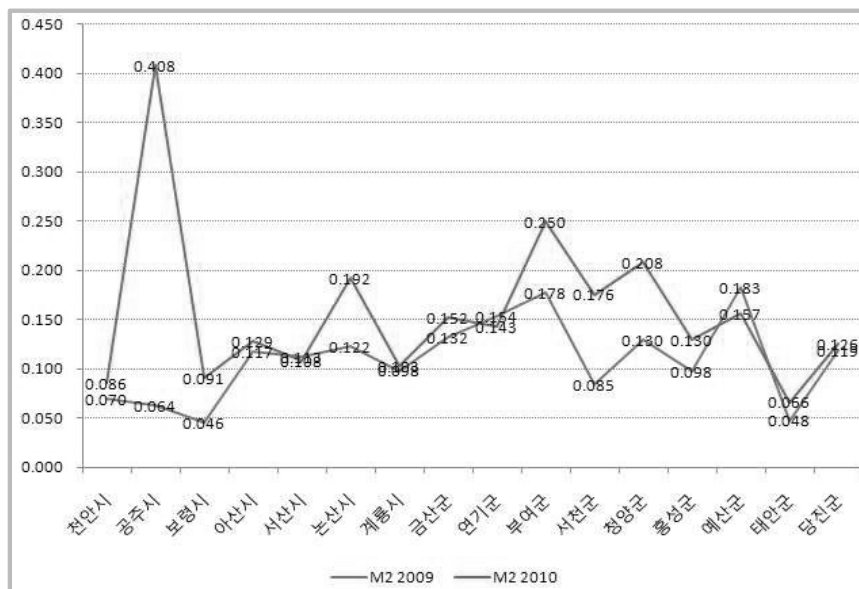
2009년 미스매치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2009년은 연기군의 추정치가 0.506으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는 예산군이 0.489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보령시와 태안군의 미스매치 정도는 0.241로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M_2 추정치는 예산군이 0.1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여군이 0.178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M_1 과 마찬가지로 보령시와 태안군의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군의 경우 직종에서 미스매치가 크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경비 및 청소관련직의 구인인원이 구직인원에 비해 4배 이상 많고 경영·회계·사무관리직의 경우는 구직인원이 구인에 비하여 2배 이상 많은데서 기인한다. M_1 과 M_2 의 미스매치 추정치가 모두 컸던 예산군의 경우는 경영·회계·사무관리직의 구직인원이 구인에 비하여 2배 이상 많고,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의 구인인원의 풀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VI-1> 직종별 미스매치 추정치(M_1)



2010년은 공주시의 추정치가 0.767로 매우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부여군이 0.562로 나타났다. M_2 역시 공주시에서 0.408로 매우 높았고 부여군이 다음으로 0.250의 추정치를 보이고 있다. 공주시의 경우, 이와 같은 이상치가 나타나는 이유는 관리직과 영업 및 판매 관련직의 구인인원이 구직인원에 비하여 20배가 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들 직종으로의 구인인원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회계·사무관리직의 경우는 구직인원이 구인인원보다 3배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비 및 청소 관련직 또한 구직인원이 구인인원에 비해 과도하게 많았다.

<그림 VI-2> 직종별 미스매치 추정치(M_2)



전체적으로 공주시의 경우 구직인원과 구인인원의 몇 개의 업종에만 쏠리는 현상이 다른 시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여군은 대체적으로 2009년과 2010년 모두에서 다소 높은 미스매치의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의 구직인원이 구인인원에 비해 매우 높고 구인인원이 식품가공 관련직,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농림어업 관련직, 재료 관련직에 대한 쏠림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금융·보험 관련직, 정보통신 관련직의 적은 수의 구인에 비해 구직 인원이 다소 많은 것도 그 원인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앞 장에서 분석한 노동시장권별로 미스매치의 추정치는 <표 VI-3>에서 알 수 있듯 미스매치의 추정치가 인구가 많은 시군으로 근접함을 알 수 있다. 미스매치의 정도는 노동시장권별 일 때 미스매치의 높은 값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표 VI-3> 직종별 미스매치 추정

	시군별			
	M1		M2	
	2009	2010	2009	2010
천안·아산	0.335	0.400	0.076	0.099
천안시	0.306	0.372	0.070	0.086
아산시	0.429	0.448	0.117	0.129
공주시	0.289	0.767	0.064	0.408
보령시	0.241	0.368	0.046	0.091
서산시	0.415	0.406	0.113	0.108
논산·계룡	0.425	0.509	0.116	0.186
논산시	0.433	0.518	0.122	0.192
계룡시	0.353	0.364	0.098	0.103
금산군	0.406	0.472	0.132	0.152
연기군	0.506	0.458	0.154	0.143
부여군	0.471	0.562	0.178	0.250
서천군	0.349	0.486	0.085	0.176
청양군	0.386	0.502	0.130	0.208
홍성군	0.360	0.395	0.098	0.130
예산군	0.489	0.443	0.183	0.157
태안군	0.241	0.317	0.048	0.066
당진군	0.415	0.427	0.119	0.126

3) 충남지역 임금별 미스매치(시군별)

충남지역 시군별 임금의 미스매치 추정치는 다음 표와 같다. 여기서 사용된 임금은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응답한 희망임금임. 임금의 미스매치 추정에 사용된 자료의 임금 구간은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으로 총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 추정에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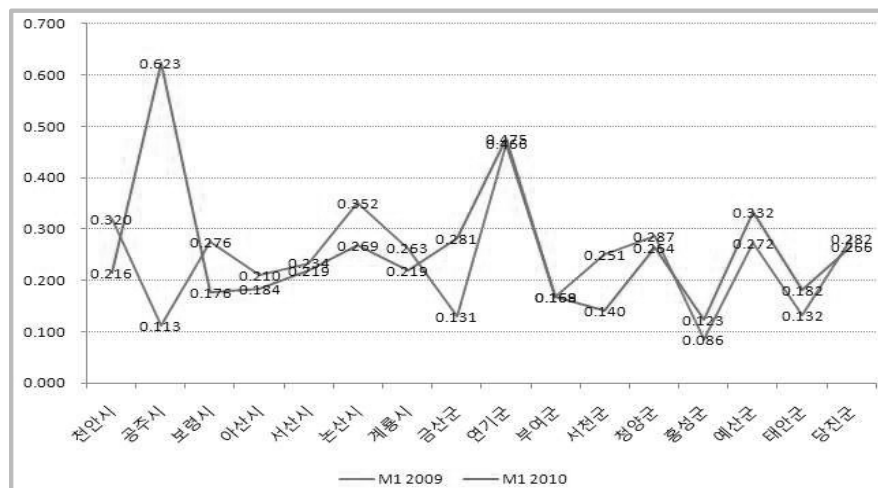
2009년의 임금별 미스매치 추정치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M_1 과 M_2 의 흐름이 흡사함을 알 수 있다. 미스매치 추정치는 두 수치 모두 연기군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고(0.466, 0.129), 다음으로는 논산시가 0.352, 0.090으로 높았다. 연기군의 경우, 임금별 미스매치 추정치가 높게 나온 것은 100만원 미만 구인인원이 구직자에 비해 5배 정도 많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구직자가 원하는 임금 비율이 구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구인시장과 구직시장의 임금 미스매치의 간극이 큼을 알 수 있었다. 200만원 이상의 구간에서 다른 구간보다는 다소 덜하지만 여전히 구직자의 희망임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인업체의 희망임금의 100만원 미만 구간 쏠림 현상이 매우 높아 나타난 현상이다. 논산 시도 연기군과 마찬가지로 구인인원의 경우 100만원 미만 구간에 몰려있는 반면 구직인원은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상 구간에 제일 많은 인원이 몰려 있다. 1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원하는 구인인원의 비율이 더 구직인원보다 더 높고 회사에서 구하는 인력은 90% 이상이 150만

원 미만의 인력을 위하여 이들 임금간 미스매치가 높게 추정되었다.

<표 VI-4> 임금별 미스매치 추정

		시군별			
		M1		M2	
		2009	2010	2009	2010
천안·아산		0.285	0.208	0.076	0.045
	천안시	0.320	0.216	0.096	0.055
	아산시	0.210	0.184	0.048	0.031
공주시		0.113	0.623	0.017	0.224
보령시		0.276	0.176	0.060	0.028
서산시		0.234	0.219	0.050	0.040
논산·계룡		0.330	0.269	0.087	0.069
	논산시	0.352	0.269	0.090	0.068
	계룡시	0.263	0.219	0.057	0.035
금산군		0.131	0.281	0.024	0.046
연기군		0.466	0.475	0.129	0.126
부여군		0.168	0.169	0.025	0.040
서천군		0.251	0.140	0.069	0.031
청양군		0.287	0.264	0.084	0.068
홍성군		0.086	0.123	0.005	0.023
예산군		0.272	0.332	0.061	0.093
태안군		0.132	0.182	0.028	0.050
당진군		0.282	0.266	0.071	0.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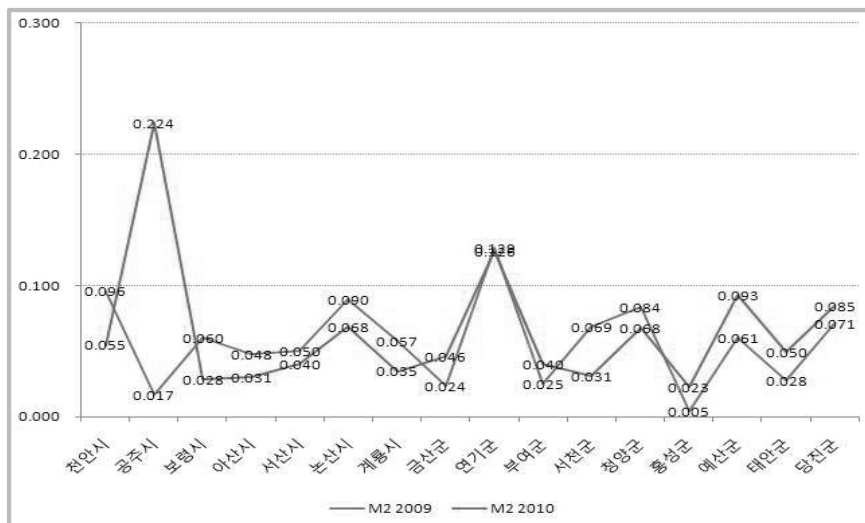
<그림 VI-3> 임금별 미스매치 추정치()



2010년의 미스매치 추정치는 공주시가 M_1 , M_2 모두 다른 시군에 비해 특히 크게 추정었으며 다음으로 연기군의 수치가 2009년과 비슷하게 크게 나타났다. 공주시의 수치가 크게

추정된 것은 우선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구간에서 구인인원의 84%가 몰려있으므로 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구직인원은 60%정도가 150만원 미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전체의 21%만이 나타나 여기에서 미스매치의 크기를 크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직자들이 높은 임금을 원하는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 노동시장의 수요가 중간정도의 임금을 주는 중간 숙련을 원하는 반면 공급은 오히려 저숙련 일자리의 수요가 많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기군의 경우, 2010년 또한 2009년과 매우 흡사한 이유로 미스매치의 높은 추정치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VI-4> 임금별 미스매치 추정치()



4) 충남지역 학력별 미스매치(시군별)

충남지역 시군별 학력의 미스매치 추정치는 다음 표와 같다. 학력의 구분은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졸 이하, 학력무관 이상 6개로 구분되어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 각 시군별 미스매치의 정도를 추정하게 된다.

2009년의 학력별 미스매치 정도를 살펴보면 M_1 , M_2 모두 연기군과 청양군에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논산시와 태안군 또한 다른 시군에 비해 높은 미스매치 정도를 보이고 있고 이는 임금이나 직종의 미스매치 정도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0년에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연기군의 경우, 구인을 원하는 업체의 87%가 학력무관이라고 답하고 구직자의 76%가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타난 미스매치의 결과인데, 학력무관의 경우 사실상 숙련이 필요 없는 일자리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구직자의 많은 수도 저학력이어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선 미스매치의 정도는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대졸자 이상의 집단에서 구인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게 나타나고 있어 고학력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스매치가 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양군 또한 이와 흡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어 저학력의 일자리의 편중현상이 심각하고 고학력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논산시나 태안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이고 있고 2010년에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표 VI-5> 학력별 미스매치 추정

		시군별			
		M1		M2	
		2009	2010	2009	2010
천안·아산	천안·아산	0.601	0.598	0.396	0.399
	천안시	0.609	0.594	0.407	0.399
	아산시	0.587	0.603	0.380	0.400
공주시		0.682	0.612	0.485	0.339
보령시		0.707	0.707	0.483	0.492
서산시		0.603	0.642	0.404	0.429
논산·계룡	논산·계룡	0.709	0.776	0.487	0.542
	논산시	0.732	0.783	0.510	0.549
	계룡시	0.465	0.706	0.320	0.508
금산군		0.646	0.548	0.439	0.376
연기군		0.868	0.866	0.659	0.655
부여군		0.717	0.779	0.504	0.550
서천군		0.721	0.687	0.512	0.480
청양군		0.777	0.841	0.570	0.633
홍성군		0.661	0.690	0.461	0.486
예산군		0.636	0.669	0.421	0.479
태안군		0.745	0.752	0.551	0.565
당진군		0.600	0.693	0.397	0.479

■ 학력구간 조정 후 결과

학력별 미스매치 추정치가 다른 미스매치의 결과들과 다르게 매우 큰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은 학력무관이라는 구인업체에서만 답변하는 결과 때문이다. 학력무관의 경우, 정규교육에 해당하는 고졸 이하의 학력이라 가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므로 학력 구간을 중졸이하, 고졸이하, 학력무관을 모두 합하여 고졸이하 학력으로 재계산하여 이의 미스매치를 살펴보고도록 한다. 사실상 구직자들은 학력무관이란 응답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해야 더욱 정확한 학력별 미스매치 수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추후 구직자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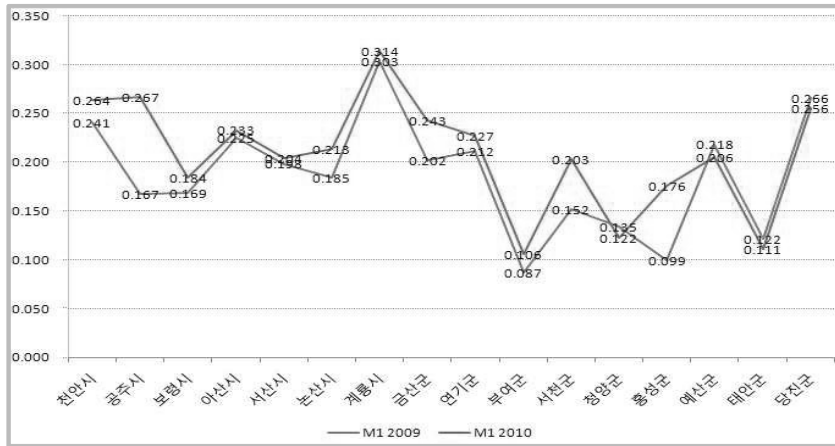
에서도 이렇게 학력구간을 통합하여 사용하게 된다.

학력을 재구분하였을 때 학력별 미스매치의 정도가 시군별로 달라짐을 관찰할 수 있다. 계룡시와 당진군은 수치가 2009년 2010년 모두 크게 추정되었고 공주시의 경우는 2010년 미스매치 정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시의 경우는 M_2 수치가 2009년, 2010년 모두 큰 값으로 추정되었다. 계룡시는 노동시장권으로 논산시와 통합시키기 전 구인수가 2009년 310명, 2010년 418명으로 높지 않아 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긴 하나 관측된 사실은 구인업체의 고졸이하 학력자에 대한 수요가 전체 구인의 85%로 다른 시군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나 구직자들의 학력이 56%만이 고졸학력으로 나타나 이 구간의 미스매치와 전문대졸업 이상의 구간에서도 비율차이가 있어 큰 추정치가 산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 미스매치가 높은 시군의 경우 모두 구직자들의 학력은 30%정도가 전문대졸 이상이나 구인업체에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원하는 비율은 전체 구인의 10% 미만인 경우가 많아 미스매치의 추정치가 높게 관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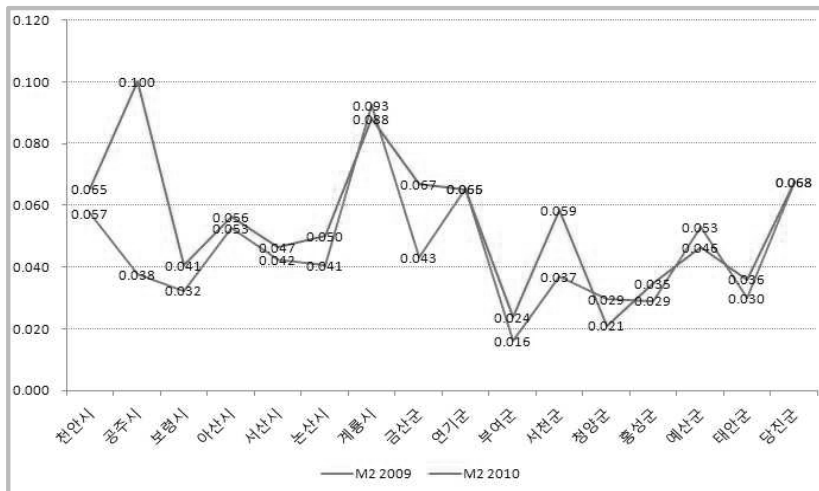
<표 VI-6> 학력별 미스매치-학력구간 조정 후

	시군별			
	M1		M2	
	2009	2010	2009	2010
천안·아산	0.238	0.255	0.056	0.063
천안시	0.241	0.264	0.057	0.065
아산시	0.225	0.233	0.053	0.056
공주시	0.167	0.267	0.038	0.100
보령시	0.169	0.184	0.032	0.041
서산시	0.198	0.204	0.042	0.047
논산·계룡	0.230	0.254	0.055	0.065
논산시	0.185	0.213	0.041	0.050
계룡시	0.303	0.314	0.093	0.088
금산군	0.202	0.243	0.043	0.067
연기군	0.212	0.227	0.066	0.065
부여군	0.087	0.106	0.016	0.024
서천군	0.152	0.203	0.037	0.059
청양군	0.135	0.122	0.029	0.021
홍성군	0.099	0.176	0.029	0.035
예산군	0.218	0.206	0.053	0.046
태안군	0.122	0.111	0.030	0.036
당진군	0.266	0.256	0.068	0.068

<그림 VI-5> 학력별 미스매치 추정치()



<그림 VI-6> 임금별 미스매치 추정치(M_2)



3. 구직자 미스매치 분해

1) 시군별 구인배수 추이

충남전체의 구인배수는 2009년 0.73, 2010년 1.25로 전국 수치²³⁾ 2009년 0.45, 2010년 0.64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충남의 연도별 전국 평균 신규구인 인원보다 신규구직인원이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물론 구인배수는 경기변동이나 인구 및 산업구조의

23)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구인/구직 통계

변화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한 변화를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인력수급의 미스매치의 기본이 되는 수치이다. 충남지역 노동시장별 구인배수를 살펴보면 공주시의 경우 2009년 0.35였던 수치가 구인인원 등록의 증가로 2010년 1.99까지 치솟은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연기군, 금산군, 당진군, 천안/아산의 수치 또한 구인인원이 구직인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7> 충남지역 노동시장별 구인배수

년도	천안/아산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계룡	금산군	연기군
2009	0.80	0.35	0.38	0.51	0.62	0.92	1.44
2010	1.45	1.99	0.48	0.76	0.93	1.77	1.86
년도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2009	0.30	0.50	0.59	0.37	0.73	0.29	1.60
2010	0.50	0.78	0.72	0.50	0.79	0.56	1.93

2) 충남지역 구직자 분해

충남지역의 구직자를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으로 분해하고 구조적 실업의 원인을 그중 하나인 지역간 미스매치로 한정하여 이를 분해하고자 한다.

<표 VI-8> 충남지역 구직자 분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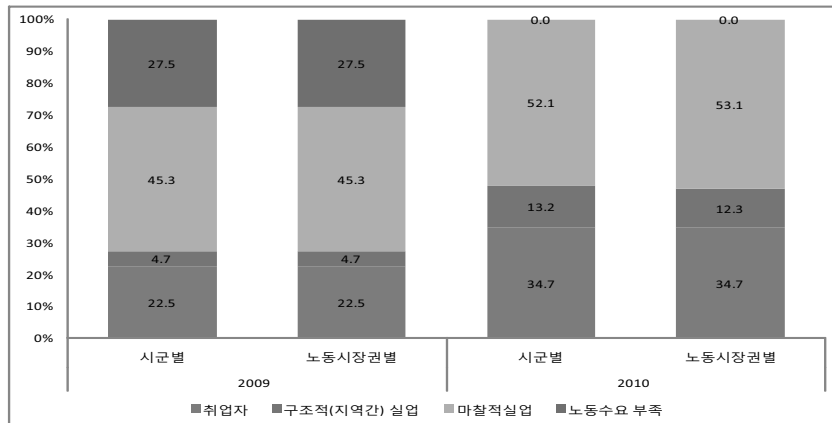
연도	지역구분	구직자 중 취업자	구조적(지역간) 실업	마찰적 실업	노동수요 부족	구직자 전체
2009	시군별	20,662	4,326	41,475	25,187	91,650
	노동시장권별	20,662	4,326	41,475	25,187	91,650
2010	시군별	38,308	14,587	57,608	0	110,503
	노동시장권별	38,308	13,548	58,647	0	110,503

주: 2009년 2010년 노동시장권별 시군별 수치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충남지역의 경우, 노동시장권별로 살펴볼 때 구조적(시군간) 실업이 2009년 전체 구직자의 4.7%에서 2010년 12.3%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충남지역이 2010년 구직 등록 수보다 구인 등록 수가 더 커서 노동수요 부족 실업 비율이 0%로 줄어든 것도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군의 노동이동이 2010년 좀 더 경직되어서 일어난 부분이 있는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군의 노동이동이 경직되었다면 구직자들의 지리적·공간적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마찰적 실업의 비율이 전체 구직자 분해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009년 45.3%, 2010년 53.1%). 이는 노동시장

정보의 효율적인 매칭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으므로 PES 매칭의 효율성 개선을 통하여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탐색비용을 줄여주고 정보의 신속/적절한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VI-7> 충남지역 구직자 분해



3) 충남지역 시군별 구직자 분해

이 절에서는 충남지역 노동시장권별로 구직자를 분해하여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때 구조적 실업부문을 직종, 임금, 학력에 따른 부문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 이들에 따른 시군별 차이와 마찰적 실업, 노동수요 부족이 얼마의 비중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함으로써 시군의 노동시장 특징을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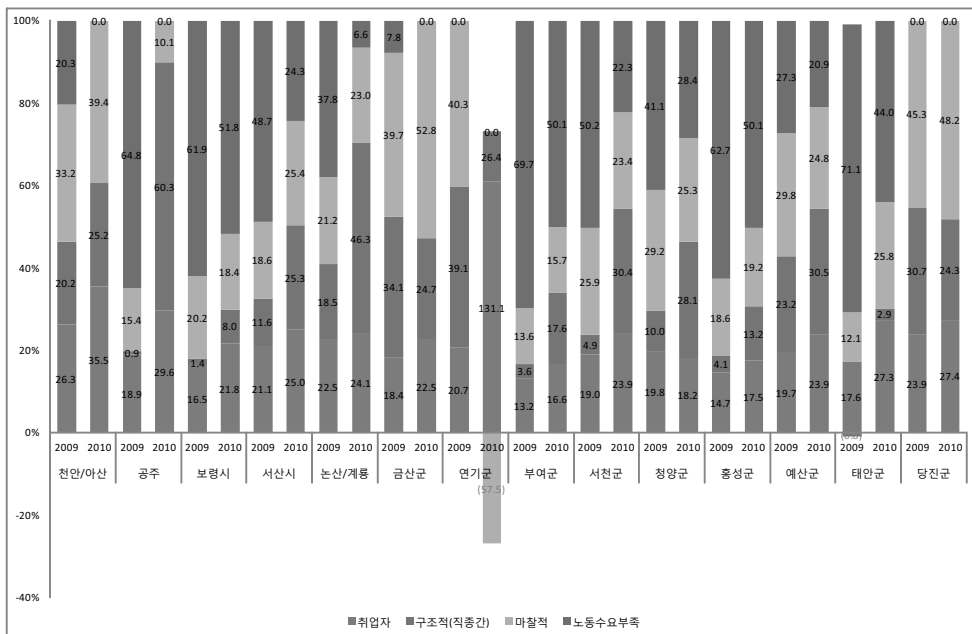
(1) 구조적 실업을 직종 간 미스매치로 한정

구조적 실업을 직종 간 데이터만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을 때 결과는 <그림 VI-9>와 같다. 구조적 실업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시군은 우선 공주시의 경우가 2009년 0.9%에서 60.3%까지 증가하여 직종 간 미스매치의 정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의 경우, 금산군, 당진군의 경우가 다른 시군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고용지원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기군의 경우, 마찰적 실업이 음수 값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직등록 후 취업알선을 거치지 않고 취업한 건수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구직자의 이런 비율이 커지는 것은 고용지원서비스의 작동 시스템의 확인 및 강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표 VI-9> 충남지역 시군별 구직자 분해-구조적 실업을 직종으로 한정

	천안/아산		공주		보령시		서산시		논산/계룡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취업자	26.3	35.5	18.9	29.6	16.5	21.8	21.1	25.0	22.5	24.1
구조적 실업	20.2	25.2	0.9	60.3	1.4	8.0	11.6	25.3	18.5	46.3
마찰적	33.2	39.4	15.4	10.1	20.2	18.4	18.6	25.4	21.2	23.0
노동수요부족	20.3	0.0	64.8	0.0	61.9	51.8	48.7	24.3	37.8	6.6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취업자	18.4	22.5	20.7	131.1	13.2	16.6	19.0	23.9	19.8	18.2
구조적 실업	34.1	24.7	39.1	26.4	3.6	17.6	4.9	30.4	10.0	28.1
마찰적	39.7	52.8	40.3	-57.5	13.6	15.7	25.9	23.4	29.2	25.3
노동수요부족	7.8	0.0	0.0	0.0	69.7	50.1	50.2	22.3	41.1	28.4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취업자	14.7	17.5	19.7	23.9	17.6	27.3	23.9	27.4		
구조적 실업	4.1	13.2	23.2	30.5	-0.8	2.9	30.7	24.3		
마찰적	18.6	19.2	29.8	24.8	12.1	25.8	45.3	48.2		
노동수요부족	62.7	50.1	27.3	20.9	71.1	44.0	0.0	0.0		

<그림 VI-8> 충남지역 시군별 구직자 분해-구조적 실업을 직종으로 한정



노동수요부족 실업의 경우, 보령시가 2009년 61.9%, 2010년 51.8%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매우 노동수요부족이 매우 높게 나타난 공주, 부여, 홍성 등의 시군에서 2010년 수치가 다소

감소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노동수요부족 실업의 비율이 높아 지역에 맞는 산업의 개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곳으로 판단된다.

(2) 구조적 실업을 임금별 미스매치로 한정

구조적 실업을 임금 변수만으로 데이터만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을 때 결과는 <그림 VI-9>와 같다. 구조적 실업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시군은 우선 공주시의 경우가 2009년 0의 수치를 보이다 2010년 46.2%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관측되었다. 2009년 공주시의 경우, 신규 구인의 인원수가 신규구직의 인원수보다 임금의 모든 구간에서 적게 관측되고 있는 데 그 원인 있고 2010년 신규 구인인원이 6배 가까이 늘면서 동시에 임금으로 인한 구조적 미스매치가 매우 큰 비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인 업체에서는 150~200만원 구간의 노동력(84%)을 원하고 구직자는 150만원 미만 구간의 일자리를 구직자 전체의 60%가 원하고 있으며 200만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구인의 2%, 구직자의 18%로 나타나 중간 기술자들에 대한 시장 수요는 많은 반면 공급은 고임금이나 저임금으로 편중되어 나타나 일어나는 현상으로 직업훈련 등의 구직자 훈련, 지역내 고부가가치 산업의 개발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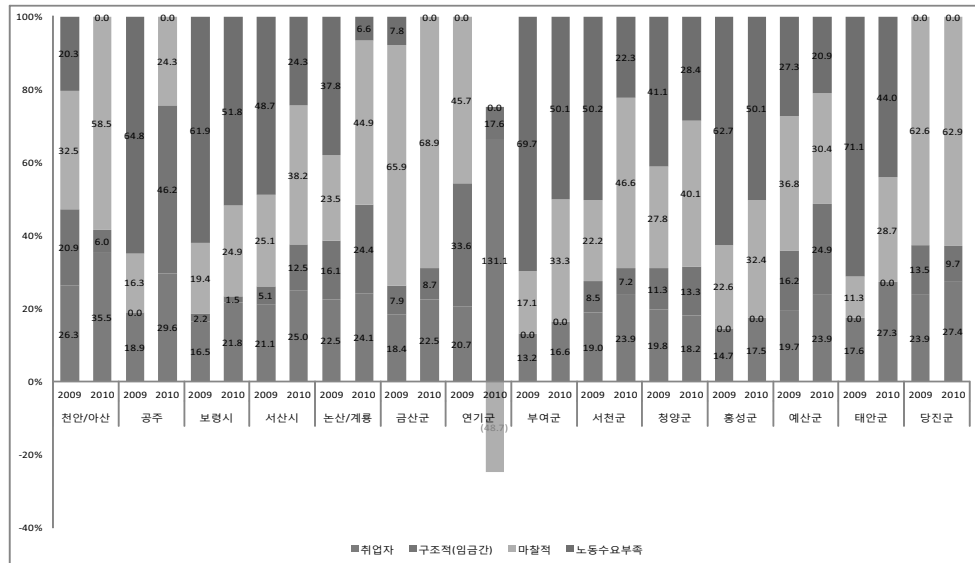
<표 VI-10> 충남지역 시군별 구직자 분해-구조적 실업을 임금으로 한정

	천안/아산		공주		보령시		서산시		논산/계룡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취업자	26.3	35.5	18.9	29.6	16.5	21.8	21.1	25.0	22.5	24.1
구조적 실업	20.9	6.0	0.0	46.2	2.2	1.5	5.1	12.5	16.1	24.4
마찰적	32.5	58.5	16.3	24.3	19.4	24.9	25.1	38.2	23.5	44.9
노동수요부족	20.3	0.0	64.8	0.0	61.9	51.8	48.7	24.3	37.8	6.6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취업자	18.4	22.5	20.7	131.1	13.2	16.6	19.0	23.9	19.8	18.2
구조적 실업	7.9	8.7	33.6	17.6	0.0	0.0	8.5	7.2	11.3	13.3
마찰적	65.9	68.9	45.7	(48.7)	17.1	33.3	22.2	46.6	27.8	40.1
노동수요부족	7.8	0.0	0.0	0.0	69.7	50.1	50.2	22.3	41.1	28.4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취업자	14.7	17.5	19.7	23.9	17.6	27.3	23.9	27.4		
구조적 실업	0.0	0.0	16.2	24.9	0.0	0.0	13.5	9.7		
마찰적	22.6	32.4	36.8	30.4	11.3	28.7	62.6	62.9		
노동수요부족	62.7	50.1	27.3	20.9	71.1	44.0	0.0	0.0		

마찰적 실업의 경우, 금산군과 당진군의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당진군의 경우는 구인인원이 구직인원보다 많아 노동수요부족 비율이 낮은데 것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금

산군의 경우는 노동시장 수요가 많지 않고 구조적 실업이 매우 낮아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한 취업알선 매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9> 충남지역 시군별 구직자 분해-구조적 실업을 임금으로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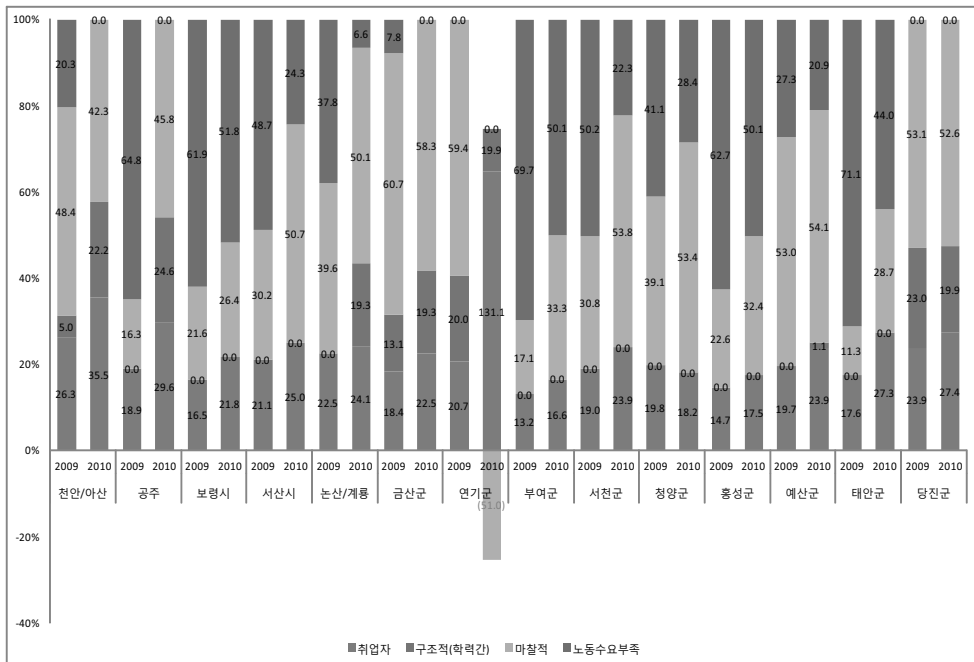
(3) 구조적 실업을 학력별 미스매치로 한정

학력의 경우는 위의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력 구간을 재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학력구간이 4개의 구간으로만 분리됨으로서 구조적 실업이 다소 작아진 부분이 있고 이는 여러 시군에서 구조적 실업의 비율이 0%고 있는 것이 설명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주시, 당진군, 금산군의 경우는 구조적 실업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주시의 경우는 임금별 미스매치 부분에서 2010년 마찰적 실업이 24.3%, 학력을 구조적 실업의 변수로만 설정했을 때는 45.8%로 높아지는데 이는 학력보다는 임금부문에서의 구조적 실업 부문으로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학력과 임금 변수의 결합을 통한 구조적 실업을 살펴보면 마찰적 실업의 상당부분이 구조적 실업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부문의 구조적 미스매치의 원인은 구인업체의 경우 90% 이상이 고졸이하의 학력을 원하는 반면 구직자는 70%정도만이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미스매치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1> 충남지역 시군별 구직자 분해-구조적 실업을 학력으로 한정(학력구간 조정)

	천안/아산		공주		보령시		서산시		논산/계룡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취업자	26.3	35.5	18.9	29.6	16.5	21.8	21.1	25.0	22.5	24.1
구조적실업	5.0	22.2	0.0	24.6	0.0	0.0	0.0	0.0	0.0	19.3
마찰적	48.4	42.3	16.3	45.8	21.6	26.4	30.2	50.7	39.6	50.1
노동수요부족	20.3	0.0	64.8	0.0	61.9	51.8	48.7	24.3	37.8	6.6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취업자	18.4	22.5	20.7	131.1	13.2	16.6	19.0	23.9	19.8	18.2
구조적 실업	13.1	19.3	20.0	19.9	0.0	0.0	0.0	0.0	0.0	0.0
마찰적	60.7	58.3	59.4	(51.0)	17.1	33.3	30.8	53.8	39.1	53.4
노동수요부족	7.8	0.0	0.0	0.0	69.7	50.1	50.2	22.3	41.1	28.4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취업자	14.7	17.5	19.7	23.9	17.6	27.3	23.9	27.4		
구조적실업	0.0	0.0	0.0	1.1	0.0	0.0	23.0	19.9		
마찰적	22.6	32.4	53.0	54.1	11.3	28.7	53.1	52.6		
노동수요부족	62.7	50.1	27.3	20.9	71.1	44.0	0.0	0.0		

<그림 VI-10> 충남지역 시군별 구직자 분해-구조적 실업을 학력으로 한정(학력구간 조정)



4. 충남 사업체고용동향 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충남도 사업체(제조업체)의 적극적인 구인에도 불구하고 충원되지 않는 빈 일자리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족인력 규모를 조사하여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충남도의 노동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조사범위 및 대상

조사범위 및 대상은 충남도내 50인 이상 제조업체로 조사기준일 현재, 충남도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총 797개의 제조업체 대상)이다. 다만, 도의 인력양성지원 대상인 50인 이상 제조업으로 한정한다.

(3)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실시기간은 2011년 7월 15일부터 8월 14일(약 1개월간)까지이며, 조사방법은 전문 리서치기관인 대전 리서치센터 조사원에 의한 기업방문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4)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현원,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이며, 현원은 조사기준일(2011. 7.15) 현재의 상용·기타·외국인 근로자이다. 부족인원은 조사기준일(2011.7.15) 현재, 채용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필요한 인원이며 채용계획인원은 2011년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이 있는 인원을 의미한다.

구인인원은 상반기에 대외적인 구인활동(예: 홈페이지 모집공고, 신문 등에 채용공고를 낸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구인요청, 친지 등에게 소개를 요청한 경우 등)을 통하여 채용하려고 한 인원으로 합격자를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채용인원이 아닌 최초 모집공고 당시에 채용하려고 했던 모집인원이 해당된다. 그리고 채용인원은 상반기 구인인원 중 채용하기로 확정했거나 채용된 인원을 의미한다. 이외

에 구인인원에서 채용인원을 제한 인원 즉, 미충원인원과 미충원사유를 조사한다.

사업체 고용동향 조사는 본 연구를 위하여 충남의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를 전수 조사한 데이터로 약 1개월간 조사한 자료이다. 이 조사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의 구인인원 및 부족인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어 진다. 충남 전체에서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는 충남 전체 사업체의 0.5%, 종사자수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표 VI-12>에서 보듯이 충남은 농업 비중이 높고 제조업 성장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노동 수요에 대한 정책 대상이 제조업의 50인 이상 사업체에 초점이 있다. 조사항목은 2011년 하반기 직업별 채용계획 현원, 2011년 상반기 직업별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과 구인경로 등이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2010년 하반기의 구직활동을 조사한 자료이므로 시점차이가 존재하는 점, 구직 사업체의 규모에 대한 조사항목이 없기 때문에 본 조사와 동일한 시점 및 표본을 구성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시군별 구인/구직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표 VI-12> 충남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현황

(단위: 개소, 명)

	사업체	종사자수
충남 전체	131,555	665,433
50인 이상 제조업	696(0.5%)	132,106(19.9)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2009), KOSIS

2) 분석결과

데이터는 충남도청으로부터 확보된 행정 자료를 기초로 조사된 것으로 사업체 기초통계보다 다소 많은 797개 사업체이다. 이는 조사 시점차이로 인하여 나타난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규모별로 살펴보았을 때 50인 미만 사업체가 종종 존재하기도 하나 행정 자료 시점과 조사 시점에 따른 것으로 50인에 거의 근접한 근로자수로 조사되어 50인 이상 사업체로 간주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된 사업체의 규모별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VI-13>과 같다. 천안, 아산지역이 331개, 186개 사업체로 가장 많은 사업체가 소재하는데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체 순으로 입주해 있다. 그리고 당진군과 연기군에 각각 73개, 48개 사업체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3> 충남 사업체 고용동향 조사 규모별 사업체수

(단위: 개소)

	50인미만	50인이상 100인미만	100인이상 500인미만	500인이상 1000인미만	1000인 이상	합계
공주	3	8	5	1	—	17
금산	4	7	2	—	1	14
논산	2	11	9	—	—	22
당진	—	38	29	5	1	73
보령	—	12	2	2	—	16
부여	—	3	3	1	—	7
서산	1	8	6	6	3	24
서천	—	5	8	1	—	14
아산	3	96	67	14	6	186
연기	3	22	21	1	1	48
예산	2	12	5	1	—	20
천안	17	170	125	16	3	331
청양	—	4	5	—	—	9
홍성	4	6	5	1	—	16
충남 전체	39	402	292	49	15	797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업체고용동향조사(2011)

또한 노동수요 현황과 함께 비교할 조사자료는 2010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2011년 상반기 자료가 있으면 더욱 정확한 비교 분석이 되나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정확하게는 실업자가 아닌 구직자 통계를 이용해야 하나 이 또한 지역별로 확보되지 않아 실업자를 구직자로 간주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충남 지역 실업자 중 50인 이상 규모의 업체를 희망하고 있는 조사자에 대하여 비교해야 정확하나 지역별고용조사에서는 희망하는 사업체의 규모가 조사되지 않고 희망하는 산업에 대한 조사 항목에서 광업 및 제조업이 한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어 가능한 비교 집단은 2010년 지역별 고용조사 시점(2010. 8. 22 ~ 9. 18) 충남 광업 및 제조업 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상태의 구직자로 충남 사업체 고용동향의 수요 조사의 규모에 대해 조정할 수 없어 다소 현실적 제약이 있다. 따라서 비교 수치상 정확한 비교는 불가하다.

<표 VI-14>에서 살펴보면 충남 전체 28,548명의 실업자 중 15% 4,319명이 광업 및 제조업 분야의 일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천안/아산 지역에서는 제조업 분야를 희망하는 실업자가 다른 시군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14> 지역별 고용조사 - 광업 및 제조업 산업을 희망하는 충남 실업자

(단위: 명, %)

	광업, 제조업		총합계
	실업자수	비율	
천안시	2,340	23.7	9,880
공주시	—	—	1,351
보령시	67	8.6	782
아산시	1,125	26.7	4,206
서산시	278	11.9	2,336
논산시	—	—	897
계룡시	32	5.7	553
금산군	77	14.2	541
연기군	92	7.2	1,277
부여군	—	—	1,206
서천군	36	7.4	483
청양군	—	—	186
홍성군	37	2.9	1,262
예산군	147	12.8	1,146
태안군	—	—	857
당진군	89	5.6	1,586
천안/아산	3,465	50.4	14,086
논산/계룡	32	5.7	553
충남 전체	4,319	15.1	28,548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2010)

(1) 2011년도 채용계획인원

2011년도 직업별 현원 및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0년 8월 현재, 충남 지역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의 388명으로 조사된 현원의 0.3%정도이며 이 중 정규직 부족인원이 비정규직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하반기까지 채용계획인원은 343명으로 실업인원 4,319명보다 매우 높은 낮은 수치이나 실업인원에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점, 시간차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더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업인원과 채용계획 인원은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면으로 분석할 때 사실상 수치별 차이보다 직종별 비율차가 더 중요한 정보로 채용계획인원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에 55.1%, 단순노무종사자에 35.3%로 이 두 직종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반면 실업인원은 단순노무종사자 22.9%,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21.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8.6%로 집중된 직종이 없고 직종별로 비율이 퍼져있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노동시장 수요측면의 채용계획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사무직이 각각 1.7%, 0.6%의 수요만 있는 반면 공급은 17.2%, 16.7%로 이들의 비율 차이 또한 매우 높아 직종 간 미스매치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VI-15> 충남지역 직종별 채용계획인원

(단위: 명, %)

	현원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			실업 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관리자	6,335	5	5	0	2	0	2(0.6)	163(3.8)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640	121	16	0	6	0	6(1.7)	741(17.2)
사무종사자	10,941	433	16	0	2	0	2(0.6)	720(16.7)
서비스종사자	561	159	0	2	0	2	2(0.6)	—
판매종사자	2,861	472	7	0	7	0	7(2.0)	—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	—	—	—	—	—	—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6,429	564	4	0	14	0	14(4.1)	905(21.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4,323	6,599	145	62	137	52	189(55.1)	802(18.6)
단순노무종사자	46,305	4,478	98	33	89	32	121(35.3)	987(22.9)
충남 전체	141,395	12,831	291	97	257	86	343(100)	4,319(100)

자료 1)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업체고용동향조사(2011)

2)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2010)

충남지역 규모별 채용계획인원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1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체가 1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군별로는 연기군이 1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체의 채용계획이 88명으로 나타났다. 아산시의 경우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체의 채용계획인원이 더 많아 시 전체 142명 계획 중 92명의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채용계획인원은 당진군에서만 70명으로 나타나 2011년 하반기의 채용계획인원은 상반기의 구인인원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채용계획인원비율 및 2010년 실업인원 비율을 비교해봄으로서 시점의 차이라는 한계와 데이터 수의 부족으로 인원이 존재하지 않는 시군이 나타나는 한계가 있기는 하나 지역별 직종의 미스매치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천안/아산의 경우, 채용계획은 단순노무종사자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에 가장 많은 비율이 몰려 있는 반면 실업자가 원하고 있는 직종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비율이 높아 직종에서 나타나는 미스매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의 경우, 관리자를 원하고 있는 구직자의 비율이 30% 정도 존재하나 구인업체의 채용계획은 존재하지 않았고 연기군은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가 24%정도 존재하나 구직자의 경우 단순

노무종사자 직종을 원하는 비율은 없었고 38%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직종을 원해 이로부터 나타나는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서산시의 경우, 구직자의 30%정도가 관리자 직종을 원하고 노동시장 수요는 존재하지 않아 미스매치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진군 또한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가 존재하고 있다.

<표 VI-16> 충남지역 규모별 채용계획인원

(단위: 명)

	50인미만	50인이상 100인미만	100인이상 500인미만	500인이상 1000인미만	1000인 이상	합계
공주	-	-	-	-	-	-
금산	-	-	-	-	-	-
논산	-	1	13	-	-	14
당진	-	5	-	-	70	75
보령	-	-	-	-	-	-
부여	-	7	-	-	-	7
서산	-	-	3	-	-	3
서천	-	-	-	-	-	-
아산	-	12	38	92	-	142
연기	-	4	88	-	-	92
예산	-	-	-	-	-	-
천안	-	-	10	-	-	10
청양	-	-	-	-	-	-
홍성	-	-	-	-	-	-
총합계	-	29	152	92	70	343

자료: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업체고용동향조사(2011)

<표 VI-17> 지역별 2011년도 채용계획인원비율 및 2010 실업인원비율 비교

(단위: %)

직종	천안/아산		공주		보령		서산	
	채용계 확인원 비율	실업 인원 비율	채용계 확인원 비율	실업 인원 비율	채용계 확인원 비율	실업 인원 비율	채용계 확인원 비율	실업 인원 비율
관리자	0.0	2.3	0.0	0.0	0.0	0.0	0.0	29.8
전문가및관련종사자	3.3	21.4	0.0	0.0	0.0	0.0	0.0	0.0
사무종사자	0.0	20.8	0.0	0.0	0.0	0.0	0.0	0.0
서비스종사자	1.3	0.0	0.0	0.0	0.0	0.0	0.0	0.0
판매종사자	4.6	0.0	0.0	0.0	0.0	0.0	0.0	0.0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9.2	23.3	0.0	0.0	0.0	0.0	0.0	0.0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32.9	9.8	0.0	0.0	0.0	100.0	100.0	49.7
단순노무종사자	48.7	22.4	0.0	0.0	0.0	0.0	0.0	20.5
	논산/계룡		금산		연기		부여	
관리자	0.0	0.0	0.0	0.0	2.2	0.0	0.0	0.0
전문가및관련종사자	7.1	0.0	0.0	0.0	0.0	0.0	0.0	0.0
사무종사자	0.0	0.0	0.0	0.0	0.0	0.0	28.6	0.0
서비스종사자	0.0	0.0	0.0	0.0	0.0	0.0	0.0	0.0
판매종사자	0.0	0.0	0.0	0.0	0.0	0.0	0.0	0.0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0.0	0.0	0.0	0.0	0.0	37.7	0.0	0.0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78.6	100.0	0.0	54.7	73.9	62.3	71.4	0.0
단순노무종사자	14.3	0.0	0.0	45.3	23.9	0.0	0.0	0.0
	서천		청양		홍성		예산	
관리자	0.0	0.0	0.0	0.0	0.0	0.0	0.0	0.0
전문가및관련종사자	0.0	0.0	0.0	0.0	0.0	0.0	0.0	0.0
사무종사자	0.0	0.0	0.0	0.0	0.0	0.0	0.0	0.0
서비스종사자	0.0	0.0	0.0	0.0	0.0	0.0	0.0	0.0
판매종사자	0.0	0.0	0.0	0.0	0.0	0.0	0.0	0.0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0.0	0.0	0.0	0.0	0.0	0.0	0.0	42.6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0.0	100.0	0.0	0.0	0.0	0.0	0.0	0.0
단순노무종사자	0.0	0.0	0.0	0.0	0.0	100.0		57.4

자료 1)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업체고용동향조사(2011), 2)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2010)

<표 VI-17> 지역별 2011년도 채용계획인원비율 및 2010 실업인원비율 비교-계속

(단위: %)

직종	태안		당진	
	채용계획인원비율	실업인원 비율	채용계획인원비율	실업인원 비율
관리자	0.0	0.0	0.0	0.0
전문가및관련종사자	0.0	0.0	0.0	0.0
사무종사자	0.0	0.0	0.0	0.0
서비스종사자	0.0	0.0	0.0	0.0
판매종사자	0.0	0.0	0.0	0.0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0.0	0.0	0.0	0.0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0.0	0.0	69.3	100.0
단순노무종사자	0.0	0.0	30.7	0.0

자료 1)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업체고용동향조사(2011), 2)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2010)

(2) 2011년도 상반기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2011년 상반기 충남지역 50인 이상 제조업사업체의 직업별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미충원 사유는 다음 <표 VI-18>과 같다. 하반기의 채용계획인원에 비하여 구인인원은 정규직 6,026명, 비정규직 1,998명 전체 8,024명으로 매우 많은 편이다. 이는 보통의 사업체에서 상반기에 신규 구인을 하고 하반기에는 신입보다 경력직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VI-18> 2011년도 상반기 직종별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단위: 명, %)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률	미충원사유1)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1순위	2순위
관리자	65	1	52	0	21.2	4	4, 5
전문가및관련종사자	48	0	39	0	18.8	8	3
사무종사자	305	25	297	14	5.8	5	3
서비스종사자	10	1	10	1	0.0	—	—
판매종사자	35	0	30	0	14.3	—	—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259	84	246	56	12.0	2	3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3,002	914	2,831	598	12.4	2, 3, 4	5
단순노무종사자	2,302	973	2,152	601	15.9	2, 1	3
총합계	6,026	1,998	5,657	1,270	13.7	—	—

자료: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업체고용동향조사(2011)

주: 1: 다른 사업체와의 격심한 인력유치 경쟁 때문, 2: 해당 직종에 취업하길 원하는 지원자가 없기 때문, 3: 임금,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 4: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필요직무능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5: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업무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6: 사업체가 제시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없기 때문, 7: 해당 직종이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발전 전망이 없기 때문, 8: 근무할 장소로의 통근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이 불편하는 등 통근이 어렵기 때문, 9: 특별한 이유 없음

직종별로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48.8%)와 단순노무종사자(40.8%)의 구인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4.3%), 사무종사자(4.1%)의 구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충원률은 13.7%로 관리자 직종의 미충원률이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8.8%, 단순노무종사자 직종 15.9%로 나타나 숙련의 정도가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집단의 미충원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충원 사유로 관리자의 경우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필요직무능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 근무할 장소로의 통근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이 불편하는 등 통근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하여 직무와 지역간 미스매치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해당 직종에 취업하길 원하는 지원자가 없고 다른 사업체와의 인력유치 경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직종의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력별 직종별

2011년 상반기 구인인원과 2010년 지역별 고용조사의 실업자의 학력과 직종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간 미스매치의 존재가 조사 상으로도 나타나는지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들 간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학력구간을 맞추기 위하여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의무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졸업까지 학력무관으로 보고 구간을 조정하게 된다. 학력 무관 구간에서는 사무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의 직종에서 미스매치가 크게 나타났고 전문대졸업 구간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직종에서 구인/구직 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및 석사 졸업의 실업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종사자 직종에만 몰려 있어 구인 업체의 다양한 직종에서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이상은 지역별 고용조사의 결과에서 구직자가 존재하지 않아 박사 이상 학력의 노동수요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VI-19> 2011년 상반기 직업별 학력별 구인인원 및 2010년 9월 기준 실업인원

(단위: 명, %)

직종	구인 인원		실업 인원		구인 인원		실업 인원		구인 인원		실업 인원		구인 인원		실업 인원		구인 인원		실업 인원	
	학력무관				전문대졸				대졸또는석사졸				박사이상				총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	0	0.0	80	2.9	8	1.0	83	8.8	52	17.6	0	0.0	6	85.7	0	0	66	0.8	163	3.8
2	0	0.0	0	0.0	11	1.4	322	34.4	36	12.2	419	68.2	1	14.3	0	0	48	0.6	741	17.2
3	31	0.4	309	11.2	147	18.4	216	23.0	152	51.5	195	31.8	0	0.0	0	0	330	4.1	720	16.7
4	2	0.0	0	0.0	9	1.1	0	0.0	0	0.0	0	0.0	0	0.0	0	0	11	0.1	0	0.0
5	0	0.0	0	0.0	12	1.5	0	0.0	23	7.8	0	0.0	0	0.0	0	0	35	0.4	0	0.0
6	241	3.5	808	29.2	87	10.9	98	10.4	15	5.1	0	0.0	0	0.0	0	0	343	4.3	905	21.0
7	3,408	49.2	583	21.1	496	62.0	219	23.4	12	4.1	0	0.0	0	0.0	0	0	3,916	48.8	802	18.6
8	3,240	46.8	987	35.7	30	3.8	0	0.0	5	1.7	0	0.0	0	0.0	0	0	3,275	40.8	987	22.9
합계	6,922	100.0	2,768	100.0	800	100.0	937	100.0	295	100.0	614	100.0	7	100.0	0	0	8,024	100.0	4,319	100.0

자료: 1)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업체고용동향조사(2011)

2)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2010)

직종: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8 단순노무종사자

조사를 통한 충남의 시군별 학력의 미스매치를 살펴보면 천안/아산 지역에서는 실업인원이

대졸/석사 졸업자가 많은 반면 이들 구간의 학력 구인은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금산, 논산/계룡, 연기, 부여, 서천, 홍성, 예산의 경우 구직 인력의 학력무관(고졸 이하)은 높은 반면 구인인원은 전문대 졸 이상의 학력을 원하는 비율이 10~40% 존재하고 있어 이들 학력 구간에서 나타나는 미스매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자들의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당진군의 경우는 구인의 70%가 학력무관을 원하나 구직자의 모두가 전문대졸업자로 나타나 이로부터 나타나는 미스매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20> 지역별 학력별 구인인원비율과 실업인원비율

(단위: %)

학력	천안/아산		공주		보령		서산		논산/계룡	
	구인 인원 비율	실업 인원 비율	구인 인원 비율	실업 인원 비율	구인 인원 비율	실업 인원 비율	구인 인원 비율	실업 인원 비율	구인 인원 비율	실업 인원 비율
학력 무관	89.5	60.2	50.0	0.0	89.7	100.0	81.8	70.2	93.9	100.0
전문대 졸	8.1	22.1	22.2	0.0	9.2	0.0	11.8	29.8	4.2	0.0
대졸/석사졸	2.3	17.7	27.8	0.0	1.1	0.0	6.5	0.0	1.8	0.0
박사이상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학력 무관	90.2	100.0	83.9	100.0	55.4	0.0	77.3	100.0	90.9	0.0
전문대 졸	7.3	0.0	12.2	0.0	38.5	0.0	15.1	0.0	0.0	0.0
대졸/석사졸	2.4	0.0	3.9	0.0	6.2	0.0	7.6	0.0	9.1	0.0
박사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홍성		예산		태안		당진			
학력 무관	76.0	100.0	80.2	100.0	0.0	0.0	70.9	0.0		
전문대 졸	10.1	0.0	9.9	0.0	0.0	0.0	20.8	100.0		
대졸/석사졸	14.0	0.0	9.9	0.0	0.0	0.0	8.3	0.0		
박사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자료: 1)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업체고용동향조사(2011)

2)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2010)

충남지역 조사를 통한 구인 경로에 대해 살펴보면 공공알선기관(고용지원센터, 노동부의 공공기관) 비율이 전체적으로 38.4%로 민간알선기관비율 15.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²⁴⁾ 공공알선기관에 구인을 요청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보령이 48.8%로 가장 높아 가장 많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보령고용센터의 역할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공주, 홍성, 서천, 아산, 예

24) 대중매체나 자사 홈페이지 등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는 알선 방법에 대해 중복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들이므로 공공과 민간 알선 비율을 구분할 때 고용센터 및 공공기관을 공공부문, 민간직업알선기관을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비율을 산출함

산 등의 지역 또한 40%가 넘는 공공알선기관 구인 신청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표 VI-21> 구인경로

(단위: 명, %)

	공주	금산	논산	당진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아산	연기	예산	천안	청양	홍성	합계
고용센터	14	10	22	70	15	6	23	13	177	35	18	323	7	14	747
노동부외공공기관	8	4	9	55	6	3	17	9	98	25	9	184	6	6	439
민간직업알선기관	8	6	5	50	5	3	16	8	81	29	10	241	7	4	473
대중매체	0	2	2	8	2	0	9	2	62	25	2	198	3	0	315
자사홈페이지	7	1	9	57	4	3	18	3	34	28	2	212	6	2	386
지인소개	7	4	14	23	6	3	12	7	123	29	9	109	2	6	354
학교요청	1	2	4	26	1	0	12	1	71	32	7	54	5	1	217
스카웃	1	0	3	18	0	0	3	0	28	4	2	14	3	1	77
기타	5	10	1	1	4	3	2	6	3	1	8	26	0	9	79
공공알선기관 비율	43.1	35.9	44.9	40.6	48.8	42.9	35.7	44.9	40.6	28.8	40.3	37.3	33.3	46.5	38.4
민간알선기관 비율	15.7	15.4	7.2	16.2	11.6	14.3	14.3	16.3	12.0	13.9	14.9	17.7	17.9	9.3	15.3
총합계	51	39	69	308	43	21	112	49	677	208	67	1,361	39	43	3,087

자료: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업체고용동향조사(2011)

주: 응답이 다중응답 형태로 누적하여 표 생성

반면, 구직경로에 대하여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공공알선기관을 통한 구직은 극히 미미하여 3.3%로 나타났고 민간기관을 통한 구직은 18.2%로 이는 구인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구직자들의 경우, 대중매체나 친척, 친구, 동료를 통한 구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공공알선을 통한 구인/구직 매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직자들의 공공알선 부분으로의 유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천안, 아산, 금산을 제외하고는 공공알선기관을 통한 구직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표 VI-22> 구직경로

(단위: 명, %)

	천안	보령	아산	서산	계룡	금산	연기	서천	홍성	예산	당진	합계
공공알선 기관			114		16						89	218
민간알선 기관	581		592			42						1,215
대중매체	1,392		897	195	16	77	92	36	37	147	89	2,977
지인	1,313	67	339	151	16	35	92	36		147		2,195
기타				69								69
공공알선 비율	0.0	0.0	5.9	0.0	33.3	0.0	0.0	0.0	0.0	0.0	50.0	3.3
민간알선 비율	17.7	0.0	30.5	0.0	0.0	27.4	0.0	0.0	0.0	0.0	0.0	18.2
합계	3,286	67	1,941	416	47	153	184	71	37	293	178	6,674

자료: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2010)

주: 다중응답으로 기준 수치와 일치하지 않음.

5. 소결

미스매치의 정도는 직종간, 임금간, 학력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론 구간의 수가 동일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생각보다 임금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일치보다는 직종에서 나타나는 수요/공급간 불일치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충남지역의 시군별 지역간 미스매치의 정도는 전국의 수치보다는 다소 커 보이기는 하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인접지역인 충북지역보다 작아 적어도 충북지역에 비해서는 시군간 노동이동이 유연함을 알 수 있다.

임금간 불일치가 큰 지역의 대부분은 100만원 미만 일자리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구직자의 대부분은 100~150만원 미만의 일자리를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구인업체는 100만원 미만 또는 150~200만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기인하여 불일치 폭이 커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250만원 이상의 일자리에 대해서 물론 구직자의 비율이 다소 높긴 하나 이들 수치간의 차이는 크지 않아 미스매치의 추정치를 크게 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임금미스매치가 구직자들의 임금 눈높이가 높은데서 기인한다고는 볼 수 없다.

직종별로 살펴보았을 때 숙련의 정도가 낮은 경비 및 청소관련직에서 불일치의 정도가 지

역별로 구인/구직간 크기의 차이가 반대 방향을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고 관리직이나 사무직에 대한 구직비율이 다소 구인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직종의 미스매치가 단순히 숙련의 정도에 따른 일자리에 대한 구직자들의 눈높이로 설명될 수 없고 지역별 원활한 노동이동, 적절한 직업훈련 정책을 통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학력별 미스매치는 구인업체의 대부분이 학력무관의 학력을 원하나 구직자들의 학력이 대부분 전문대졸 이상인데서 기인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조사상으로 박사이상의 학력에 대하여는 오히려 구인의 비율이 구직의 비율보다 높아 사회적인 학력 상승에 따른 미스매치의 기본적인 수치를 충남의 시군내 박사이상 고학력자들에 대한 구인 수요에 상응하는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²⁵⁾

구조적 미스매치의 정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우선 공주시의 경우 직종이나 임금, 학력 간 미스매치의 정도가 모두 크게 나타났으며 논산/계룡 노동시장권 또한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직종별 불일치는 적절한 직업훈련정책을 통하여 직종별 일자리의 이동을 수월하게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임금의 미스매치가 높은 공주시나 연기군, 논산/계룡, 예산군의 경우 일부 노동시장의 임금이 경직적이어서 생산성이나 근로조조건을 신축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적정수준 이하의 임금이 책정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고소득 임금구간에 대한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별 불일치의 경우, 노동시장 전반적인 구직자의 고학력화가 나타나고 있어 저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과 고학력자들이 지역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업체조사에서 미충원 사유가 대부분의 직종에서 임금,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란 응답이 높아 저숙련 노동시장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에 대한 불일치가 단순한 구직자의 기대인지 경직된 일부 노동시장의 문제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마찰적 실업비율이 높은 일부 노동시장의 경우 구인/구직의 매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충남 사업체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것으로 살펴보아도 공공기관에 대한 구인 활동이 여전히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인자들은 특히 공공알선을 이용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하고 사업체의 미충원 사유 또한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의 지원자가 없거나 해당 직종에 취업하길 원하는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란 응답비율

25) 표<Ⅲ-5>에서 충남지역 대졸자들의 타지역으로의 일자리 취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 높아 공공 고용지원서비스가 현재 충남 노동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고 구인·구직간 연계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수요부족이 심각한 시군의 경우 무엇보다 적극적 일자리 창출과 구인개척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를 따르는 효율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창출된 일자리의 구직자 매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23> 구조적 미스매치 추정치가 큰 지역(2010년 기준)

	지역
직종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논산/계룡
임금	공주시, 연기군, 논산/계룡, 예산군
학력(학력구간 조정)	공주시, 천안/아산시, 논산/계룡, 당진군

<표 VI-24> 지역별 미스매치 추정치(2010)

	미스매치의 정도					
	직종별		임금별		학력별(학력구간조정)	
	M1	M2	M1	M2	M1	M2
천안/아산시	0.400	0.099	0.208	0.045	0.255	0.063
공주시	0.767	0.408	0.623	0.224	0.267	0.100
보령시	0.368	0.091	0.176	0.028	0.184	0.041
서산시	0.406	0.108	0.219	0.040	0.204	0.047
논산/계룡시	0.509	0.186	0.269	0.069	0.254	0.065
금산군	0.472	0.152	0.281	0.046	0.243	0.067
연기군	0.458	0.143	0.475	0.126	0.227	0.065
부여군	0.562	0.250	0.169	0.040	0.106	0.024
서천군	0.486	0.176	0.140	0.031	0.203	0.059
청양군	0.502	0.208	0.264	0.068	0.122	0.021
홍성군	0.395	0.130	0.123	0.023	0.176	0.035
예산군	0.443	0.157	0.332	0.093	0.206	0.046
태안군	0.317	0.066	0.182	0.050	0.111	0.036
당진군	0.427	0.126	0.266	0.085	0.256	0.068

<표 VI-25> 지역별 구직자 분해 요약(2010년 기준)

		지역	비고
구조적 실업 비율이 높은 지역	직종	논산/계룡,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임금	공주시	
	학력	천안/아산, 공주	
마찰적 실업비율이 높은 지역		금산군, 당진군, 천안/아산, 서산시, 논산/계룡, 서천군, 청양군, 당진군	논산/계룡, 서천군, 청양군의 경우 임금을 구조적실업으로 봤을 때 마찰적 실업비율 매우 높게 나타남. 청양군, 당진군, 서천군의 경우 학력을 구조적 실업으로 봤을 때 마찰적 실업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즉, 학력별 미스매치 비율은 낮은 지역임.
노동수요부족 실업비율이 높은 지역		보령시, 부여군, 홍성군, 태안군	이들 지역은 전체 충남 내 제조업 종사자수 비중이 가장 낮은 네 개 시군으로 나타나 구인의 부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연기군, 천안/아산, 공주시, 당진군, 태안군	

<표 VI-26> 지역별 구직자 분해 결과(2010년 기준)

	구조적실업을 직종간 한정				구조적실업을 임금간 한정				구조적실업을 학력간 한정			
	취업자	구조적	마찰적	노동수요부족	취업자	구조적	마찰적	노동수요부족	취업자	구조적	마찰적	노동수요부족
천안/아산	35.5	25.2	39.4	0.0	35.5	6.0	58.5	0.0	35.5	22.2	42.3	0.0
공주	29.6	60.3	10.1	0.0	29.6	46.2	24.3	0.0	29.6	24.6	45.8	0.0
보령시	21.8	8.0	18.4	51.8	21.8	1.5	24.9	51.8	21.8	0.0	26.4	51.8
서산시	25.0	25.3	25.4	24.3	25.0	12.5	38.2	24.3	25.0	0.0	50.7	24.3
논산/계룡	24.1	46.3	23.0	6.6	24.1	24.4	44.9	6.6	24.1	19.3	50.1	6.6
금산군	22.5	24.7	52.8	0.0	22.5	8.7	68.9	0.0	22.5	19.3	58.3	0.0
연기군	131.1	26.4	(57.5)	0.0	131.1	17.6	(48.7)	0.0	131.1	19.9	(51.0)	0.0
부여군	16.6	17.6	15.7	50.1	16.6	0.0	33.3	50.1	16.6	0.0	33.3	50.1
서천군	23.9	30.4	23.4	22.3	23.9	7.2	46.6	22.3	23.9	0.0	53.8	22.3
청양군	18.2	28.1	25.3	28.4	18.2	13.3	40.1	28.4	18.2	0.0	53.4	28.4
홍성군	17.5	13.2	19.2	50.1	17.5	0.0	32.4	50.1	17.5	0.0	32.4	50.1
예산군	23.9	30.5	24.8	20.9	23.9	24.9	30.4	20.9	23.9	1.1	54.1	20.9
태안군	27.3	2.9	25.8	44.0	27.3	0.0	28.7	44.0	27.3	0.0	28.7	44.0
당진군	27.4	24.3	48.2	0.0	27.4	9.7	62.9	0.0	27.4	19.9	52.6	0.0

제7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주요 연구결과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충남지역의 노동시장 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충남의 노동시장권을 분석한 결과 16개 시군지역은 10개의 ‘독립 지역노동시장’ + 2개의 ‘통합 노동시장’ + 2개의 ‘타광역권 연계형시장’으로 구분되어진다. 시군 단위가 독립적인 노동시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접 시군과 통합한 지역인 ‘통합 노동시장’은 천안·아산과 논산·계룡시가 있다. 자체적으로는 독립적인 노동시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나 타지역과의 통근강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충남 이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노동시장권 통합과정을 거치지 못한 ‘타광역권 연계형노동시장’은 금산군과 연기군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개 시군은 ‘독립 지역노동시장’으로 보령시·서산시·서천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태안군(이상 노동수급자급률 90% 이상)과 공주시·당진군·부여군(이상 노동수급자급률 80% 이상)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남지역의 노동시장권은 인구학적 특성 및 일자리 특성에 따라 서로 다양한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공간적 의존도는 남성·청년층·고학력층·임금근로자·제조업 종사자·고숙련층 등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충남 노동시장권은 생활권·광역개발계획권·고용센터관할권역 등과 비교했을 때에도 독자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충남의 노동공급 구조를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참가율은 62.4%, 고용률은 60.6%, 실업률은 2.8%로, 전국 평균대비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비교적 건전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전년대비 취업자 수 증감과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금산군의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이 크게 증가해 충남 지역 내에서 노동시장 상황이 가장 좋아진 곳으로 분석되었다. 반대로 부여군의 고용상태가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 계룡시, 당진군 등은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고용률은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같은 변화는 천안시와 논산시로 출퇴근하는 취업자가 인근의 통합노동시장권인 아산시와 계룡시로 유입됨에 따른 현상으로 추정된다. 전년대비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이 모두 감소한 지역은 공주시, 부여군, 예산군 등의 지역이다.

충남지역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9%, 고용률은 34.5%, 실업률은 8.8%로, 전국 평균 대비 다소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 천안시나 아산시 등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지역의 청년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 취업자의 제조업 비중이 높고, 관리직 혹은 사무직의 비중이 낮은 반면, 중 고졸이하 학력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저숙련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학력 청년들이 졸업 후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취업하는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1%, 고용률은 48.8%, 실업률은 2.2%로 전국 대비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농업 종사자 및 제조업/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저숙련 노동시장이라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령 여성의 비중이 높고 육아와 가사를 위해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이탈한 젊은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 기혼여성의 경우 낮은 학력과 노동시장 조기 이탈로 인해 노동시장 재진입시 무급가족종사자나 제조업체의 단순조립조작 등 저숙련 일자리로 복귀 혹은 노동시장 복귀를 포기한 채 지속적인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셋째, 충남의 노동수요 구조를 분석한 결과, 천안·아산·서산·당진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권 벨트와 나머지 시군간에 뚜렷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안·아산은 GRDP, 전체종사자 수, 제조업종사자 수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충남 전체의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반과 비교했을 때 이 지역으로의 경제력 및 노동수요의 집중도가 증가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남의 제조업은 금속기계·자동차·전자·통신 등의 핵심 산업 등에서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들 산업에서의 노동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종사자 수가 1만명 이상이면서 임지계수가 1이상인 특화산업은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유리, 도자기, 시멘트 등),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통신기기 제조업 등 6개 산업임. 그러나, 금속가공제품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등도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력 제조업의 대부분은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북부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충남지역은 전국에서 임금근로자 비중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 취업자의 과반수 가까이를 차지하는 천안·아산의 경우 임금근로자 비중이 광역대도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나머지 시군의 비임금근로자(주로 농림어업종사자) 비중이 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동력 구성상의 지역간 격차는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그대로 반영되어 전체적인 충남지역의 시군간 소득격차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넷째, 충남의 노동력 수급구조와 미스매치 구조를 분석한 결과 미스매치의 정도는 직종간, 임금간, 학력간 순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임금간 불일치가 큰 지역의 대부분은 100만원 미만 일자리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구직자의 대부분은 100~150만원 미만의 일자리를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구인업체는 100만원 미만 또는 150~200만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기인하여 불일치 폭이 커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학력별 미스매치는 구인업체의 대부분이 학력무관의 학력을 원하나 구직자들의 학력이 대부분 전문대졸 이상인데서 기인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조사상으로 박사 이상의 학력에 대하여는 오히려 구인의 비율이 구직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숙련의 정도가 낮은 경비 및 청소관련직에서 불일치의 정도가 지역별로 구인/구직간 크기의 차이

가 반대 방향을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고 관리직이나 사무직에 대한 구직비용이 다소 구인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직종별 미스매치가 큰 지역은 공주, 연기, 청양, 논산/계룡이었으며 임금의 경우는 공주, 연기, 논산/계룡, 예산에서 크게 나타났다. 학력조정 후 학력간 미스매치의 정도가 큰 지역은 공주, 천안/아산, 논산/계룡, 당진군으로 나타났다. 금산군, 당진군, 천안/아산, 서산시, 논산/계룡, 서천군, 청양군, 당진군은 마찰적 실업 비율이 높아 구인/구직의 매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노동 수요 부족 비율이 높은 보령시, 부여군, 홍성군, 태안군의 경우 일자리 창출 및 구인 개척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충남 사업체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것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구인 활동이 여전히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인자들은 특히 공공알선을 이용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하고 사업체의 미충원 사유 또한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의 지원자가 없거나 해당 직종에 취업하길 원하는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란 응답비율이 높아 공공 고용지원서비스가 현재 충남 노동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고 구인 구직간 연계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정책제언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의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충남지역은 행정구역과는 별도의 지역노동시장권이 존재하지만, 다수의 지역들은 시군 행정단위가 그 자체로 독립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통합된 형태의 노동시장도 그 범위가 크지는 않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범위는 인구학적 특성 및 고용형태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고 성별·연령·교육수준·숙련·산업특성·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의 공급 및 수요, 노동력의 매칭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각 정책 집단별로 차별화된 지역고용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우선 고학력 청년층의 타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단순·저숙련 일자리의 양적 팽창에 의존하기 보다는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전반적으로 낮고 상대적 근로조건도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의 결혼·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 고령화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요컨대 고학력·청년층·고숙련 노동력을 유인하는 전략과 여성·고령·저숙련 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충남은 아산·천안을 중심으로 당진·서산으로 연결되는 북부산업 벨트와 연기·공주는 산·계룡·금산으로 이어지는 접경지역에 산업 및 노동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나머지 지역들은 농림어업·고령·저숙련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서 지역내 불균형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에도 도청소재지 이전, 전략산업 육성, 각종 인프라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노력들이 노동력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유인이 될 수도 있다. 즉, 산업정책이나 인프라 확장만으로는 시군간 불균형 발전을 완화시킨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광역지자체가 가능한 지역성장의 과실이 낙후지역으로도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패키지를 구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쇠퇴지역의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소득과 복지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의 모범사례를 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향후 노동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부문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충남도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정책이 필요하다. 충남지역의 인력수요가 타 지역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내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 훈련 정책들이 필요하다. 지역의 대학연구소, 노사단체 등의 주체들이 향후 인력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과 직종의 인력수요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청년층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지역의 대학들, 특히 폴리텍이나 전문대학 등 기능인력의 양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 이들의 욕구와 필요를 잘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배출된 인력들이 원활하게 산업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용지원 서비스의 개선,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력채용 노력과 및 고용조건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고용센터와 같은 고용 서비스 전달기관들의 역할과 기능도 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충남의 경우,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다수의 낙후지역을 소수의 지역고용센터가 관할하고 있어서 고령자장애인가임 여성 등 상대적으로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고용서비스 이용에 더욱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해 고용지원 서비스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첫째, 지역고용센터의 출장센터를 신설하는 방안,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역고용센터를 집중화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러한 접근의 근본적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기초지자체 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이를 지역고용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셋째, 고용노동부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역간 경쟁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는 『부산고용촉진지구』 윈스톱취업지원센터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과제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자료와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충남지역의 하위단위별 노동시장 구조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으며 향후에 별도의 연구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부분 횡단면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시점간 단순 비교에 그치고 있어서 동태적 변화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

역단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노동시장 관련 시계열 자료 및 패널자료 등의 구축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둘째, 분석내용에 있어서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분석, 일자리 창출과 소멸과정에 대한 분석 등도 중요한 주제이나 역시 자료확보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충남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타 광역권과의 비교 분석이 미흡한 점이 있다. 충남지역과 경제적·산업적 의존성이 높은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수도권 남부 지역 등과 연계된 범위에서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정책적 함의가 도출될 수 있다. 넷째, 충남의 노동시장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충남의 역사문화·사회적 특수성 혹은 지역성(locality)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질적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가 충남의 지역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양적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의 관점과 해석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충남지역은 충청 산업클러스터의 형성, 세종시 건설, 도청소재지 이전 등 노동시장의 역동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으므로 본 연구에의 한계와 미비점을 발판으로 향후에도 지역 노동시장 연구가 지속될 경우 과학적인 지역고용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중·성제환(2005), “한국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김을식(2009),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 경기개발연구원.
- 남기곤(1998), “대전·충청지역의 노동시장 구조에 관한 연구”, 지역노동시장연구.
- 남재량(2008),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박시내(2009), “지역별고용조사에 의한 권역설정 연구”, 통계개발원 2009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Ⅲ권.
- 박진희(2005), “지역노동시장은 존재하는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10월호.
- 방하남 외(2005),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방하남(2005),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 외(2008),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고용변동”,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상호(2008), “지역노동시장의 측정과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제8권 제4호.
- 임정덕(1998), “지역노동시장 연구(부산·경남지역)”, 지역노동시장연구.
- 장재호·홍현균(2009), “워크넷자료를 이용한 지역별 구직자 미스매치 분해”, 한국고용정보원
- 전병유 외(2006), “한국의 고용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정인수 외(2003), “지역노동시장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최창곤(2011), “전북 지역노동시장 미스매치의 특징”, 『지역고용연구』, 제3권 제1호, pp.29-46.
- 최창곤·이선경(2010), “노동시장 Mismatch의 구조와 일자리”, 『경제연구』, 제28권 제3호, pp.73-95.
- 한국노동연구원(2007), “지역 고용정책 실태조사”.
- 홍성우·이건철(1998), “지역노동시장 연구(광주·전남지역)”, 지역노동시장연구.
- Ball. “the use and definition of travel to work areas in great britain: Some Problems.” Regional Studies 14 (1980): 125-139.
- Campbell R. McConnell, and Stanley L. Brue(1995), Contemporary Labor Economics, Fourth Edition.
- Coombes M G, Green A E, Openshaw S. "An Efficient Algorithm to Generate official statistical reporting areas: the case of the 1984 travel-to-work areas revision in Britain." Journal of the Operational Research Society 37 (1986) : 943-953.
- Eurostat., "Study On Employment Zones." Eurostat report(E/LOC/20): Luxembourg (1992).
- Laan, van der. and Schalke, Richard. “Reality versus Policy: The Delienation and Testing of Local Labour Market and Spatial Policy Area.” European Planning Studies 9(2) (2001) : 201-221.
- Lever, W. F. "Industry and Labour Markets in Great Britain," in F. E. I. Hamilton and

- G. Linge(eds.), Spatial Analysis, Industry and the Industrial Environment. London: Wiley, 1979.
- Mike Campbell(1996), Local Labour market Management: Definition, concepts and Instrument 28(Oct)
- OECD(1997), Local Management For More Effective Employment Policies, OECD:Paris
- OECD(1998a), Decentralising Employment Policies:New Trend and Challenges, The Venice Conference
- OECD(1998b), Local Management For More Effective Employment Policies.
- OECD(1999), The Local Dimension of Welfare-to-Work.
- OECD(2000), Local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Policy Brief.
- OECD(2001), Local Partnerships for Better Governance, Territorial Economy.
- OECD(2002), Redefining Territories-The Functional Regions.
- R. Jackman and S. Roper. "Structural Unemployment",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9, 1(1987).
- Romer D(2006), Advanced Macroeconomics. 3rd ED, International Edition.
- Smart, M. W. "Labour market areas: Uses and definition." Progress and Planning 2 (1974) 238-353.
- Tolbert, Charles M. and Sizer, Molly. "U.S. Commuting Zones and Labor Market Areas: A 1990 Update", ERS Staff Paper (1996).

충남 사업체고용동향 조사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경제정책과입니다. 저희 충청남도는 충남 소재 기업의 고용 현황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사업체의 구인인원 및 부족인력 현황을 파악하여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충남 인력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구인인원 및 부족인력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있는 인력관리책임자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에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정부 및 충청남도의 고용정책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사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 등)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또한 조사결과는 산업별, 분야별로 취합·분석된 형태로 공개되며 개별기업의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통계법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하는 등 비밀보장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다망하실 줄 아오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다음은 귀사의 사업체 현황에 대한 조사입니다.

1. 회사명	
2. 산업	산업코드(보기카드 참조)
3. 매출액 규모	억 원
4. 수출 규모(수출할 경우만)	억 원

1. 귀사의 사업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단독사업체 ② 본사 ③ 지사·공장 ④ 기타

2. 귀사의 근로자수는 몇 명입니까?

구 분	현 원	
	남자	여자
정 규 직		
비 정 규 직		

※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사의 노동수요 현황에 대한 조사입니다.

1. 귀사의 직업별 현원 및 2011년 하반기까지 채용계획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번호	직업코드 (보기카드 참조)	현 원		부 족 인 원		채 용 계 획 인 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 귀사의 2011년 상반기 직업별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번호	직업분류 (직업코드 참조)	학력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 사유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1순위	2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주 1) ‘구인인원’은 대외적인 구인활동(예: 홈페이지 모집공고, 신문 등에 채용공고를 낸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구인요청, 친지 등에게 소개를 요청한 경우)을 통하여 채용하려고 한 인원으로 합격자를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채용인원이 아닌 최초 모집 공고 당시에 채용하려고 했던 모집인원을 기재합니다.
- 2) ‘채용인원’은 최종적으로 채용하기로 확정했거나 채용한 인원 기재(예시 : 신문에 50명의 신규채용 공고를 내서 응시자 중 20명만 채용하기로 최종 확정된 경우 채용인원에 20명 기재)합니다.

※ 학력과 미충원 사유는 다음 보기카드의 번호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기카드]

학 력	① 학력 무관	② 전문대	③ 대졸 또는 석사	④ 박사 이상
-----	---------	-------	------------	---------

미충원 사유	
① 다른 사업체와의 격심한 인력유치 경쟁 때문	⑥ 사업체가 제시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없기 때문
② 해당 직종에 취업하길 원하는 지원자가 없기 때문	⑦ 해당 직종이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발전 전망이 없기 때문
③ 임금,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	⑧ 근무할 장소로의 통근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이 불편 하는 등 통근이 어렵기 때문
④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무능력(필요직무능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⑨ 특별한 이유 없음
⑤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업무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 다음은 귀사의 구인활동에 대한 조사입니다.

1. 귀사의 구인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래 보기 중 구인을 위하여 활용한 것을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예	아 니 오
①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워크넷(www.work.go.kr)사이트 포함]에 구인요청을 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② 노동부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업알선기관(인터넷 사이트 포함)에 구인요청을 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③ 민간이 운영하는 직업알선기관(인터넷 사이트만 운영하는 경우나 민간직업알선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포함)에 구인요청을 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④ 신문, 잡지, 방송 등 언론기관에 채용공고를 의뢰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⑤ 자사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⑥ 친지, 직원, 지인 등의 소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⑦ 학교에 알선추천을 요청을 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⑧ 스카웃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귀사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주로 활용하는 것 중 3개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하여 생산성을 높임 ② 채용비용이나 광고비용을 증액함 ③ 생산설비 자동화 또는 사무자동화 추진 ④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등 신규로 채용한 인력을 직접 양성함 ⑤ 구인방법이나 채용경로를 변경 ⑥ 외국인력 활용 ⑦ 임금(급여)인상 ⑧ 아무것도 하지 않음 ⑨ 기타()

<부표 1> 충청남도 통근행렬: 전체 취업자

거주지	통근지																			총합		
	경기	충북	대전	기타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경기	0	0	0	0	21,754	836	432	10,029	1,275	1,128	0	0	0	727	721	1,046	187	892	448	154	3,860	43,491
충북	0	0	0	0	3,082	285	0	115	55	302	60	246	5,830	0	0	0	0	163	0	0	16	10,153
대전	0	0	0	0	3,076	5,688	187	129	0	3,799	3,822	10,705	2,666	754	0	0	127	0	969	178	210	32,310
기타	0	0	0	0	1,006	200	1,128	453	379	776	0	77	0	173	1,389	15	0	136	398	1,410	7,541	7,541
천안시	8,181	1,351	414	200	207,626	1,123	0	22,191	649	0	0	0	977	0	0	0	0	636	0	400	243,746	243,746
공주시	380	176	1,494	146	631	54,654	0	114	0	398	47	0	666	406	73	828	47	83	44	0	60,189	60,189
보령시	0	0	0	149	0	0	49,587	193	56	0	0	0	66	67	50	46	372	88	0	111	50,784	50,784
아산시	3,331	301	416	885	10,902	103	0	101,506	0	0	0	0	0	0	0	0	130	199	0	1,020	118,793	118,793
서산시	301	0	166	54	166	0	0	96	76,666	0	0	0	0	0	0	0	0	193	914	966	79,522	79,522
논산시	114	0	1,020	770	0	507	59	0	154	57,620	191	120	0	1,434	0	59	0	0	0	0	62,049	62,049
계룡시	252	198	3,361	233	105	307	18	0	0	1,971	7,776	132	45	209	23	21	0	23	21	0	14,696	14,696
금산군	79	143	985	161	0	0	0	0	0	0	0	29,212	0	0	0	0	0	0	0	0	30,581	30,581
연기군	402	1,622	959	180	1,675	331	0	95	0	47	0	0	32,208	0	0	0	0	0	0	0	37,518	37,518
부여군	143	0	158	635	0	189	193	38	0	252	0	0	0	35,572	276	38	0	0	0	0	37,494	37,494
서천군	0	0	0	659	0	0	325	0	0	34	0	0	0	196	29,246	0	0	0	0	0	30,458	30,458
청양군	72	0	0	322	0	158	119	20	30	0	0	0	0	37	0	17,434	117	99	0	0	18,407	18,407
홍성군	127	0	95	504	245	0	304	0	128	0	0	0	120	0	0	287	39,866	465	50	143	42,335	42,335
예산군	370	0	42	1,457	398	0	0	620	305	0	0	0	0	0	0	139	556	39,337	0	372	43,595	43,595
태안군	0	0	0	584	0	0	0	0	749	0	0	0	0	0	0	0	34	33	36,465	182	38,047	38,047
당진군	400	0	0	0	64	0	0	228	174	0	0	0	0	0	0	0	0	66	121	71,849	72,902	72,902
총합	14,153	3,791	9,110	6,939	250,728	64,381	52,352	135,827	80,620	66,328	11,897	40,493	43,304	39,568	32,104	19,181	42,177	42,774	38,346	80,538	1,074,610	1,074,610

<부표 2> 충청남도 노동수급 자금을 분석 : 전체표본

거주지	통근지																				
	경기	충북	대전	기타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경기	0	0	0	0	50.02	1.92	0.99	23.06	2.93	2.59	0	0	0	1.67	1.66	2.41	0.43	2.05	1.03	0.35	8.87
충북	0	0	0	0	8.68	1.3	0.83	7.38	1.58	1.7	0	0	0	1.68	1.82	3.26	0.98	2.12	1.05	0.4	4.79
	0	0	0	0	30.35	2.81	0	1.13	0.54	2.97	0.6	2.42	57.42	0	0	0	0	1.61	0	0	0.16
대전	0	0	0	0	1.23	0.44	0	0.08	0.07	0.45	0.51	0.61	13.46	0	0	0	0	0.39	0	0	0.02
	0	0	0	0	9.52	17.6	0.58	0.4	0	11.76	11.83	33.13	8.25	2.33	0	0	0.39	0	3	0.55	0.65
기타	0	0	0	0	1.23	8.84	0.36	0.1	0	5.73	32.13	26.44	6.16	1.91	0	0	0.66	0	2.27	0.46	0.26
	0	0	0	0	13.34	2.65	14.95	6.01	5.03	10.29	0	1.03	0	2.29	18.43	0	0.2	1.8	5.28	18.7	0
천안시	3.36	0.55	0.17	0.08	85.18	0.46	0	9.1	0.27	0	0	0	0.4	0	0	0	0	0.26	0	0	0.16
	57.8	35.65	4.54	2.88	82.81	1.74	0	16.34	0.8	0	0	0	2.26	0	0	0	0	1.49	0	0	0.5
공주시	0.63	0.29	2.48	0.24	1.05	90.8	0	0.19	0	0.66	0.08	0	1.11	0.68	0.12	1.38	0.08	0.14	0.07	0	0
	2.69	4.63	16.4	2.11	0.25	84.89	0	0.08	0	0.6	0.4	0	1.54	1.03	0.23	4.32	0.11	0.19	0.11	0	0
보령시	0	0	0	0	0.29	0	0	97.64	0.38	0.11	0	0	0.13	0.13	0.1	0.09	0.73	0.17	0	0.22	0
	0	0	0	0	2.15	0	0	0.14	0.07	0	0	0	0.15	0.17	0.16	0.24	0.88	0.21	0	0.14	0
아산시	2.8	0.25	0.35	4.57	9.18	0.09	0	85.45	0	0	0	0	0	0	0	0	0	0.11	0.17	0	0.86
	23.53	7.94	4.57	12.76	4.35	0.16	0	74.73	0	0	0	0	0	0	0	0	0	0.31	0.47	0	1.27
서산시	0.38	0	0.21	0.07	0.21	0	0	0.12	96.41	0	0	0	0	0	0	0	0	0.24	1.15	1.22	0
	1.83	0	1.82	0.77	0.07	0	0	0.07	95.1	0	0	0	0	0	0	0	0	0.45	2.38	1.2	0
논산시	0.18	0	1.64	1.24	0	0.82	0.1	0	0.25	92.86	0.31	0.19	0.3	2.31	0	0	0.1	0	0	0	0
	0.8	0	11.2	11.1	0	0.79	0.11	0	0.19	86.87	1.6	0.3	0	3.62	0	0	0.31	0	0	0	0
계룡시	1.72	1.35	22.87	1.59	0.71	2.09	0.12	0	0	13.41	52.91	0.9	0.3	1.42	0.16	0.15	0	0.16	0.15	0	0
	1.78	5.22	36.9	3.36	0.04	0.48	0.03	0	0	2.97	65.36	0.33	0.1	0.53	0.07	0.11	0	0.05	0.06	0	0
금산군	0.56	3.77	10.82	2.32	0	0	0	0	0	0	0	95.5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2.14	0	0	0	0	0	0	0	0	0
연기군	1.07	4.32	2.56	0.48	4.46	0.88	0	0.25	0	0.13	0	85.85	0	0	0	0	0	0	0	0	0
	2.84	42.79	10.52	2.59	0.67	0.51	0	0.07	0	0.07	0	74.38	0	0	0	0	0	0	0	0	0
부여군	0.38	0	0.42	1.69	0	0.5	0.51	0.1	0	0.67	0	0	0	94.87	0.73	0.1	0	0	0	0	0
	1.01	0	1.74	9.15	0	0.29	0.37	0.03	0	0.38	0	0	0	89.9	0.86	0.2	0	0	0	0	0
서천군	0	0	0	2.16	0	0	1.07	0	0	0.11	0	0	0	0	96.02	0	0	0	0	0	0
	0	0	0	0	0	0	0.62	0	0	0.05	0	0	0	0.49	9.11	0	0	0	0	0	0
청양군	0.39	0	0	1.75	0	0.86	0.65	0.11	0.16	0	0	0	0	0.2	0	0	94.71	0.63	0.54	0	0
	0.51	0	0	4.64	0	0.25	0.23	0.01	0.04	0	0	0	0	0.09	0	0	90.89	0.28	0.23	0	0
홍성군	0.3	0	0.22	1.19	0.58	0	0.72	0	0.3	0	0	0	0.28	0	0	0	0.68	94.17	1.1	0.12	0.34
	0.9	0	1.04	7.26	0.1	0	0.58	0	0.16	0	0	0	0.28	0	0	0	1.5	94.52	1.09	0.13	0.18
예산군	0.85	0	0.1	3.34	0.91	0	0	1.42	0.7	0	0	0	0	0	0	0	0.32	1.27	90.23	0	0.85
	2.62	0	0.46	21	0.16	0	0	0.46	0.38	0	0	0	0	0	0	0	0.72	1.32	91.96	0	0.46
태안군	0	0	0	1.53	0	0	0	0	1.97	0	0	0	0	0	0	0	0	0.09	0.09	95.84	0.48
	0	0	0	8.42	0	0	0	0	0.93	0	0	0	0	0	0	0	0	0.08	0.08	95.1	0.23
당진군	0.55	0	0	0	0.09	0	0	0.31	0.24	0	0	0	0	0	0	0	0	0	0.09	0.17	98.56
	2.83	0	0	0	0.03	0	0	0.17	0.22	0	0	0	0	0	0	0	0	0	0.15	0.31	89.21

기주지	통근지																			
	경기	충북	대전	기타	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담진군
경기	0	0	0	0	51.38	1.97	1.02	23.07	2.03	2.66	0	0	1.72	1.7	1.66	0.44	2.11	1.06	0.36	8.81
	0	0	0	0	9.61	1.97	1.28	8.39	1.57	2.68	0	0	2.21	3.83	3.75	2.23	3.51	1.82	0.79	6.72
충북	0	0	0	0	30.65	2.9	0	1.17	0.56	3.08	0.62	2.51	57.47	0	0	0	0.88	0	0	0.16
	0	0	0	0	1.33	0.67	0.72	0.1	0.1	0.72	0.56	1.04	17.13	0	0	0	0.34	0	0	0.03
대전	0	0	0	0	9.43	18.72	0	0.42	0	11.91	11.87	31.92	8.77	2.48	0	0	0	3.19	0.58	0.69
	0	0	0	0	1.27	13.41	0	0.11	0	8.62	33.66	41.21	8.1	4.01	0	0	0	3.94	0.91	0.38
기타	0	0	0	0	15.11	3	16.94	6.81	5.7	11.66	0	1.16	0	2.08	20.69	0.23	0	2.04	0	14.59
	0	0	0	0	0.44	0.47	3.35	0.39	0.69	1.85	0	0.33	0	0.73	7.32	0.18	0	1.75	0	0
최안시	3.74	0.54	0.19	0.09	84.1	0.44	0	9.68	0.3	0	0	0	0.45	0	0	0	0	0.29	0	0.18
	58.75	35.58	4.68	4.15	81.34	2.27	0	18.2	1.19	0	0	0	2.97	0	0	0	0	2.59	0	0.72
공주시	0.99	0.46	3.8	0.38	1.64	86	0	0.3	0	0.83	0	1.73	1.06	0.19	2.16	0.12	0.22	0.11	0	0
	2.73	5.24	16.5	3.05	0.28	77.86	0	0.1	0	0.76	0	2.02	2.16	0.39	9.83	0.19	0.34	0.23	0	0
보령시	0	0	0	0	0.46	0	96.92	0.43	0.17	0	0	0	0.2	0.21	0.15	0	0.83	0.27	0	0.34
	0	0	0	0	3.1	0	92.86	0.12	0.1	0	0	0	0.2	0.36	0.27	0	1.06	0.36	0	0.2
아산시	3.17	0.3	0.34	0.64	10.52	0.1	0	83.77	0	0	0	0	0	0	0	0	0.13	0.11	0	0.92
	22.64	8.97	3.79	13.21	4.63	0.24	0	71.7	0	0	0	0	0	0	0	0	0.51	0.44	0	1.65
서산시	0.56	0	0.31	0	0.31	0	0	0.18	95.11	0	0	0	0	0	0	0	0	0.36	1.38	1.8
	2.16	1.87	0	0	0.07	0	0	0.03	93.73	0	0	0	0	0	0	0	0	0.78	3.8	1.74
논산시	0.3	0	2.52	1.91	0	1.03	0.16	0	0.41	89.34	0.51	0.32	0	3.35	0	0.16	0	0	0	0
	0.82	0	10.74	15.01	0	0.91	0.18	0	0.28	80.22	1.78	0	6.72	0	0.7	0	0	0	0	0
계룡시	1.86	1.46	24.53	1.63	0.78	2.12	0.13	0	13.5	50.68	0.75	0.33	1.54	0.17	0.16	0	0.17	0.16	0	0
	1.81	5.9	37.55	4.6	0.05	0.68	0.05	0	4.35	63.99	0.43	0.14	1.11	0.12	0.25	0	0.09	0.11	0	0
금산군	0.55	0	6.56	0.78	0	0	0	0	0	0	0	92.12	0	0	0	0	0	0	0	0
	0.57	0	10.71	2.33	0	0	0	0	0	0	0	56.48	0	0	0	0	0	0	0	0
연기군	1.38	5.51	3.56	0.18	1.23	0	0.35	0	0.18	0	0	81.74	0	0	0	0	0	0	0	0
	2.66	44.3	10.84	1	0.7	0.78	0	0.08	0	0.11	0	66.88	0	0	0	0	0	0	0	0
부여군	0.86	0	0.95	2.56	0	0.93	0.93	0.23	0	1.51	0	0	90.16	1.65	0.23	0	0	0	0	0
	1.03	0	1.79	8.87	0	0.36	0.46	0.03	0	0.6	0	0	79.86	1.47	0.45	0	0	0	0	0
서천군	0	0	0	3.06	0	1.27	0	0	0	0.2	0	1.13	94.33	0	0	0	0	0	0	0
	0	0	0	11.01	0	0.65	0	0	0	0.08	0	0	1.04	86.68	0	0	0	0	0	0
청양군	0.71	0	2.89	0	2.07	1.17	0	0	0.39	0	0	0	0.48	0	90.13	1.31	0.83	0	0	0
	0.39	0	4.59	0	0.37	0.27	0	0	0.05	0	0	0	0.2	0	81.68	0.39	0.26	0	0	0
홍성군	0.49	0	0.37	1.67	0.65	0	1.19	0	0.5	0	0	0	0.47	0	0.99	91.11	1.81	0.2	0.56	0
	0.91	0	1.07	8.92	0.07	0	0.9	0	0.23	0	0	0	0.36	0	3.02	92.13	1.89	0.26	0.26	0
예산군	1.5	0	0.17	2.93	1.61	0	0	2.37	1.1	0	0	0	0	0	0.56	1.79	86.46	0	1.51	0
	2.66	0	0.47	15	0.18	0	0	0.5	0.49	0	0	0	0	0	1.65	1.73	86.55	0	0.67	0
태안군	0	0	1.28	0	0	0	0	0	3.74	0	0	0	0	0	0	0.17	0.17	93.71	0.94	0
	0	0	5.16	0	0	0	0	0	1.33	0	0	0	0	0	0	0.13	0.13	93.55	0.33	0
담진군	0.83	0	0	0	0.13	0	0	0.47	0.25	0	0	0	0	0	0	0	0	0.14	0.14	98.04
	2.87	0	0	0	0.03	0	0	0.2	0.22	0	0	0	0	0	0	0	0	0.27	0.35	85.55

<부표 4> 충청남도 노동수급 자금을 분석 : 남성

거주지	충청남도																				
	태안군	당진군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서천군	부여군	연기군	금산군	계룡시	논산시	서산시	아산시	보령시	공주시	천안시	기타	대전	충북	경기	
경기																					
충북																					
대전																					
기타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기주지	통근지																			
	경기	충북	대전	기타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담진군
경기	0	0	0	0	55.31	3.1	0	25.79	0	2.98	0	0	0	2.67	0	3.44	0	0	3.09	0
	0	0	0	0	10.78	3.81	0	9.21	0	3.79	0	0	4.04	0	11.48	0	0	7.22	0	3.62
충북	0	0	0	0	50.91	6.33	0	2.17	0	0.52	0	1.71	36.09	0	0	0	2.28	0	0	0
	0	0	0	0	2.6	2.04	0	0.2	0	0.17	0	1.04	14.3	0	0	0	1.4	0	0	0
대전	0	0	0	0	8.21	30.15	0	0	0	5.86	8.59	34.77	5.24	0	0	0	0	7.17	0	0
	0	0	0	0	0.72	16.69	0	0	0	3.35	26.37	36.2	3.57	0	0	0	0	7.53	0	0
기타	0	0	0	0	0	0	0	32.46	20.3	10.01	0	1.62	0	0	35.61	0	0	0	0	0
	0	0	0	0	1.12	1.8	1.23	0	0	0	0	0.36	0	0	11.45	0	0	0	0	0
천안시	3.4	0	0.35	0	85.23	0.29	0	10.37	0	0	0	0	0.37	0	0	0	0	0	0	0
	47.54	0	7.67	0	77.29	1.66	0	17.24	0	0	0	0	2.6	0	0	0	0	0	0	0
공주시	0.59	0.41	5.16	0	1.4	83.62	0	0.67	0	0.59	0	3.36	2.74	0	0.73	0.73	0	0	0	0
	1.24	5.81	16.75	0	0.19	71.66	0	0.17	0	0.53	0	3.54	6.35	0	1.69	3.64	0	0	0	0
보령시	0	0	0	0	0	0	97.3	0.74	0	0	0	0	0	0	0	0	0.98	0.98	0	0
	0	0	0	0	0	0	96.86	0.17	0	0	0	0	0	0	0	0	1.43	1.42	0	0
아산시	4.27	0	0.36	0.57	14.61	0.29	0	79.23	0	0	0	0	0	0	0	0	0.36	0	0	0.31
	32.13	0	4.18	17.58	7.13	0.88	0	70.83	0	0	0	0	0	0	0	0	2.11	0	0	0.7
서산시	1.08	0	0.6	0	0	0	0	0.6	93.41	0	0	0	0	0	0	0	0	0	1.28	2.43
	3.58	0	0	0	0.13	0	0	0.24	94.88	0	0	0	0	0	0	0	0	0	3.92	2.38
논산시	1.08	0	2.31	0.8	0	0.67	0	0	1.46	90.97	0	0	2.71	0	0	0	0	0	0	0
	2.36	0	7.87	7.16	0	0.6	0	0	0.98	84.41	0	0	6.6	0	0	0	0	0	0	0
계룡시	1.5	3.08	27.86	1.55	0.8	2.31	0	1.5	0	16.94	42.92	1.55	0	0	0	0	0	1.5	0	0
	1.14	15.89	32.65	4.77	0.04	0.71	0	0	5.41	73.63	0.9	0	1.26	0	0	0	0	0	0	0
금산군	0.96	0	11.02	0	0	0	0	0	0	0	88.03	0	0	0	0	0	0	0	0	0
	0.87	0	15.5	0	0	0	0	0	0	0	61.5	0	0	0	0	0	0	0	0	0
연기군	1.09	6.64	3.57	0	6.25	1.17	0	0	0	0	81.28	0	0	0	0	0	0	0	0	0
	1.87	78.3	9.57	0	0.7	0.83	0	0	0	0	70.7	0	0	0	0	0	0	0	0	0
부여군	0	0	2.03	4.11	0	1.88	0	0	0	3.05	0	0	87.05	1.88	0	0	0	0	0	0
	0	0	2.71	14.48	0	0.66	0	0	0	1.11	0	0	83.26	1.8	0	0	0	0	0	0
서천군	0	0	0	0	5.25	0	3.05	0	0	0	0	0	3.05	88.65	0	0	0	0	0	0
	0	0	0	16.02	0	1.21	0	0	0	0	0	0	2.53	73.58	0	0	0	0	0	0
청양군	1.56	0	6.27	0	6.27	2.43	0	2.94	0	1.38	0	0	0	0	82.48	0	0	2.94	0	0
	0.7	0	11.48	0	11.48	0.45	0	0.7	0	0.19	0	0	0	0	88.41	0	0	1.03	0	0
홍성군	1.21	0	1.22	1.21	0	1.75	0	0	0	0	0	1.9	0	0	1.2	88.39	3.12	0	0	0
	1.58	0	6.53	0.1	0	1.22	0	0	0	0	0	1.25	0	0	3.79	90.66	3.18	0	0	0
예산군	2.04	0	1.71	3.98	0	3.75	0	3.75	0	0	0	0	0	0	1.41	4.52	81.41	0	1.17	0
	2.53	0	8.68	0.32	0	0.55	0	0.55	0	0	0	0	0	0	4.17	4.39	78.57	0	0.43	0
태안군	0	0	2.84	0	0	0	0	0	6.15	0	0	0	0	0	0	0	0	91.01	0	0
	0	0	13.29	0	0	0	0	0	2.16	0	0	0	0	0	0	0	0	96.03	0	0
담진군	1.38	0	0	0	0	0	0	0.57	0	0	0	0	0	0	0	0	0	0.42	0	0
	4.46	0	0	0	0	0	0	0.22	0	0	0	0	0	0	0	0	0	1.06	0	0

<부 표 6> 충청남도 노동수급 자금률 분석 : 고학력층(전문대 이상)

거주지	통근지																				
	경기	충북	대전	기타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경기	0	0	0	0	57.56	2.37	1.67	18.75	1.08	4.35	0	0	2.8	0.37	1.92	0	0.36	0	0.14	8.63	
충북	0	0	0	0	14.2	3.16	2.91	10.27	1.18	6.88	0	0	6.17	1.22	7.61	0	0.9	0	0.44	10.33	
	0	0	0	0	37.09	6.78	0	2.32	1.54	1.81	0	1.14	46.87	0	0	0	2.44	0	0	0	
대전	0	0	0	0	1.25	1.23	0	0.17	0.23	0.39	0	0.5	14.07	0	0	0	0.84	0	0	0	
	0	0	0	0	11.46	27.15	0	0.78	0	11.67	12.87	19.27	8.57	2.86	0	0	0	3.03	1.07	1.27	
기타	0	0	0	0	1.81	23.11	0	0.27	0	11.8	36.27	39.5	12.04	6.04	0	0	0	4.91	2.12	0.97	
	0	0	0	0	10.15	4.69	16.17	10.64	2.24	8.95	0	1.47	0	0	22.07	0	0	2.29	0	21.32	
천안시	5.22	0.55	0.24	0	80.85	0.58	0	11.28	0.65	2.33	0	0.78	0	0	14.35	0	0	0.95	0	4.19	
공주시	59.68	29.14	4.38	0	76.6	2.97	0	23.73	2.72	0	0	0	0	0	0	0	0	0.42	0	0.2	
	1.53	0.27	7.49	0	2.98	77.27	0	0.41	0	0.91	0.29	0	2.03	2.48	0.45	2.84	0.29	0.51	0.27	0	
보령시	2.87	2.31	22.59	0	0.46	65.07	0	0.14	0	0.91	0.8	0	2.82	5.18	1.12	13.24	0.46	0.81	0.52	0	
	0	0	0	0	0	0	89.29	0	0.41	0	0	0	0	0.49	0	0	0.65	0.65	0	0.49	
아산시	4.94	0.79	0.54	0.83	12.03	0.27	0	78.62	0	0.23	0	0	0	0.86	0	0	0.86	0.86	0	0.31	
	21.64	15.86	3.78	29.68	4.36	0.53	0	63.37	0	0	0	0	0	0	0	0	0.34	0.28	0	1.36	
서산시	0.72	0	0.69	0	0.4	0	0	0.4	92.12	0	0	0	0	0	0	0	1.26	1.06	2.4	0	
	1.98	0	3.04	0	0.09	0	0	0.2	92.37	0	0	0	0	0	0	0	0	1.81	1.99	2.87	
논산시	0	0	0	2.4	1.16	0	1.07	0.45	0	87.45	1.46	0	0	5.55	0	0.45	0	0	0	3.17	
	0	0	5.76	14.16	0	0.71	0.4	0	69.57	3.25	0	0	9.23	0	1.69	0	0	0	0	0	
계룡시	2.67	1.99	26.93	1.98	0	1.5	0.22	0	0	16.01	44.4	1.4	0.27	2.1	0	0.27	0	0	0.27	0	
	2.42	8.28	39.14	14.68	0	0.61	0.12	0	7.72	59.68	1.37	0.18	2.11	0	0.61	0	0	0.26	0	0	
금산군	1.51	0	8.21	0.58	0	0	0	0	0	0	0	89.7	0	0	0	0	0	0	0	0	
	0.9	0	7.88	2.83	0	0	0	0	0	0	0	57.85	0	0	0	0	0	0	0	0	
연기군	2.34	8.57	5.66	0.32	5.04	1.59	0	0	0	0	0	0	76.48	0	0	0	0	0	0	0	
	2.63	44.41	10.22	2.92	0.47	0.8	0	0	0	0	0	0	63.7	0	0	0	0	0	0	0	
부여군	1.67	0	1.34	2.72	0	1.25	0	0	0	0.54	0	0	0	92.47	0	0	0	0	0	0	
	1.21	0	1.55	16.08	0	0.4	0	0	0	0.21	0	0	0	73.96	0	0	0	0	0	0	
서천군	0	0	0	0.51	0	0	2.69	0	0	0.64	0	0	0	2.05	94.12	0	0	0	0	0	
	0	0	0	2.54	0	0	0.97	0	0	0.21	0	0	1.4	76.92	0	0	0	0	0	0	
청양군	1.73	0	0	0	0	2.48	2.98	0	0.99	0	0	0	0	0	87.61	2.09	2.12	0	0	0	
	0.6	0	0	0	0	0.38	0.6	0	0.12	0	0	0	0	0	74.72	0.61	0.62	0	0	0	
홍성군	0.73	0	0.46	0	0.73	0	1.51	0	0.87	0	0	0	1.14	0	0	1.94	90.33	1.87	0	0.43	
	0.88	0	0.89	0	0.07	0	1.07	0	0.38	0	0	0	1.02	0	0	5.8	92.44	1.93	0	0.21	
예산군	1.79	0	0.41	1.42	2.81	0	0	2.58	2.56	0	0	0	0	0	0	1.37	2.67	82.67	0	1.73	
	2.09	0	0.77	13.56	0.27	0	0	0.55	1.09	0	0	0	0	0	0	3.95	2.64	82.19	0	0.81	
태안군	0	0	0	0.47	0	0	0	0	3.8	0	0	0	0	0	0	0	0	0	94.86	0.87	
	0	0	0	3.54	0	0	0	0	1.27	0	0	0	0	0	0	0	0	0	90.19	0.32	
당진군	1.58	0	0	0	0	0	0	0.9	0	0	0	0	0	0	0	0	0	0.38	0.4	96.74	
	3.11	0	0	0	0	0	0	0.32	0	0	0	0	0	0	0	0	0	0.64	0.81	76.33	

기주지	통근지																			담진군
	경기	충북	대전	기타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경기	0	0	0	0	50.65	1.81	1.17	25.93	2.31	2.71	0	0	1.96	0.78	1.9	0.51	1.2	1.21	0	
	0	0	0	0	10.73	2.01	1.65	9.62	1.98	3.22	0	0	2.71	1.86	4.74	2.62	2.59	2.61	0	
충북	0	0	0	0	32.06	3.13	0	1.27	0.16	3.32	0.67	1.81	55.59	0	0	0	1.38	0	0	
	0	0	0	0	1.67	0.85	0	0.12	0.13	0.96	0.67	1	18.81	0	0	0	0.73	0	0	
대전	0	0	0	0	11.7	19.74	0	0.49	0	10.87	12.55	28.71	8.23	2.87	0	0.48	0	3.68	0.68	
	0	0	0	0	1.76	15.56	0	0.13	0	9.13	36.64	45.78	8.06	4.87	0	1.77	0	5.69	1.2	
기타	0	0	0	0	15.52	3.09	15.84	7	5.85	5.42	0	1.2	0	1.36	21.26	0.24	2.09	6.15	15	
	0	0	0	0	0.57	0.6	3.92	0.45	0.88	1.12	0	0.47	0	0.57	9.27	0.22	0	0.79	2.7	
천안시	4.09	0.81	0.25	0	82.17	0.35	0	10.74	0.39	0	0	0	0.58	0	0	0	0	0.38	0	
	56.36	40.47	5.4	0	78.4	1.76	0	17.92	1.5	0	0	0	3.63	0	0	0	0	3.71	1	
공주시	0.98	0.43	4.69	0	1.19	84.38	0	0.38	0	1.02	0	0	1.43	1.35	0.24	2.55	0.16	0.28	0.15	
	2.42	3.86	18.44	3.42	0.31	76.2	0	0.11	0	0.98	0	0	1.6	2.63	0.49	10.76	0.27	0.48	0.3	
보령시	0	0	0	0	0.43	0	96.24	0.27	0.22	0	0	0	0.26	0.27	0	0.18	1.49	0.35	0	
	0	0	0	6.48	0	6.48	0	91.59	0.07	0.13	0	0	0.24	0.44	0	0.64	2.17	0.51	0	
아산시	3.59	0.23	0.49	0	10.89	0.12	0	83.69	0	0	0	0	0	0	0	0	0	0.13	0	
	24.95	5.85	5.43	0	5.24	0.31	0	70.43	0	0	0	0	0	0	0	0	0	0.63	0	
서산시	0.56	0	0.39	0	0.39	0	0	0.23	93.85	0	0	0	0	0	0	0	0	0.45	1.86	
	1.95	0	2.16	0	0.09	0	0	0.1	92.2	0	0	0	0	0	0	0	0	1.12	5.36	
논산시	0.41	0	2.77	2.12	0	0.71	0.21	0	0.3	88.28	0.68	0.43	0	3.86	0	0.21	0	0	0	
	0.94	0	10.09	36.12	0	0.6	0.23	0	0.2	78.64	2.12	0.73	0	6.95	0	0.83	0	0	0	
계룡시	2.31	1.81	23.22	1.66	0.58	1.72	0.16	0	0	15.24	49.9	0.68	0	1.91	0.21	0.2	0	0.21	0.2	
	2.08	5.93	33.16	11.08	0.04	0.57	0.07	0	0	5.32	60.57	0.45	0	1.35	0.16	0.3	0	0.14	0.15	
금산군	0.83	0.22	9.22	0.23	0	0	0	0	0	0	0	89.5	0	0	0	0	0	0	0	
	0.65	0.64	11.44	1.32	0	0	0	0	0	0	0	51.57	0	0	0	0	0	0	0	
연기군	1.84	6.63	3.91	0	6.81	0.87	0	0.44	0	0	0	0	79.51	0	0	0	0	0	0	
	3.32	43.27	11.12	0	0.85	0.57	0	0.09	0	0	0	0	64.5	0	0	0	0	0	0	
부여군	0.29	0	0.9	1.79	0	1.41	0.9	0.28	0	1.2	0	0	92.37	0.58	0.28	0	0	0	0	
	0.32	0	1.57	14.71	0	0.57	0.46	0.04	0	0.51	0	0	80.12	0.53	0.53	0	0	0	0	
서천군	0	0	0	2.92	0	0	1.64	0	0	0.25	0	0	1.14	94.05	0	0	0	0	0	
	0	0	0	23.93	0	0	0.84	0	0	0.11	0	0	0.99	84.81	0	0	0	0	0	
청양군	0.9	0	0	0	0	2.25	1.97	0.32	0.49	0	0	0	0	0.61	0	90.76	1.65	1.05	0	
	0.45	0	0	0	0	0.41	0.46	0.02	0.07	0	0	0	0.24	0	0	76.84	0.58	0.37	0	
홍성군	0.73	0.73	0.28	0.28	1.41	0	1.19	0	0.53	0	0	0	0.69	0	0	1.47	90.13	2.18	0.29	
	1.05	0.63	2.95	0	0.79	0	0.79	0	0.21	0	0	0	0.45	0	0	3.55	91.22	2.2	0.34	
예산군	1.64	0	0.26	0	2.15	0	0	3.79	1.87	0	0	0	0	0	0	0.85	2.34	85.48	0	
	2.21	0	0.54	0	0.2	0	0	0.62	0.71	0	0	0	0	0	0	1.94	2.23	81.41	0	
태안군	0	0	0	0	0	0	0	0	5.27	0	0	0	0	0	0	0	0.24	0	93.47	
	0	0	0	0	0	0	0	0	1.73	0	0	0	0	0	0	0	0.2	0.36	89.93	
담진군	1.18	0	0	0	0	0	0	0.67	0.35	0	0	0	0	0	0	0	0	0.19	0	
	3.3	0	0	0	0	0	0	0.23	0.28	0	0	0	0	0	0	0	0	0.38	83.4	

자사
크고
영국
제
장관
파블로프
자
크고
수
내
너
그
꽃
차
△
○
피
파
▽

구분	단위별 예산액(백만원)																		
	총계	대전	기타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거주지																			
경기	0	0	0	0	50.2	1.3	0	33.75	0.48	3.41	0	0	0.81	0	2.52	0	2.27	0	5.25
충북	0	0	0	0	16.77	3.69	0	12.09	0.72	9.04	0	0	1.46	0	9.91	0	11.24	0	7.11
	0	0	0	0	25.38	4.86	0	0.83	1.1	1.08	0	3.33	63.41	0	0	0	0	0	0
대전	0	0	0	0	2.12	3.46	0	0.07	0.41	0.72	0	1.85	28.57	0	0	0	0	0	0
	0	0	0	0	7.76	2.49	0	0	17.4	2.13	61.95	2.26	0	0	0	0	6.01	0	0
기타	0	0	0	0	1.02	2.79	0	0	0	18.15	64.68	53.92	1.6	0	0	0	11.71	0	0
	0	0	0	0	0	0	0	24.43	0	0	0	1.27	4.61	37.17	0	0	0	0	32.52
천안시	5.37	1	0.29	0	69.8	0.6	0	21.31	0	0	0	0.17	1.64	8.58	0	0	0	0	0.33
	63.2	46.37	25.11	0	72.55	5.33	0	23.75	0	0	0	0	7.3	0	0	0	0	0	1.37
공주시	0.74	1.27	0.74	0	0.74	86.45	0	0.7	0	2.69	0	0	1.01	1.1	2.75	0	1.8	0	0
	0.95	6.42	7.11	0	0.08	83.04	0	0.08	0	2.41	0	1.09	2.07	1.46	11.03	0	0	0	0
보령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아산시	3.65	0	0	0	9.66	0	0	85.59	0	0	0	0	0	0	0	0	0.32	0	0.77
	28.43	0	0	0	6.64	0	0	63.04	0	0	0	0	0	0	0	0	3.19	0	2.15
서산시	0.5	0	0	0	0	0	0	0.75	96.44	0	0	0	0	0	0	0	0	0	2.3
	1.24	0	0	0	0	0	0	0.17	93.9	0	0	0	0	0	0	0	0	0	2.02
논산시	0	0	0	0	4.48	0	0	0	1.47	83.81	1.05	0	9.19	16.13	0	0	0	0	0
	0	0	0	0	58.34	0	0	0	0.64	64.5	0.67	0	0	0	0	0	0	0	0
계룡시	1.91	5.08	23.77	0	4.42	0	0	0	0	41.93	9.82	0	0	5.05	0	0	2.51	0	0
	0.34	3.55	31.43	0	0.73	0	0	0	5.19	35.32	0	0	1.43	0	0	0	0.58	0	0
금산군	1.04	0	1.71	0	0.75	0	0	0	0	0	96.5	0	0	0	0	0	0	0	0
	0.8	0	9.82	0	6.84	0	0	0	0	0	43.4	0	0	0	0	0	0	0	0
연기군	0	7.35	2.36	0	4.6	0.6	0	1.21	0	0	0	83.88	0	0	0	0	0	0	0
	0	43.66	26.54	0	0.61	0.68	0	0.17	0	0	0	59.98	0	0	0	0	0	0	0
부여군	1.34	0	0	0	2.97	0	0	3.5	0	0	0	0	88.76	3.43	0	0	0	0	0
	0.74	0	0	0	19.41	0	0	0	0	0	0	0	78.14	1.96	0	0	0	0	0
서천군	0	0	0	0	0.68	0	0	0.8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14	0	0	0.77	0	0	0	0	98.49	78.1	0	0	0	0	0
청양군	0	0	0	0	0	0	0	0	0	0	0	0	1.27	0	91.67	1.35	2.22	0	0
	0	0	0	0	0	0.28	0	0.78	0	0	0	0	0.59	0	83.9	0.5	0.85	0	0
홍성군	1.19	0	0	0	2.77	0	0	1.19	0	0	0	0	0	0	1.99	89.09	1.42	0	2.33
	0.97	0	0	0	0.2	0	0	1.16	0	0	0	0	0	0	5.07	92.36	1.5	0	0.68
예산군	2.41	0	0	0	0	0	0	9.5	2.52	0	0	0	0	0	4.52	4.52	81.04	0	0
	1.65	0	0	0	0	0	0	0.61	0.68	0	0	0	0	0	3.95	3.95	72.48	0	0
태안군	0	0	0	0	0	0	0	7.69	0	0	0	0	0	0	0	0	0	90.28	2.03
	0	0	0	0	0	0	0	0.97	0	0	0	0	0	0	0	0	0.23	100	0
당진군	0.71	0	0	0	0	0	0	0	0.97	0	0	0	0	0	0	0	0.53	0	97.8
	1.7	0	0	0	0	0	0	0	0.92	0	0	0	0	0	0	0	1.65	0	83.8

[illegible]

<부표 10> 주요고용지표(전국 vs 충남) : 2000년 ~ 2010년

(단위 : 천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	15세이상인구	36,186	36,579	36,963	37,340	37,717	38,300	38,762	39,170	39,598	40,092	40,590
	경제활동인구	22,134	22,471	22,921	22,957	23,417	23,743	23,978	24,216	24,347	24,394	24,748
	취업자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실업자	979	899	752	818	860	887	827	783	769	889	920
	비경제활동인구	14,052	14,108	14,042	14,383	14,300	14,557	14,784	14,954	15,251	15,698	15,841
	경제활동참가율	61.2	61.4	62.0	61.5	62.1	62.0	61.9	61.8	61.5	60.8	61.0
	실업률	4.4	4.0	3.3	3.6	3.7	3.7	3.5	3.2	3.2	3.6	3.7
충남	고용률	58.5	59.0	60.0	59.3	59.8	59.7	59.7	59.8	59.5	58.6	58.7
	15세이상인구	1,459	1,460	1,459	1,457	1,458	1,485	1,517	1,547	1,564	1,588	1,613
	경제활동인구	917	922	933	929	942	956	991	1,021	996	991	1,003
	취업자	891	895	908	902	921	931	967	998	973	961	974
	실업자	26	27	25	27	21	25	24	23	24	29	29
	비경제활동인구	542	538	526	528	516	529	526	526	568	597	610
	경제활동참가율	62.9	63.2	63.9	63.7	64.6	64.4	65.3	66.0	63.7	62.4	62.2
	실업률	2.8	2.9	2.7	2.9	2.3	2.6	2.4	2.2	2.4	3.0	2.9
	고용률	61.1	61.3	62.2	61.9	63.1	62.7	63.8	64.5	62.2	60.5	60.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11> 충남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 2008년 ~ 2010년

(단위 : 명, %)

	2008				2009				2010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실업자수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실업자수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실업자수
충남 전체	1,569,741	990,420	965,521	24,899	1,595,417	988,106	962,743	25,363	1,617,967	1,009,374	981,028	28,346
천안·아산	585,151	364,829	353,239	11,590	601,462	367,040	354,100	12,940	618,874	376,613	362,527	14,086
천안시	404,046	249,316	241,814	7,502	410,316	251,987	242,746	9,241	419,660	253,620	243,740	9,880
아산시	181,105	115,513	111,425	4,088	191,146	115,053	111,354	3,699	199,215	122,993	118,787	4,206
공주시	102,713	62,123	60,289	1,834	102,844	63,062	61,855	1,207	102,724	61,535	60,184	1,351
보령시	83,242	513,350	50,229	1,121	83,533	50,852	49,844	1,008	84,118	51,561	50,779	782
서산시	119,464	76,331	74,288	2,043	122,504	77,769	76,595	1,173	123,995	81,762	79,515	2,247
논산·계룡	130,757	79,696	77,997	1,699	132,144	78,128	76,005	2,123	132,931	78,185	76,736	1,449
논산시	103,898	66,394	65,123	1,271	103,795	63,820	62,218	1,602	103,891	62,940	62,043	897
계룡시	26,859	13,302	12,874	428	28,349	14,308	13,787	521	29,040	15,245	14,692	553
금산군	45,826	28,118	27,799	319	46,150	27,571	27,381	190	45,778	31,082	30,575	506
연기군	63,263	35,239	34,149	1,090	63,443	37,089	36,175	914	64,941	38,790	37,513	1,277
부여군	61,887	40,847	40,543	304	61,720	39,828	39,510	318	61,169	38,694	37,489	1,206
서천군	48,828	31,837	31,396	441	48,976	3,025	29,991	259	49,001	30,936	30,453	483
청양군	26,876	19,524	19,289	235	26,939	18,122	17,888	234	26,688	18,587	18,401	186
홍성군	69,953	43,828	42,402	1,426	70,487	44,098	42,672	1,426	70,174	43,516	42,331	1,185
예산군	70,665	45,146	44,175	971	70,427	45,658	45,028	630	70,235	44,736	43,590	1,146
태안군	53,606	37,998	37,437	561	53,830	38,234	36,875	1,359	53,593	38,899	38,042	857
당진군	107,510	73,554	72,289	1,265	110,958	70,405	68,823	1,582	113,746	74,480	72,894	1,586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부표 12> 충남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 2008년 ~ 2010년

(단위 : 명, %)

	2008				2009				2010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충남 전체	63.1	61.5	2.5	61.9	60.3	2.6	62.4	60.3	2.8	62.4	60.3	2.8
천안·아산	62.4	60.4	3.2	61.0	58.9	3.5	60.9	58.6	3.7	60.9	58.6	3.7
천안시	61.7	59.9	3.0	61.4	59.2	3.7	60.4	58.1	3.9	60.4	58.1	3.9
아산시	63.8	61.5	3.5	60.2	58.3	3.0	61.7	59.6	3.4	61.7	59.6	3.4
공주시	60.5	58.7	3.0	61.3	60.1	1.9	59.9	58.6	2.2	59.9	58.6	2.2
보령시	61.7	60.3	2.2	60.9	59.7	2.0	61.3	60.4	1.5	61.3	60.4	1.5
서산시	63.9	62.2	2.7	63.5	62.5	1.5	65.9	64.1	2.8	65.9	64.1	2.8
논산·계룡	61.0	59.7	2.1	59.1	57.5	2.7	58.8	57.7	1.9	58.8	57.7	1.9
논산시	63.9	62.7	1.9	61.5	59.9	2.5	60.6	59.7	1.4	60.6	59.7	1.4
계룡시	49.5	47.9	3.2	50.5	48.6	3.6	52.5	50.6	3.6	52.5	50.6	3.6
금산군	61.4	60.7	1.1	59.7	59.3	0.7	67.9	66.8	1.6	67.9	66.8	1.6
연기군	55.7	54.0	3.1	58.5	57.0	2.5	59.7	57.8	3.3	59.7	57.8	3.3
부여군	66.0	65.5	0.7	64.5	64.0	0.8	63.3	61.3	3.1	63.3	61.3	3.1
서천군	65.2	64.3	1.4	61.8	61.2	0.8	63.1	62.2	1.6	63.1	62.2	1.6
청양군	72.6	71.8	1.2	67.3	66.4	1.3	69.7	69.0	1.0	69.7	69.0	1.0
홍성군	62.7	60.6	3.3	62.7	60.5	3.2	62.0	60.3	2.7	62.0	60.3	2.7
예산군	63.9	62.5	2.2	64.8	63.9	1.4	63.7	62.1	2.6	63.7	62.1	2.6
태안군	70.9	69.8	1.5	71.0	68.5	3.6	72.6	71.0	2.2	72.6	71.0	2.2
당진군	68.4	67.2	1.7	63.5	62.0	2.3	65.5	64.1	2.1	65.5	64.1	2.1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2009년			2010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건설	서비스업 전체	도소매 음식숙박 유통	출판금융부 동산	사업시설 관리공공 교육보건	예술기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건설	서비스업 전체	도소매 음식숙박 유통	출판금융부 동산	사업시설 관리공공 교육보건	예술기타	
전국	2,066,266	3,802,931	1,844,522	14,905,313	6,231,311	207,749	52,507	163,010	1,505,207	2,012,177	3,902,504	1,842,674	14,958,958	6,175,893	2,692,139	4,572,473	1,518,453
충남전체	255,595	160,027	68,566	473,471	207,749				50,205	256,430	173,165	64,545	482,012	207,383	56,806	166,336	51,487
천안아산	33,965	8,419	28,037	201,141	91,209	20,826	69,720	19,386	19,386	35,806	101,944	23,639	200,053	88,971	24,811	66,953	19,318
천안시	18,788	56,284	19,654	146,589	67,002	14,809	52,018	12,760	12,760	19,763	61,429	15,498	146,850	64,909	18,724	51,206	12,011
아산시	15,197	33,135	8,383	54,552	24,207	6,017	17,702	6,626	6,626	16,043	40,515	8,141	53,202	24,062	6,086	15,747	7,307
공주시	19,013	7,119	4,356	30,831	11,670	3,310	12,402	3,449	3,449	19,971	6,491	3,972	29,703	10,161	3,290	12,750	3,501
보령시	18,585	4,373	5,174	21,137	8,561	3,154	6,923	2,499	2,499	17,366	3,931	5,257	24,182	9,843	2,379	8,848	3,113
서산시	22,820	10,918	6,480	36,213	16,885	3,786	12,631	2,911	2,911	23,036	12,665	6,209	37,550	16,161	3,791	13,877	3,721
논산계룡	24,444	7,005	4,546	39,751	16,083	3,919	14,722	5,027	5,027	22,903	6,638	4,097	43,070	17,429	4,839	15,732	5,070
논산시	23,952	5,991	3,712	28,342	12,607	2,348	9,317	4,070	4,070	22,276	5,736	3,214	30,818	13,335	3,461	10,171	3,851
계룡시	492	1,014	834	11,409	3,476	1,571	5,405	957	957	627	901	883	12,252	4,094	1,379	5,561	1,219
금산군	13,006	3,552	1,138	9,659	4,540	1,144	2,863	1,112	15,158	3,964	3,964	748	10,623	5,652	1,127	2,880	964
영기군	8,625	8,070	2,504	16,815	6,663	2,654	5,500	1,998	1,998	9,257	7,801	3,233	17,043	7,771	1,714	5,539	2,018
부여군	21,190	3,273	2,490	12,194	4,562	1,107	4,696	1,829	19,440	2,838	2,838	2,103	12,714	4,914	854	5,178	1,768
서천군	11,709	3,648	1,449	12,889	4,585	1,239	5,223	1,842	11,295	3,989	1,917	13,027	4,926	1,337	5,086	1,678	
청양군	10,014	1,209	660	5,957	2,134	935	2,519	369	10,225	1,500	1,500	586	5,769	2,185	684	2,469	430
홍성군	15,638	4,367	2,242	20,079	9,953	2,666	5,181	2,279	15,319	4,177	2,246	20,170	9,505	2,573	5,945	2,146	
예산군	17,808	4,447	1,770	20,437	9,016	2,762	6,366	2,293	16,704	3,565	1,869	20,039	8,381	2,309	6,929	2,420	
태안군	16,579	935	2,451	16,854	7,447	1,408	6,635	1,364	17,457	1,303	2,752	15,947	6,652	1,837	5,839	1,618	
당진군	22,199	11,692	5,269	29,514	14,441	3,597	7,629	3,847	22,493	12,360	5,918	32,122	14,830	5,260	8,310	3,722	

<부표 14> 충남 시군별 산업별 취업자 비중 : 2009년 ~ 2010년

(단위 : 명)

	2009년				2010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건설	서비스업 전체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	출판금융부 동산	사업시설 관리공공 교육보건	예술기타
전국	9.1	16.8	8.2	66.0	27.6	11.6	20.1	6.7
충남전체	26.7	16.7	7.2	49.4	21.7	5.5	17.0	5.2
천안아산	9.6	25.4	8.0	57.1	25.9	5.9	19.8	5.5
천안시	7.8	23.3	8.2	60.8	27.8	6.1	21.6	5.3
아산시	13.7	29.8	7.5	49.0	21.8	5.4	15.9	6.0
공주시	31.0	11.6	7.1	50.3	19.0	5.4	20.2	5.6
보령시	37.7	8.9	10.5	42.9	17.4	6.4	14.1	5.1
서산시	32.3	9.3	6.0	52.4	21.2	5.2	19.4	6.6
논산계룡	29.9	14.3	8.5	47.4	22.1	5.0	16.5	3.8
논산시	38.6	9.7	6.0	45.7	20.3	3.8	15.0	6.6
계룡시	3.6	7.4	6.1	83.0	25.3	11.4	39.3	7.0
금산군	47.6	13.0	4.2	35.3	16.6	4.2	10.5	4.1
연기군	24.0	22.4	7.0	46.7	18.5	7.4	15.3	5.6
부여군	54.1	8.4	6.4	31.2	11.7	2.8	12.0	4.7
서천군	39.4	12.3	4.9	43.4	15.4	4.2	17.6	6.2
청양군	56.1	6.8	3.7	33.4	12.0	5.2	14.1	2.1
홍성군	37.0	10.3	5.3	47.4	23.5	6.3	12.2	5.4
예산군	40.1	10.0	4.0	46.0	20.3	6.2	14.3	5.2
태안군	45.0	2.5	6.7	45.8	20.2	3.8	18.0	3.7
당진군	32.3	17.0	7.7	43.0	21.0	5.2	11.1	5.6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부표 15> 시도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자 : 2010년

(단위 : 명, %)

	생산가능인구수(연령별 비중)				경제활동참가자수(경제활동참가율)						
	전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전국	40,679,728	9,679,992 23.8	8,083,714 19.9	8,419,147 20.7	6,827,852 16.8	7,669,023 18.9	3858009 39.86	5784455 71.56	6511035 77.34	4721165 69.15	2684945 35.01
서울특별시	8,394,279	2,158,653 25.7	1,729,218 20.6	1,710,802 20.4	1,385,349 16.5	1,410,258 16.8	960,107 44.5	1,269,593 73.4	1,302,963 76.2	931,069 67.2	384,075 27.2
부산광역시	2,899,967	650,726 22.4	519,273 17.9	594,693 20.5	543,006 18.7	592,268 20.4	230,310 35.4	349,955 67.4	442,902 74.5	340,629 62.7	143,212 24.2
대구광역시	2,052,463	485,602 23.7	399,411 19.5	440,665 21.5	353,674 17.2	373,111 18.2	184,952 38.1	291,647 73.0	347,341 78.8	236,358 66.8	102,677 27.5
인천광역시	2,229,897	556,484 25.0	468,609 21.0	482,319 21.6	374,055 16.8	348,431 15.6	242,236 43.5	345,739 73.8	377,326 78.2	258,342 69.1	110,174 31.6
광주광역시	1,169,578	311,909 26.7	246,727 21.1	241,159 20.6	180,310 15.4	189,473 16.2	125,220 40.2	175,158 71.0	189,710 78.7	122,914 68.2	60,169 31.8
대전광역시	1,234,318	320,256 26.0	259,440 21.0	259,459 21.0	199,930 16.2	195,232 15.8	123,769 38.7	190,110 73.3	201,248 77.6	139,068 69.6	58,357 29.9
울산광역시	916,061	225,616 24.6	196,636 21.5	207,844 22.7	158,214 17.3	127,751 14.0	91,480 40.6	139,162 70.8	157,345 75.7	106,074 67.0	44,910 35.2

(계 속)

경기도	9,660,044	2,414,102	2,155,968	2,078,656	1,530,276	1,481,042	999,242	1,500,589	1,579,885	1,027,645	415,639
		25.0	22.3	21.5	15.8	15.3	41.4	69.6	76.0	67.2	28.1
강원도	1,191,400	242,762	196,753	240,632	221,580	289,674	80,034	143,468	188,743	154,828	110,383
		20.4	16.5	20.2	18.6	24.3	33.0	72.9	78.4	69.9	38.1
충청북도	1,238,369	281,203	225,127	250,250	212,325	269,464	107,095	164,697	201,088	155,885	113,264
		22.7	18.2	20.2	17.2	21.8	38.1	73.2	80.4	73.4	42.0
충청남도	1,617,967	350,461	289,116	311,597	268,846	397,948	132,705	209,647	253,238	211,023	202,760
		21.7	17.9	19.3	16.6	24.6	37.9	72.5	81.3	78.5	51.0
전라북도	1,428,661	298,996	234,339	277,441	246,121	371,765	92,923	166,811	223,866	178,857	158,543
		20.9	16.4	19.4	17.2	26.0	31.1	71.2	80.7	72.7	42.7
전라남도	1,425,753	249,422	210,632	270,777	253,350	441,572	80,493	154,719	218,047	194,639	237,710
		17.5	14.8	19.0	17.8	31.0	32.3	73.5	80.5	76.8	53.8
경상북도	2,180,823	457,403	367,179	421,720	382,024	552,497	164,970	263,787	333,185	290,463	276,655
		21.0	16.8	19.3	17.5	25.3	36.1	71.8	79.0	76.0	50.1
경상남도	2,601,658	574,487	501,401	540,058	447,881	537,832	202,795	351,944	416,714	317,301	220,871
		22.1	19.3	20.8	17.2	20.7	35.3	70.2	77.2	70.9	41.1
제주도	438,488	101,911	83,885	91,076	70,911	90,705	39,679	67,429	77,435	56,070	45,546
		23.2	19.1	20.8	16.2	20.7	38.9	80.4	85.0	79.1	50.2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부표 16> 시도 연령별 취업자, 실업자 : 2010년

(단위 : 명, %)

	취업자수(고용률)					실업자수 (실업률)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전국	3,585,076 37.0	5,581,737 69.1	6,363,579 75.6	4,611,900 67.6	2,632,402 34.3	272,934 7.1	202,718 3.5	147,456 2.3	109,265 2.3	52,543 2.0
서울특별시	884,919 41.0	1,210,136 70.0	1,268,090 74.1	904,119 65.3	372,469 26.4	75,188 7.8	59,457 4.7	34,873 2.7	26,949 2.9	11,606 3.0
부산광역시	213,879 32.9	336,480 64.8	432,001 72.6	331,449 61.0	139,135 23.5	16,431 7.1	13,475 3.9	10,901 2.5	9,180 2.7	4,077 2.9
대구광역시	171,355 35.3	279,295 69.9	335,423 76.1	228,903 64.7	97,975 26.3	13,597 7.4	12,352 4.2	11,918 3.4	7,455 3.2	4,702 4.6
인천광역시	225,582 40.5	329,923 70.4	364,888 75.7	243,826 65.2	105,071 30.2	16,654 6.9	15,816 4.6	12,438 3.3	14,517 5.6	5,103 4.6
광주광역시	114,893 36.8	169,353 68.6	186,456 77.3	121,250 67.3	58,617 30.9	10,327 8.3	5,805 3.3	3,253 1.7	1,663 1.4	1,552 2.6
대전광역시	114,573 35.8	184,088 71.0	197,296 76.0	138,047 69.1	57,470 29.4	9,196 7.4	6,022 3.2	3,952 2.0	1,021 0.7	886 1.5
울산광역시	86,159 38.2	133,145 67.7	154,158 74.2	104,484 66.0	43,083 33.7	5,321 5.8	6,017 4.3	3,187 2.0	1,590 1.5	1,827 4.1

(계 속)

경기도	940,079	1,458,248	1,548,199	1,005,424	404,494	59,163	42,342	31,686	22,220	11,145
	38.9	67.6	74.5	65.7	27.3	5.9	2.8	2.0	2.2	2.7
강원도	73,683	139,729	185,086	152,050	108,547	6,351	3,739	3,657	2,778	1,837
	30.4	71.0	76.9	68.6	37.5	7.9	2.6	1.9	1.8	1.7
충청북도	100,972	160,109	197,639	152,763	112,186	6,123	4,587	3,449	3,122	1,078
	35.9	71.1	79.0	72.0	41.6	5.7	2.8	1.7	2.0	1.0
충청남도	121,015	204,284	246,949	207,547	201,233	11,690	5,364	6,289	3,477	1,527
	34.5	70.7	79.3	77.2	50.6	8.8	2.6	2.5	1.7	0.8
전라북도	84,924	160,865	219,889	176,519	156,839	7,999	5,946	3,977	2,338	1,705
	28.4	68.7	79.3	71.7	42.2	8.6	3.6	1.8	1.3	1.1
전라남도	73,538	150,180	214,767	192,389	236,540	6,955	4,539	3,281	2,250	1,170
	29.5	71.3	79.3	75.9	53.6	8.6	2.9	1.5	1.2	0.5
경상북도	152,992	254,586	328,269	286,777	275,595	11,978	9,201	4,916	3,687	1,060
	33.5	69.3	77.8	75.1	49.9	7.3	3.5	1.5	1.3	0.4
경상남도	188,227	345,106	408,503	311,182	218,048	14,569	6,839	8,212	6,119	2,823
	32.8	68.8	75.6	69.5	40.5	7.2	1.9	2.0	1.9	1.3
제주도	38,288	66,210	75,967	55,169	45,099	1,391	1,219	1,468	901	447
	37.6	78.9	83.4	77.8	49.7	3.5	1.8	1.9	1.6	1.0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부표 17> 시군별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자 : 2010년

(단위 : 명, %)

	생산가능인구(연령별 비중)						경제활동참가자수(경제활동참가율)					
	전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충남전체	1,617,967	350,461	289,116	311,597	268,846	397,948	132,705	209,647	253,238	211,023	202,760	
		21.7	17.9	19.3	16.6	24.6	37.9	72.5	81.3	78.5	51.0	
		162,922	140,557	132,733	87,541	95,122	64,700	102,028	105,736	65,878	38,271	
천안아산	618,875	26.3	22.7	21.5	14.2	15.4	39.7	72.6	79.7	75.3	40.2	
		112,194	93,686	94,637	59,930	59,213	42,619	66,682	74,962	45,873	23,485	
		26.7	22.3	22.6	14.3	14.1	38.0	71.2	79.2	76.5	39.7	
아산시	199,215	50,727	46,871	38,095	27,611	35,910	22,081	35,346	30,775	20,005	14,786	
		25.5	23.5	19.1	13.9	18.0	43.5	75.4	80.8	72.5	41.2	
		21,869	14,369	18,933	18,884	28,669	6,583	9,902	16,018	14,859	14,173	
공주시	102,724	21.3	14.0	18.4	18.4	27.9	30.1	68.9	84.6	78.7	49.4	
		14,328	12,801	15,545	16,109	25,335	5,696	9,046	12,207	12,550	12,063	
		17.0	15.2	18.5	19.2	30.1	39.8	70.7	78.5	77.9	47.6	
보령시	84,118	26,304	23,393	24,741	19,804	29,752	10,126	16,484	19,842	16,575	18,736	
		21.2	18.9	20.0	16.0	24.0	38.5	70.5	80.2	83.7	63.0	
		27,921	20,539	25,088	23,966	35,417	8,513	15,114	20,012	17,765	16,781	
논산계룡	132,931	21.0	15.5	18.9	18.0	26.6	30.5	73.6	79.8	74.1	47.4	
		20,260	14,361	18,185	19,649	31,437	6,330	10,812	14,940	15,314	15,544	
		19.5	13.8	17.5	18.9	30.3	31.2	75.3	82.2	77.9	49.4	
논산시	103,891	7,661	6,179	6,903	4,317	3,981	2,183	4,301	5,072	2,452	1,238	
		26.4	21.3	23.8	14.9	13.7	28.5	69.6	73.5	56.8	31.1	
		29,040										

(계 속)

금산군	45,778	7,796	5,774	7,360	8,571	16,277	2,733	4,554	6,391	7,478	9,926
		17.0	12.6	16.1	18.7	35.6	35.1	78.9	86.8	87.3	61.0
연기군	64,941	13,714	11,362	11,517	11,336	17,011	5,051	8,645	9,526	8,622	6,946
		21.1	17.5	17.7	17.5	26.2	36.8	76.1	82.7	76.1	40.8
부여군	61,169	8,695	6,551	9,630	12,169	24,124	2,735	5,203	8,472	9,834	12,451
		14.2	10.7	15.7	19.9	39.4	31.5	79.4	88.0	80.8	51.6
서천군	49,001	6,373	5,338	7,432	9,579	20,279	2,150	4,090	6,176	8,019	10,500
		13.0	10.9	15.2	19.6	41.4	33.7	76.6	83.1	83.7	51.8
청양군	26,688	3,469	2,704	3,948	5,058	11,510	1,483	2,057	3,594	4,433	7,020
		13.0	10.1	14.8	19.0	43.1	42.8	76.1	91.0	87.7	61.0
홍성군	70,174	12,804	9,690	12,379	12,551	22,749	4,405	7,225	9,954	10,169	11,762
		18.3	13.8	17.6	17.9	32.4	34.4	74.6	80.4	81.0	51.7
예산군	70,235	11,507	8,717	12,038	13,546	24,426	4,078	6,121	10,221	10,920	13,396
		16.4	12.4	17.1	19.3	34.8	35.4	70.2	84.9	80.6	54.8
태안군	53,593	9,175	6,862	8,999	10,591	17,966	3,868	5,132	7,777	9,018	13,104
		17.1	12.8	16.8	19.8	33.5	42.2	74.8	86.4	85.2	72.9
당진군	113,746	23,583	20,460	21,254	19,141	29,309	10,585	14,048	17,311	14,903	17,633
		20.7	18.0	18.7	16.8	25.8	44.9	68.7	81.5	77.9	60.2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부표 18> 시군별 연령별 취업자, 실업자 : 2010년

(단위 : 명, %)

	취업자수(고용률)					실업자수(실업률)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충남전체	121,015	204,284	246,949	207,547	201,233	11,690	5,364	6,289	3,477	1,527
	34.5	70.7	79.3	77.2	50.6	8.8	2.6	2.5	1.7	0.8
천안아산	59,226	99,521	102,605	63,818	37,358	5,474	2,508	3,132	2,060	913
	36.4	70.8	77.3	72.9	39.3	8.5	2.5	3.0	3.1	2.4
천안시	38,569	65,219	72,487	44,520	22,944	4,050	1,463	2,475	1,353	541
	34.4	69.6	76.6	74.3	38.8	9.5	2.2	3.3	3.0	2.3
아산시	20,657	34,301	30,118	19,298	14,414	1,424	1,045	657	708	372
	40.7	73.2	79.1	69.9	40.1	6.5	3.0	2.1	3.5	2.5
공주시	6,031	9,545	15,841	14,628	14,138	552	357	177	231	35
	27.6	66.4	83.7	77.5	49.3	8.4	3.6	1.1	1.6	0.3
보령시	5,422	8,798	12,141	12,446	11,972	274	248	66	103	91
	37.8	68.7	78.1	77.3	47.3	4.8	2.7	0.5	0.8	0.8
서산시	9,289	16,079	19,068	16,395	18,685	837	405	773	180	51
	35.3	68.7	77.1	82.8	62.8	8.3	2.5	3.9	1.1	0.3
논산계룡	7,957	14,912	19,651	17,490	16,726	556	201	362	276	55
	28.5	72.6	78.3	73.0	47.2	6.5	1.3	1.8	1.6	0.3
논산시	5,939	10,728	14,683	15,187	15,507	391	85	258	127	37
	29.3	74.7	80.7	77.3	49.3	6.2	0.8	1.7	0.8	0.2
계룡시	2,018	4,184	4,968	2,303	1,219	165	117	104	148	18
	26.3	67.7	72.0	53.4	30.6	7.6	2.7	2.1	6.1	1.5

(계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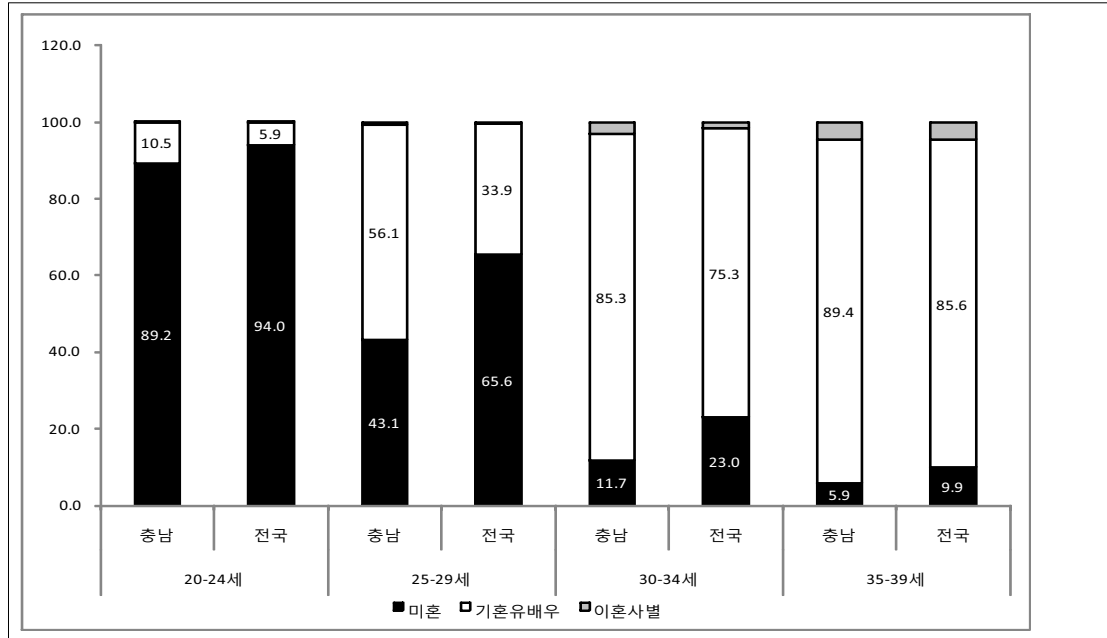
금산군	2,465	4,436	6,322	7,448	9,905	268	118	69	30	21
	31.6	76.8	85.9	86.9	60.9	9.8	2.6	1.1	0.4	0.2
연기군	4,658	8,411	9,063	8,538	6,843	393	235	463	84	103
	34.0	74.0	78.7	75.3	40.2	7.8	2.7	4.9	1.0	1.5
부여군	2,265	5,093	7,993	9,723	12,415	470	110	479	112	36
	26.1	77.7	83.0	79.9	51.5	17.2	2.1	5.7	1.1	0.3
서천군	2,027	3,983	6,075	7,948	10,419	123	107	102	71	81
	31.8	74.6	81.7	83.0	51.4	5.7	2.6	1.6	0.9	0.8
청양군	1,357	2,039	3,573	4,413	7,020	127	17	21	20	0
	39.1	75.4	90.5	87.3	61.0	8.6	0.9	0.6	0.4	0.0
홍성군	3,802	6,949	9,862	9,995	11,724	604	276	93	174	39
	29.7	71.7	79.7	79.6	51.5	13.7	3.8	0.9	1.7	0.3
예산군	3,633	5,740	10,026	10,851	13,340	445	381	195	69	56
	31.6	65.9	83.3	80.1	54.6	10.9	6.2	1.9	0.6	0.4
태안군	3,397	4,996	7,643	8,950	13,056	471	136	134	68	49
	37.0	72.8	84.9	84.5	72.7	12.2	2.7	1.7	0.8	0.4
당진군	9,487	13,782	17,088	14,903	17,633	1,098	266	223	0	0
	40.2	67.4	80.4	77.9	60.2	10.4	1.9	1.3	0.0	0.0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부표 19> 20-39세 여성의 연령대별 혼인상태 : 2010년

(단위 : 명, %)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미혼	89.2	94.0	43.1	65.6	11.7	23.0	5.9	9.9
기혼유배우	10.5	5.9	56.1	33.9	85.3	75.3	89.4	85.6
이혼사별	0.2	0.1	0.8	0.5	3.0	1.8	4.7	4.6



<부표 20> 공주·부여·연기·보령 직종별 실업비율과 구인비율

	공주				부여				연기				보령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UI(실업비율)	VI(구인비율)	UI(실업비율)	VI(구인비율)	UI(실업비율)	VI(구인비율)	UI(실업비율)	VI(구인비율)	UI(실업비율)	VI(구인비율)	UI(실업비율)	VI(구인비율)	UI(실업비율)	VI(구인비율)	UI(실업비율)	VI(구인비율)
관리직	0.013	0.395	0.012	0.031	0.017	0.024	0.136	0.149	0.010	0.010	0.015	0.032	0.012	0.023	0.017	0.035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0.124	0.033	0.198	0.212	0.064	0.058	0.149	0.149	0.052	0.048	0.194	0.211	0.120	0.073	0.199	0.227
금융, 보험관련직	0.001	0.000	0.006	0.006	0.000	0.001	0.003	0.003	0.000	0.000	0.004	0.007	0.002	0.000	0.006	0.002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0.002	0.001	0.020	0.027	0.003	0.005	0.020	0.018	0.006	0.005	0.015	0.021	0.021	0.017	0.023	0.022
법률, 경찰, 소방교도 관련직	0.001	0.000	0.001	0.00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3	0.001	0.005	0.002	0.003	0.004
보건, 의료 관련직	0.038	0.007	0.035	0.035	0.016	0.042	0.028	0.031	0.030	0.018	0.030	0.033	0.045	0.036	0.085	0.067
사회복지및 종교관련직	0.007	0.005	0.026	0.038	0.006	0.007	0.019	0.045	0.014	0.017	0.019	0.027	0.034	0.044	0.028	0.04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	0.009	0.001	0.014	0.022	0.001	0.001	0.007	0.008	0.003	0.002	0.012	0.016	0.011	0.009	0.015	0.014
운전및운송관련직	0.012	0.006	0.037	0.034	0.018	0.014	0.030	0.036	0.007	0.011	0.050	0.048	0.028	0.027	0.056	0.043
영업및판매관련직	0.074	0.398	0.032	0.018	0.046	0.014	0.016	0.013	0.013	0.006	0.021	0.012	0.031	0.035	0.026	0.017
경비및청소관련직	0.029	0.006	0.076	0.142	0.019	0.008	0.186	0.225	0.449	0.348	0.139	0.148	0.035	0.027	0.062	0.069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0.002	0.002	0.013	0.010	0.000	0.001	0.009	0.018	0.001	0.002	0.012	0.025	0.005	0.009	0.016	0.018
음식서비스관련직	0.024	0.010	0.087	0.091	0.029	0.037	0.051	0.054	0.206	0.246	0.046	0.041	0.034	0.036	0.048	0.044
건설 관련직	0.232	0.019	0.112	0.100	0.019	0.013	0.111	0.118	0.024	0.042	0.076	0.090	0.108	0.049	0.114	0.109
기계관련직	0.027	0.008	0.040	0.021	0.035	0.027	0.024	0.025	0.020	0.020	0.035	0.021	0.074	0.121	0.064	0.042
재료관련직	0.026	0.007	0.011	0.008	0.142	0.143	0.009	0.006	0.025	0.028	0.012	0.009	0.042	0.034	0.020	0.018
화학관련직	0.021	0.022	0.004	0.003	0.002	0.022	0.006	0.003	0.015	0.028	0.004	0.007	0.014	0.017	0.001	0.002
섬유및의복관련직	0.011	0.006	0.013	0.010	0.025	0.026	0.001	0.002	0.001	0.000	0.005	0.001	0.024	0.017	0.001	0.002
전기전자관련직	0.060	0.013	0.039	0.042	0.004	0.004	0.040	0.025	0.013	0.014	0.041	0.044	0.019	0.016	0.036	0.033
정보통신 관련직	0.011	0.002	0.019	0.013	0.002	0.000	0.010	0.009	0.001	0.001	0.008	0.010	0.003	0.004	0.007	0.007
식품가공 관련직	0.035	0.014	0.007	0.010	0.039	0.072	0.005	0.009	0.016	0.020	0.005	0.006	0.023	0.025	0.006	0.006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및생산순직	0.167	0.033	0.150	0.092	0.280	0.228	0.113	0.096	0.086	0.128	0.229	0.165	0.170	0.151	0.111	0.110
농림어업 관련직	0.070	0.014	0.047	0.035	0.232	0.251	0.159	0.077	0.008	0.005	0.029	0.025	0.140	0.227	0.055	0.062
군인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부표 21> 연기·농산·공주 임업비율과 구인비율

	연기				농산				공주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UI(실업비율)		VI(구인비율)		UI(실업비율)		VI(구인비율)		UI(실업비율)		VI(구인비율)	
100만원 미만	0.668	0.654	0.202	0.179	0.474	0.402	0.122	0.133	0.181	0.044	0.174	0.229
100~150만원	0.183	0.185	0.414	0.415	0.354	0.391	0.508	0.423	0.433	0.096	0.447	0.378
150~200만원	0.065	0.106	0.211	0.232	0.138	0.158	0.225	0.255	0.320	0.837	0.214	0.214
200~250만원	0.012	0.029	0.085	0.089	0.021	0.038	0.077	0.102	0.034	0.015	0.072	0.080
250만원 이상	0.072	0.026	0.088	0.086	0.013	0.011	0.069	0.087	0.031	0.007	0.093	0.098

<부표 22> 계통·당진·연기 학력별 실업비율과 구인비율- 학력구간 조정 후

	계통				당진				연기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UI(실업비율)		VI(구인비율)		UI(실업비율)		VI(구인비율)		UI(실업비율)		VI(구인비율)	
학력무관	0.848	0.849	0.545	0.562	0.941	0.939	0.675	0.684	0.973	0.968	0.761	0.741
전문대졸	0.119	0.072	0.148	0.145	0.044	0.052	0.177	0.184	0.023	0.022	0.115	0.109
대졸	0.032	0.024	0.278	0.264	0.015	0.009	0.145	0.125	0.004	0.010	0.116	0.143
대학원졸 이상	0.000	0.055	0.029	0.028	0.000	0.000	0.003	0.007	0.001	0.000	0.007	0.007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연구위원

공동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이상호 책임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최효미 책임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윤미례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전략연구 2011-11 · 고용정책 개선을 위한 지역노동시장 분석 연구

글쓴이 · 신동호 · 이상호 · 최효미 · 윤미례 외 / 발행자 · 박진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1년 12월 31일 / 발행 · 2011년 12월 31일

주소 · 충남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161(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183-0 93350

<http://www.cdi.re.kr>

©2011.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